

GOVP1201835211
R 650 951 L299L

2017 농어업인복지실태 조사 보고서

Survey on the Rural Well - being
기초생활여건 | 환경 · 경관 | 안전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요약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 8. 28.)

☛ 조사 연혁

- 2004. 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 8~11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 2008. 3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2008. 10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 3 :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 9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 2014. 9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5. 9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6. 8 : 통계승인번호 변경 제11437호('04. 8. 31.) → 제114037호('16. 8. 28.)
- 2016. 9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7. 9 :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7년 조사체계

[표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가구
	표본규모	전국 농어촌 지역 3,995가구(응답률 99.6%)
	표본추출방식	다단층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조사기간 : 2017년 9월 1일~9월 30일(1개월)

※ 2017년 조사내용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3개 부문, 65개 항목

[표2]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 사 항 목
기초생활 여건	주택 건축·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주택 수리 여부, 주택의 방 개수·면적, 주택의 설비 현황, 난방 사용 기간 및 난방비, 주택에 대한 만족도, 경로당 이용 현황, 주요 이용 교통수단, 정보화 기기 보유, 인터넷 이용 현황,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등
환경·경관	상수도 종류, 하수도 종류,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경관 인식, 경관 저해요인,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인식 등
안전	CCTV 운영 실태, 필요 도로 보수·개선, 화재 취약 요소,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재난·재해 예보 받는 경로 및 도움정도,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 안전 체감도, 지역사회 안전 인식 등
일·생활 상황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여부, 농어가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 등
생활 전반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이주 실태, 이주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농촌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등

> 2 주요 조사 결과¹⁾

가구원 및 생활 전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가 56.8%, '여성'이 60.0%, [60대 이상] 연령층이 34.9%, [고등학교 이상]이 59.1%, '농어업 종사자'가 29.7%



1) 확인/검증을 위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농어가가 33.5%,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 '2세대 가구'가 45.4%

☞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0.7%로 나타났으며, 면지역, 농어가에서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음



☞ 장애 가구원 유무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1%로,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음



- '가구주' 본인이 58.0%, 주된 장애종류는 '지체장애'(54.0%), 장애 급수는 '3급'(21.6%) 비율이 높음

결혼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3.9%, 결혼 이민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배우자'가 90.6%이었으며, 주요 출신국가는 '베트남'(67.6%) 비율이 높음

단위: %명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기타
합계 (155)		10.2	7.1	67.6	1.6	3.9	2.3	0.3	0.3	6.6
읍/면	읍 (58)	17.4	19.0	45.1	0.8			0.9		16.8
	면 (97)	6.0		81.1	2.1	6.2	3.6		0.4	0.6
영농 여부	농어가 (73)	1.1		90.7	3.4		4.8			
	비농어가 (82)	18.4	13.5	47.0		7.4		0.6	0.5	12.5

이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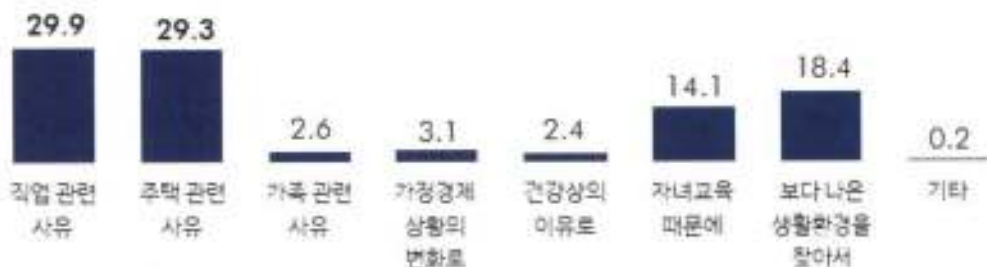
- '이주했다'(54.4%),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3%) 등 [이주민]이 58.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1.3%) 보다 많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2%),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21.0%)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 온 층이 74.2%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4%), '중소도시(동)'(8.4%) 등 도시에서 이주해 온 층(25.8%) 보다 많음



향후 이주의향

- 이주 의향층(7.8%)의 이주 희망 이유는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9.9%),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9.3%)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18.4%), '자녀교육 때문에'(14.1%),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3.1%),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2.6%), '건강상의 이유로'(2.4%) 순

단위: %



농어촌생활 만족도

- 농어촌생활 만족도는 평균 54.8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생활 영역별로는 '안전'(평균 65.5점), '환경·경관'(평균 63.6점), '기초생활기반'(평균 51.3점), '사회 안전망 및 복지서비스'(평균 49.9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6.8점), '보건·의료'(평균 45.8점), '교육여건'(평균 43.6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42.2점) 순

단위: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기초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여건	교육 여건	보건 의료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총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3,995)	54.8	58.3	51.3	51.3	46.8	43.6	45.8	49.9	42.2	63.6	65.5
읍/면	읍	(1,711)	54.6	56.9	52.3	53.7	49.0	46.3	47.6	49.9	42.6	62.2	64.4
	면	(2,284)	55.0	59.4	50.5	49.5	45.1	41.6	44.4	49.8	41.8	64.6	66.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4	60.0	50.9	51.0	45.2	40.6	45.0	49.4	42.2	64.8	67.1
	비농어가	(2,655)	54.5	57.5	51.5	51.5	47.5	45.1	46.1	50.1	42.2	63.0	64.7

* 총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8.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4)

☞ 사회안전망 구축제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기초연금'(89.4%)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26.7%,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25.9%,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24.5%의 인지도를 보임
- '기초연금' 경험률이 34.0%로 가장 높고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는 평균 61.0점임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3,995)		25.9	26.7	24.5	89.4
읍/면	읍 (1,711)	16.3	16.5	13.9	83.5
	면 (2,284)	33.1	34.3	32.4	93.8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3.3	45.7	43.6	95.8
	비농어가 (2,655)	17.1	17.1	14.9	86.2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감은 평균 61.6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38.0%), '가족'(34.3%)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21.8%), '일/직업'(3.3%), '문화 및 여가활동'(0.9%), '대인관계'(0.6%), '지역생활환경'(0.5%) 순

단위: %



기초생활여건

주택의 건축년도

- '1990년대'(36.0%), '2000년대'(26.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3.2%), '1950년대 이전'(6.8%), '1970년대'(6.3%), '1960년대'(3.8%)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30.2%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함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6.0년

단위: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972)		26.0년	6.8	3.8	6.3	13.2	36.0	26.9	6.9
읍/면	읍 (1,696)	22.3년	4.3	1.6	3.3	8.8	41.8	35.0	5.2
	면 (2,276)	28.7년	8.7	5.4	8.6	16.5	31.7	20.9	8.2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30.3년	11.0	5.7	10.2	14.5	32.5	17.9	8.3
	비농어가 (2,635)	23.8년	4.7	2.9	4.4	12.5	37.8	31.5	6.2

주택의 종류

-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9.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29.1%), '연립/다세대 주택'(8.5%) 순

단위: %



주택의 점유형태

-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10.9%), '보증부 월세'(4.6%), '무상'(4.1%), '월세(사글세)'(2.2%) 순

☛ 주택 설비 현황

- 부엌, 화장실(각 99.8%), 목욕시설(99.4%) 모두 '단독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화장실의 경우 평균 1.4개가 있음
- 시설 종류로 부엌의 경우 '입식'(99.7%), 화장실의 경우 '수세식'(98.3%),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99.3%)가 대부분임

단위: %/명

구분		부엌 사용형태			부엌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입식	재래식
합계		(3,995)	99.8	0.0	(3,965)	99.7	0.3
읍/면	읍	(1,711)	99.8		(1,703)	99.9	0.1
	면	(2,284)	99.8	0.0	(2,262)	99.6	0.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9	0.0	(1,333)	99.8	0.2
	비농어가	(2,655)	99.8	0.0	(2,632)	99.7	0.3

구분		화장실 사용형태			화장실 종류			화장실 개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수세식	재래식	평균	수세식	재래식
합계		(3,995)	99.8	0.2	(3,988)	98.3	1.1	1.4개	1.3개	0.1개
읍/면	읍	(1,711)	99.6	0.3	(1,710)	99.0	1.7	1.4개	1.3개	0.0개
	면	(2,284)	99.9	0.1	(2,278)	97.9	0.9	1.3개	1.2개	0.1개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7	0.3	(1,339)	97.0	1.5	1.4개	1.2개	0.2개
	비농어가	(2,655)	99.8	0.1	(2,649)	99.0		1.3개	1.3개	0.0개

구분		목욕시설 사용형태			목욕시설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온수	비온수
합계		(3,995)	99.4	0.1	(3,961)	99.3	0.7
읍/면	읍	(1,711)	99.5	0.1	(1,705)	99.3	0.7
	면	(2,284)	99.3	0.0	(2,256)	99.2	0.8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2	0.0	(1,327)	99.2	0.8
	비농어가	(2,655)	99.6	0.1	(2,634)	99.3	0.7

☛ 난방환경 개선 방안

- 농어촌의 난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43.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후화된 난방시설 개/보수'(35.6%), '주택 벽체 단열 시공'(18.2%), '겨울철 공동시설 이용'(1.8%) 순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주택 면적’(평균 58.6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주택 구조’(평균 57.0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주택 설비’(평균 55.7점), 내열, 내화, 방열, 방습 등 ‘주택 성능’(평균 49.6점) 순으로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55.2점)의 평가



경로당 이용 현황

- ‘주 5회 이상’(25.3%), ‘주 3~4회’(15.6%), ‘주 1~2회’(14.2%)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층이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경로당 이용 목적으로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72.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22.1%) 비율도 높음

단위: %

구분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	농업, 복지 정보 등 공유	건강/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합계	(865)	72.6	22.1	0.9	4.4
읍/면	읍	75.8	15.0	1.2	8.0
	면	71.7	24.0	0.8	3.5
영농	농어가	75.8	18.9	1.1	4.2
여부	비농어가	66.8	27.8	0.6	4.8

주요 이용 교통수단

- 시장, 병원, 복지관 등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56.0%)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버스'(30.4%), '걸어서'(7.0%), '택시'(3.5%), '오토바이'(1.2%), '복지관 차량', '자전거'(각 0.5%) 순

단위: %명

구분		걸어서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승용차	택시	복지관 차량	기타
합계 (3,986)		7.0	0.5	1.2	30.4	56.0	3.5	0.5	0.8
읍/면	읍 (1,707)	12.6	0.6	0.4	23.4	59.9	2.7	0.2	0.3
	면 (2,279)	2.9	0.4	1.7	35.7	53.1	4.1	0.8	1.2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3.6	0.8	2.4	34.6	54.6	2.7	0.2	1.2
	비농어가 (2,647)	8.8	0.3	0.5	28.3	56.8	3.9	0.7	0.6

정보화기기 보유현황(중복응답: 정보화 기기별 각 100.0%)

-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로서 '스마트폰'(72.9%) 보유율이 가장 높음. 농촌 가구 중 절반가량이 'PC'(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태드' 보유율은 7.3%, 정보화기기 중 어느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24.1%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 '정보통신 여건'에 대해 59.2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51.5점)의 평가를 보임

단위: %



환경·경관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거주하고 있는 곳의 상수도 종류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79.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4.1%),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6.8%) 순

단위: %명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 (지하수, 우물)	없음	
합계		(3,983)	79.1	14.1	6.8	0.0
읍/면	읍	(1,705)	88.5	6.4	5.1	
	면	(2,278)	72.1	19.8	8.0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62.2	24.2	13.4	0.1
	비농어가	(2,645)	87.6	8.9	3.4	

- '공공하수처리시설'(86.0%) 비율이 '개인하수처리시설'(13.1%)에 비해 높았으며,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0.9%

단위: %



쓰레기 처리 방법

- 생활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85.4%), '소각'(13.8%),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65.6%), '매립'(5.9%), '퇴비', '사료' 등 '기타'(28.3%), 재활용품의 경우 '분리배출'(99.3%), 폐영농자재(농어가)의 경우 '분리배출'(96.3%), '소각'(1.3%) 비율이 높아 대체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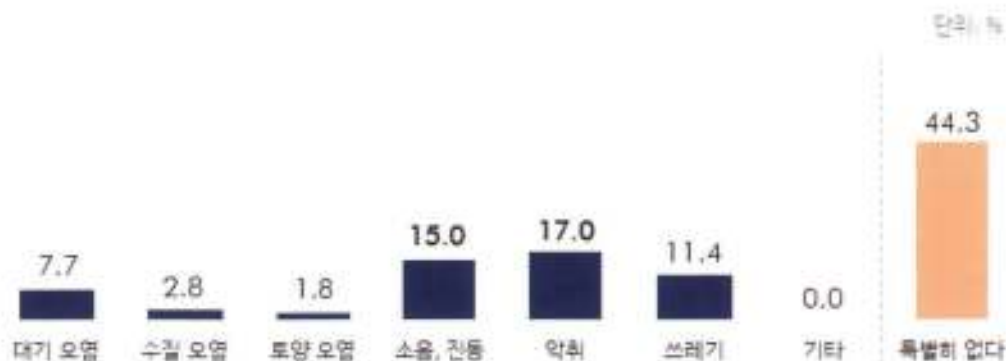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사례수	분리배출	매립	기타
합계		(3,990)	85.4	13.8	(3,990)	65.6	5.9	28.3
읍/면	읍	(1,708)	96.9	2.6	(1,707)	85.6	0.8	13.6
	면	(2,283)	76.8	22.1	(2,283)	50.6	9.7	39.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73.0	26.4	(1,340)	32.0	7.3	60.7
	비농어가	(2,651)	91.7	7.4	(2,650)	82.6	5.2	12.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56)	75.9	23.1	(2,356)	42.9	10.0	46.9
	아파트	(1,158)	99.4		(1,157)	99.7		0.3
	연립/다세대/기타	(477)	98.1	0.8	(477)	95.1	0.2	4.8

구분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농어가)				
		사례수	분리배출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기타	
합계		(3,989)		99.3	(1,316)	96.3	1.3	2.1
읍/면	읍	(1,706)		99.3	(298)	96.2	1.2	2.6
	면	(2,283)		99.2	(1,017)	96.3	1.3	1.9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99.1	(1,316)	96.3	1.3	2.1
	비농어가	(2,650)		99.4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56)		98.9	(1,230)	97.2	1.2	1.2
	아파트	(1,156)		100.0	(36)	81.6	6.5	11.9
	연립/다세대/기타	(477)		99.2	(50)	84.0		16.0

☞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 ‘악취’(17.0%), ‘소음, 진동’(15.0%)이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쓰레기’(11.4%), ‘대기 오염’(7.7%), ‘수질 오염’(2.8%), ‘토양 오염’(1.8%) 순. 한편, ‘특별히 없다’는 44.3%



경관 저해 요인

-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26.4%), '빈집·빈터'(2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버려진 폐영농자재'(17.4%) 비율도 높음
- 다음으로 '공장'(8.1%), '불법 현수막, 스티커'(5.8%), '송전탑, 전신주, 전선'(4.7%), '아파트, 고층 구조물'(3.8%), '인공 구조물(교량, 옹벽, 고가도로)', '육외 광고물(간판)'(각 2.2%), '무덤'(2.0%), '태양광 발전시설'(0.8%) 순

단위: %명

구분			빈집·빈터	버려진 생활쓰레기	버려진 폐영농자재	아파트, 고층 구조물	인공 구조물	송전탑, 전신주, 전선	태양광 발전 시설	불법 현수막, 스티커	육외 광고물 (간판)	공장	무덤	기타
읍/면	합계	(3,858)	25.6	26.4	17.4	3.8	2.2	4.7	0.8	5.8	2.2	8.1	2.0	0.9
	읍	(1,606)	20.4	23.1	14.3	6.7	2.1	5.1	0.9	9.7	3.6	11.1	2.4	0.5
	면	(2,252)	29.2	28.6	19.5	1.8	2.2	4.5	0.8	3.1	1.3	6.1	1.8	1.1
영농 여부	농어가	(1,319)	29.9	25.9	21.5	2.1	2.1	5.2	0.7	3.3	1.0	5.9	1.8	0.6
	비농어가	(2,539)	23.3	26.6	15.2	4.7	2.2	4.5	0.9	7.1	2.9	9.3	2.2	1.0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6.7%)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17.6%), '전원생활 공간 제공'(14.0%),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3.5%), '식량의 안정적 공급'(12.8%), '관광/휴양 공간 제공'(5.4%) 순

단위: %



안전

☞ CCTV 운영 실태(중복응답 : 설치 장소별 각 100.0%)

- 농촌지역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이 72.8%, 설치된 마을의 설치 장소로 '마을 출입구'(74.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요 도로 주변'(36.6%),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34.6%), '학교 주변'(20.5%), '버스 정류장 주변'(10.4%), '골목길'(9.0%), '경작지 주변'(0.9%) 순



- CCTV 도움 이유로 '범죄 예방'(86.6%)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농산물 절도 예방'(6.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4.8%), '불법 주정차 단속'(1.5%), '재난 대비'(0.1%) 순

☞ 화재 취약 요소

- 농어촌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요소로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45.6%),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불태우기'(38.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10.0%), '비닐하우스, 축사'(6.4%) 순

단위: %/명

구분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	비닐하우스, 축사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불태우기	기타
합계 (3,719)		45.6	10.0	6.4	38.0	0.1
읍/면	읍 (1,477)	48.1	9.2	8.1	34.5	0.0
	면 (2,242)	43.9	10.5	5.2	40.4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28)	46.1	10.0	6.5	37.3	0.1
	비농어가 (2,391)	45.3	10.0	6.3	38.4	0.0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 농어촌의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주택의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44.7%)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23.6%), '마을 내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13.3%), '화재예방교육 실시'(12.3%),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6.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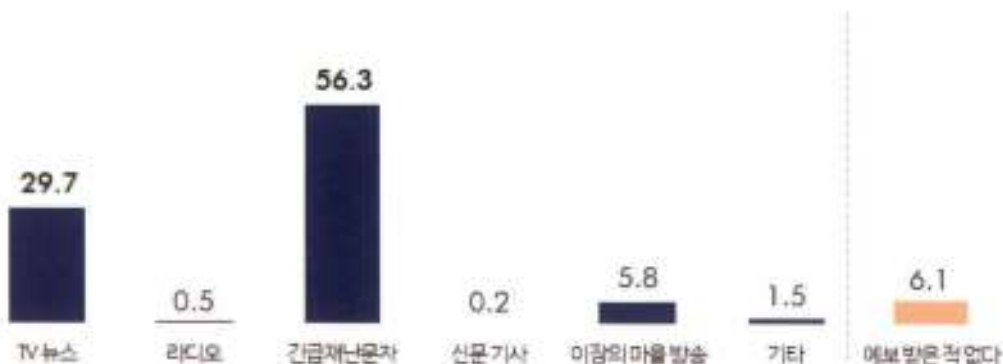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노후 주택의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화재 예방교육 실시	마을 내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기타
합계 (3,947)			44.7	23.6	12.3	13.3	6.0	0.1
읍/면	읍 (1,681)		38.9	25.7	16.6	12.2	6.5	0.0
	면 (2,265)		49.0	22.1	9.2	14.1	5.6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2)		47.2	21.2	12.6	12.6	6.4	0.1
	비농어가 (2,614)		43.4	24.9	12.2	13.7	5.8	0.1

재난·재해 예보 실태

- 재난·재해 예보를 받는 주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56.3%), 'TV 뉴스'(29.7%)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강의 마을 방송'(5.8%), '라디오'(0.5%), '신문기사'(0.2%) 순

단위: %



- 재난·재해 예보가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다'(54.2%), '매우 도움이 된다'(16.1%) 등 [도움 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70.3%로 [도움되지 않는 편](4.2%)에 비해 높음

☞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CCTV 설치 확대'(23.6%)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6.4%), '도로 안전시설 확충'(13.6%), '가로등 확충'(13.4%), '빈 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10.0%),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9.1%), '경찰 순찰 확대'(8.5%),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3.1%), '주민 방범·순찰 봉사활동 확대'(2.1%)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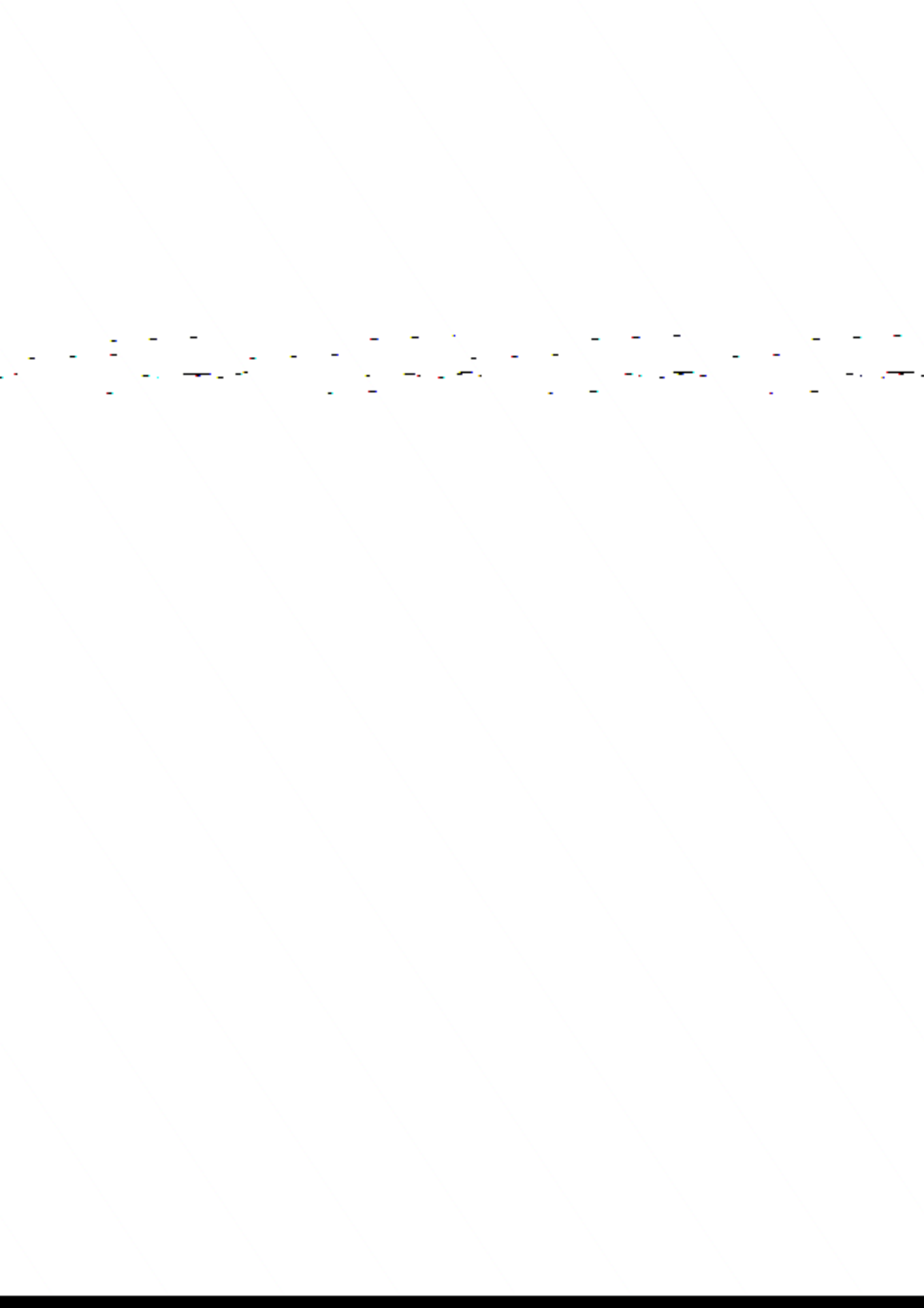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 마을 안전 체감도

-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59.8%),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55.7%)에 대해 [안전한 편]이라는 인식이 50%이상인 반면,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43.2%)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합계		(3,982)	55.7	36.1	8.2	(3,982)	43.2	42.7	14.1	(3,973)	59.8	35.4	4.8
읍/면	읍	(1,700)	48.5	43.4	8.1	(1,700)	35.1	51.2	13.7	(1,697)	54.2	41.9	3.9
	면	(2,282)	61.1	30.7	8.2	(2,282)	49.3	36.3	14.4	(2,277)	64.0	30.6	5.4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6.7	27.1	6.2	(1,338)	55.3	33.6	11.1	(1,338)	68.0	27.7	4.2
	비농어가	(2,643)	50.2	40.7	9.2	(2,643)	37.1	47.3	15.6	(2,636)	55.7	39.3	5.0





농촌진흥청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고서

목차
전체 목차

Ⅱ 조사연구 개요	47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원 및 생활 전반	65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6
1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68
1103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69
1104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70
1105 결혼이민자 유무	74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76
1107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77
1108 이주 실태	80
1109 5년 이내 이주 의사	85
1110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91

1111 가족생활 중요도 및 만족도	96
1112 지역사회 및 공동체활동 중요도 및 만족도	97
1113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98
111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99
1115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4
1200. 기초생활여건	107
1201 주택 건축·신축년도	108
1202 주택의 종류 및 지붕의 주된 재료	110
1203 주택 점유형태	113
1204 주택수리 현황	115
1205 주택 면적 및 방 개수	117
1206 주택 설비 현황	119
1207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122
1208 난방환경 개선 방안	125
1209 주택에 대한 만족도	126
1210 경로당 이용현황	127
1211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130
1212 주요 이용 교통수단	131
1213 수요 대응형 교통(DRT)에 대한 인식	132
1214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	134

1215 인터넷 이용 경험	135
1216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139
1300. 환경·경관	141
1301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142
1302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145
1303 쓰레기 처리 방법	148
1304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150
1305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151
1306 경관 인식	152
1307 경관 저해요인	153
1308 농어촌 경관 유자·보전 방안	154
1309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55
1400. 안전	157
1401 CCTV 운영 실태	158
1402 마을 순찰 횟수	162
1403 필요 도로 보수·개선	163
1404 화재 취약 요소	165
1405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166
1406 재난·재해 예보 실태	167

1407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0
1408 마을 안전 체감도	172
1409 지역사회 안전 인식	173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부문	179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80
2102 만성질환 현황	181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2
2104 건강검진 수진율	183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84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6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7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로서비스 이용 경험	188
2109 농작업 손상	189
2110 병상 수	191
2111 보건의료기관 수	193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195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6

2200. 복지 부문	198
2201 독거노인 현황	199
2202 장수인구 비율	200
2203 치매노인 비율	201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1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02
2206 노인일자리 참여	203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04
2208 영유아 비율	205
2209 유치원 취원율	206
2210 보육시설 현황	207
2211 조손가구 비율	211
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2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13
 2300. 교육 부문	 216
2301 학생 수	217
2302 학교 수	218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19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0
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1

2306	복식학교 비율	222
2307	교원 수	223
2308	연령별 교원 수	224
2309	사무직원 수	225
2310	사서교사 배치율	226
2311	보건교사 배치율	227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28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29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0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1
2316	통학수단	232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33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34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37
2320	학업중단 비율	238
2321	대학(고) 진학률	239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0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1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43
2325	도서관 현황	244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45

2400. 문화·여가 부문	247
2401 주요 여가활동	248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0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1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3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54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256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257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258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259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0
2505 상수도 보급률	261
2506 하수도 보급률	262
2507 도로 포장률	263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65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66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67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68
2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271

2600. 지역역량 부문	274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75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76
2700. 경제활동 부문	277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78
2702 부채 규모	280
2703 소득 만족도	281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2
2705 노후준비	283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85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86
Ⅱ 부록	287
(1) 전국 표본리스트	289
(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301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308
(4) 주요 용어정리	324
(5)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31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 110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66
표 110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67
표 1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68
표 1104 - (1) 가구주와의 관계	71
표 1104 - (2)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72
표 1104 - (3)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72
표 1104 - (4) 장애등급	73
표 1105 - (1) 결혼이민자 유무	74
표 1105 - (2) 출신국가	75
표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76
표 1107 - (1) 월 평균 생활비	77
표 1107 - (2) 저축 여부 및 월 평균 저축액	78

표 1108 - (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0
표 1108 - (2)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81
표 1108 - (3)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82
표 1108 - (4)	이주 직전 주택 위치	83
표 1109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85
표 1109 - (2)	이주 희망 지역	87
표 1109 - (3)	이주 희망 이유	89
표 1109 - (4)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90
표 1110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91
표 1110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3
표 1110 - (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94
표 1111	가족생활 중요도 및 만족도	96
표 1112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중요도 및 만족도	97
표 1113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98
표 1114 - (1)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99
표 1114 - (2)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100
표 1114 - (3)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100
표 1114 - (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 추이	101
표 1114 - (5)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 추이	101
표 1114 - (6)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 추이	101

표 1114 - (7)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	102
표 1115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4
표 1115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5
표 1115 - (3)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106
표 1201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108
표 1202 - (1) 주택의 종류	110
표 1202 - (2) 지붕의 주된 재료	112
표 1203 - (1) 주택의 점유형태	113
표 1203 - (2) 주택의 점유형태 - 추이	114
표 1204 - (1) 주택수리 여부	115
표 1204 - (2) 주택수리 종류	116
표 1205 - (1) 주택 평균 면적	117
표 1205 - (2) 방 개수	118
표 1206 - (1) 부엌·화장실·목욕시설 현황	119
표 1206 - (2) 난방시설 유형	120
표 1206 - (3) 부엌·화장실·목욕시설 현황 - 추이	121
표 1206 - (4) 난방 시설 유형 - 추이	121
표 1207 - (1) 난방 사용기간	122
표 1207 - (2) 난방비	123
표 1208 난방환경 개선 방안	125

표 1209 주택에 대한 만족도	126
표 1210 - (1) 경로당 이용 현황	127
표 1210 - (2) 경로당 이용 시간	128
표 1210 - (3) 경로당 이용 목적	129
표 1211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130
표 1212 주요 이용 교통수단	131
표 1213 - (1)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	132
표 1213 - (2) 수요 대응형 택시 인지여부·연간 이용 횟수·이용 목적	133
표 1213 - (3) 수요 대응형 버스 인지여부·연간 이용 횟수·이용 목적	133
표 1214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	134
표 1215 - (1) 사용하는 인터넷 종류	135
표 1215 - (2) 인터넷 이용 목적	136
표 1215 - (3) 인터넷 이용 불편한 점	137
표 1215 - (4) 인터넷 미이용 이유	138
표 1216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139
표 1301 - (1) 상수도 종류	142
표 1301 - (2) 하수도 종류	143
표 1302 - (1) 환경 채감도	145
표 1302 - (2) 오염 주된 원인(1) - 대기 오염	146
표 1302 - (3) 오염 주된 원인(2) - 수질 오염	146

표 1302 - (4) 오염 주된 원인(3) - 토양 오염	147
표 1302 - (5) 오염 주된 원인(4) - 소음, 진동	147
표 1302 - (6) 오염 주된 원인(5) - 악취	147
표 1303 - (1) 쓰레기 처리 방법	148
표 1303 - (2)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149
표 1304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150
표 1305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151
표 1306 경관 인식	152
표 1307 경관 저해요인	153
표 1308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154
표 1309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55
표 1401 - (1) CCTV 설치 장소	159
표 1401 - (2) CCTV 도움 이유	160
표 1401 - (3) CCTV 필요 설치 장소	161
표 1402 마을 순찰 횟수	162
표 1403 필요 도로 보수·개선	164
표 1404 화재 취약 요소	165
표 1405 소방 서비스 향상 방안	166
표 1406 - (1) 재난·재해 예보 받는 경로	168
표 1406 - (2) 재난·재해 예보 도움 정도	169

표 1407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0
표 1408 마을 안전 체감도	172
표 1409 - (1) 지역사회 안전 인식(1) - 물리적 무질서	173
표 1409 - (2) 지역사회 안전 인식(2) - 사고 위험·보행의 불편성	174
표 1409 - (3) 지역사회 안전 인식(3) - 사회적 무질서·불안	175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80
표2102 만성질환 현황	181
표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2
표2104 건강검진 수진율	183
표2105 - (1) 월평균 보건의료비	184
표2105 - (2) 월평균 보건의료비	185
표2106 연간 미치로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6
표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7
표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88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189
표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190
표2110 - (1) 병상 수	191

표2110 - (2) 병상 수	192
표2111 - (1) 보건의료기관 수	193
표2111 - (2) 보건의료기관 수	194
표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195
표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6
표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97
표2201 독거노인 현황	199
표2202 장수인구 비율	200
표2203 치매노인 비율	201
표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1
표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02
표2206 노인일자리 참여	203
표2207 - (1)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04
표2207 - (2)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204
표2208 영유아 비율	205
표2209 유치원 취원율	206
표2210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07
표2210 - (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08
표2210 - (3)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209
표2210 - (4)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210

표2211 조손가정	211
표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2
표2213 - (1) 결혼이민자 현황	213
표2213 - (2)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214
표2213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214
표2213 - (4)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215
표2213 - (5)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어려운 점	215
표2213 - (6)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215
표2301 학생 수	217
표2302 학교 수	218
표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19
표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0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1
표2306 복식학교 비율	222
표2307 교원 수	223
표2308 연령별 교원 수	224
표2309 사무직원 수	225
표2310 사서교사 배치율	226
표2311 보건교사 배치율	227
표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28
표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29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0
표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1
표2316	통학수단	232
표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33
표2318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34
표2318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35
표2318 - (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236
표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37
표2320	학업중단 비율	238
표2321	대학(고) 진학률	239
표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0
표2323 - (1)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1
표2323 - (2)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2
표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43
표2325	도서관 현황	244
표2326 - (1)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45
표2326 - (2)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46
표2401 - (1)	주요 여가활동	248
표2401 - (2)	주요 여가활동	248
표2401 - (3)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	249
표2401 - (2)	주말(휴일 포함)의 주요 여가활동	249

표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0
표2403 - (1)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1
표2403 - (2)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2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3
표2405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254
표2405 - (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255
표2501 - (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257
표2501 - (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257
표2501 - (3)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257
표2502 - (1) 주거형태	258
표2502 - (2) 점유형태	258
표2503 - (1) 주거시설	259
표2503 - (2) 난방형태	259
표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0
표2505 상수도 보급률	261
표2506 하수도 보급률	262
표2507 - (1) 도로 포장률	263
표2507 - (2) 도로 포장률	264
표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65
표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66
표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67

표2511 -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268
표2511 -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269
표2511 -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269
표2511 - (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270
표2511 - (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270
표2512 - (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271
표2512 - (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272
표2512 - (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272
표2512 - (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273
표2512 - (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273
표2601 사회단체 참여율	275
표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76
표2701 - (1) 소득 및 가계지출	278
표2701 - (2) 소득 및 가계지출	279
표2702 부채 규모	280
표2703 소득 만족도	281
표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2
표2705 - (1)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283
표2705 - (2)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284
표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85
표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86

그림 1103 - (1)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69
그림 1103 - (2)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추이	69
그림 1104 - (1) 장애 가구원 유무	70
그림 1104 - (2)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70
그림 1104 - (3)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71
그림 1104 - (4) 장애등급 - 추이	73
그림 1105 - (1) 결혼이민자 유무	74
그림 1105 - (2) 출신국가	75
그림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추이	76
그림 1107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79
그림 1108 - (1) 이주 후 거주기간	82
그림 1108 - (2)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84
그림 1109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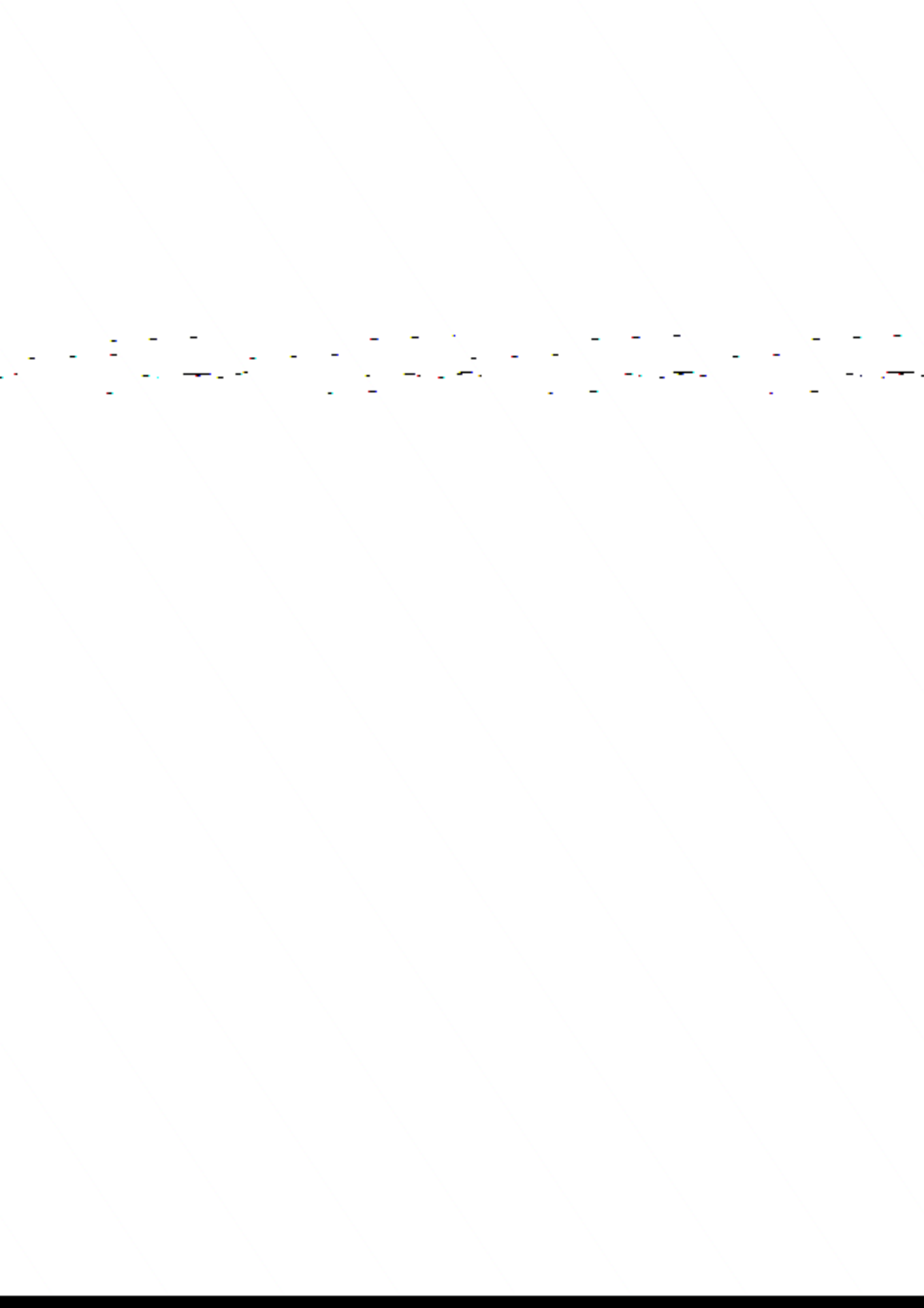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그림 1109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88
그림 1110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2
그림 111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03
그림 1115 - (1) 행복의 영향 요인	105
그림 1115 - (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106
그림 1201 주택의 건축 신축년도 - 추이	109
그림 1202 - (1) 주택의 종류	110
그림 1202 - (2) 주택의 종류 - 추이	111
그림 1203 주택의 점유형태	113
그림 1207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추이	124
그림 1208 난방환경 개선 방안	125
그림 1210 - (1) 경로당 이용 현황	127
그림 1210 - (2) 경로당 이용 시간	128
그림 1210 - (3) 경로당 이용 목적	129
그림 1211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130
그림 1214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	134
그림 1215 인터넷 이용 불편한 점	137
그림 1216 - (1)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139
그림 1216 - (2)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 추이	140
그림 1301 - (1) 하수도 종류	143

그림 1301 - (2) 상수도 종류 - 추이	144
그림 1301 - (3) 하수도 종류 - 추이	144
그림 1309 - (1)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55
그림 1309 - (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156
그림 1401 CCTV 설치 장소	158
그림 1402 마을 순찰 횟수	162
그림 1403 필요 도로 보수·개선	163
그림 1404 화재 취약 요소	165
그림 1406 재난·재해 예보 받는 경로	167
그림 1407 - (1)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0
그림 1407 - (2)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171

조사연구 개요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 8. 28.)

3.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4. 9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5. 9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 8. 28.)
2016. 9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7. 9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4. 표본설계

[1]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전국	3,308,353	8,627,388
인천	27,638	70,924
경기	652,076	1,916,731
강원	211,437	548,161
충북	220,551	565,190
충남	461,581	1,209,093
부산	33,772	93,106
울산	64,276	185,811
대구	55,985	167,225
경북	489,928	1,191,614
경남	436,017	1,112,808
전북	209,872	502,091
전남	395,200	931,327
제주	50,020	133,307

[2]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조사구(아파트는 단지)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3]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4]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 1~3개로 층화

[5]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층화추출에서 흔히 고려되는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나 큰 규모의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표본할당을 제공하지만 소규모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표본을 할당시킴

$$n_h^{Neyman} = n \frac{N_h S_{yh}}{\sum_{h=1}^H N_h S_{yh}} \quad \text{여기서 } N_h \text{는 층크기이고 } S_{yh} \text{는 조사변수 } y \text{의 층분산}$$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Bankier(1988)2)가 제시한 “역배분(power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음. 역배분은 주어진 표본크기 n 을 H 개의 부모집단 (층)에 할당할 때, 층별 특성치 y 의 상대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 CV) cv_{yh} 와 크기측도(measure of size) 혹은 중요도 t_{xh} 의 α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

$$n_h^{power} = \frac{(t_{xh})^\alpha cv_{yh}}{\sum_{h=1}^H (t_{xh})^\alpha cv_{yh}}$$

네이만배분은 $\alpha = 1$ 과 $t_{xh} = t_{yh}$ 을 갖는 역배분의 특수형태이고, 층별 상대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N_h$ 이라면 역배분은 층크기 기준의 절충배분의 특수형태임

기존 조사들은 주요 분석 특성들을 달리하며 하나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상대표준오차를 cv_{yh} 의 조화평균을 고려

$$cv_{yh} = \left(\frac{1}{Q} \sum_{q=1}^Q cv_{qh}^{-1} \right)^{-1}$$

2)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s: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s.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pp.174~177.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소계	910	3,100	4,010
경기	230	250	480
강원	60	280	340
충북	110	290	400
충남	100	340	440
전북	10	390	400
전남	80	600	680
경북	140	360	500
경남	180	320	500
제주	0	270	270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인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3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6.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96개 읍/면의 401개 마을에 거주하는 4,010가구
 - 전체 4,01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1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3,995가구(응답률 99.6%) 조사 완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9월 30일(1개월)

7.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기초생활여건, 환경 경관, 안전 등 3개 부문, 45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평가적 신념(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또는 10점 척도)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여부, 농어가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 등
생활전반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액, 이주 실태, 이주 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농촌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행복의 영향 요인 등
기초생활 여건	주택 건축 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지붕의 주된 재료*, 주택 수리 여부, 주택의 방 개수 연적, 주택의 설비 현황, 난방 사용 기간 및 난방비, 난방환경 개선 방안, 주택에 대한 만족도, 경로당 이용 현황*,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주요 이용 교통수단*,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 인지 여부 연간 이용 횟수 이용 목적*, 정보화 기기 보유*, 인터넷 이용 현황*,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등

3)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 "경제활동" 부문(2014년에서 "생활전반" 부문(2016년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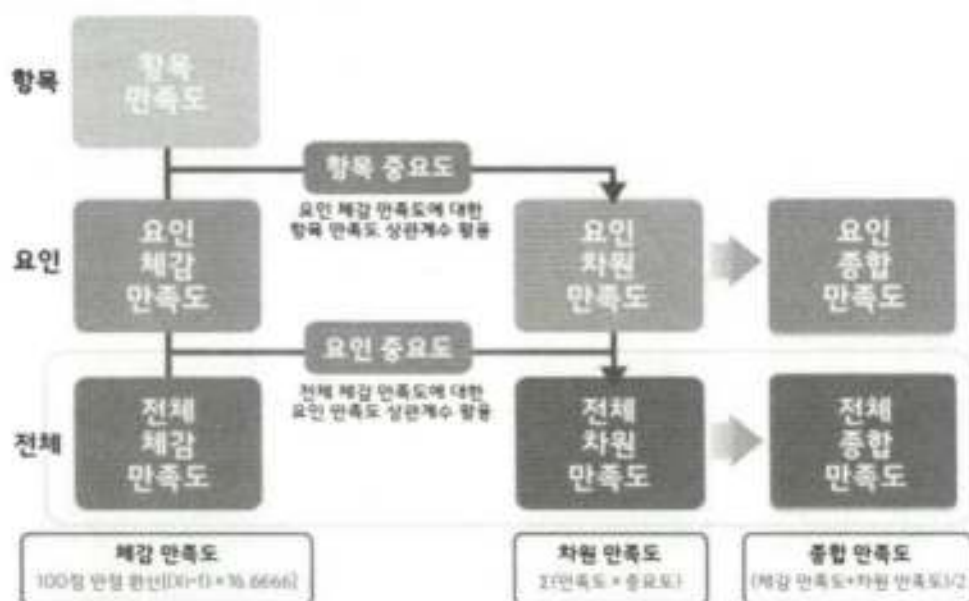
4) 주택 건축 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 "기초생활 여건" 부문(2013년) → "생활전반" 부문(2014년~2016년) → "기초생활 여건" 부문(2017년)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환경·경관	상수도 종류, 하수도 종류,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경관 인식*, 경관 저해요인*,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농어촌 농어촌의 가치인식 등
안전	CCTV 운영 실태*, 마을 순찰 횟수*, 필요 도로 보수 개선*, 화재 취약 요소*,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재난저해 여부 받는 경로 및 도움정도*,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 안전 체감도*, 지역사회안전 인식* 등

8. 자료처리 및 분석

II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보건의로,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 $(X_i-1) \times 25$ 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가 산출방법: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5) "기초생활여건" 부문(2013년에서 "안전" 부문(2017년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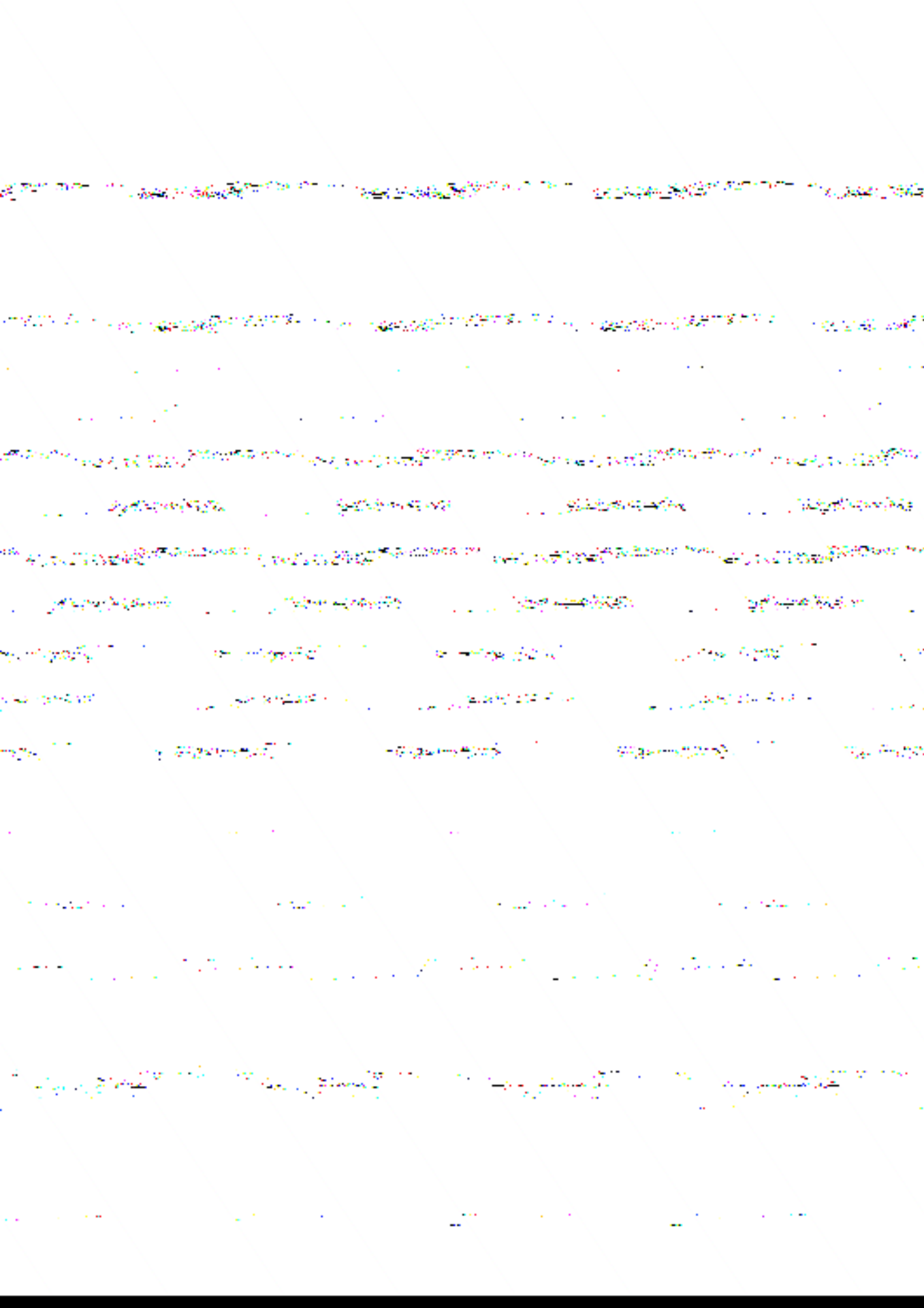
6) "지역개발" 부문(2015년에서 "안전" 부문(2017년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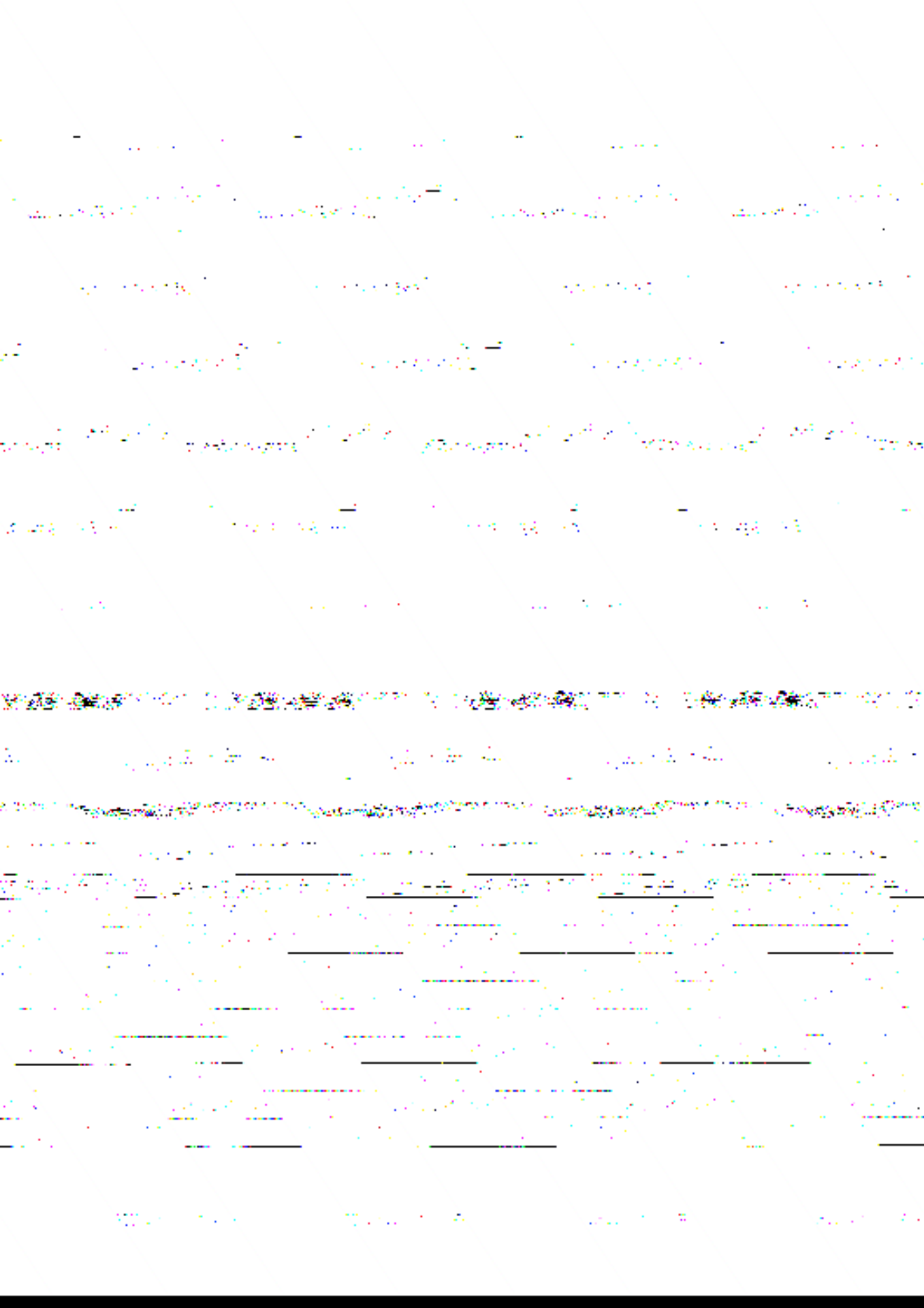
7) 종합만족도: '전체 체감만족도'(전체 만족도에 대한 실측값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별 체감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 및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한 '전체 차원만족도'와 '전체 체감만족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및 하위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상관계수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함
 -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기초생활기반](13.08%),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10.68%), [경제활동여건](10.51%), [환경/경관](10.27%), [교육 여건](9.41%),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9.17%),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8.73%), [가족 생활](7.33%),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양성평등](각 6.95%), [보건의료](6.92%)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IPA)을 병행함
 - 사업(정책)의 가치평가와 향후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업 관리법으로 사업(정책)의 다양한 관리 대상 요인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관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Portfolio 분석 (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만족도 (점)	원수종 유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	유지/관리 지속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영역)
	만족도 제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점 개선 요망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요도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posed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study is divided into four main sections: Introduction, Methodology, Results, and Conclusion. The Introduction section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study and its objectives. The Methodology section describes the experimental setup and the data collection process. The Results section pres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nd the Conclusion section summarizes the result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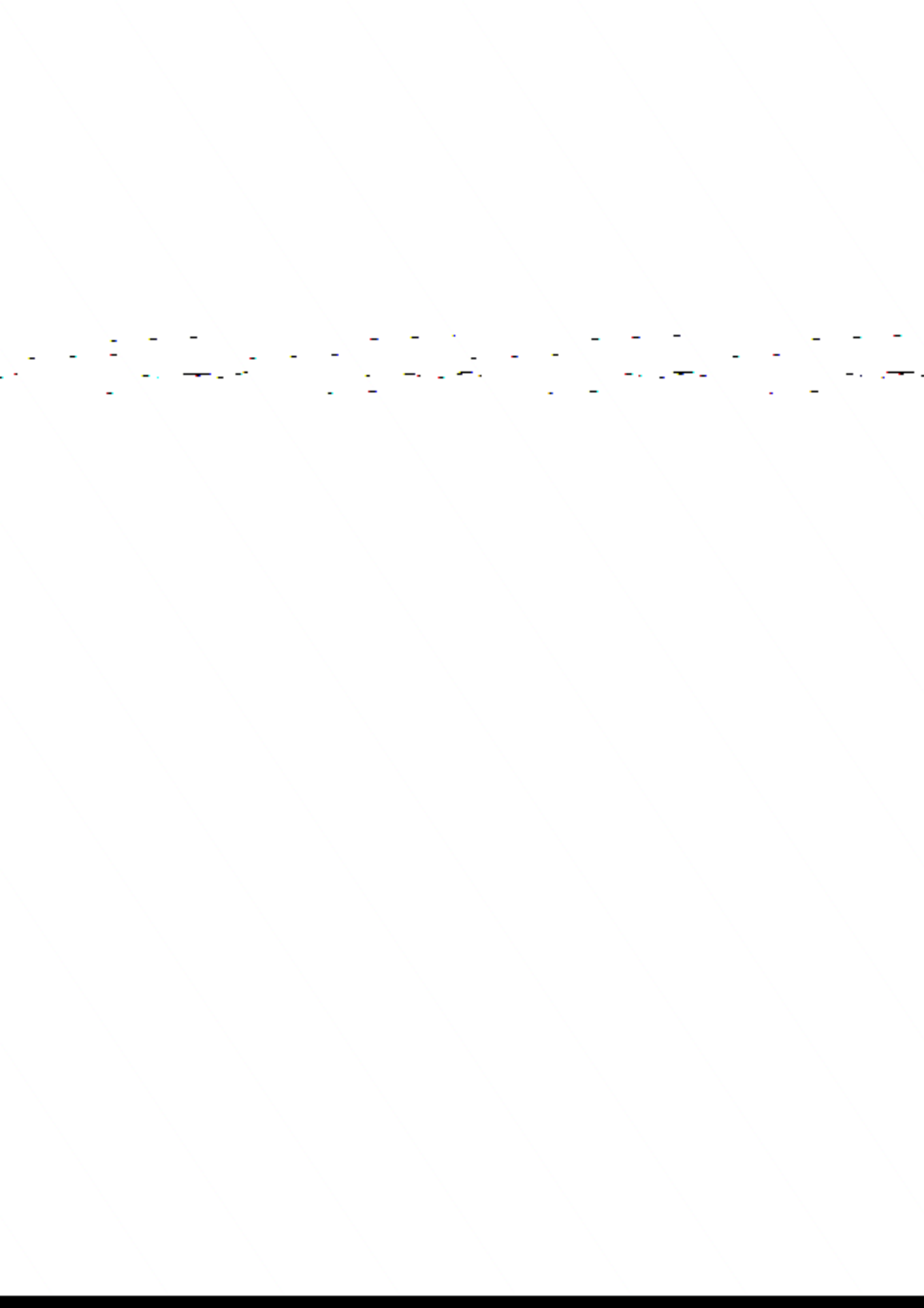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posed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study is divided into four main sections: Introduction, Methodology, Results, and Conclusion. The Introduction section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study and its objectives. The Methodology section describes the experimental setup and the data collection process. The Results section pres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nd the Conclusion section summarizes the result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s 4. Conclusion



제1부 개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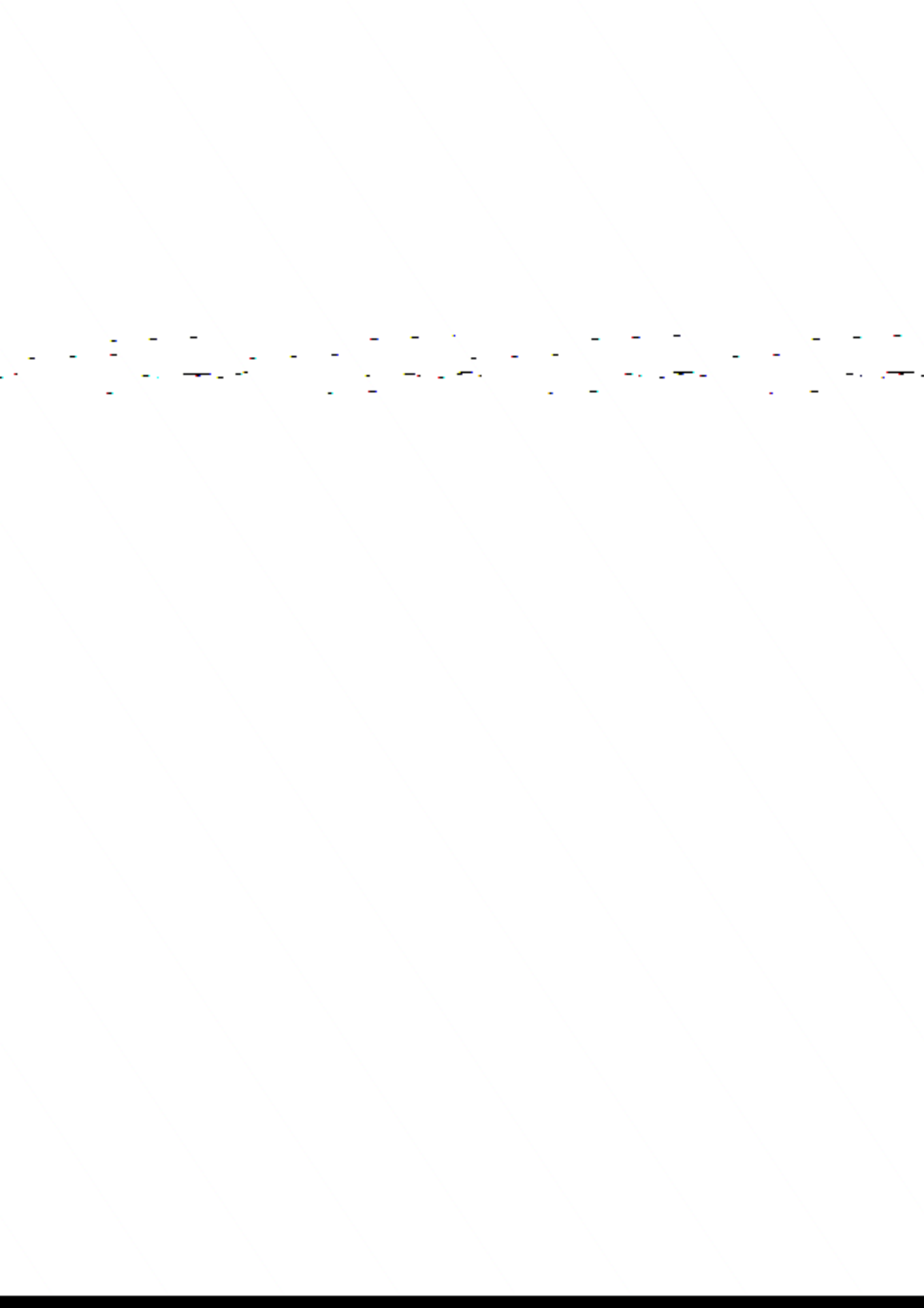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100> 가구원 및 생활 전반

1200> 기초생활여건

1300> 환경·경관

1400> 안전



1100> 가구원 및

생활 전반

-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03>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1104>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1105> 결혼이민자 유무
-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1107>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 1108> 이주 실태
- 1109> 5년 이내 이주 의사
- 1110>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1111> 가족생활 중요도 및 만족도
- 1112>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중요도 및 만족도
- 1113>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 111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 1115>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 56.8%, '여성' 60.0%, '[60대 이상] 연령층' 34.9%
- ▶ '농어업종사자' 29.7%,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51.1%

▶ '가구주' 56.8%, '여성' 60.0%, '[60대 이상] 연령층' 34.9%

[조사대상자(n=3,995)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 응답률 100.0%(n=3,995)]

[학력 : 응답률 98.7%(n=3,945)]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56.8%가 '가구주' 본인이며, '여성'(60.0%) 비율이 '남성'(40.0%)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60대'(15.8%), '70대 이상'(19.1%) 등 [60대 이상] 비율이 34.9%이었으며, '30대 이하'(27.1%), '50대'(20.3%), '40대'(17.7%) 순이었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5.4%), '대학교'(22.7%), '대학원 이상'(1.0%) 등 [고등학교 이상](59.1%) 비율이 '초등학교'(17.7%), '중학교'(12.9%), '무학/미취학'(10.2%) 등 [중학교 이하] (40.9%)에 비해 높았다.

[표 1101 -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합계	(3,995)	100.0	성	합계	(3,995)	100.0
	가구주	(2,267)	56.8		남	(1,599)	40.0
	가구주 배우자	(1,728)	43.2		여	(2,396)	60.0
연령	합계	(3,995)	100.0	학력	합계	(3,945)	100.0
	30대 이하	(1,083)	27.1		무학/미취학	(403)	10.2
	40대	(707)	17.7		초등학교	(700)	17.7
	50대	(810)	20.3		중학교	(510)	12.9
	60대	(630)	15.8		고등학교	(1,398)	35.4
	70대 이상	(764)	19.1		대학교	(894)	22.7
					대학원 이상	(41)	1.0

『농어업종사자 29.7%,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51.1%』

[직업 - 조사대상자(n=3,995)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3%(n=3,967)]

[종사자 지위 -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농어업 종사자 및 자영업/직장인(n=2,42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3%(n=2,413)]

직업으로 '주부/무직/기타'(38.8%), '사무 종사자'(10.0%), '서비스 종사자'(6.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7%), '단순노무 종사자'(2.7%) 등 자영업/직장인(31.5%)과 '농어업종사자'(29.7%)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51.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24.7%), '무급가족 봉사자'(14.6%), '임시직'(6.5%), '일용직'(3.1%) 순이었다.

표 1101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67)	100.0	합계		(2,413)	100.0
직업	농어업종사자	(1,179)	29.7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1,233)	51.1
	관리자	(66)	1.7		상용직	(597)	2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26)	5.7		임시직	(157)	6.5
	사무 종사자	(396)	10.0		일용직	(74)	3.1
	서비스 종사자	(265)	6.7		무급가족 봉사자	(352)	14.6
	판매 종사자	(95)	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	1.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6)	1.2				
	단순노무 종사자	(107)	2.7				
	주부/무직/기타	(1,538)	38.8				

1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함]

[농어가 여부, 총 가구원 수 : 응답률 100.0%(n=3,995)/ 가족형태 : 응답률 99.4%(n=3,970)]

▶ 농어가 33.5%, 평균 가구원 수 2.8명, '2세대 가구' 45.4%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33.5%이었으며, 농어가 비율은 면지역(45.2%)이 읍지역(18.1%) 보다 높았다. 가구원 수는 '2명'(31.5%), '1명'(19.5%), '4명'(18.9%), '3명'(17.7%) 순으로 평균 2.8명이었으며,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6.7%,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45.4%로 나타났다. 한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9.7%이었다.

표 1102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95)	100.0		합계	(3,995)	100.0
농어가 여부	농어가	(1,340)	33.5	총 가구원 수	1명	(781)	19.5
	비농어가	(2,655)	66.5		2명	(1,260)	31.5
					3명	(707)	17.7
가족 형태	합계	(3,970)	100.0		4명	(754)	18.9
	1인가구	(781)	19.7		5명	(364)	9.1
	1세대	(1,061)	26.7		6명 이상	(130)	3.3
	2세대	(1,802)	45.4				
	3세대	(327)	8.2				

1103.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0.7%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0.7%로 나타났으며, 면지역, 농어가에서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 그림 1103 - (1) |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6년 대비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3.5%p 증가

| 그림 1103 - (2) | 만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 추이



1104>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11.1%, 장애가구원이 '가구주'인 비율 58.0%
- ▶ 주된 장애종류 '지체장애'(54.0%), 장애 급수 '3급'(21.6%) 비율이 높음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11.1%, 장애가구원이 '가구주'인 비율 58.0%

[장애 가구원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 장애 가구원(n=460)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1.1%이었으며,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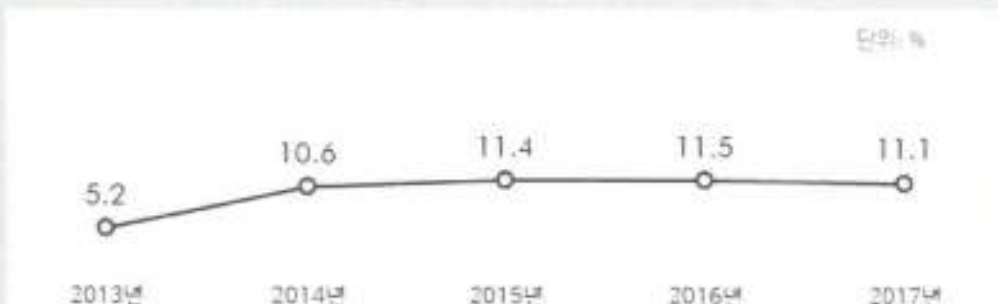
| 그림 1104 - (1) | 장애 가구원 유무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 2016년 대비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0.4%p 감소

| 그림 1104 - (2)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통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장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n=460)는 '가구주'(58.0%) 본인이 다수였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18.8%), '부모'(12.0%), '가구주의 자녀'(8.9%), '형제자매/그 배우자'(1.7%), '기타 친인척'(0.6%) 순이었다.

비농어가에서는 '가구주'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는 '가구주의 배우자', 읍지역에서 '가구주의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04 - (1) | 가구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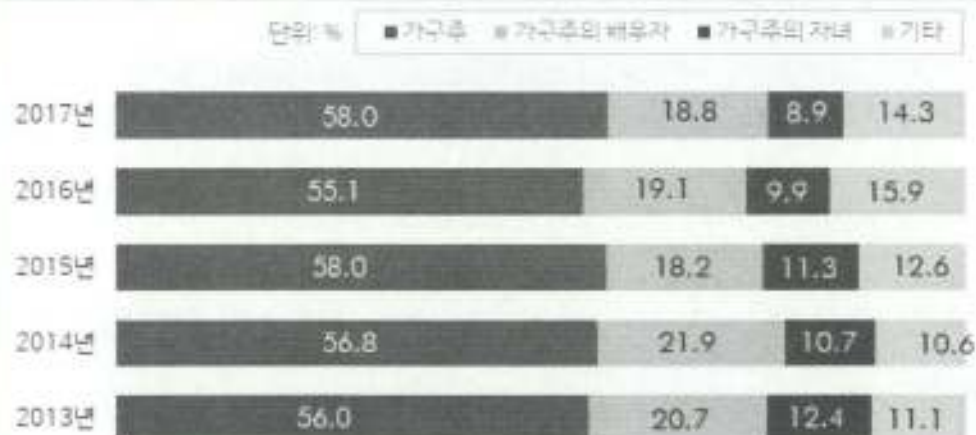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합계 (460)		58.0	18.8	8.9	12.0	1.7	0.6
읍/면	읍 (144)	55.2	19.1	13.8	11.4	0.0	0.6
	면 (316)	59.3	18.6	6.6	12.3	2.4	0.6
영농 여부	농어가 (209)	53.2	23.8	7.5	13.6	1.3	0.4
	비농어가 (251)	62.0	14.6	10.0	10.7	2.0	0.7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그림 1104 - (3) |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참여한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주된 장애종류는 '지체장애'(54.0%), 장애 급수는 '3급'(21.6%) 비율이 높음

[장애가구원(n=460)이 있는 가구 중 응답가구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장애 종류: 응답률 94.6%(n=435), 중복 여부: 응답률 100.0%(n=460), 장애 등급: 응답률 97.4%(n=448)]

장애종류로 '지체장애'(54.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11.0%),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7.2%), '정신지체'(5.3%), '신장장애'(3.8%), '호흡기장애'(0.3%) 순이었다. "허리 디스크", "안면장애", "정신장애" 등 '기타'는 8.8%였다. 한편, '중복'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10.7%로 나타났다.

[표 1104-(2)]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 여부			
	사례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기타	사례수	중복	단일	
합계	(435)	54.0	7.2	9.4	11.0	5.3	3.8	0.3	8.8	(460)	10.7	89.3	
읍/면	읍	(136)	50.0	6.4	11.3	13.9	4.9	3.8	0.0	9.2	(144)	12.1	87.9
	면	(299)	55.9	7.5	8.6	9.6	5.5	3.9	0.4	8.6	(316)	10.1	89.9
영농 여부	농어가	(198)	56.2	7.9	10.7	11.6	4.5	1.8	0.4	6.8	(209)	12.5	87.5
	비농어가	(237)	52.2	6.6	8.2	10.4	6.0	5.6	0.3	10.4	(251)	9.2	90.8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 2016년에 비해 '지체장애' 비율이 감소(-8.6%p)한 반면, '중복' 장애(+5.2%p) 비율이 증가

[표 1104-(3)]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단위: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 여부		
	사례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기타	사례수	중복	단일
2017년	(435)	54.0	7.2	9.4	11.0	5.3	3.8	0.3	8.8	(460)	10.7	89.3
2016년	(503)	62.6	6.7	7.7	9.8	4.8	2.2	1.2	5.0	(505)	5.5	94.5
2015년	(488)	52.1	8.7	9.5	7.4	6.7	4.9	0.4	10.3	(490)	10.6	89.4
2014년	(447)	57.5	8.3	10.4	8.8	3.1	3.1	0.3	8.5	(447)	7.5	92.5
2013년	(129)	45.7	11.5	10.0	8.4	5.4	5.9	0.0	13.1	(129)	20.5	79.5

* 2013년은 도/동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장애등급은 '3급'(2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급'(18.7%), '6급'(18.0%), '5급'(17.6%), '4급'(14.8%), '1급'(9.4%) 순이었다.

읍지역에서 '3급'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에서 '1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04 - (4) | 장애등급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448)		9.4	18.7	21.6	14.8	17.6	18.0
읍/면	읍 (142)	3.5	17.4	29.5	13.5	13.1	23.0
	면 (306)	12.1	19.3	17.9	15.4	19.6	15.7
영농 여부	농어가 (205)	5.9	15.9	23.2	14.5	21.5	18.9
	비농어가 (243)	12.3	21.1	20.2	15.0	14.2	17.2

장애등급 - 추이

□ 2016년에 비해 '2급'(+4.0%p), '5급'(+3.2%p) 비율이 증가한 반면, '4급'(-4.0%) 비율이 감소

그림 1104 - (4) | 장애등급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고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105> 결혼이민자 유무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3.9%,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67.6%), '중국'(10.2%)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3.9%, 결혼이민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비율이 90.6%

[결혼이민자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 결혼이민자(n=155)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3.9%이었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배우자'(90.6%) 비율이 매우 높았고, '가구주'(6.2%), '자녀의 배우자'(3.2%) 순이었다.

먼지역, 농어가에서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05 - (1) | 결혼이민자 유무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자 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사례수	있음	사례수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합계		(3,995)	3.9	(155)	6.2	90.6	3.2
읍/면	읍	(1,711)	3.4	(58)	16.8	81.9	1.4
	면	(2,284)	4.3	(98)		95.7	4.3
영농	농어가	(1,340)	5.5	(73)		95.4	4.6
여부	비농어가	(2,655)	3.1	(82)	11.8	86.3	2.0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2016년 대비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0.8%p 증가

그림 1105 - (1) | 결혼이민자 유무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67.6%), '중국'(10.2%)

[결혼이민자(n=155)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n=155)의 출신국가는 '베트남'(67.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0.2%), '일본'(7.1%), '캄보디아'(3.9%), '태국'(2.3%), '필리핀'(1.6%), '네팔', '우즈베키스탄'(각 0.3%) 순이었다.

| 그림 1105 - (2) | 출신국가

단위: %



가구주 배우자 비율이 높았던 면지역, 농어가에서 '베트남'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중국', '기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105 - (2) | 출신국가

단위: %/명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기타
합계 (155)			10.2	7.1	67.6	1.6	3.9	2.3	0.3	0.3	6.6
읍/면	읍	(58)	17.4	19.0	45.1	0.8			0.9		16.8
	면	(97)	6.0		81.1	2.1	6.2	3.6		0.4	0.6
영농여부	농어가	(73)	1.1		90.7	3.4		4.8			
	비농어가	(82)	18.4	13.5	47.0		7.4		0.6	0.5	12.5

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3.7%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농어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는 3.7%였다. 또한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는 0.9%이었다.

표 110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합계			(3,995)	3.7	0.9	95.4
읍/면	읍	(1,711)	2.2	0.6		97.3
	면	(2,284)	4.8	1.2		94.1
영농	농어가	(1,340)	1.4	0.6		98.0
여부	비농어가	(2,655)	4.8	1.1		9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추이

○ 2016년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이 0.4%p 증가

그림 110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추이



1107. 월 평균 생활비 및 저축

- ▶ 월 평균 생활비 160.5만원
-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 48.5%, 월 평균 저축액 72.3만원

 월 평균 생활비 160.5만원

[2016년(16.1.1.~12.31.)을 기준으로] 귀국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함 : 응답률 99.4%(n=3,972)]

월 평균 생활비로 '100~200만원 미만'(32.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24.0%), '50~100만원 미만'(19.0%), '30~50만원 미만'(7.8%), '30만원 미만'(2.2%) 등 150만원 미만(10.0%), '300~400만원 미만'(9.9%), '400만원 이상'(4.4%) 순으로 평균 160.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월 평균 생활비가 높았다.

| 표 1107-(1)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명

구분		월 평균 생활비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합계		(3,972) 160.5만원	2.2	7.8	19.0	32.7	24.0	9.9	4.4
읍/면	읍	(1,695) 179.7만원	1.2	4.9	13.5	33.3	29.7	11.7	5.6
	면	(2,278) 146.2만원	2.9	9.9	23.0	32.3	19.8	8.6	3.5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137.3만원	1.0	6.8	26.0	39.7	18.0	7.0	1.5
	비농어가	(2,636) 172.2만원	2.7	8.3	15.4	29.1	27.1	11.4	5.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4) 201.8만원	0.3	2.2	7.7	32.3	36.5	15.4	5.6
	40대	(703) 202.4만원		2.3	8.9	34.4	32.2	15.0	7.2
	50대	(809) 174.1만원	1.2	3.5	15.6	36.9	26.9	10.5	5.3
	60대	(625) 126.3만원	1.2	9.6	28.3	39.4	14.3	4.8	2.4
	70대 이상	(760) 76.9만원	8.5	23.8	40.2	21.8	3.9	1.1	0.7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 48.5%, 월 평균 저축액 72.3만원

(2016년(16.1.1.~12.31.)을 기준으로 귀국의 월 평균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축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월 평균 저축액 - 저축층(n=1,939) 기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8.5%이었으며, 월 평균 저축액은 '30만원 미만'(22.9%), '30~50만원 미만'(17.5%) 등 50만원 미만(40.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100만원 미만'(25.8%), '100~150만원 미만'(19.7%), '150만원 이상'(14.1%) 순이었다. 월 평균 저축액은 72.3만원이었다.

연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중에서 저축층 비율과 월 평균 저축액이 높았다.

[표 1107 - 2] 저축 여부 및 월 평균 저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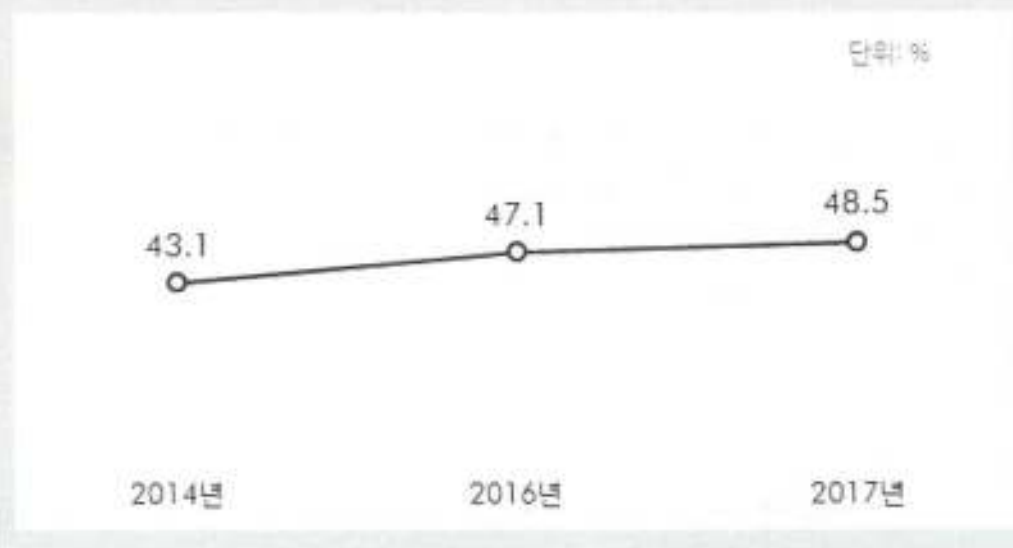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저축여부		월 평균 저축액						
		사례수	저축층	사례수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합계		(3,995)	48.5	(1,939)	72.3만원	22.9	17.5	25.8	19.7	14.1
읍/면	읍	(1,711)	60.1	(1,029)	77.7만원	16.5	18.7	25.7	22.7	16.4
	면	(2,284)	39.9	(910)	66.1만원	30.1	16.2	26.0	16.3	11.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37.4	(502)	56.5만원	33.4	22.1	24.2	11.2	9.1
	비농어가	(2,655)	54.1	(1,437)	77.8만원	19.2	15.9	26.4	22.7	15.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3.3	(794)	80.2만원	14.9	19.2	28.8	20.3	16.8
	40대	(707)	55.9	(396)	71.1만원	20.6	14.5	28.4	24.5	12.0
	50대	(810)	47.5	(385)	77.0만원	23.4	17.7	22.5	19.8	16.7
	60대	(630)	37.8	(238)	56.4만원	38.3	16.5	21.2	15.1	8.9
	70대 이상	(764)	16.6	(127)	41.6만원	49.4	17.7	18.6	9.0	5.2
이주 의사	의향층	(312)	63.9	(199)	97.5만원	20.7	9.7	21.7	19.5	28.4
	비의향층	(3,673)	47.3	(1,737)	69.3만원	23.1	18.4	26.3	19.7	12.4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 2014년 이후 저축 가구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

| 그림 1107 | 저축 가구 현황 - 추이



1108> 이주 실태

▶ [이주민] 58.7% > [선주민] 41.3%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2%)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74.2%

[이주민] 58.7% > [선주민] 41.3%

귀속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표 1108-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100.0%(n=3,995)]

'이주했다'(54.4%),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3%) 등 [이주민] 이 58.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1.3%) 보다 많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

| 표 1108 - [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주 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
합계		(3,995)	54.4	4.3	58.7	41.3
읍/면	읍	(1,711)	72.9	3.3	76.2	23.8
	면	(2,284)	40.6	5.0	45.6	54.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23.5	5.4	28.9	71.1
	비농어가	(2,655)	70.0	3.7	73.7	26.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9.3	2.2	81.5	18.5
	40대	(707)	63.6	5.8	69.4	30.6
	50대	(810)	49.0	5.1	54.1	45.9
	60대	(630)	39.8	6.2	46.1	53.9
	70대 이상	(764)	28.4	3.4	31.8	68.2

▲ 이주민의 평균 거주기간 '타향(10.6년)' < '고향(13.2년)'

[이주층(n=2,174/1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2,174)/98.8%(n=170)]

'이주했다'는 층(n=2,174)의 이주 후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22.4%), '1~3년 미만'(18.9%), '3~5년 미만'(11.9%), '1년 미만'(8.6%) 등 [10년 미만] 비율이 61.8%이었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29.4%), '30~50년 미만'(6.6%), '50년 이상'(2.1%)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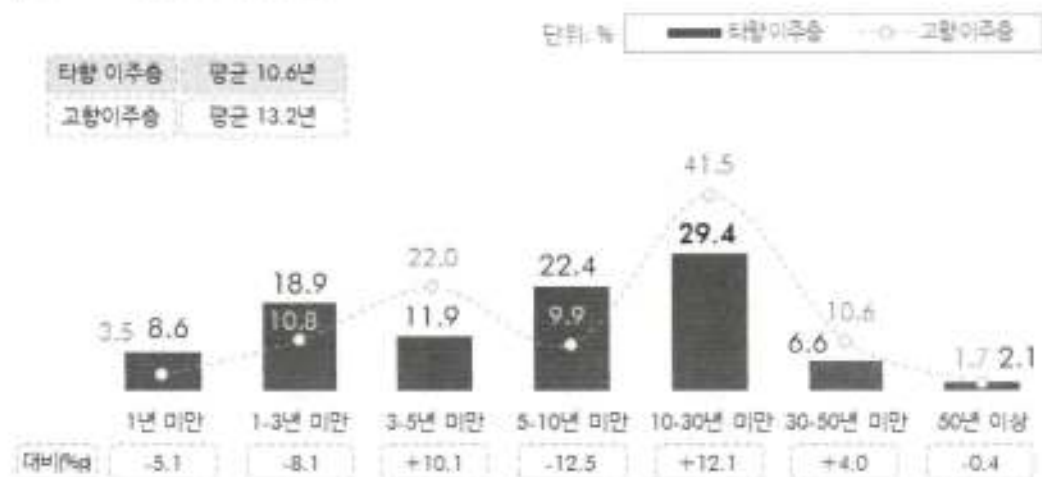
[표 1108 - ②]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2,174) 10.6년	8.6	18.9	11.9	22.4	29.4	6.6	2.1
읍/면	읍	(1,247) 8.2년	9.4	21.5	13.3	24.0	27.8	3.2	0.9
	면	(926) 13.9년	7.6	15.3	10.1	20.3	31.6	11.3	3.8
영농 여부	농어가	(314) 21.4년	1.9	6.6	8.6	14.6	39.3	21.8	7.1
	비농어가	(1,859) 8.8년	9.8	20.9	12.5	23.7	27.8	4.1	1.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59) 4.9년	12.8	27.0	15.1	28.8	16.3		
	40대	(450) 7.7년	10.4	17.6	11.9	26.4	32.0	1.7	
	50대	(397) 12.6년	5.6	16.2	9.9	15.3	43.6	9.4	
	60대	(251) 17.8년	2.6	8.1	9.4	16.7	42.2	18.5	2.6
	70대 이상	(217) 27.6년	1.0	6.5	6.2	8.3	35.6	24.1	18.3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n=170)의 이주 후 거주기간은 '3~5년 미만'(22.0%), '1~3년 미만'(10.8%), '5~10년 미만'(9.9%), '1년 미만'(3.5%) 등 10년 미만(46.2%), '10~30년 미만'(41.5%), '30~50년 미만'(10.6%), '50년 이상'(1.7%) 순이었다. 타향 이주층에 비해 '3~5년 미만'(+10.1%p), '10~30년 미만'(+12.1%p) 비율이 높은 반면, '5~10년 미만'(-12.5%p) 비율이 낮아 평균 거주기간(13.2년)이 평균 2.6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108 - (1) | 이주 후 거주기간



먼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 1108 - (3) |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읍/면	합계 (170)	13.2년	3.5	10.8	22.0	9.9	41.5	10.6	1.7
	읍 (56)	8.7년	10.8	10.5	32.2	15.2	24.8	5.9	0.6
	면 (114)	15.4년		10.9	17.1	7.3	49.6	12.9	2.2
영농 여부	농어가 (72)	14.5년		13.4	18.0	6.3	51.7	9.9	0.7
	비농어가 (98)	12.3년	6.1	8.9	24.9	12.5	34.0	11.1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4)	3.3년	23.4	16.8	50.5		9.4		
	40대 (40)	9.1년			39.3	16.3	44.4		
	50대 (41)	14.9년		27.6	3.0	7.5	43.7	18.2	
	60대 (39)	17.6년	0.2	3.9	14.5	10.3	51.1	19.0	1.2
	70대 이상 (25)	19.5년	1.4	5.8	10.4	12.2	48.7	12.2	9.5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2%)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74.2%**

[이주층에 한해] 지금 살고 있는 곳 직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주층(n=2,34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87.6%(n=2,055)]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2%),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21.0%)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4.2%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4%), ‘중소도시(동)’(8.4%)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5.8%) 보다 많았다.

읍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타향 이주층에서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고향 이주층에서는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108 - [4]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단위 :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 농어촌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 농어촌	
합계		(2,055)	53.2	21.0	74.2	8.4	17.4	25.8
읍/면	읍	(1,155)	60.6	19.2	79.7	8.3	12.0	20.3
	면	(900)	43.7	23.4	67.1	8.6	24.3	32.9
영농 여부	농어가	(365)	49.8	22.8	72.6	9.0	18.3	27.4
	비농어가	(1,690)	53.9	20.6	74.5	8.3	17.2	25.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71)	51.4	21.2	72.6	6.9	20.5	27.4
	40대	(427)	53.0	23.7	76.6	12.8	10.6	23.4
	50대	(379)	58.0	15.9	73.9	9.8	16.4	26.1
	60대	(263)	49.8	19.8	69.6	6.6	23.8	30.4
	70대 이상	(216)	55.4	25.6	81.0	5.1	13.9	19.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타향 이주층	(1,888)	54.7	20.4	75.1	7.9	17.0	24.9
	고향 이주층	(167)	35.7	28.3	64.0	13.7	22.3	36.0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2013년에 비해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증가(+7.8%p)함

| 그림 1108 - (2)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3년 다른 시/군의 농어촌/면 :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1109. 5년 이내 이주 의사

- ▶ 이주의향층 7.8%,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77.1%
- ▶ 주된 이주의향 이유 '직업 관련 사유'(29.9%), '주택 관련 사유'(29.3%)

 이주의향층 7.8%

귀덕은 향후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외 한해) : 응답률 99.8%(n=3,986)]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7.8%로,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09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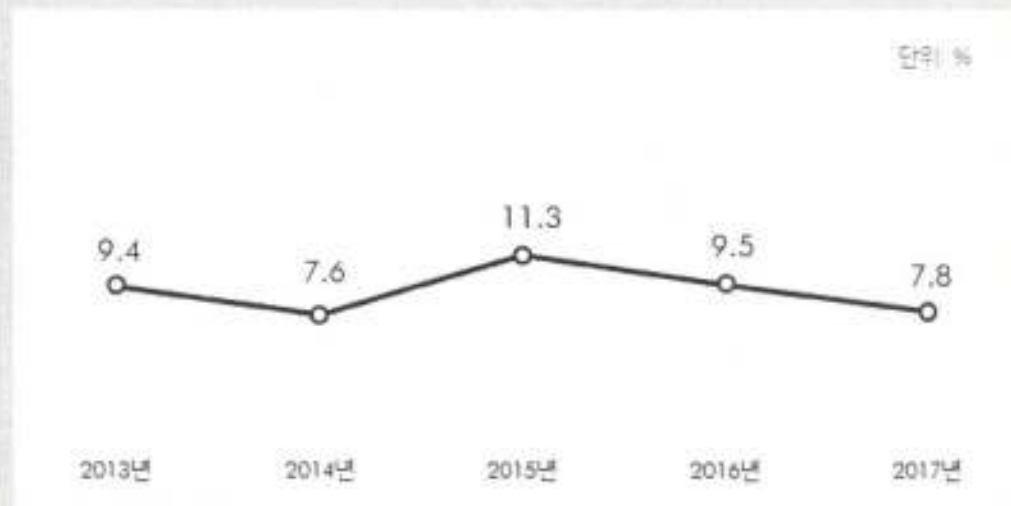
구분			이주의향층*	없다	잘모르겠다	
합계			(3,986)	7.8	83.9	8.3
읍/면	읍	(1,707)	10.1	79.1	10.8	
	면	(2,278)	6.1	87.5	6.4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2.0	95.4	2.6	
	비농어가	(2,649)	10.8	78.1	1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16.4	69.3	14.3	
	40대	(705)	10.1	77.7	12.2	
	50대	(809)	5.2	89.3	5.5	
	60대	(627)	2.2	94.3	3.5	
	70대 이상	(762)	0.9	96.0	3.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39)	12.0	75.5	12.5	
	선주민	(1,646)	1.9	95.8	2.3	

* 향후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 1109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온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5년까지 이주의향률은 '있다', '반반이상의 힘'이었으나, 2016년 문항 구성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없다'로 달라짐에 따라 향후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만 5년 이내 이주의향률으로 제시함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77.1%

[이주희망층에 한해] 어디로 이주할 생각입니까?

[이주희망층(n=312)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5.8%(n=299)]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61.7%),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10.6%),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4.8%)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비율이 77.1%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3.9%), '중소도시(동)'(8.1%)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2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외파견, 이민 등 '기타' 비율은 0.9%이었다.

읍지역, 40~50대 연령층, 전주민층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등 [농어촌→도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109- [2] | 이주 희망 지역

단위: %(명)

구분		농어촌→ 농어촌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	농어촌→ 도시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합계		(299)	77.1	61.7	10.6	4.8	22.0	8.1	13.9	0.9
읍/면	읍	(171)	75.0	66.2	6.6	2.2	25.0	11.3	13.7	
	면	(128)	80.0	55.9	15.9	8.3	18.0	3.8	14.2	2.0
영농 여부	농어가	(16)	63.2	58.2	5.1		36.8	14.8	21.9	
	비농어가	(284)	77.9	61.9	10.9	5.1	21.2	7.7	13.5	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78)	75.4	55.1	12.9	7.4	23.2	8.3	14.9	1.5
	40대	(59)	79.1	76.8	2.2		20.9	7.0	13.9	
	50대	(42)	87.8	75.5	10.0	2.2	12.2	3.5	8.7	
	60대	(14)	60.7	43.1	17.6		39.3	16.1	23.2	
	70대 이상	(7)	74.5	57.9	11.6	5.0	25.5	25.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79)	77.2	60.9	11.2	5.1	21.9	7.0	14.9	0.9
	전주민	(20)	75.8	73.7	2.1		24.2	24.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6년 대비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증가(+11.6%p)한 반면, [농어촌→도시] 비율은 감소 (-11.2%p)

| 그림 1109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주된 이주의향 이유 '직업 관련 사유'(29.9%), '주택 관련 사유'(29.3%)

[이주의향률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의향층(n=312) 중 응답가구여 한해: 응답률 94.9%(n=296)]

이주 희망 이유는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9.9%),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9.3%)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8.4%), '자녀교육 때문에'(14.1%),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3.1%),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2.6%), '건강상의 이유로'(2.4%) 순이었다.

면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는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 40~60대 이하 연령층, 농어촌→농어촌 이주 희망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이 높았다.

| 표 1109 - (3)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자녀 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기타
합계		(296)	29.9	29.3	2.6	3.1	2.4	14.1	18.4	0.2
읍/면	읍	(170)	26.7	29.4	4.0	3.9	4.0	13.6	18.4	
	면	(126)	34.1	29.3	0.7	2.0	0.3	14.6	18.5	0.5
영농 여부	농어가	(16)	10.1	8.9			2.7		78.3	
	비농어가	(280)	31.0	30.5	2.7	3.3	2.4	14.8	15.1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76)	33.7	22.7	2.5	1.9	3.5	19.0	16.7	
	40대	(58)	28.2	34.7		2.5		14.3	20.2	
	50대	(42)	25.8	47.3	7.6	3.8	0.9		13.2	1.5
	60대	(14)	15.1	38.4		17.2	1.9		27.3	
	70대 이상	(7)		27.0		5.0	6.1		61.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76)	31.9	26.2	2.8	3.3	2.4	14.4	18.7	0.2
	선주민	(20)	1.2	72.7			2.1	8.8	15.3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227)	26.9	36.4	3.3	3.6	0.3	8.1	21.3	
	농어촌→도시	(66)	41.2	6.1		1.5	9.7	31.3	9.3	0.9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6년에 비해 '직업 관련 사유'(+13.7%p),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8.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교육 때문에'(-13.4%p), '주택관련 사유'(-9.1%p)비율이 감소

표 1109 - (4)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 %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2017년	29.9	29.3	2.6	3.1	2.4	14.1	18.4
2016년	16.2	38.4	1.9	2.9	1.9	27.5	10.1
2015년	22.0	28.3	2.9	7.1	1.6	15.0	22.7
2014년	21.8	30.0	3.9	5.5	1.8	11.4	24.3
2013년	26.4	23.1	3.5	6.3	3.5	17.1	13.2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온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기타'는 제외함

1110.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지역생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보건의료'(평균 82.6점), '안전'(평균 81.5점), '경제활동여건'(평균 80.2점) 중요도가 높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0000$, x_i =측정 값)

'보건의료'(평균 82.6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81.5점), 직업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평균 80.2점)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평균 78.6점), '사회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평균 77.8점), '환경·경관'(평균 75.7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69.5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이내 이주 의향층에서 중요도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110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기초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여건	교육 여건	보건 의료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합계 (3,995)		78.6	80.2	73.6	82.6	77.8	69.5	75.7	81.5
읍/면	읍 (1,711)	79.7	81.6	76.4	81.9	77.4	72.2	77.5	82.1
	면 (2,284)	77.8	79.2	71.5	83.2	78.2	67.5	74.3	81.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77.5	79.0	70.8	83.7	77.9	66.5	73.5	79.5
	비농어가 (2,655)	79.2	80.8	75.0	82.1	77.8	71.0	76.7	8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80.6	83.5	82.2	81.6	78.5	76.9	78.8	83.6
	40대 (707)	80.1	82.6	80.9	83.8	78.8	71.9	77.7	83.6
	50대 (810)	79.5	81.0	70.6	83.1	77.9	69.2	76.3	82.0
	60대 (630)	76.8	77.9	66.1	82.6	76.6	64.8	73.1	79.8
	70대 이상 (764)	75.0	74.4	64.2	82.5	76.9	61.0	70.7	77.5
이주 의사	의향층 (312)	84.4	83.6	80.6	85.0	80.7	76.7	82.5	87.0
	비의향층 (3,673)	78.1	79.9	73.0	82.4	77.6	68.9	75.1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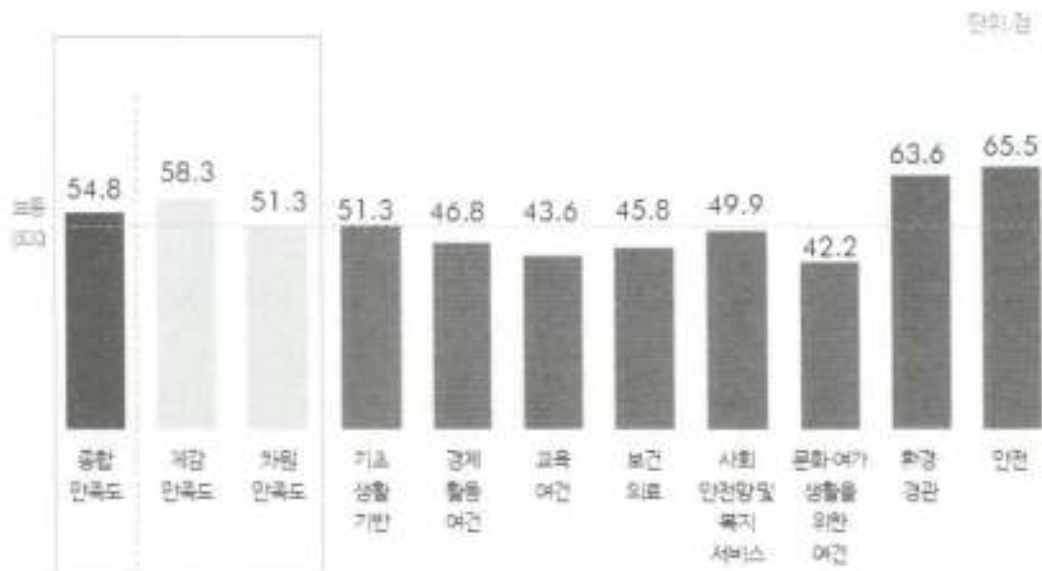
『안전(평균 65.5점), 환경·경관(평균 63.6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조사대상 가구] n=3,999 가구(기준: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X_i - 1) \times 25.0000$, X_i = 응답 값)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54.8점이었으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58.3점)가 각 생활 영역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51.3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영역별로는 '안전'(평균 65.5점), '환경·경관'(평균 63.6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초생활기반'(평균 51.3점), '사회 안전망 및 복지서비스'(평균 49.9점)에 대해 '보통 수준'의 평가였다. 한편, '경제활동 여건'(평균 46.8점), '보건의료'(평균 45.8점), '교육여건'(평균 43.6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42.2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1110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향후 5년 이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여건', '교육여건' 만족도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보건의료', '안전'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110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기초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여건	교육 여건	보건 의료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3,995)	54.8	58.3	51.3	51.3	46.8	43.6	45.8	49.9	42.2	63.6	65.5
읍/면	읍	(1,711)	54.6	56.9	52.3	53.7	49.0	46.3	47.6	49.9	42.6	62.2	64.4
	면	(2,284)	55.0	59.4	50.5	49.5	45.1	41.6	44.4	49.8	41.8	64.6	66.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4	60.0	50.9	51.0	45.2	40.6	45.0	49.4	42.2	64.8	67.1
	비농어가	(2,655)	54.5	57.5	51.5	51.5	47.5	45.1	46.1	50.1	42.2	63.0	6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4.9	58.1	51.8	50.9	50.9	46.0	44.7	49.5	42.4	63.8	63.2
	40대	(707)	53.8	58.0	49.6	49.0	46.7	42.6	43.7	49.8	39.0	61.1	63.9
	50대	(810)	54.1	57.4	50.8	51.5	44.2	42.3	46.0	48.6	42.6	63.2	66.8
	60대	(630)	55.2	59.0	51.4	52.9	45.5	43.0	46.6	50.9	41.9	63.4	65.5
	70대 이상	(764)	56.0	59.5	52.5	52.6	44.7	43.0	48.2	50.9	44.5	66.2	69.1
이주 의사	의향층	(312)	48.3	50.7	46.0	41.3	44.8	40.3	38.3	47.4	35.1	60.8	59.9
	비의향층	(3,673)	55.4	59.0	51.7	52.2	46.9	43.9	46.4	50.1	42.8	63.8	66.0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 생활영역 구성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기반'(+3.8점) 만족도 및 '체감만족도'(+5.7점)가 증가하여 '종합만족도'(+3.1점)가 증가함

표 T110 - (3)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기초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여건	교육 여건	보건 의료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7년 (3,995)	54.8	58.3	51.3	51.3	46.8	43.6	45.8	49.9	42.2	63.6	65.5
2016년 (3,952)	51.7	52.6	50.9	47.5	46.5	44.4	46.9	47.9	41.7	62.7	66.5
2015년 (3,934)	52.5	55.4	49.6	46.6	43.5	42.6	48.8	39.5	39.5	65.4	61.5
2014년 (3,939)	48.9	50.0	47.7	47.5	42.9	43.4	44.7	38.9	38.9	63.5	61.3
2013년 (2,764)	-	-	-	51.0	41.3	49.6	48.9	44.4	41.4	60.2	-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3년 '교육여건'은 "사교육 여건"(평균 47.3점), "학교교육 여건"(평균 51.8점)의 산술평균 값임. 2013년은 개별 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지 않음

* 2014년, 2015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측정함

* 2016년 '안전'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평균 66.2점),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의 산술평균 값임. '보건의료'와 '복지여건/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종합만족도 산출 시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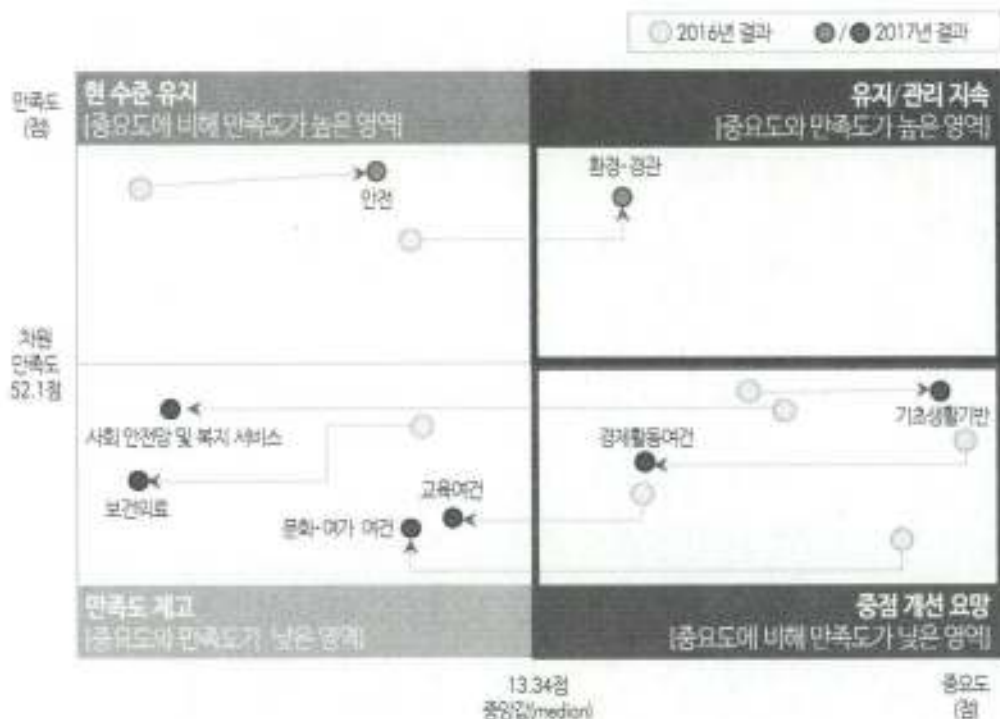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자원 만족도/상관계수 기준]

- ▶ [유지/관리 지속 영역] : '환경·경관'
 [현 수준 유지 영역] : '안전'
 [만족도 제고 영역] : '교육여건',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여건'
 [중점개선 요망 영역] :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환경·경관'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관리 지속]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비 '환경·경관'의 경우,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여 [유지/관리 지속] 영역으로 이동한 반면, '교육여건', '보건의료',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여건'는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여 [만족도 제고]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1. 가족생활 중요도 및 만족도

[조식대남 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x_i - 1) \times 25,0000$, x_i =측정 값]

▶ 가족생활 중요도는 평균 77.6점, 만족도는 평균 59.6점

부모·자녀·부부 관계 등 가족생활에 대해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78.2%로 [중요하지 않은 편](1.2%)에 비해 매우 높아 '매우 중요한 수준'(평균 77.6점)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가족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4.9%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59.6점)이라는 평가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111 | 가족생활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백명

구분		중요도					만족도				
		사례수	평균	중요한 편 (합)	보통 (합)	중요하지 않은 편 (합)	사례수	평균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합)	만족하지 않는 편 (합)
합계		(3,985)	77.6점	78.2	20.6	1.2	(3,968)	59.6점	44.9	41.4	13.7
읍/면	읍	(1,706)	77.1점	77.6	22.0	0.4	(1,693)	58.3점	44.2	39.0	16.9
	면	(2,279)	77.9점	78.6	19.5	1.9	(2,275)	60.6점	45.4	43.1	11.4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76.9점	77.3	21.1	1.6	(1,333)	60.6점	46.9	42.3	10.8
	비농어가	(2,646)	77.9점	78.6	20.3	1.0	(2,635)	59.1점	43.9	40.9	15.2
응답자 성	남	(1,595)	75.9점	76.1	22.7	1.1	(1,584)	58.1점	43.6	40.2	16.2
	여	(2,390)	78.7점	79.6	19.1	1.3	(2,383)	60.6점	45.7	42.1	1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82.2점	84.6	15.4		(1,075)	62.8점	53.2	35.9	10.9
	40대	(704)	79.5점	83.9	16.0	0.1	(701)	57.1점	41.2	39.6	19.2
	50대	(806)	77.0점	76.2	21.8	1.9	(804)	60.6점	46.3	39.1	14.6
	60대	(629)	74.4점	73.7	24.4	1.9	(628)	58.9점	42.9	44.0	13.1
	70대 이상	(763)	72.3점	69.6	27.6	2.8	(760)	57.0점	36.7	50.9	12.4
현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38)	78.3점	78.9	19.9	1.2	(2,324)	58.8점	44.7	39.0	16.3
	선주민	(1,648)	76.6점	77.2	21.4	1.3	(1,643)	60.8점	45.2	44.7	10.1

1112.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x_i - 1) \times 25.0000$, x_i = 측정 값]

▶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중요도는 평균 68.5점, 만족도는 평균 52.9점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해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61.5%로 [중요하지 않은 편](3.3%)에 비해 높아 '다소 중요한 수준'(평균 68.5점)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가량(54.0%)을 차지한 가운데,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7.8%로 '보통 수준'(평균 52.9점)이라는 평가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지역, 농어가, 선주민층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112 |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중요도					만족도				
		사례수	평균	중요한 편 (합)	보통 (합)	중요하지 않은 편 (합)	사례수	평균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합)	만족하지 않는 편 (합)
합계		(3,977)	68.5점	61.5	35.2	3.3	(3,960)	52.9점	27.8	54.0	18.2
읍/면	읍	(1,704)	67.8점	59.3	37.4	3.3	(1,696)	49.7점	20.5	57.0	22.4
	면	(2,273)	69.0점	63.2	33.5	3.4	(2,265)	55.3점	33.2	51.7	15.1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9.9점	65.4	31.7	3.0	(1,330)	56.2점	35.9	49.9	14.1
	비농어가	(2,640)	67.8점	59.6	36.9	3.5	(2,631)	51.2점	23.7	56.0	20.3
응답자 성	남	(1,592)	68.1점	59.7	36.2	4.1	(1,579)	52.9점	29.8	50.3	19.9
	여	(2,385)	68.8점	62.7	34.5	2.8	(2,381)	52.8점	26.4	56.4	17.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69.4점	64.7	32.3	3.0	(1,075)	51.1점	22.2	58.4	19.4
	40대	(700)	68.4점	62.3	34.4	3.3	(699)	48.4점	24.5	46.7	28.9
	50대	(803)	68.6점	60.0	36.2	3.8	(805)	53.5점	28.9	52.8	18.4
	60대	(629)	68.2점	59.7	37.9	2.4	(624)	55.8점	32.1	55.5	12.4
	70대 이상	(761)	67.5점	59.3	36.6	4.1	(758)	56.5점	34.0	54.4	11.5
현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31)	67.5점	58.6	37.7	3.6	(2,325)	51.0점	23.8	54.8	21.4
	선주민	(1,646)	69.9점	65.6	31.6	2.9	(1,635)	55.5점	33.4	52.8	13.8

1113>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x_i - 1) \times 25.0000$, x_i =응답 값

▶ 양성평등 중요도는 평균 66.6점, 만족도는 평균 51.6점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양성평등에 대해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55.2%로 [중요하지 않은 편](3.7%)에 비해 높아 '다소 중요한 수준'(평균 66.6점)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양성평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56.6%를 차지한 가운데, [만족하는 편](23.7%)과 [만족하지 않는 편](19.6%)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1.6점)이라는 평가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면지역, 농어가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113 |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중요도					만족도				
		사례수	평균	중요한 편 (합)	보통 (합)	중요하지 않은 편 (합)	사례수	평균	만족하는 편 (합)	보통 (합)	만족하지 않는 편 (합)
합계		[3,982]	66.6점	55.2	41.2	3.7	[3,971]	51.6점	23.7	56.6	19.6
읍/면	읍	(1,704)	68.0점	57.9	40.1	1.9	(1,696)	49.9점	20.3	57.3	22.4
	면	(2,278)	65.5점	53.1	41.9	5.0	(2,274)	52.9점	26.3	56.2	17.6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4.2점	50.9	44.2	4.8	(1,332)	53.1점	26.6	56.4	17.0
	비농어가	(2,644)	67.8점	57.3	39.6	3.1	(2,639)	50.9점	22.3	56.7	21.0
응답자 성	남	(1,592)	65.4점	52.8	42.5	4.8	(1,583)	52.5점	25.3	57.1	17.6
	여	(2,390)	67.4점	56.8	40.3	2.9	(2,387)	51.0점	22.7	56.3	21.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3.5점	71.2	27.8	0.9	(1,081)	51.4점	25.2	53.2	21.6
	40대	(702)	68.1점	59.8	37.0	3.2	(701)	48.6점	24.1	46.7	29.3
	50대	(806)	66.2점	53.6	42.7	3.6	(806)	53.0점	25.0	58.0	17.0
	60대	(629)	63.0점	44.1	52.3	3.6	(624)	52.6점	22.6	61.8	15.6
	70대 이상	(762)	58.9점	38.8	53.1	8.1	(759)	52.3점	20.8	65.0	14.2
현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36)	68.2점	58.7	37.8	3.5	(2,329)	50.8점	22.8	55.4	21.8
	선주민	(1,647)	64.4점	50.1	46.0	3.9	(1,642)	52.7점	25.0	58.4	16.6

111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 ▶ '기초연금' 인지도(89.4%) 및 경험률(34.0%)이 가장 높음
- ▶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평균 61.0점

▶ '기초연금' 인지도가 89.4%로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농촌 주민(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 가구제 현재, 중복 응답 : 사업별 각 100.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기초연금'(89.4%)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26.7%,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25.9%,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24.5%의 인지도를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 표 1114 - 1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3,995)	25.9	26.7	24.5	89.4
읍/면	읍	(1,711)	16.3	16.5	13.9	83.5
	면	(2,284)	33.1	34.3	32.4	93.8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3.3	45.7	43.6	95.8
	비농어가	(2,655)	17.1	17.1	14.9	86.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3	9.6	6.2	80.3
	40대	(707)	29.9	30.6	26.3	86.6
	50대	(810)	38.3	39.9	40.0	92.9
	60대	(630)	35.1	34.2	33.4	94.4
	70대 이상	(764)	27.7	27.1	25.0	97.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45)	19.3	19.7	17.5	83.6
	선주민	(1,650)	35.3	36.6	34.5	97.6

『기초연금』 경험률이 34.0%로 가장 높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사업 인지를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 응답 : 사업별 각 100.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농촌 주민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기초연금'(34.0%)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7.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6.5%,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4.8%의 경험률을 보였다.

각 사업별 인지층에 한해서 '기초연금' 경험층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27.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24.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19.5%의 경험률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경험층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1114 - (2)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합계		(3,995)	7.0	(3,995)	6.5	(3,995)	4.8	(3,995)	34.0
읍/면	읍	(1,711)	2.4	(1,711)	2.1	(1,711)	1.7	(1,711)	21.1
	면	(2,284)	10.5	(2,284)	9.8	(2,284)	7.1	(2,284)	43.6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19.2	(1,340)	17.5	(1,340)	13.3	(1,340)	52.4
	비농어가	(2,655)	0.9	(2,655)	0.9	(2,655)	0.5	(2,655)	24.7

표 1114 - (3)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합계		(1,035)	27.1	(1,066)	24.3	(978)	19.5	(3,572)	38.0
읍/면	읍	(279)	15.0	(283)	12.4	(239)	12.4	(1,429)	25.2
	면	(755)	31.6	(782)	28.6	(740)	21.8	(2,142)	46.5
영농 여부	농어가	(580)	44.3	(612)	38.4	(584)	30.5	(1,284)	54.7
	비농어가	(455)	5.2	(453)	5.3	(395)	3.3	(2,288)	28.6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추이

- 2016년에 비해 '기초연금'(+19.2%p) 인지도가 증가한 반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8%p) 인지도는 감소함

표 1114 - (4)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 추이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2017년 (3,995)	25.9	26.7	24.5	89.4
2016년 (3,952)	31.7	28.1	26.5	70.2

- 전체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경험률이 증가(+13.1%p)한 반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4.4%p),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2.4%p) 경험률은 감소함

표 1114 - (5)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 추이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7년 (3,995)	(3,995)	7.0	(3,995)	6.5	(3,995)	4.8	(3,995)	34.0
2016년 (3,952)	(3,952)	11.4	(3,952)	8.9	(3,952)	5.4	(3,952)	20.9

- 인지총 기준 경험률 역시 '기초연금' 경험률이 증가(+8.2%p)한 반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8.8%p),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7.4%p) 경험률은 감소함

표 1114 - (6)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총 대상) - 추이

단위: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7년 (1,035)	(1,035)	27.1	(1,066)	24.3	(978)	19.5	(3,572)	38.0
2016년 (1,251)	(1,251)	35.9	(1,111)	31.7	(1,045)	20.6	(2,774)	29.8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평균 61.0점

[사업 경험층에 한해]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사업 경험층 기준(n=1,558)/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x_i - 1) \times 25,0000$, x_i =측정 값]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는 평균 61.0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제도별로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평균 64.6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평균 62.2점), '기초연금'(평균 61.4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평균 55.7점) 순이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기초연금' 만족도가 높았다.

표 1114 - (7) |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1,558)	61.0	62.2	64.6	55.7	61.4
읍/면	읍	(397)	60.6	62.1	64.5	55.6	60.1	
	면	(1,161)	61.1	62.2	64.7	55.7	61.9	
영농 여부	농어가	(887)	61.0	62.1	64.5	55.6	61.9	
	비농어가	(671)	60.9	62.2	64.8	55.8	6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59.5	63.3	64.6	55.7	54.2	
	40대	(177)	61.3	62.8	64.1	55.7	62.5	
	50대	(266)	60.3	62.2	64.7	54.8	59.6	
	60대	(358)	60.6	61.5	64.3	55.7	60.7	
	70대 이상	(662)	61.6	62.2	64.9	56.0	63.3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2016년 대비 '기초연금'(-11.4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7.8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3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가 감소함(-6.9점)
- 이러한 결과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14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115>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평균 61.6점
-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건강'(38.0%), '가족'(34.3%)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평균 61.6점

구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함 : 응답률 99.7%(n=3,985)]

'매우 행복하다'(5.7%), '행복한 편이다'(46.7%) 등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이 절반수준(52.4%)을 차지하여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1.6점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행복감이 더 높았다.

[표 1115-(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한 편 (합)	보통 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합)	
합계		(3,985)	61.6점	5.7	46.7	52.4	37.2	9.3	1.1	10.4
읍/면	읍	(1,704)	63.2점	5.7	51.4	57.1	33.9	8.1	0.9	9.0
	면	(2,282)	60.4점	5.6	43.2	48.8	39.7	10.2	1.3	11.5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1.6점	4.5	46.2	50.6	40.9	8.1	0.4	8.5
	비농어가	(2,647)	61.7점	6.3	46.9	53.2	35.4	9.9	1.5	1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1)	67.9점	10.3	58.1	68.4	25.2	5.9	0.5	6.4
	40대	(704)	61.3점	3.7	47.5	51.3	40.4	6.8	1.5	8.3
	50대	(808)	59.3점	4.5	43.7	48.2	38.2	11.6	2.0	13.6
	60대	(628)	59.3점	4.4	41.7	46.1	41.4	11.6	1.0	12.5
	70대 이상	(764)	57.4점	3.2	37.0	40.1	46.9	12.1	0.8	12.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38)	62.9점	6.7	49.8	56.5	33.4	8.7	1.5	10.1
	선주민	(1,648)	59.8점	4.2	42.3	46.5	42.7	10.2	0.6	10.8
이주 의사	의향층	(311)	65.5점	8.8	52.4	61.2	32.1	5.3	1.4	6.7
	비의향층	(3,667)	61.3점	5.4	46.2	51.6	37.7	9.6	1.1	10.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건강'(38.0%), '가족'(34.3%)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제 한하 : 응답률 99.7%(n=3,98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38.0%), '가족'(34.3%)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21.8%), '일/직업'(3.3%), '문화 및 여가활동'(0.9%), '대인관계'(0.6%), '지역생활환경'(0.5%) 순이었다.

그림 1115 - (1)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비율이 높았다.

표 1115 - (2) | 행복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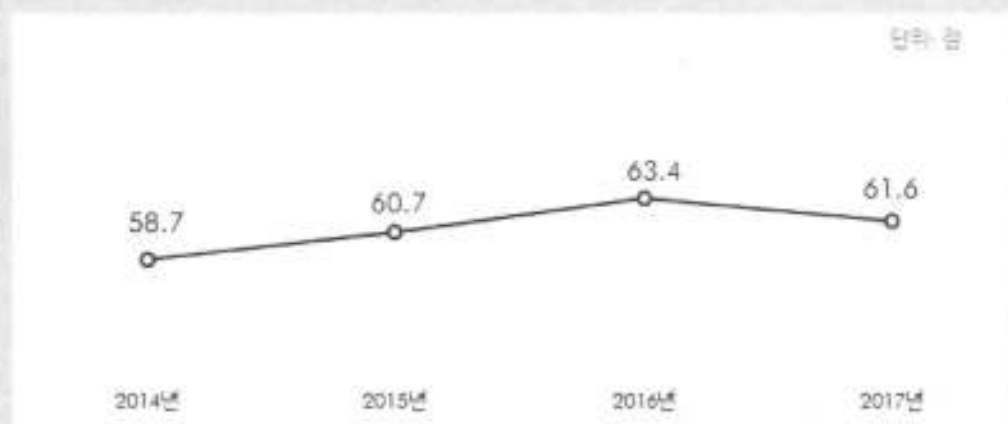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합계	(3,982)	34.3	38.0	21.8	3.3	0.9	0.5	0.6	0.5
읍/면	읍	(1,701)	43.0	31.1	19.7	3.4	1.2	0.5	0.6	0.5
	면	(2,281)	27.8	43.1	23.3	3.3	0.7	0.4	0.7	0.6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28.9	48.9	19.2	1.2	0.3	0.8	0.5	0.3
	비농어가	(2,644)	37.0	32.5	23.1	4.4	1.2	0.3	0.7	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0.7	17.9	25.0	5.1	1.1		0.3	
	40대	(702)	45.0	24.7	21.9	4.3	1.4	0.7	0.5	1.4
	50대	(809)	26.2	42.7	24.0	3.1	1.4	1.1	0.4	1.2
	60대	(628)	24.1	49.9	21.1	2.8	0.2	0.7	0.9	0.3
	70대 이상	(763)	18.3	63.8	15.3	0.6	0.5	0.2	1.3	0.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 대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1.8점 감소

| 그림 1115 - (2)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은 10점 척도를 사용함

- 행복의 영향 요인으로서는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가족', '건강'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6년 대비 '가족' 비율이 감소(-7.2%p)한 반면, '경제적 안정'(+6.1%p), '건강'(+4.8%p) 비율이 증가함

| 표 1115 - (3) |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단위: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작업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2017년	(3,982)	34.3	38.0	21.8	3.3	0.9	0.5	0.6	0.5
2016년	(3,935)	41.5	33.2	15.7	3.5	1.2	1.2	3.3	0.4
2015년	(3,916)	39.4	35.2	13.3	3.6		1.8	6.3	0.4
2014년	(3,931)	41.1	35.7	12.8	2.9		0.9	6.2	0.5

* 2016년 추가

* 2016년 이전은 행복의 영향 요인 2가지를 선택하여 100.0% 환산한 값임

1200> 기초생활

여건

- 1201>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 1202> 주택의 종류 및 지붕의 주된 재료
- 1203> 주택의 점유형태
- 1204> 주택수리 현황
- 1205> 주택 면적 및 방 개수
- 1206> 주택 설비 현황
- 1207>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1208> 난방환경 개선 방안
- 1209> 주택에 대한 만족도
- 1210> 경로당 이용현황
- 1211>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 1212> 주요 이용 교통수단
- 1213> 수요 대응형 교통(DRT)에 대한 인식
- 1214>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
- 1215> 인터넷 이용 경험
- 1216> 대중교통 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1201 >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언제 건축(신축) 하셨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3,972)]

▶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6.0년

‘1990년대’(36.0%), ‘2000년대’(26.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3.2%), ‘1950년대 이전’(6.8%), ‘1970년대’(6.3%), ‘1960년대’(3.8%)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30.2%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1960년대 이전에 지어져 5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10.6%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6.0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주택 건축(신축)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01 |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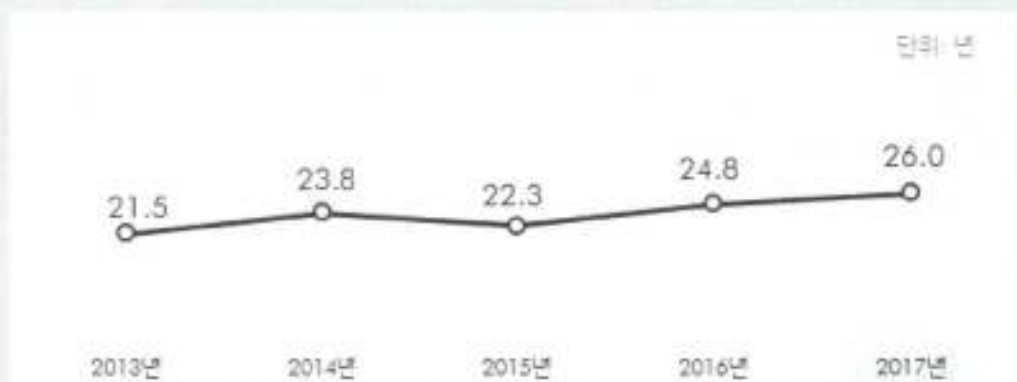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평균	1950 년대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972)		26.0년	6.8	3.8	6.3	13.2	36.0	26.9	6.9
읍/면	읍 (1,696)	22.3년	4.3	1.6	3.3	8.8	41.8	35.0	5.2
	면 (2,276)	28.7년	8.7	5.4	8.6	16.5	31.7	20.9	8.2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30.3년	11.0	5.7	10.2	14.5	32.5	17.9	8.3
	비농어가 (2,635)	23.8년	4.7	2.9	4.4	12.5	37.8	31.5	6.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8)	19.8년	2.9		0.2	8.0	44.1	38.4	6.4
	40대 (703)	23.5년	6.5	1.8	3.6	7.8	39.6	33.4	7.3
	50대 (804)	26.8년	5.9	5.7	8.2	17.1	34.3	20.9	8.0
	60대 (627)	27.8년	7.3	3.6	8.6	19.4	32.6	21.4	7.1
	70대 이상 (760)	34.8년	13.4	9.2	13.7	16.2	25.9	15.6	5.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26)	22.3년	3.9	1.9	3.4	10.8	39.2	34.6	6.2
	선주민 (1,646)	31.2년	11.0	6.5	10.4	16.5	31.5	16.1	7.8

주택의 건축 신축년도 - 추이

2013년에 비해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가 더 깊어짐(+4.5년)

| 그림 1201 |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202 > 주택의 종류 및 지붕의 주된 재료

▶ '단독주택' 비율이 59.0%, 지붕의 주된 재료는 '슬래브'(43.1%)

🏠 '단독주택' 59.0%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0)]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9.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29.1%), '연립/다세대 주택'(8.5%) 순이었다.

[그림 1202 - (1)] 주택의 종류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았다.

[표 1202 - (1)] 주택의 종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합계		(3,995)	59.0	29.1	8.5	3.5
읍/면	읍	(1,711)	35.0	49.0	12.6	3.4
	면	(2,284)	77.0	14.1	5.3	3.5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3.4	2.9	1.1	2.6
	비농어가	(2,655)	41.6	42.3	12.2	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21.1	61.5	13.0	4.4
	40대	(707)	44.2	41.0	12.3	2.5
	50대	(810)	75.5	13.6	6.4	4.5
	60대	(630)	82.2	7.5	5.8	4.5
	70대 이상	(764)	89.9	6.3	2.9	1.0
현 거주지 고령 여부	이주민	(2,345)	38.2	46.0	12.5	3.3
	선주민	(1,650)	88.6	4.9	2.8	3.7

주택의 종류 - 추이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 1202 - (2) | 주택의 종류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중립조사로 농어촌 가구(=2,764) 기준 수치임

* 2013년~2016년 연립/다세대 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자봉의 주된 재료는 '슬래브'(43.1%)

(단독주택의 경우) 자봉의 주된 재료는 무엇입니까?

[단독주택 거주층(n=2,357) 중 응답가구며 한해 : 응답률 99.2%(n=2,338)]

단독주택 거주층의 주택 자봉의 주된 재료로 '슬래브'(43.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합석'(24.5%), '슬레이트'(14.6%), '기와'(13.2%) 순이었다. 이 중 1급 발암물질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슬레이트' 자봉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자봉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층에서 '슬래브'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 1960년대 이전 건축/신축층에서 '합석' 비율이 높았다.

표 1202 - (2) | 자봉의 주된 재료

단위 : %/명

구분			슬레이트	기와	슬래브	합석	기타	
합계			(2,338)	14.6	13.2	43.1	24.5	4.5
읍/면	읍	(594)	14.7	10.5	47.7	23.9	3.3	
	면	(1,744)	14.6	14.1	41.6	24.7	5.0	
영농 여부	농어가	(1,243)	12.5	12.7	43.4	26.9	4.5	
	비농어가	(1,095)	17.0	13.8	42.8	21.8	4.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28)	19.2	13.7	46.9	20.2		
	40대	(313)	18.3	7.7	49.1	20.5	4.4	
	50대	(603)	17.5	14.2	39.5	22.2	6.7	
	60대	(515)	9.5	12.9	49.3	23.2	5.2	
	70대 이상	(679)	12.7	14.9	37.6	30.9	3.8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11)	32.9	13.2	9.0	41.7	3.2	
	1970년대	(236)	19.2	23.0	25.0	31.4	1.3	
	1980년대	(407)	20.9	17.9	36.6	22.0	2.6	
	1990년대 이후	(1,273)	5.6	9.9	59.7	18.5	6.2	

1203. 주택의 점유형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0)]

▶ '자가' 80.3%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8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8.9%), '월세'(7.6%), '무상'(3.1%) 순이었다.

| 그림 1203 | 주택의 점유형태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전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3 - (1) |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합계 (3,990)			80.3	8.9	7.6	3.1
읍/면	읍	(1,709)	72.3	14.1	10.6	3.0
	면	(2,281)	86.3	5.0	5.4	3.2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96.5	1.3	1.1	1.1
	비농어가	(2,652)	72.2	12.8	10.9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2)	64.7	19.9	13.0	2.3
	40대	(706)	72.3	9.9	11.8	5.9
	50대	(810)	87.2	4.3	5.4	3.1
	60대	(629)	91.7	3.5	3.2	1.6
	70대 이상	(762)	93.1	1.8	2.1	3.0
현 거주지 고령 여부	이주민	(2,342)	70.0	13.8	12.5	3.8
	선주민	(1,648)	95.0	2.0	0.8	2.2

주택 점유형태 - 추이

2013년 이후 비슷한 분포를 보임

표 1203 - (2) | 주택의 점유형태 - 추이

단위 :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2017년 (3,990)	80.3	8.9	7.6	3.1
2016년 (3,951)	78.2	10.9	6.8	4.1
2015년 (3,930)	78.8	8.8	9.6	2.8
2014년 (3,938)	78.8	8.6	8.6	3.9
2013년 (2,763)	81.1	9.9	7.4	1.8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3년~2016년 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

1204. 주택수리 현황

- ▶ 지난 1년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수리한 적 있는 층이 10.7%
- ▶ 수리 종류로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61.1%) 비율이 가장 높음

▶ 지난 1년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수리한 적 있는 층이 10.7%

[2016년 '16.1.1~12.31]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한 적이 있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한 적이 있는 비율이 10.7%이었고, 이 중 '대수선(리모델링)'(4.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축'(4.0%), '중축'(0.6%)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40대 연령층에서 [수리한 적 있음] 비율이 높았다.

| 표 1204 - [1] | 주택수리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리한 적 있음	개축	중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타	수리한 적 없음	
합계			(3,995)	10.7	4.0	0.6	4.9	1.2	89.3
읍/면	읍	(1,711)	7.9	2.0	0.6	3.9	1.5	92.1	
	면	(2,284)	12.8	5.5	0.6	5.8	1.0	87.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11.6	5.5	0.9	4.8	0.4	88.4	
	비농어가	(2,655)	10.3	3.3	0.4	5.0	1.6	89.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8	1.6		3.6	2.6	92.2	
	40대	(707)	14.2	5.6	0.7	7.2	0.7	85.8	
	50대	(810)	10.0	4.2	0.8	4.3	0.7	90.0	
	60대	(630)	11.4	5.0	0.4	5.6	0.4	88.6	
	70대 이상	(764)	11.8	4.9	1.2	4.9	0.9	88.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45)	11.3	3.7	0.5	5.5	1.7	88.7	
	선주민	(1,650)	9.8	4.4	0.7	4.1	0.5	90.2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13.3	7.7	0.9	4.1	0.6	86.7	
	1970년대	(252)	9.4	4.1	0.2	4.4	0.6	90.6	
	1980년대	(524)	14.5	7.6	0.7	5.7	0.4	85.5	
	1990년대 이후	(2,774)	9.8	2.8	0.5	5.0	1.5	90.2	

수리 종류로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61.1%) 비율이 가장 높음

(주택 수리종류에 대해 어떤 종류의 수리를 하셨습니까?)

[주택 수리종류(n=428) 기준, 중복 응답 : 수리 유형별 각 100.0%]

주택 수리종류(n=428) 중 절반 이상(61.1%)이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구 중 1가구에서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32.1%),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공사'(28.0%), 4가구 중 1가구에서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24.9%)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 6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 1960년대 이전에서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공사',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4 - (2) | 주택수리 종류(중복 응답 : 수리 유형별 각 100.0%)

단위 : %/명

구분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공사	전기·누전, 누수공사	상하수도공사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대수선 (냉/가열/주방 등 확장)	기타
합계 (428)		61.1	32.1	28.0	16.1	7.2	24.9	0.7	8.1	3.2
읍/면	읍	(135) 64.4	38.1	27.8	10.8	3.8	12.8		8.0	3.0
	면	(293) 59.6	29.3	28.1	18.5	8.8	30.5	1.0	8.1	3.3
영농 여부	농어가	(155) 53.1	29.4	38.5	19.1	12.6	36.7	1.6	12.6	1.6
	비농어가	(273) 65.7	33.6	22.0	14.3	4.2	18.2	0.2	5.5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4) 63.5	21.8	16.5	10.3		9.6		4.6	4.3
	40대	(101) 78.2	46.2	18.9	14.1	3.4	21.6		5.0	2.2
	50대	(81) 55.2	29.8	40.3	15.8	12.2	21.9		12.0	4.8
	60대	(72) 61.4	32.1	38.1	23.2	15.2	38.5	2.4	8.9	2.2
	70대 이상	(90) 45.0	27.8	29.8	18.2	7.6	34.7	1.4	10.6	2.7
한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66) 68.7	33.2	22.8	14.0	2.7	14.9	0.2	6.7	4.4
	선주민	(162) 48.8	30.2	36.6	19.4	14.8	41.4	1.6	10.3	1.3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56) 67.9	50.6	31.3	14.3	8.8	34.2	2.3	10.6	1.4
	1970년대	(24) 49.4	12.0	33.7	19.3	14.3	38.8		6.3	
	1980년대	(76) 57.5	38.3	35.0	22.8	7.2	31.7	1.7	6.6	4.4
	1990년대 이후	(271) 61.9	27.9	24.7	14.0	6.3	20.0	0.1	7.9	3.5

1205> 주택 면적 및 방 개수

▶ 주택의 면적은 평균 82.5㎡, 방 개수는 평균 2.7개

▶ 주택의 면적은 평균 82.5㎡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 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 (n=3,986)

주택의 면적은 '80~90㎡ 미만'(18.8%), '60~70㎡ 미만'(1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90~100㎡ 미만'(14.8%), '70~80㎡ 미만'(12.8%), '110㎡ 이상'(10.7%), '100~110㎡ 미만'(9.3%), '50~60㎡ 미만'(8.7%), '50㎡ 미만'(7.0%) 순으로 평균 면적은 82.5㎡였다.

읍지역,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층,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평균 면적이 넓었다.

| 표 1205 - [1] | 주택 평균 면적

단위 : %/명

구분			평균	50㎡ 미만	50~ 60㎡ 미만	60~ 70㎡ 미만	70~ 80㎡ 미만	80~ 90㎡ 미만	90~ 100㎡ 미만	100~ 110㎡ 미만	110㎡ 이상
합계			(3,986) 82.5㎡	7.0	6.7	17.9	12.8	18.8	14.8	9.3	10.7
읍/면	읍	(1,711)	84.1㎡	7.3	7.2	15.5	14.6	16.5	9.8	16.2	13.0
	면	(2,274)	81.2㎡	6.8	9.9	19.7	11.4	20.6	18.5	4.2	9.0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83.3㎡	5.3	9.0	17.7	10.9	18.7	22.5	6.6	9.2
	비농어가	(2,646)	82.0㎡	7.9	8.6	18.0	13.7	18.8	10.8	10.7	11.4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2)	71.0㎡	15.9	19.0	27.5	7.6	12.3	10.6	1.6	5.5
	1970년대	(251)	70.4㎡	13.9	14.4	31.7	7.9	12.6	11.0	3.9	4.6
	1980년대	(516)	73.5㎡	6.2	18.3	31.4	11.4	14.3	11.7	1.6	5.0
	1990년대 이후	(2,774)	87.0㎡	5.0	4.9	12.7	14.3	21.2	16.4	12.5	13.1
총 가구원 수	1명	(773)	69.1㎡	19.9	16.9	21.8	11.8	10.9	10.1	4.7	3.9
	2명	(1,259)	83.0㎡	5.6	9.1	20.0	12.0	18.8	17.2	6.8	10.5
	3명	(707)	82.4㎡	3.9	6.4	19.4	15.0	26.4	12.2	6.8	9.9
	4명	(754)	90.7㎡	1.9	3.8	10.4	15.7	19.9	13.6	19.1	15.5
	5명	(364)	88.7㎡	3.2	1.3	17.5	11.3	20.3	21.6	10.8	13.9
	6명 이상	(130)	91.2㎡	1.6	18.4	10.7	0.3	13.8	20.9	14.4	20.0

방 개수는 평균 2.7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방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4)]

방 개수로 '3개'(63.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26.0%), '4개 이상'(6.9%), '1개'(4.0%) 등 평균 방 개수는 2.7개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건축/신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방 개수가 많았다.

표 1205 - (2) 방 개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1개	2개	3개	4개 이상
합계 (3,994)		2.7개	4.0	26.0	63.1	6.9
읍/면	읍 (1,711)	2.7개	4.2	24.0	66.7	5.1
	면 (2,282)	2.8개	3.9	27.5	60.4	8.2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2.8개	1.4	25.2	62.8	10.7
	비농어가 (2,654)	2.7개	5.3	26.4	63.2	5.0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2)	2.5개	7.6	47.5	35.9	9.0
	1970년대 (252)	2.6개	4.4	35.8	51.1	8.7
	1980년대 (524)	2.7개	5.0	35.6	49.9	9.6
	1990년대 이후 (2,774)	2.8개	3.1	20.0	70.9	6.0
총 가구원 수	1명 (781)	2.4개	13.8	38.6	43.1	4.4
	2명 (1,259)	2.7개	2.2	30.7	60.6	6.5
	3명 (707)	2.8개	1.0	26.2	65.9	6.9
	4명 (754)	2.9개	1.8	13.8	80.6	3.8
	5명 (364)	3.0개	0.9	10.6	78.6	9.9
	6명 이상 (130)	3.3개		17.7	46.0	36.3

1206> 주택 설비 현황

▶ 부엌, 화장실(각 99.8%), 목욕시설(99.4%) 모두 '단독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난방시설로 '가름보일러'(37.8%), '도시가스 보일러'(30.7%) 비율이 가장 높음

▶ 부엌, 화장실(각 99.8%), 목욕시설(99.4%) 모두 '단독사용' 비율이 매우 높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각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용 형태와 종류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사용형태 :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종류 및 개수 : 사용종 기준]

부엌, 화장실(각 99.8%), 목욕시설(99.4%) 모두 '단독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화장실의 경우 평균 1.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로 부엌의 경우 '입식'(99.7%), 화장실의 경우 '수세식'(98.3%),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99.3%)가 대부분이었다.

| 표 1206 - ①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엌 사용형태			부엌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입식	재래식
읍/면	합계	(3,995)	99.8	0.0	(3,965)	99.7	0.3
	읍	(1,711)	99.8		(1,703)	99.9	0.1
	면	(2,284)	99.8	0.0	(2,262)	99.6	0.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9	0.0	(1,333)	99.8	0.2
	비농어가	(2,655)	99.8	0.0	(2,632)	99.7	0.3

구분		화장실 사용형태			화장실 종류			화장실 개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수세식	재래식	평균	수세식	재래식
읍/면	합계	(3,995)	99.8	0.2	(3,988)	98.3	1.1	1.4개	1.3개	0.1개
	읍	(1,711)	99.6	0.3	(1,710)	99.0	1.7	1.4개	1.3개	0.0개
	면	(2,284)	99.9	0.1	(2,278)	97.9	0.9	1.3개	1.2개	0.1개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7	0.3	(1,339)	97.0	1.5	1.4개	1.2개	0.2개
	비농어가	(2,655)	99.8	0.1	(2,649)	99.0		1.3개	1.3개	0.0개

구분		목욕시설 사용형태			목욕시설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온수	비온수
읍/면	합계	(3,995)	99.4	0.1	(3,961)	99.3	0.7
	읍	(1,711)	99.5	0.1	(1,705)	99.3	0.7
	면	(2,284)	99.3	0.0	(2,256)	99.2	0.8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2	0.0	(1,327)	99.2	0.8
	비농어가	(2,655)	99.6	0.1	(2,634)	99.3	0.7

난방시설로 '기름보일러'(37.8%), '도시가스 보일러'(30.7%) 비율이 가장 높음

(난방시설 있는 층(n=3,98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69))

난방시설이 있는 층이 99.7%였으며, 난방시설 종류로 '기름보일러'(37.8%), '도시가스 보일러'(30.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보일러'(12.3%), '지역난방'(6.2%), '화목보일러'(5.3%),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5%), '연탄보일러'(2.3%), '중앙난방'(1.4%)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한 층에서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1980년대 이전 건축/신축한 층,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기름보일러' 비율이 높고, '화목보일러', '전기보일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06 - (2) | 난방시설 유형

단위 : %/명

구분			난방 시설 있음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기타
	합계	(3,995)	99.7	1.4	6.2	30.7	37.8	5.3	3.5	12.3	2.3	0.6
읍/면	읍	(1,711)	99.5	1.2	11.3	49.6	21.4	2.6	5.4	6.4	1.4	0.7
	면	(2,284)	99.9	1.6	2.3	16.6	50.0	7.3	2.0	16.8	2.9	0.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99.5	0.3	1.0	6.4	51.7	12.7	0.9	22.5	3.6	0.9
	비농어가	(2,655)	99.8	1.9	8.8	43.0	30.7	1.6	4.8	7.2	1.6	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100.0	1.6	10.0	62.1	13.9	5.6	5.4	1.4		
	40대	(707)	99.6	2.6	12.2	36.7	24.1	3.4	4.3	14.4	2.3	
	50대	(810)	99.2	0.5	3.6	19.2	47.3	8.0	2.8	14.2	2.9	1.4
	60대	(630)	99.9	1.5	1.8	12.1	49.8	6.3	2.4	21.5	3.5	1.0
	70대 이상	(764)	99.8	0.8	1.5	7.9	64.4	2.9	1.6	16.6	3.7	0.5
주택의 건축 및 신축 년도	1960년대 이전	(423)	98.8	0.6		1.4	70.0	10.8	0.5	10.6	5.7	0.5
	1970년대	(252)	98.2	0.1		2.4	71.2	5.5	0.1	14.9	5.4	0.4
	1980년대	(524)	99.9	0.7		10.6	66.0	4.0	3.1	13.7	1.8	0.2
	1990년대 이후	(2,774)	100.0	1.8	8.9	41.6	24.5	4.7	4.1	12.2	1.6	0.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57)	99.6	1.0	0.0	5.3	59.4	8.9	1.1	19.7	3.7	1.0
	아파트	(1,161)	99.9	2.6	21.1	71.0	0.0	0.2	5.0		0.1	
	연립/다세대/기타	(477)	100.0	0.3		57.6	23.3	0.2	11.6	6.4	0.6	

주택 설비 현황 - 추이

- 사용형태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
- 화장실 종류로 '수세식' 비율이 4.4%p 증가

표 1206 - (3)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현황 - 추이

단위: %/명

구분	부엌 사용형태			부엌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입식	재래식
2017년	(3,995)	99.8	0.0	(3,965)	99.7	0.3
2013년	(2,761)	99.9	0.1	(2,748)	98.5	1.5

구분	화장실 사용형태			화장실 종류			화장실 개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수세식	재래식	평균	수세식	재래식
2017년	(3,995)	99.8	0.2	(3,988)	98.3	1.1	1.4개	1.3개	0.1개
2013년	(2,763)	99.6	0.3	(2,741)	93.9	6.1	1.3개		

구분	목욕시설 사용형태			목욕시설 종류		
	사례 수	단독사용	공동사용	사례수	온수	비온수
2017년	(3,995)	99.4	0.1	(3,961)	99.3	0.7
2013년	(2,759)	98.7	0.0	(2,717)	98.7	1.3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온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화목보일러'가 추가되어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지역난방' 비율이 4.3%p 증가

표 1206 - (4) | 난방 시설 유형 - 추이

단위: %/명

구분	난방 시설 있음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기타*
2017년 (3,995)	99.7	1.4	6.2	30.7	37.8	5.3	3.5	12.3	2.3	0.6
2013년 (2,760)	99.8	0.8	1.9	33.9	38.8	-	6.2	11.2	3.0	4.2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온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3년 기타=재래식 마궁이+기타

1207>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난방비 지출 기간은 평균 4.8개월, 월 평균 난방비는 16.0만원

▶ 난방비 지출 기간은 평균 4.8개월

구단에서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조사대상 가구 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3,975)

난방비 지출 시작 월은 '11월'(47.9%), '10월'(45.0%)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료 월은 '3월'(49.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월'(30.3%), '2월'(14.4%), '5월'(5.1%) 순으로 난방비 평균 지출기간은 4.8개월 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화목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사용층에서 연평균 난방비 지출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7 - (1) | 난방 사용기간

단위 : %

구분			지출 기간	난방비 지출 시작 월				난방비 지출 종료 월				
			평균	9월	10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3,975)	4.8개월	4.8	45.0	47.9	2.2	14.4	49.2	30.3	5.1
읍/면	읍	(1,697)	4.6개월	2.9	39.5	55.8	1.6	13.2	55.7	26.4	3.4	
	면	(2,278)	4.9개월	6.2	49.0	42.0	2.7	15.3	44.3	33.2	6.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0개월	4.6	55.3	37.9	2.0	13.5	42.4	37.4	6.1	
	비농어가	(2,635)	4.7개월	4.9	39.7	53.0	2.3	14.9	52.6	26.6	4.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5)	4.7개월	4.5	41.5	52.5	1.6	16.7	49.2	28.1	4.2	
	40대	(702)	4.8개월	4.2	42.2	52.0	1.4	14.0	47.6	30.8	6.8	
	50대	(808)	4.7개월	5.6	42.0	47.9	4.2	13.8	52.9	29.2	3.3	
	60대	(627)	4.8개월	4.4	48.2	44.8	2.5	14.1	48.2	31.5	5.4	
	70대 이상	(763)	5.0개월	5.4	52.9	40.2	1.4	12.4	47.4	32.9	6.3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55)	4.8개월	1.0	21.6	77.4		1.8	40.5	57.3	0.4	
	지역난방	(245)	4.1개월	0.3	8.0	91.1	0.4	10.1	78.9	10.9		
	도시가스 보일러	(1,207)	4.6개월	4.7	39.4	53.0	2.8	18.9	49.5	24.9	5.4	
	기름보일러	(1,494)	4.8개월	4.1	48.5	44.2	3.0	14.6	45.6	34.1	4.9	
	화목보일러	(210)	5.2개월	8.6	61.3	29.2	1.0	15.8	33.5	38.3	11.1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37)	4.8개월	4.3	42.7	50.0	2.7	10.1	49.2	31.5	1.2	
	전기보일러	(489)	5.1개월	7.9	57.1	34.7	0.3	9.5	52.6	31.4	6.0	
	연탄 보일러	(90)	5.3개월	7.2	70.4	22.4		6.8	45.3	42.3	5.6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월 평균 난방비는 16.0만원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1%(n=3,961)]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으로 '10~15만원 미만'(27.8%), '20~30만원 미만'(22.1%), '15~20만원 미만'(20.6%) 등 [10~30만원 미만]이 2/3 수준(70.5%)이었으며,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16.2%), '30~40만원 미만'(8.2%), '40만원 이상'(2.6%), 5만원 미만(2.5%) 순으로 평균 16.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50~60대 연령층, 중앙난방, 기름보일러,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전기보일러 이용층에서 월 평균 난방비 지출이 더 많았다.

표 1207-② | 난방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합계			(3,961) 16.0만원	2.5	16.2	27.8	20.6	22.1	8.2	2.6
읍/면	읍	(1,690)	14.4만원	2.1	18.8	33.7	20.7	18.6	4.7	1.5
	면	(2,271)	17.2만원	2.8	14.2	23.4	20.5	24.7	10.8	3.5
영농 여부	농어가	(1,329)	18.1만원	2.7	12.3	19.8	21.2	26.6	13.7	3.6
	비농어가	(2,632)	14.9만원	2.4	18.1	31.8	20.2	19.8	5.4	2.2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49)	12.1만원	2.9	23.0	42.8	19.5	11.2	0.6	0.0
	비아파트	(2,812)	17.5만원	2.3	13.4	21.7	21.0	26.6	11.3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7)	13.6만원	4.1	17.0	37.2	21.6	15.7	3.5	0.9
	40대	(700)	16.2만원	2.2	20.8	24.6	16.3	24.0	9.3	2.8
	50대	(803)	17.6만원	1.2	12.5	29.0	18.5	23.5	10.2	5.2
	60대	(625)	17.8만원	1.5	12.7	20.2	24.7	26.0	11.1	3.8
	70대 이상	(756)	15.9만원	2.8	17.5	22.4	21.7	24.9	9.3	1.5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55)	19.2만원	0.5	25.4	12.1	18.1	23.2	0.3	20.4
	지역난방	(245)	13.1만원	2.7	17.2	42.7	20.4	16.1	0.9	
	도시가스 보일러	(1,215)	12.6만원	3.1	22.4	41.2	18.6	11.8	2.2	0.6
	기름보일러	(1,492)	18.7만원	0.8	10.2	21.0	22.4	29.7	11.2	4.9
	화목보일러	(202)	15.1만원	18.5	12.0	14.5	26.8	10.9	11.7	5.6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30)	17.4만원	1.4	8.1	10.4	36.0	36.0	7.9	0.3
	전기보일러	(489)	18.3만원	0.2	17.9	15.7	15.2	31.9	19.3	
	연탄 보일러	(88)	11.4만원	2.1	30.3	44.0	11.2	10.6	0.8	1.1

난방비 사용기간 및 난방비 - 추이

- 2013년과 난방 사용 기간은 평균 0.3개월 증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월 평균 난방비는 평균 3.7만원 감소함

그림 1207 |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208. 난방환경 개선 방안

▶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43.9%)이 주된 개선 방안

구하는 농어촌의 난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1%(n=3,879)]

농어촌의 난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43.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노후화된 난방시설 개/보수'(35.6%) 비율 또한 높았다. 한편, '주택 벽체 단열 시공'은 18.2%, '겨울철 공동시설 이용'은 1.8%였다.

[그림 1208 | 난방환경 개선 방안]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에서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아파트 거주층에서 '노후화된 난방시설 개/보수' 비율이 높았다.

[표 1208 | 난방환경 개선 방안]

단위: %명

구분			노후화된 난방시설 개/보수	주택 벽체 단열 시공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	겨울철 공동시설 이용	기타
합계 (3,879)			35.6	18.2	43.9	1.8	0.5
읍/면	읍	(1,628)	36.6	18.1	43.4	1.8	0.1
	면	(2,251)	34.8	18.2	44.4	1.9	0.8
영농 여부	농어가	(1,324)	32.8	15.4	49.0	1.9	0.8
	비농어가	(2,555)	37.0	19.6	41.3	1.8	0.3
아파트 여부	아파트	(1,081)	43.5	18.9	35.5	2.1	0.0
	비아파트	(2,799)	32.5	17.9	47.2	1.7	0.7

1209. 주택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0000$, x_i = 응답 값]

▶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55.2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주택 성능'(평균 49.6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주택 면적'(평균 58.6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주택 구조'(평균 57.0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주택 설비'(평균 55.7점), 내열, 내화, 방열, 방습 등 '주택 성능'(평균 49.6점) 순으로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55.2점)의 평가를 보였다.

아파트 거주층, 이주민층,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성능' 만족도가 높았다.

표 1209 | 주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면적	주택 설비	주택 구조	주택 성능
합계 (3,995)		55.2	58.6	55.7	57.0	49.6
읍/면	읍 (1,711)	56.5	57.9	57.6	58.1	52.4
	면 (2,284)	54.2	59.1	54.2	56.2	47.5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0	60.2	55.8	56.5	47.5
	비농어가 (2,655)	55.3	57.8	55.6	57.2	50.7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59.8	59.8	60.5	61.6	57.2
	비아파트 (2,834)	53.3	58.1	53.7	55.1	46.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6.9	58.0	58.0	57.4	54.0
	40대 (707)	55.1	57.4	54.8	58.1	50.3
	50대 (810)	54.8	59.2	55.1	56.5	48.5
	60대 (630)	56.0	60.4	56.5	58.3	48.9
	70대 이상 (764)	52.6	58.4	53.0	54.7	44.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45)	57.0	58.8	57.8	59.0	52.5
	선주민 (1,650)	52.7	58.3	52.7	54.1	45.5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41.8	45.8	41.4	44.7	35.3
	1970년대 (252)	47.1	54.0	46.8	48.5	39.3
	1980년대 (524)	49.9	54.4	50.3	52.6	42.1
	1990년대 이후 (2,774)	59.0	61.8	59.6	60.5	54.2

1210> 경로당 이용현황

- ▶ '주 5회 이상'(25.3%) 등 경로당 [이용층]이 55.0%
- ▶ [하루 1시간~5시간 이내] 이용층이 77.1%,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72.6%)가 주된 이용 목적

▶ '주 5회 이상'(25.3%) 등 경로당 [이용층]이 55.0%

귀국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주일에 경로당을 몇 회 이용하십니까?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가구(n=1,628) 중 응답가구의 한해 : 응답률 99.0%(n=1,611)]

'주 5회 이상'(25.3%), '주 3~4회'(15.6%), '주 1~2회'(14.2%)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층이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1210- (1)] 경로당 이용 현황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선주민층에서 이용층 비율이 더욱 높았다.

[표 1210- (1)] 경로당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합)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비이용(합)	
합계		(1,611)	55.0	14.2	15.6	25.3	45.0
읍/면	읍	(456)	41.4	9.4	9.1	23.0	58.6
	면	(1,155)	60.4	16.1	18.1	26.1	39.6
영농 여부	농어가	(860)	65.9	19.4	19.0	27.4	34.1
	비농어가	(752)	42.6	8.3	11.6	22.8	57.4
아파트 여부	아파트	(137)	20.3	1.4	5.9	13.0	79.7
	비아파트	(1,474)	58.3	15.4	16.5	26.4	4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아주민	(552)	40.5	12.7	11.6	16.2	59.5
	선주민	(1,059)	62.6	15.0	17.7	30.0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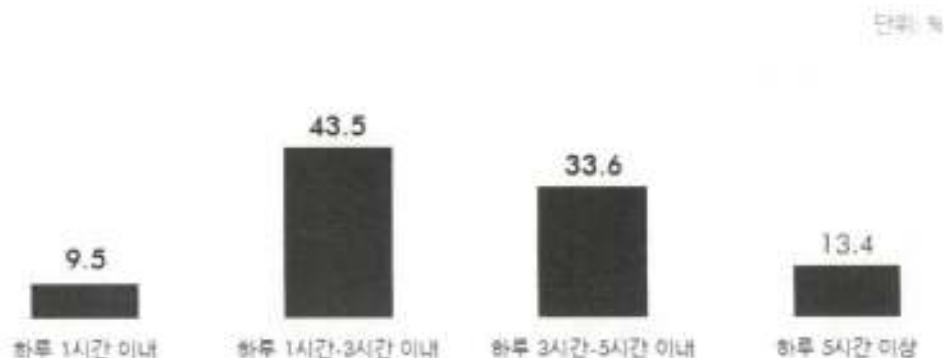
■ [하루 1시간~5시간 이내 이용층이 77.1%]

하루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 이용층(n=88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0%(n=878)]

경로당 이용 시간으로 '하루 1시간~3시간 이내'(43.5%), '하루 3시간~5시간 이내'(33.6%) 등 [하루 1시간~5시간 이내] 비율이 77.1%였다.

| 그림 1210 - (2) | 경로당 이용 시간



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주 4회 이하 경로당 이용층에서 '하루 1시간~3시간 이내'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주 5회 이상 경로당 이용층에서 '하루 3시간 이상' 비율이 높았다.

| 표 1210 - (2) | 경로당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하루 1시간 이내	하루 1시간~ 3시간 이내	하루 3시간~ 5시간 이내	하루 5시간 이상
합계 (878)			9.5	43.5	33.6	13.4
읍/면	읍	(186)	9.7	41.7	37.3	11.3
	면	(692)	9.4	44.0	32.5	14.0
영농 여부	농어가	(563)	9.8	46.0	31.0	13.2
	비농어가	(315)	8.9	39.1	38.1	13.8
아파트 여부	아파트	(28)	1.6	50.2	34.0	14.2
	비아파트	(851)	9.7	43.3	33.5	13.4
경로당 이용현황	주 1-2회	(226)	21.4	59.2	12.9	6.5
	주 3-4회	(249)	9.2	60.9	28.5	1.4
	주 5회 이상	(403)	3.0	24.0	48.3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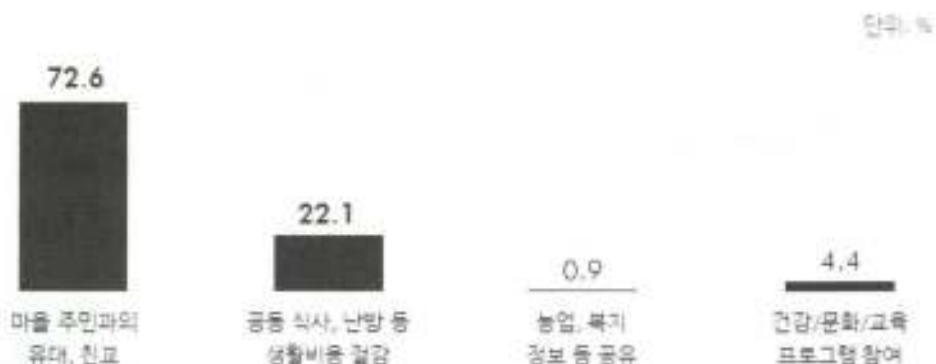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72.6%)가 주된 이용 목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로당 이용층(n=68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5%(n=665)]

경로당 이용 목적으로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72.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22.1%) 비율도 높았다.

| 그림 1210-3 | 경로당 이용 목적



농어가, 경로당 이용 횟수가 적을수록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 주 3회 이상 경로당 이용층에서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 비율이 높았다.

| 표 1210-3 | 경로당 이용 목적

단위: %명

구분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	농업, 복지 정보 등 공유	건강/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합계 (865)		72.6	22.1	0.9	4.4
읍/면	읍 (184)	75.8	15.0	1.2	8.0
	면 (681)	71.7	24.0	0.8	3.5
영농 여부	농어가 (554)	75.8	18.9	1.1	4.2
	비농어가 (310)	66.8	27.8	0.6	4.8
경로당 이용현황	주 1-2회 (223)	79.6	13.4	2.2	4.8
	주 3-4회 (245)	71.0	26.2	0.8	2.1
	주 5회 이상 (397)	69.6	24.4	0.3	5.7

1211 >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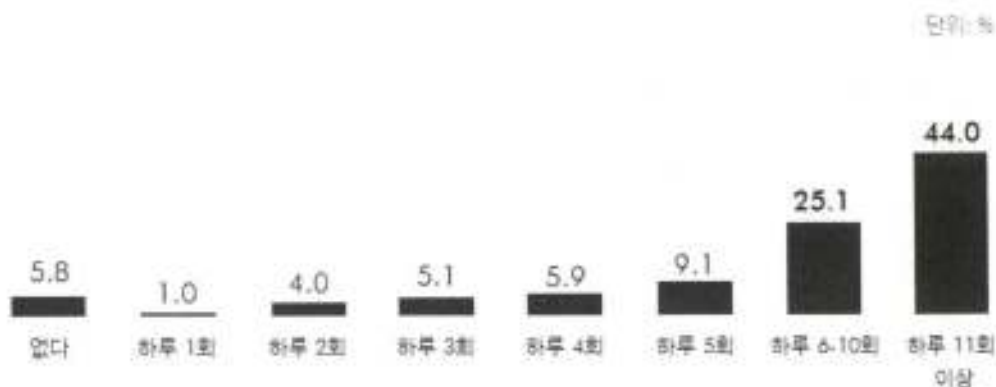
▶ '하루 11회 이상'(44.0%), '하루 6~10회'(25.1%) 등 [하루 6회 이상] 비율이 69.1%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버스를 하루에 몇 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예 한함: 응답률 99.5%(n=3,977)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루 11회 이상'(44.0%), '하루 6~10회'(25.1%) 등 [6회 이상]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1%였다. '하루 5회'(9.1%), '하루 4회'(5.9%), '하루 3회'(5.1%), '하루 2회'(4.0%), '하루 1회'(1.0%) 등 [5회 이하]는 25.1%,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응답은 5.8%였다.

| 그림 1211 |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하루 11회 이상' 비율이 더욱 높았다.

| 표 1211 |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단위: %/명

구분		없다	하루 1회	하루 2회	하루 3회	하루 4회	하루 5회	하루 6~10회	하루 11회 이상
합계 (3,977)		5.8	1.0	4.0	5.1	5.9	9.1	25.1	44.0
읍/면	읍 (1,697)	3.6	0.2	2.8	1.5	3.5	6.5	26.1	55.9
	면 (2,280)	7.4	1.6	4.8	7.8	7.7	11.1	24.3	35.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8.1	1.6	5.8	9.0	8.0	13.3	27.8	26.3
	비농어가 (2,637)	4.6	0.7	3.0	3.1	4.9	7.0	23.8	53.0

1212> 주요 이용 교통수단

귀하는 시장, 병원, 복지관 등을 갈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86)]

▶ '승용차'(56.0%), '버스'(30.4%)가 주된 교통수단

시장, 병원, 복지관 등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56.0%)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버스'(30.4%) 비율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걸어서'(7.0%), '택시'(3.5%), '오토바이'(1.2%), '복지관 차량', '자전거'(각 0.5%) 순이었다.

읍지역, 아파트 거주층, 남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승용차'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에서 '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212 | 주요 이용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걸어서	자전거	오토 바이	버스	승용차	택시	복지관 차량	기타
합계 (3,986)			7.0	0.5	1.2	30.4	56.0	3.5	0.5	0.8
읍/면	읍	(1,707)	12.6	0.6	0.4	23.4	59.9	2.7	0.2	0.3
	면	(2,279)	2.9	0.4	1.7	35.7	53.1	4.1	0.8	1.2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3.6	0.8	2.4	34.6	54.6	2.7	0.2	1.2
	비농어가	(2,647)	8.8	0.3	0.5	28.3	56.8	3.9	0.7	0.6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9)	10.8	0.4	0.0	17.3	68.9	2.4	0.0	0.2
	비아파트	(2,826)	5.5	0.5	1.6	35.8	50.8	3.9	0.8	1.1
응답자 성	남	(1,597)	4.4	0.7	2.3	23.7	64.6	3.4	0.3	0.5
	여	(2,389)	8.8	0.4	0.4	34.9	50.3	3.5	0.7	1.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1		0.7	19.0	69.4	2.5		1.3
	40대	(706)	10.5			14.9	71.4	2.3	0.9	
	50대	(806)	5.4	0.5	1.1	25.7	65.0	1.6	0.2	0.5
	60대	(628)	6.2	1.2	1.8	36.4	50.3	3.2	0.3	0.5
	70대 이상	(762)	6.2	1.1	2.4	61.1	17.9	8.2	1.6	1.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39)	8.4	0.3	0.8	24.4	62.9	2.7	0.2	0.4
	선주민	(1,647)	5.1	0.8	1.7	39.0	46.3	4.7	1.0	1.4

1213. 수요 대응형 교통(DRT)¹⁰⁾에 대한 인식

- ▶ 수요 대응형 교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 ▶ 수요 대응형 택시 인지율은 20.8%, 인지율 중 이용율은 4.3%, 이용율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8.9회
- ▶ 수요 대응형 버스 인지율은 12.6%, 인지율 중 이용율은 1.6%, 이용율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3.3회

수요 대응형 교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귀하는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하시는 분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운행하는 교통편이 농어촌지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2)]

수요 대응형 택시(59.5%), 수요 대응형 버스(53.8%)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요 대응형 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50% 이상이었다.

주된 이용 교통수단이 '버스'였던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대중 교통 이용 가능 횟수가 하루 10회 이하 및 없는 층에서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13- (1) |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수요 대응형 택시			수요 대응형 버스			
		필요한 편 (합)	보통 (합)	필요하지 않은 편(합)	필요한 편 (합)	보통 (합)	필요하지 않은 편(합)	
읍/면	합계	(3,982)	59.5	22.5	18.0	53.8	26.5	19.6
	읍	(1,702)	47.7	26.4	25.9	38.8	32.6	28.6
	면	(2,280)	68.3	19.6	12.1	65.0	22.0	13.0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68.4	19.9	11.6	61.5	26.6	11.9
	비농어가	(2,646)	55.0	23.8	21.2	49.9	26.5	23.6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7)	49.4	25.3	25.3	41.2	28.5	30.3
	비아파트	(2,825)	63.6	21.4	15.0	59.0	25.8	15.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2)	51.3	25.1	23.6	44.6	30.0	25.4
	40대	(704)	58.4	21.6	20.0	52.3	25.5	22.2
	50대	(807)	54.4	23.6	22.0	50.3	25.6	24.1
	60대	(627)	62.2	24.5	13.3	57.0	28.2	14.8
	70대 이상	(763)	75.2	17.1	7.7	69.4	22.2	8.4
대중교통 이용가능 횟수	없다	(230)	66.4	18.5	15.1	64.5	21.0	14.4
	하루 10회 이하	(1,993)	64.1	17.7	18.3	58.6	22.0	19.4
	하루 11회 이상	(1,748)	53.6	28.3	18.2	47.1	32.2	20.7

10) 수요 대응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기존의 버스 체계가 차지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수단 이용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준대중교통이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인지층은 20.8%, 인지층 중 이용층은 4.3%, 이용층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8.9회**
수요 대응형 버스 인지층은 12.6%, 인지층 중 이용층은 1.6%, 이용층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3.3회

알고 계신다면, 구하 또는 구역의 가구원께서 이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지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 이용 여부 : 인지층(n=830/503) 기준, 연간 이용횟수, 이용 목적 : 이용층(n=35/9) 기준]

수요 대응형 택시 인지층은 20.8%,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면지역, 농어가에서 인지도 역시 높았다. 인지층 중 이용층은 4.3%, 이용층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8.9회, 주된 이용 목적은 '병원'(76.8%)였다.

[표 1213 - ②] 수요 대응형 택시 인지여부-연간 이용 횟수-이용 목적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사례수	이용 횟수	이용 목적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이용층		평균	장보기	병원	친척가족 친구 만남
합계		(3,995)	20.8	(830)	4.3	(34)	8.9회	5.2	76.8	18.0
읍/면	읍	(1,711)	13.7	(235)	1.8	(4)	7.5회		98.6	1.4
	면	(2,284)	26.1	(596)	5.3	(30)	9.1회	5.9	73.8	20.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26.9	(360)	2.6	(10)	6.9회	14.5	85.5	
	비농어가	(2,655)	17.7	(471)	5.6	(24)	9.6회	1.6	73.4	25.0

수요 대응형 버스 인지층은 12.6%, 면지역, 농어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인지층 중 이용층은 1.6%, 이용층의 연간 이용 횟수는 평균 3.3회, 주된 이용 목적은 '장보기'(55.3%)였다.

[표 1213 - ③] 수요 대응형 버스 인지여부-연간 이용 횟수-이용 목적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사례수	이용 횟수	이용 목적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이용층		평균	장보기	병원	기타
합계		(3,995)	12.6	(503)	1.6	(9)	3.3회	55.3	18.7	26.0
읍/면	읍	(1,711)	10.6	(182)	1.2	(2)				100.0
	면	(2,284)	14.1	(321)	1.8	(6)	3.3회	74.7	25.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16.7	(224)	2.3	(5)	3.3회	84.4	15.6	
	비농어가	(2,655)	10.5	(279)	1.1	(3)	3.0회	11.5	23.4	65.2

1214>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

▶ 농촌 가구의 2/3 가량(72.9%)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음

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기준, 중복 응답 : 정보화 기기별 각 100.0%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로 '스마트폰'(72.9%)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농촌 가구 중 절반가량이 'PC'(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패드' 보유율은 7.3%, 정보화기기 중 어느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24.1%였다.

[그림 1214 |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중복 응답 : 정보화 기기별 각 100.0%)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보화기기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1214 | 정보화기기 보유 현황(중복 응답 : 정보화 기기별 각 100.0%)

단위: %명

구분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기타	없다
합계 (3,995)			49.8	72.9	7.3	0.0	24.1
읍/면	읍	(1,711)	61.3	82.4	8.9		13.6
	면	(2,284)	41.3	65.8	6.2	0.1	32.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35.5	60.0	6.1		35.2
	비농어가	(2,655)	57.1	79.4	8.0	0.1	1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79.5	94.0	18.7		0.8
	40대	(707)	70.4	95.6	7.9		1.8
	50대	(810)	49.6	85.4	3.1		12.4
	60대	(630)	26.7	58.5	0.7	0.2	39.2
	70대 이상	(764)	8.1	20.7	0.6		77.8

1215. 인터넷 이용 경험

- ▶ 정보화기기 보유층의 91.5%가 인터넷 이용, '유/무선'이 49.2%
- ▶ '뉴스 등 시사정보 탐색'(73.6%)이 주된 인터넷 이용 목적
- ▶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64.9%)가 주된 인터넷 미이용 이유

▶ 정보화기기 보유층의 91.5%가 인터넷 이용, '유/무선'이 49.2%

규칙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인터넷 사용 여부: 정보화기기 보유층(n=3,031) 기준/ 종류: 인터넷 사용층(n=2,77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 응답: 종류별 각 100.0%

정보화기기 보유층 중 91.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용하는 인터넷 종류로 '유/무선' 모두 사용하는 층이 절반 수준(49.2%)이었으며, '무선' 인터넷만 사용하는 층이 29.1%, '유선' 인터넷만 사용하는 층이 21.6%였다.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PC 이용층에서 인터넷 이용층 및 '유/무선' 모두 사용하는 층 비율이 더욱 높았다.

[표 1215 - (1) | 사용하는 인터넷 종류(중복 응답: 인터넷 종류별 각 100.0%)

단위: %/명

구분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종류			
		사례수	이용층	사례수	유/무선	유선	무선
합계		(3,031)	91.5	(2,731)	49.2	21.6	29.1
읍/면	읍	(1,479)	93.0	(1,347)	48.6	28.0	23.4
	면	(1,552)	90.1	(1,384)	49.9	15.5	34.7
영농 여부	농어가	(868)	87.8	(746)	40.2	18.3	41.6
	비농어가	(2,163)	93.0	(1,985)	52.6	22.9	24.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4)	98.2	(1,049)	56.9	26.9	16.2
	40대	(695)	95.1	(639)	50.2	24.3	25.5
	50대	(709)	89.8	(627)	43.2	16.0	40.7
	60대	(383)	79.7	(301)	39.2	12.2	48.6
	70대 이상	(169)	68.6	(114)	32.5	14.2	53.3
보유한 정보화 기기	PC	(1,991)	98.0	(1,914)	61.1	29.9	9.0
	스마트폰	(2,912)	91.6	(2,627)	50.7	19.9	29.4
	스마트패드	(293)	99.4	(283)	55.6	26.9	17.5

뉴스 등 시사정보 탐색(73.6%)이 주된 인터넷 이용 목적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인터넷 사용자(n=2,77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2,774), 중복 응답 : 인터넷 이용 목적별 각 100.0%]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촌가구의 절반 이상이 '뉴스 등 시사정보 탐색'(73.6%), '게임, 음악듣기, TV시청, 영화 감상'(65.5%),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적관계망 서비스)'(63.1%), '인터넷 쇼핑'(53.6%)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인터넷 강의 등 교육이나 학습'은 33.7%였다.

정보화 기기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읍 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게임, 음악듣기, TV시청, 영화감상', '인터넷 쇼핑', '인터넷 강의 등 교육이나 학습' 이용률이 높았다.

| 표 1215 - (2) | 인터넷 이용 목적(중복 응답 : 인터넷 이용 목적별 각 100.0%)

단위 : %명

구분		인터넷 쇼핑	인터넷 강의 등 교육이나 학습	뉴스 등 시사정보 탐색	게임, 음악듣기, TV 시청, 영화감상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기타
합계 (2,774)		53.6	33.7	73.6	65.5	63.1	1.6
읍/면	읍 (1,376)	58.5	34.5	71.4	70.4	59.8	1.6
	면 (1,398)	48.8	33.0	75.8	60.6	66.4	1.6
영농 여부	농어가 (763)	40.3	22.8	74.7	58.2	54.8	0.4
	비농어가 (2,011)	58.6	37.8	73.2	68.2	66.3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4)	67.1	39.1	74.5	75.4	63.0	1.5
	40대 (661)	55.0	40.5	71.0	70.3	65.7	2.2
	50대 (637)	42.1	25.4	76.9	56.4	62.3	0.9
	60대 (305)	36.9	21.6	70.8	47.1	62.0	2.4
	70대 이상 (116)	29.9	23.6	69.9	45.9	56.9	0.9
보유 기기 수	1대 (863)	32.5	14.7	65.5	55.2	68.9	0.2
	2대 (1,687)	61.3	40.2	76.3	70.1	58.9	2.3
	3대 (224)	77.1	57.7	84.8	70.3	72.3	1.8

이용 비용 부담(17.4%)가 주된 불편 사항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사용자(n=2,774) 기준)

'이용 비용 부담'(17.4%)이 인터넷 이용층의 주된 불편 사항이었으며, 다음으로 '느린 속도'(11.9%), '이용 방법이 어려움'(2.8%)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없다'는 67.8%였다.

그림 1215 | 인터넷 이용 불편한 점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특별히 없다' 비율이 더욱 높았다.

표 1215- [3] | 인터넷 이용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느린 속도	이용 방법이 어려움	이용 비용 부담	기타	특별히 없다
합계 (2,774)			11.9	2.8	17.4	0.1	67.8
읍/면	읍	(1,376)	9.1	1.1	15.7	0.1	74.0
	면	(1,398)	14.6	4.5	19.1	0.1	61.7
영농 여부	농어가	(763)	12.8	6.3	19.4	0.1	61.4
	비농어가	(2,011)	11.5	1.5	16.7	0.1	7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4)	11.5		16.7		71.8
	40대	(661)	17.8	1.2	15.0	0.4	65.6
	50대	(637)	9.0	4.0	20.7		66.4
	60대	(305)	7.6	9.4	16.7	0.1	66.2
	70대 이상	(116)	7.9	13.9	21.9		56.3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64.9%)가 주된 인터넷 미이용 이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미사용층(n=257) 기준, 중복 응답 : 미이용 사유별 각 100.0%]

인터넷 미이용층의 미이용 이유로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64.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20.2%), '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1.1%),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서'(6.1%), '유해사이트 등 콘텐츠 내용이 해로울 것 같아서'(1.0%) 순이었다.

비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비율이 높았다.

[표 1215 - (4) | 인터넷 미이용 이유(중복응답 ; 미이용 사유별 각 100.0)

단위: %명

구분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유해 사이트 등 콘텐츠 내용이 해로울 것 같아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서	기타
합계 (257)		64.9	20.2	11.1	1.0	6.1	1.0
읍/면	읍 (103)	62.7	18.1	11.9	2.4	4.3	0.8
	면 (154)	66.4	21.7	10.6		7.2	1.0
영농 여부	농어가 (105)	59.5	31.5	13.8	1.6	5.9	0.8
	비농어가 (151)	68.7	12.4	9.3	0.5	6.2	1.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0)	51.0	4.3	30.8			
	40대 (34)	41.9	3.9	3.4	2.3	7.4	
	50대 (72)	67.7	13.9	14.5	1.5	10.6	
	60대 (78)	77.5	22.9	7.7	0.7	4.8	3.2
	70대 이상 (53)	62.5	41.3	9.2		3.1	

1216.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 '정보통신여건'(평균 59.2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정보통신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는 층이 44.1%로, [불만족](11.5%) 비율에 비해 높았다. '정보통신 여건'에 대해 59.2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51.5점)의 평가를 보였다.

그림 1216 - (1) |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보통신 여건' 만족도가 높았다.

표 1216 |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여건					정보통신 여건				
		사례수	평균	만족 (합)	보통 (합)	불만족 (합)	사례수	평균	만족 (합)	보통 (합)	불만족 (합)
합계		(3,988)	51.5점	38.0	34.1	27.9	(3,966)	59.2점	44.1	44.4	11.5
읍/면	읍	(1,704)	56.5점	43.7	39.3	17.0	(1,690)	61.8점	47.4	47.4	5.3
	면	(2,284)	47.8점	33.8	30.1	36.1	(2,276)	57.3점	41.6	42.3	16.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9.6점	35.7	31.1	33.2	(1,337)	57.3점	40.0	46.3	13.6
	비농어가	(2,648)	52.5점	39.2	35.6	25.3	(2,629)	60.2점	46.1	43.5	1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2.7점	40.8	34.1	25.0	(1,064)	61.5점	51.9	36.2	11.9
	40대	(707)	51.2점	37.9	35.4	26.7	(706)	60.2점	47.6	41.3	11.1
	50대	(807)	52.4점	38.6	32.9	28.5	(806)	59.6점	44.9	43.5	11.6
	60대	(630)	51.4점	36.8	35.1	28.1	(628)	58.3점	40.7	48.9	10.4
	70대 이상	(764)	49.3점	34.4	33.1	32.5	(763)	55.6점	31.9	56.0	12.1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 추이

- 201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보통신 여건' 만족도가 평균 3.9점 감소한 반면, '대중교통 여건' 만족도는 평균 2.1점 증가함

그림 1216 - (2)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참여한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300> 환경·경관

- 1301>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1302>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 1303> 쓰레기 처리 방법
- 1304>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 1305>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1306> 경관인식
- 1307> 경관 저해요인
- 1308>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 1309>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301 >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광역 및 지방 상수도'(79.1%), '공공하수처리시설'(86.0%) 비율이 가장 높음

▶ '광역 및 지방 상수도'(79.1%)가 주된 상수도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3)]

거주하고 있는 곳의 상수도 종류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79.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4.1%),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6.8%)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 층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1 - (1) | 상수도 종류

단위: %/명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 (지하수, 우물)	없음
합계 (3,983)		79.1	14.1	6.8	0.0
읍/면	읍 (1,705)	88.5	6.4	5.1	
	면 (2,278)	72.1	19.8	8.0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62.2	24.2	13.4	0.1
	비농어가 (2,645)	87.6	8.9	3.4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이전 (422)	63.6	25.9	10.4	0.1
	1970년대 (251)	69.7	21.6	8.7	
	1980년대 (523)	77.0	15.3	7.8	
	1990년대이후 (2,764)	82.6	11.4	5.9	0.1
주택종류	단독주택 (2,351)	66.6	22.3	10.9	0.1
	아파트 (1,158)	99.0	1.0	0.1	
	연립/다세대/기타 (474)	92.4	5.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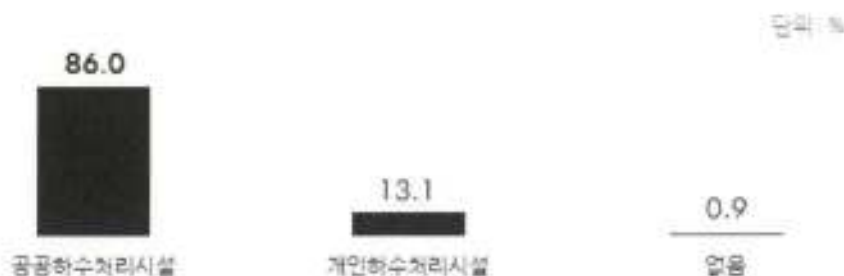
『공공하수처리시설』(86.0%)이 주된 하수도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2)]

『공공하수처리시설』(86.0%) 비율이 『개인하수처리시설』(13.1%)에 비해 높았으며,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0.9%였다.

| 그림 1301 - (1) | 하수도 종류



읍지역, 비농어가, 1990년대 이후 건축/신축층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1960년대 이전 건축/신축층,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1 - (2) | 하수도 종류

단위 : %/명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음
	합계	(3,982)	86.0	13.1	0.9
읍/면	읍	(1,699)	93.1	6.9	
	면	(2,283)	80.7	17.7	1.6
영농	농어가	(1,339)	71.2	26.4	2.4
여부	비농어가	(2,643)	93.4	6.4	0.2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이전	(423)	67.7	29.1	3.2
	1970년대	(252)	75.3	23.5	1.2
	1980년대	(524)	81.5	18.1	0.4
	1990년대이후	(2,761)	90.5	8.8	0.7
주택종류	단독주택	(2,354)	77.0	21.5	1.6
	아파트	(1,154)	99.9	0.1	
	연립/다세대/기타	(474)	96.7	3.3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3년 대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율이 증가(+7.3%p)한 반면,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4.0%p),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3.0%p) 비율은 감소함

그림 1301 - (2) | 상수도 종류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참여한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증가(+7.8%p)한 반면, '없음' 비중은 감소함(-5.4%p)

그림 1301 - (3) | 하수도 종류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참여한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302>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 '대기'(평균 69.8점), '토양'(평균 69.4점), '수질'(평균 69.1점)에 대해 '다소 좋은 편'이라는 평가

▶ '대기'(평균 69.8점), '토양'(평균 69.4점), '수질'(평균 69.1점)에 대해 '다소 좋은 편'이라는 평가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각 부문별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오염에 대한 인식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0000$, x_i = 측정 값]

'대기'(평균 69.8점), '토양'(평균 69.4점),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등 '수질'(평균 69.1점)에 대해 '다소 좋은 편'이라는 평가인 반면, '소음, 진동'(평균 59.5점), '악취'(평균 57.2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약했다.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1302 - (1) | 환경 체감도

단위 : 점(명)

구분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합계 (3,995)			69.8	69.1	69.4	59.5	57.2
읍/면	읍	(1,711)	67.2	67.4	67.9	56.5	55.6
	면	(2,284)	71.8	70.3	70.6	61.8	58.5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73.7	72.1	71.9	65.1	59.3
	비농어가	(2,655)	67.9	67.6	68.2	56.7	56.2
응답자 성	남	(1,599)	72.7	70.2	70.6	61.2	58.3
	여	(2,396)	67.9	68.4	68.6	58.4	56.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66.3	67.3	66.7	55.2	52.8
	40대	(707)	68.2	66.9	66.7	56.6	55.1
	50대	(810)	69.7	68.6	69.8	58.8	58.4
	60대	(630)	70.7	69.7	70.3	61.6	58.5
	70대 이상	(764)	75.9	73.6	74.6	67.4	63.1
현 거주지 고령 여부	이주민	(2,345)	67.0	66.4	67.4	55.8	54.6
	선주민	(1,650)	73.9	72.9	72.3	64.9	61.0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의향층	(312)	64.6	68.0	69.4	50.8	49.6
	비의향층	(3,673)	70.3	69.2	69.4	60.3	57.9

주: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임

대기오염은 '지역공장 매연, 배출먼지'(58.2%), 수질오염은 '생활하수'(37.6%), 토양오염은 '산업폐기물'(53.1%), 소음, 진동은 '자동차'(44.2%), 악취는 '축사'(39.9%)가 주된 원인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환경에 '매우 나쁘다'나 '나쁜 편이다'에 응답한 가구 기준]

대기오염 주된 원인으로 '지역공장 매연, 배출먼지'(58.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15.9%), '자동차 배기가스'(14.5%), '쓰레기 등 소각'(4.6%) 순이었다. 읍지역에서 '지역공장 매연, 배출먼지' 비율이 더욱 높았다.

표 1302 - (2) | 오염 주된 원인(1) - 대기 오염

단위: %/명

구분		지역공장 매연, 배출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쓰레기 등 소각	기타
합계 (397)		58.2	14.5	15.9	4.6	6.8
읍/면	읍 (178)	62.2	12.3	18.3	0.3	6.9
	면 (219)	55.0	16.3	14.0	8.1	6.6
영농 여부	농어가 (104)	55.7	12.2	11.6	8.1	12.5
	비농어가 (293)	59.1	15.3	17.5	3.4	4.7

수질오염 주된 원인으로 '생활하수'(37.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축산 폐수'(20.4%), '산업폐수'(19.8%), '가축의 분뇨'(2.8%) 순이었다. 한편, "오래된 배관" 등 '기타'는 19.4%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농·축산 폐수'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생활하수' 비율이 높았다.

표 1302 - (3) | 오염 주된 원인(2) - 수질 오염

단위: %/명

구분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	가축의 분뇨	기타
합계 (124)		37.6	19.8	20.4	2.8	19.4
읍/면	읍 (18)	46.7	13.1	10.5	12.5	17.2
	면 (106)	36.1	21.0	22.1	1.1	19.8
영농 여부	농어가 (46)	28.6	11.6	35.2	7.0	17.6
	비농어가 (78)	42.8	24.7	11.7	0.3	20.5

토양오염 주된 원인으로 '산업폐기물'(53.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쓰레기 투기·매립'(23.8%), '농약·비료'(13.6%) 순이었다. 한편, "석산 개발 폐기물" 등 '기타'는 9.6%였다.

표 1302- (4) | 오염 주된 원인(3) - 토양 오염

단위 : %/명

구분		산업 폐기물	쓰레기 투기·매립	농약·비료	기타
합계	(75)	53.1	23.8	13.6	9.6
읍/면	읍 (6)		96.8	3.2	
	면 (70)	57.3	18.0	14.4	10.3
영농	농어가 (42)	54.6	17.3	14.4	13.7
여부	비농어가 (33)	51.1	31.9	12.6	4.4

소음, 진동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44.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장'(19.7%), '건설 작업, 공사장'(10.1%), '철도'(6.0%) 순이었다. 한편, "군사시설 소음", "비행장 소음", "충간소음" 등 '기타'는 20.0%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자동차'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공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02- (5) | 오염 주된 원인(4) - 소음, 진동

단위 : %/명

구분		공장	건설 작업, 공사장	자동차	철도	기타
합계	(758)	19.7	10.1	44.2	6.0	20.0
읍/면	읍 (343)	13.7	10.8	46.7	4.4	24.4
	면 (415)	24.7	9.6	42.1	7.3	16.3
영농	농어가 (183)	29.0	8.5	36.3	12.7	13.4
여부	비농어가 (575)	16.8	10.6	46.7	3.9	22.1

악취 주된 원인으로 '축사'(39.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장'(26.4%), '쓰레기 투기·매립'(8.8%), '하수처리장'(7.4%) 순이었다. 한편, "퇴비", "비료", "가름" 냄새 등 '기타'는 17.6%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축사'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하수처리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02- (6) | 오염 주된 원인(5) - 악취

단위 : %/명

구분		공장	하수 처리장	축사	쓰레기 투기·매립	기타
합계	(874)	26.4	7.4	39.9	8.8	17.6
읍/면	읍 (360)	21.9	11.4	32.0	10.9	23.8
	면 (514)	29.5	4.7	45.4	7.3	13.2
영농	농어가 (288)	23.1	1.8	59.0	8.5	7.6
여부	비농어가 (586)	28.0	10.2	30.5	8.9	22.4

1303. 쓰레기 처리 방법

▶ 생활쓰레기(85.4%), 음식물쓰레기(65.6%), 재활용품(99.3%), 폐영농자재(96.3%) 모두 '분리배출'이 주된 처리 방법

구분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 조사대상 가구(n=3,991)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1/3,990/3,989)]

[폐영농자재 - 농어가(n=1,34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1,316)]

생활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85.4%), '소각'(13.8%),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65.6%), '매립'(5.9%), '퇴비', '사료' 등 '기타'(28.3%), 재활용품의 경우 '분리배출'(99.3%), 폐영농자재(농어가)의 경우 '분리배출'(96.3%), '소각'(1.3%) 비율이 높아 대체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에서 '분리배출' 비율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303 - (1) | 쓰레기 처리 방법

단위 : %/명

구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사례수	분리배출	매립	퇴비, 사료 등 기타
합계		(3,991)	85.4	13.8	(3,990)	65.6	5.9	28.3
읍/면	읍	(1,708)	96.9	2.6	(1,707)	85.6	0.8	13.6
	면	(2,283)	76.8	22.1	(2,283)	50.6	9.7	39.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73.0	26.4	(1,340)	32.0	7.3	60.7
	비농어가	(2,651)	91.7	7.4	(2,650)	82.6	5.2	12.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56)	75.9	23.1	(2,356)	42.9	10.0	46.9
	아파트	(1,158)	99.4		(1,157)	99.7		0.3
	연립/다세대/기타	(477)	98.1	0.8	(477)	95.1	0.2	4.8
구분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농어가)				
		사례수	분리배출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기타	
합계		(3,989)	99.3	(1,316)	96.3	1.3	2.1	
읍/면	읍	(1,706)	99.3	(298)	96.2	1.2	2.6	
	면	(2,283)	99.2	(1,017)	96.3	1.3	1.9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99.1	(1,316)	96.3	1.3	2.1	
	비농어가	(2,650)	99.4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56)	98.9	(1,230)	97.2	1.2	1.2	
	아파트	(1,156)	100.0	(36)	81.6	6.5	11.9	
	연립/다세대/기타	(477)	99.2	(50)	84.0		16.0	

*합계 값 기준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 생활쓰레기(+7.4%p), 음식물 쓰레기(+4.2%p), 재활용품(+12.7%p), 폐영농자재(+32.8%p) 등 '분리배출'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함
-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매립' 비율이 감소(-14.2%p)한 반면 '기타' 비율이 증가(+16.1%p)
- 폐영농자재의 경우, '소각' 비율이 27.2%p 감소함

표 1303 - (2) |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단위: %명

구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사례수	분리배출	매립	기타
2017년	(3,991)	85.4	13.8	(3,990)	65.6	5.9	28.3
2013년	(2,750)	78.0	19.2	(2,753)	61.4	20.1	12.2

구분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농어가)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사례수	분리배출	소각	기타
2017년	(3,989)	99.3	0.5	(1,316)	96.3	1.3	2.1
2013년	(2,743)	86.6	9.5	(831)	63.5	28.5	4.3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1.0% 미만의 차는 하지 않음(2017년 재활용품 '소각'(0.5%) 제외)

1304 >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22.8%),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마을 공동 수거함, 공동터 마련'(20.5%)이 주된 개선 방안

귀하는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8%(n=3,866), 중복 응답 : 합계 100.0% 환산함]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22.8%),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마을 공동 수거함, 공동터 마련'(20.5%)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16.2%),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제도'(14.3%), '음식물 쓰레기 등의 공동 퇴비장 마련'(10.6%),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기적 유상 매입, 수거'(10.0%), '쓰레기 처리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5.5%) 순이었다.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비율이 높았다.

| 표 1304 |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단위: %명

구분		지방자치 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마을 공동 수거함, 공동터 마련	음식물 쓰레기 등의 공동 퇴비장 마련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기적 유상 매입, 수거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 제도	쓰레기 처리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기타
합계 (3,866)		22.8	20.5	10.6	10.0	14.3	5.5	16.2	0.1
읍/면	읍 (1,618)	17.2	17.5	8.1	10.4	17.8	7.4	21.5	0.1
	면 (2,248)	26.7	22.6	12.4	9.7	11.8	4.1	12.5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18)	24.1	21.2	11.5	10.9	13.8	4.5	13.7	0.3
	비농어가 (2,548)	22.1	20.1	10.2	9.5	14.6	6.0	17.5	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1)	19.7	16.8	8.0	9.6	17.5	8.6	19.9	0.0
	40대 (662)	19.3	20.8	13.2	11.2	12.3	5.1	18.1	0.0
	50대 (787)	23.4	22.5	9.9	9.7	13.7	4.6	16.0	0.2
	60대 (614)	24.9	22.4	12.3	9.6	13.4	3.5	13.5	0.3
	70대 이상 (752)	27.7	21.8	11.4	10.0	13.0	4.1	11.9	0.1

1305>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악취'(17.0%), '소음, 진동'(15.0%), '쓰레기'(11.4%)가 주된 환경문제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0%(n=3,995)]

환경 체감도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악취'(17.0%), '소음, 진동'(15.0%)이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 문제로 나타난 가운데, '쓰레기'(11.4%) 비율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대기 오염'(7.7%), '수질 오염'(2.8%), '토양 오염'(1.8%)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없다'는 44.3%였다.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쓰레기' 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소음, 진동' 비율이 높았다.

표 1305 |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단위 : %/명

구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쓰레기	기타	특별히 없다
합계 (3,995)			7.7	2.8	1.8	15.0	17.0	11.4	0.0	44.3
읍/면	읍	(1,711)	9.2	1.5	0.5	16.6	16.8	9.8		45.5
	면	(2,284)	6.6	3.7	2.7	13.9	17.1	12.5	0.0	43.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9	3.9	3.5	8.6	20.9	15.0	0.0	42.1
	비농어가	(2,655)	8.6	2.2	0.9	18.3	15.0	9.5		45.4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7.8	0.8	0.3	22.7	15.6	5.1		47.8
	비아파트	(2,834)	7.7	3.6	2.4	11.9	17.5	13.9	0.0	4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10.0	1.3	1.5	17.7	21.3	5.9		42.3
	40대	(707)	7.6	3.3	0.2	17.5	15.0	14.4		42.0
	50대	(810)	9.2	4.2	2.6	15.3	14.7	11.3		42.7
	60대	(630)	6.6	3.0	1.8	14.1	15.8	14.3	0.1	44.3
	70대 이상	(764)	4.1	2.7	2.7	9.5	16.1	13.9		51.0

1306> 경관 인식

▶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태도를 보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경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자에 한해]

'마을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서 바라본 경관'(51.9%), '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경관'(47.4%), '마을 안길에서 바라본 경관'(47.0%) 등 마을 경관에 대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한편, 경관이 나쁜편이라는 응답은 '마을 안길에서 바라본 경관'(12.0%), '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경관'(10.4%), '마을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본 경관'(9.9%)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좋은 편' 비율이 높았다.

표 1306 | 경관 인식

단위: %명

구분		마을 안길에서 바라본 경관				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경관				마을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서 바라본 경관			
		사례수	좋은편 (합)	보통 (합)	나쁜편 (합)	사례수	좋은편 (합)	보통 (합)	나쁜편 (합)	사례수	좋은편 (합)	보통 (합)	나쁜편 (합)
합계		(3,980)	47.0	41.0	12.0	(3,967)	47.4	42.3	10.4	(3,948)	51.9	38.2	9.9
읍/면	읍	(1,700)	41.0	45.6	13.4	(1,699)	41.8	46.1	12.0	(1,674)	46.4	42.4	11.1
	면	(2,280)	51.5	37.6	10.9	(2,268)	51.6	39.3	9.1	(2,273)	55.9	35.1	9.0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6.1	35.7	8.2	(1,340)	56.7	37.7	5.6	(1,339)	60.2	33.8	6.0
	비농어가	(2,640)	42.4	43.7	13.9	(2,627)	42.6	44.6	12.8	(2,609)	47.6	40.5	11.9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2)	42.9	51.6	5.5	(1,145)	43.6	52.0	4.4	(1,565)	51.5	39.3	9.2
	비아파트	(2,828)	48.7	36.7	14.7	(2,823)	48.9	38.3	12.8	(2,383)	52.1	37.5	1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7)	43.9	44.3	11.8	(1,071)	42.3	45.8	12.0	(1,051)	47.8	38.9	13.4
	40대	(704)	39.9	44.6	15.5	(698)	38.7	49.7	11.6	(703)	46.0	41.1	12.9
	50대	(806)	45.7	40.1	14.1	(806)	47.4	39.0	13.6	(804)	50.3	39.2	10.6
	60대	(629)	50.3	39.9	9.7	(628)	53.6	39.1	7.3	(629)	57.2	36.2	6.5
	70대 이상	(764)	56.4	34.8	8.8	(763)	57.5	36.5	6.0	(761)	60.1	35.4	4.5
현거주지 고향여부	아주민	(2,330)	41.0	45.0	14.0	(2,319)	42.5	45.4	12.2	(2,303)	47.9	40.4	11.7
	선주민	(1,650)	55.4	35.4	9.2	(1,649)	54.3	37.9	7.8	(1,645)	57.4	35.2	7.4

1307> 경관 저해요인

▶ '버려진 생활 쓰레기'(26.4%), '빈집·빈터'(25.6%)가 주된 경관 저해 요인

귀하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6%(n=3,858), 중복 응답 : 합계 100.0% 환산함]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26.4%), '빈집·빈터'(2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버려진 폐영농자재'(17.4%)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공장'(8.1%), '불법 현수막, 스티커'(5.8%), '송전탑, 전신주, 전선'(4.7%), '아파트, 고층 구조물'(3.8%), '인공 구조물(교량, 옹벽, 고가도로)', '옥외 광고물(간판)'(각 2.2%), '무덤'(2.0%), '태양광 발전시설'(0.8%)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집·빈터', '버려진 폐영농자재' 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 거주층에서 '불법현수막, 스티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7 | 경관 저해요인

단위 : %명

구분		빈집·빈터	버려진 생활 쓰레기	버려진 폐영농자재	아파트, 고층 구조물	인공 구조물	송전탑, 전신주, 전선	태양광 발전시설	불법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간판)	공장	무덤	기타
합계 (3,858)		25.6	26.4	17.4	3.8	2.2	4.7	0.8	5.8	2.2	8.1	2.0	0.9
읍/면	읍 (1,606)	20.4	23.1	14.3	6.7	2.1	5.1	0.9	9.7	3.6	11.1	2.4	0.5
	면 (2,252)	29.2	28.6	19.5	1.8	2.2	4.5	0.8	3.1	1.3	6.1	1.8	1.1
영농 여부	농어가 (1,319)	29.9	25.9	21.5	2.1	2.1	5.2	0.7	3.3	1.0	5.9	1.8	0.6
	비농어가 (2,539)	23.3	26.6	15.2	4.7	2.2	4.5	0.9	7.1	2.9	9.3	2.2	1.0
아파트 여부	아파트 (1,069)	19.0	25.8	13.3	6.1	2.9	5.6	1.3	10.2	4.3	8.5	2.5	0.6
	비아파트 (2,789)	28.1	26.6	18.9	2.9	1.9	4.4	0.7	4.2	1.5	8.0	1.9	1.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41)	23.3	23.5	14.5	4.2	2.4	5.6	0.8	9.1	2.8	9.9	3.7	0.1
	40대 (679)	20.9	25.2	17.6	5.4	2.2	5.1	1.3	6.4	2.8	9.1	1.5	2.5
	50대 (779)	25.0	28.7	17.2	3.4	1.7	5.2	0.7	4.6	2.4	8.7	1.5	0.9
	60대 (610)	27.0	29.2	19.0	3.0	1.9	4.2	0.9	4.4	2.0	6.4	1.0	1.0
	70대 이상 (749)	32.4	26.7	20.1	2.8	2.6	3.1	0.6	3.1	1.1	5.4	1.6	0.4

1308>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 활성화’(34.3%)가 주된 방안

구하는 농어촌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7%(n=3,945)]

농어촌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 활성화’(34.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민들의 경관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25.2%),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21.8%),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17.6%)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 활성화’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 40대 연령층에서 ‘주민들의 경관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비율이 높았다.

표 1308 |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단위 : %/명

구분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 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주민들의 경관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기타	
합계		(3,945)	34.3	21.8	17.6	25.2	1.1
읍/면	읍	(1,688)	28.3	24.5	19.3	26.7	1.1
	면	(2,257)	38.7	19.7	16.4	24.1	1.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37.1	19.6	16.6	25.5	1.3
	비농어가	(2,606)	32.8	22.9	18.2	25.1	1.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4)	33.1	26.5	15.7	23.8	0.9
	40대	(703)	26.1	16.0	22.1	33.8	2.0
	50대	(804)	39.1	23.2	17.1	19.1	1.5
	60대	(628)	34.2	20.6	19.1	25.0	1.0
	70대 이상	(756)	38.4	19.9	15.6	26.0	0.2

1309 > 농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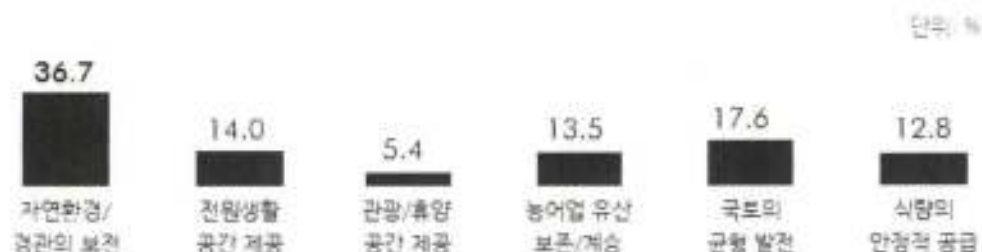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6.7%)이 주된 가치

구하는 농업·농어촌이 지니는 주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3,970)]

농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6.7%)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17.6%), '전원생활 공간 제공'(14.0%),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3.5%), '식량의 안정적 공급'(12.8%), '관광/휴양 공간 제공'(5.4%) 순이었다.

| 그림 1309 - [1] | 농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40~60대 연령층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9 | 농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전원생활 공간 제공	관광/휴양 공간 제공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국토의 균형 발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합계 (3,970)		36.7	14.0	5.4	13.5	17.6	12.8
읍/면	읍 (1,689)	38.5	13.2	4.3	12.1	21.2	10.6
	면 (2,281)	35.3	14.6	6.2	14.5	14.9	14.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33.8	11.7	5.6	17.2	17.6	14.1
	비농어가 (2,630)	38.1	15.2	5.3	11.6	17.6	1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2)	39.7	13.7	7.5	14.0	13.7	11.4
	40대 (702)	32.8	18.3	4.7	12.1	21.3	10.7
	50대 (807)	39.8	14.3	4.5	11.5	19.3	10.7
	60대 (625)	34.3	12.3	5.4	13.6	20.4	13.9
	70대 이상 (764)	34.6	11.7	4.1	16.0	15.6	18.1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 2013년에 비해 '국토의 균형 발전'(+5.7%p), '식량의 안정적 공급'(+3.8%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관광/휴양 공간 제공'(-5.5%p), '전원생활 공간 제공'(-4.6%p) 비율은 감소함

그림 1309 - (2)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1400> 안전

- 1401> CCTV 운영 실태
- 1402> 마을 순찰 횟수
- 1403> 필요 도로 보수 개선
- 1404> 화재 취약 요소
- 1405>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 1406> 재난·재해 예보 실태
- 1407>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408> 마을 안전 체감도
- 1409> 지역사회 안전 인식

1401 > CCTV 운영 실태

- ▶ CCTV가 설치된 마을이 72.8%, 주된 설치 장소는 '마을 출입구'(74.8%), '범죄 예방'(86.6%)이 주된 역할
- ▶ '마을 출입구'(64.1%)가 CCTV가 가장 필요한 장소

CCTV가 설치된 마을이 72.8%, 주된 설치 장소는 '마을 출입구'(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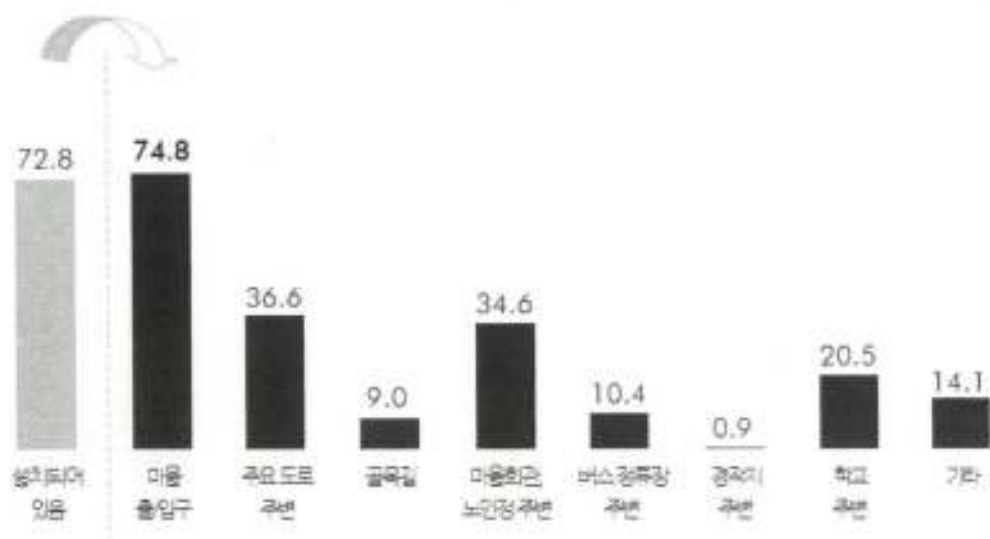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까? CCTV가 설치된 곳은 어디입니까?

[설치 여부 : 조사대상 가구 n=3,995 기준]

설치 위치 : 설치층 n=2,90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100% n=2,908, 중복응답 : 설치 장소별 각 100.0%

농촌지역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이 72.8%로 나타난 가운데, 설치 장소로 '마을 출입구'(74.8%)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요 도로 주변'(36.6%),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34.6%), '학교 주변'(20.5%), '버스 정류장 주변'(10.4%), '골목길'(9.0%), '정작지 주변'(0.9%) 순이었다. 한편, '엘리베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크린하우스)', '아파트 안' 등 '기타'는 14.1%였다.

[그림 1401] CCTV 설치 장소(중복응답 : 설치 장소별 각 100.0%)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CCTV 설치층 비율이 더욱 높고, 설치 장소 중 '주요 도로 주변', '학교 주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 비율이 높았다.

표 1401 - 1 | CCTV 설치 장소(응답층 : 설치 장소별 각 100.0%)

단위 : %

구분		CCTV 설치 여부		CCTV 설치 장소								
		사례수	설치 되어 있음	사례수	마을 출입구	주요 도로 주변	골목길	마을 회관, 노인정 주변	버스 정류장 주변	경작지 주변	학교 주변	기타
합계		(3,995)	72.8	(2,908)	74.8	36.6	9.0	34.6	10.4	0.9	20.5	14.1
읍/면	읍	(1,711)	78.9	(1,350)	71.1	43.8	7.9	27.6	13.4	1.5	23.8	22.0
	면	(2,284)	68.2	(1,558)	78.0	30.3	10.1	40.5	7.8	0.3	17.7	7.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5.6	(879)	77.2	24.0	8.0	48.1	6.2	1.7	13.4	4.0
	비농어가	(2,655)	76.4	(2,028)	73.7	42.1	9.5	28.7	12.3	0.5	23.6	18.5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97.5	(1,132)	76.6	44.3	9.5	26.5	12.9	0.8	26.0	30.7
	비아파트	(2,834)	62.7	(1,775)	73.6	31.7	8.7	39.7	8.8	0.9	17.0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85.7	(928)	79.8	45.3	11.3	32.9	12.8	1.1	26.0	19.9
	40대	(707)	74.6	(528)	70.1	39.1	13.4	22.6	11.2	1.2	22.8	21.8
	50대	(810)	66.3	(537)	71.6	36.2	6.6	35.6	11.4	0.7	20.1	9.3
	60대	(630)	66.5	(419)	73.3	30.9	7.6	39.7	7.8	0.6	14.5	6.8
	70대 이상	(764)	64.8	(495)	74.8	22.9	4.1	44.9	6.3	0.4	13.3	6.4

『범죄 예방』(86.6%)이 주된 역할

설치된 CCTV가 어떤 면에서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층(n=2,90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7%(n=2,784)]

CCTV 도움 이유로 ‘범죄 예방’(86.6%)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농산물 절도 예방’(6.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4.8%), ‘불법 주정차 단속’(1.5%), ‘재난 대비’(0.1%) 순이었다.

읍지역, 아파트 거주층,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범죄 예방’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농산물 절도 예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01 - (2) CCTV 도움 이유

단위 : %

구분		범죄 예방	농산물 절도 예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 대비	기타
합계 (2,784)		86.6	6.7	4.8	1.5	0.1	0.3
읍/면	읍	93.2	1.4	3.5	1.2	0.2	0.6
	면	80.9	11.3	5.9	1.7	0.0	0.1
영농 여부	농어가	81.4	12.9	4.9	0.7		0.1
	비농어가	88.9	4.1	4.8	1.8	0.2	0.4
아파트 여부	아파트	94.1	1.0	2.4	2.3	0.2	
	비아파트	81.9	10.3	6.3	1.0	0.1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1.0	2.3	4.6	1.3		0.8
	40대	88.1	4.3	5.3	2.0	0.3	
	50대	86.5	7.0	4.3	1.9	0.0	0.2
	60대	83.1	10.0	5.2	1.7	0.0	
	70대 이상	80.0	14.4	4.8	0.6	0.3	

'마을 출입구'(64.1%)가 CCTV가 가장 필요한 장소

마을 및 마을 주변에 CCTV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을지침(n=1,087) 중 응답자구에 의해 : 응답률 88.4%(n=961)]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CCTV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마을 출입구'(64.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골목길'(15.8%), '주요 도로 주변'(8.9%),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6.0%), '버스 정류장 주변'(2.7%), '학교 주변'(1.7%), '경작지 주변'(0.6%) 순이었다.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마을 출입구' 비율이 높았고 아파트 거주층에서 '주요 도로 주변', '골목길' 비율이 높았다.

표 1401 - (3) CCTV 필요 설치 장소

단위: %명

구분		마을 출입구	주요 도로 주변	골목길	마을 회관, 노인정 주변	버스 정류장 주변	경작지 주변	학교 주변	기타
합계 (961)		64.1	8.9	15.8	6.0	2.7	0.6	1.7	0.2
읍/면	읍 (294)	73.4	4.4	15.5	3.3	1.3	1.0	0.6	0.5
	면 (667)	60.0	10.8	15.9	7.2	3.3	0.5	2.2	0.1
영농 여부	농어가 (380)	63.2	8.6	13.8	8.2	4.4	0.9	0.7	0.2
	비농어가 (581)	64.7	9.0	17.1	4.6	1.6	0.4	2.4	0.2
아파트 여부	아파트 (13)	57.6	19.1	23.2					
	비아파트 (948)	64.2	8.7	15.7	6.1	2.7	0.6	1.7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19)	70.2	6.9	15.2		0.7	1.8	5.2	
	40대 (164)	65.7	13.2	14.0	2.2	4.0	0.3	0.5	0.1
	50대 (239)	65.0	10.2	13.9	4.6	2.0	0.9	3.5	
	60대 (197)	57.3	7.3	21.4	9.5	3.5		0.2	0.7
	70대 이상 (241)	64.7	6.9	14.5	10.2	2.7	0.5	0.3	0.2

1402. 마을 순찰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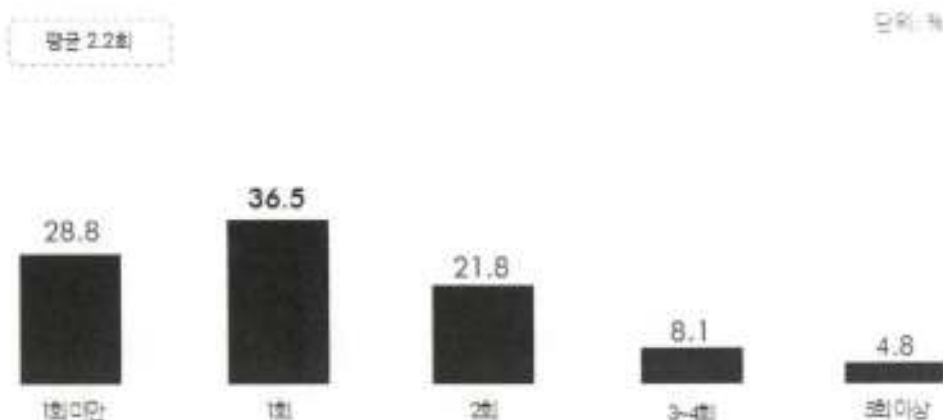
▶ 하루 평균 순찰 횟수는 2.2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하루에 몇 회 경찰 순찰차가 다닙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72.7%(n=2,903)]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1일 경찰 순찰차 순찰 횟수로 '1회'(36.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1~2회 등 '1회 미만'(28.8%), '2회'(21.8%), '3~4회'(8.1%), '5회 이상'(4.8%) 순으로 평균 순찰 횟수는 2.2회였다.

| 그림 1402 | 마을 순찰 횟수



면지역, 비농어가에서 평균 순찰 횟수가 많았다.

| 표 1402 | 마을 순찰 횟수

단위: %/명

구분		평균	1회 미만	1회	2회	3~4회	5회 이상
합계 (2,903)		2.2회	28.8	36.5	21.8	8.1	4.8
읍/면	읍 (1,180)	1.8회	29.3	34.0	24.7	9.1	3.0
	면 (1,723)	2.5회	28.4	38.2	19.9	7.4	6.1
영농 여부	농어가 (1,019)	1.8회	31.6	36.0	21.9	6.3	4.2
	비농어가 (1,884)	2.4회	27.2	36.7	21.8	9.1	5.2

1403. 필요 도로 보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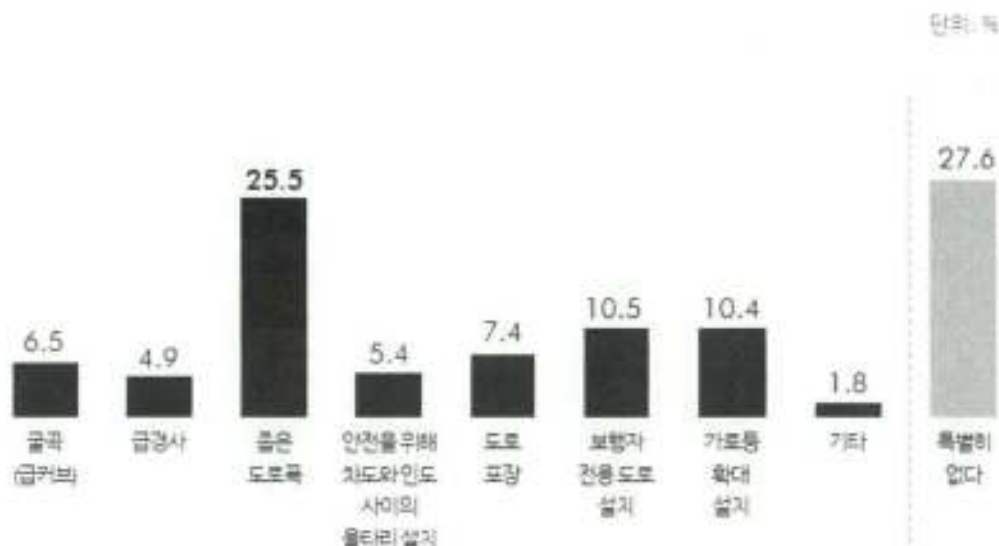
▶ '좁은 도로폭'(25.5%)이 주된 보수 개선사항

주요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도로에 가장 필요한 보수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도로에 가장 필요한 보수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좁은 도로폭'(25.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10.5%), '가로등 확대 설치'(10.4%), '도로포장'(7.4%), '굴곡(급커브)'(6.5%),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울타리 설치'(5.4%), '급경사'(4.9%), '기타'(1.8%)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없다'는 27.6%였다.

| 그림 1403 | 필요 도로 보수 개선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50대 연령층에서 '좁은 도로폭'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에서 '특별히 없다' 비율이 높았다.

표 1403 | 필요 도로 보수·개선

단위: %명

구분			굴곡 (급커브)	급경사	좁은 도로폭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울타리 설치	도로 포장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	가로등 확대 설치	기타	특별히 없다	
합계			(3,995)	6.5	4.9	25.5	5.4	7.4	10.5	10.4	1.8	27.6
읍/면	읍	(1,711)	4.3	4.1	19.0	7.8	6.4	10.5	10.0	1.7	36.3	
	면	(2,284)	8.1	5.5	30.4	3.6	8.1	10.5	10.7	1.8	21.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10.3	6.6	34.3	3.7	6.5	7.5	9.0	1.4	20.8	
	비농어가	(2,655)	4.6	4.1	21.1	6.2	7.8	12.1	11.1	1.9	31.1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4.9	3.2	12.7	7.9	5.4	14.0	6.5	1.9	43.5	
	비아파트	(2,834)	7.1	5.6	30.7	4.3	8.2	9.1	12.0	1.7	21.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4.3	4.6	21.3	7.3	6.0	13.2	10.1	1.8	31.4	
	40대	(707)	3.1	5.5	19.1	4.7	12.4	11.3	10.9	3.0	30.0	
	50대	(810)	7.7	5.0	32.1	4.5	7.5	8.7	10.4	1.3	22.8	
	60대	(630)	9.4	3.8	26.5	5.2	6.5	8.8	12.1	1.5	26.1	

1404> 화재 취약 요소

▶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45.6%),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불태우기'(38.0%)가 주된 취약 요소

주요는 농어촌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함 : 응답률 93.1%(n=3,719)]

농어촌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요소로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45.6%),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불태우기'(38.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10.0%), '비닐하우스, 축사'(6.4%) 순이었다.

[그림 1404 | 화재 취약 요소

단위: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에서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야외쓰레기 불태우기' 비율이 높았다.

[표 1404 | 화재 취약 요소

단위: %명

구분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	비닐하우스, 축사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불태우기	기타
합계 (3,719)			45.6	10.0	6.4	38.0	0.1
읍/면	읍	(1,477)	48.1	9.2	8.1	34.5	0.0
	면	(2,242)	43.9	10.5	5.2	40.4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28)	46.1	10.0	6.5	37.3	0.1
	비농어가	(2,391)	45.3	10.0	6.3	38.4	0.0

1405.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 '노후 주택의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44.7%)이 주된 향상 방안

귀하는 농어촌의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8%(n=3,947)]

농어촌의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주택의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44.7%)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23.6%), '마을 내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13.3%), '화재예방교육 실시'(12.3%),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6.0%) 순이었다.

면지역, 비아파트 거주층,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노후 주택의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아파트 거주층에서 '화재예방교육 실시' 비율이 높았다.

| 표 1405 | 소방 서비스 향상 방안

단위 : %/명

구분		노후 주택의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화재 예방교육 실시	마을 내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기타
합계 (3,947)		44.7	23.6	12.3	13.3	6.0	0.1
읍/면	읍 (1,681)	38.9	25.7	16.6	12.2	6.5	0.0
	면 (2,265)	49.0	22.1	9.2	14.1	5.6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2)	47.2	21.2	12.6	12.6	6.4	0.1
	비농어가 (2,614)	43.4	24.9	12.2	13.7	5.8	0.1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33)	33.4	27.9	18.2	13.9	6.4	0.2
	비아파트 (2,814)	49.2	21.9	10.0	13.1	5.8	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9)	39.9	26.4	14.9	12.0	6.6	0.2
	40대 (698)	40.5	23.4	15.5	16.0	4.6	
	50대 (805)	47.3	23.4	10.3	13.4	5.6	
	60대 (623)	50.7	20.8	9.8	11.9	6.7	0.1
	70대 이상 (761)	47.5	22.6	10.0	13.8	6.1	0.0

1406 > 재난·재해 예보 실태

- ▶ '긴급재난문자'(56.3%), 'TV 뉴스'(29.7%)가 주된 재난·재해 예보 경로
- ▶ 재난·재해 예보는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 되는 편](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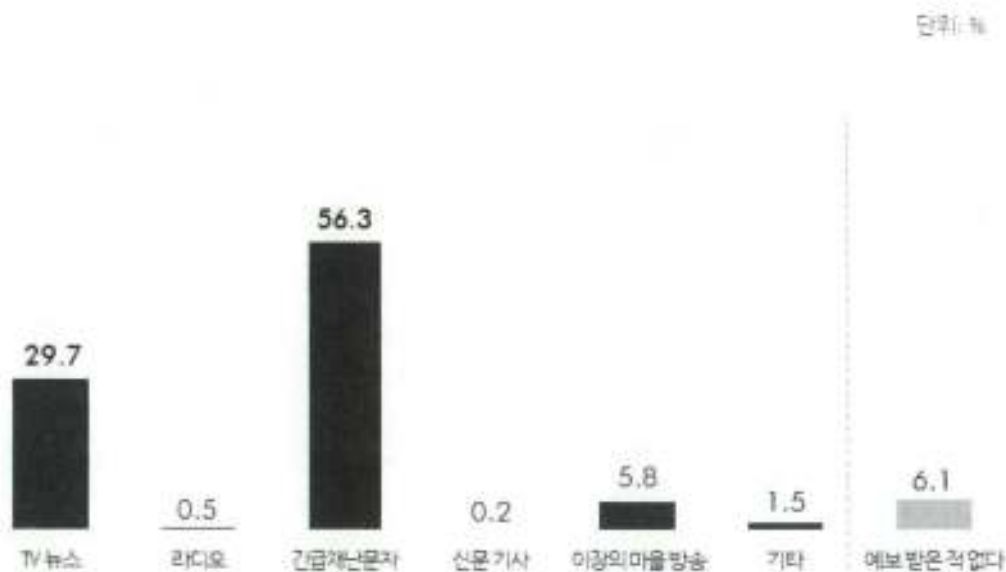
『긴급재난문자(56.3%), TV 뉴스(29.7%)가 주된 재난·재해 예보 경로』

귀하는 재난·재해예보를 주로 어떻게 받아보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기준]

재난·재해 예보를 받는 주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56.3%), 'TV 뉴스'(29.7%)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장의 마을 방송'(5.8%), '라디오'(0.5%), '신문기사'(0.2%) 순이었다. 한편, '예보 받은 적 없다'는 6.1%였다.

| 그림 1406 | 재난·재해 예보 받는 경로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낮을수록 '긴급재난문자'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뉴스' 비율이 높았다. 한편,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장의 마을 방송', '예보 받은 적 없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406-① | 재난재해 예보 받는 경로

단위: %명

구분			TV 뉴스	라디오	긴급 재난문자	신문 기사	이장의 마을 방송	기타	예보 받은 적 없다
합계 (3,995)			29.7	0.5	56.3	0.2	5.8	1.5	6.1
읍/면	읍	(1,711)	26.8	0.7	63.1	0.3	3.3	1.2	4.6
	면	(2,284)	31.9	0.3	51.1	0.1	7.7	1.8	7.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36.7	0.3	47.6	0.3	10.1	1.1	4.0
	비농어가	(2,655)	26.2	0.5	60.7	0.1	3.7	1.8	7.1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22.8	0.9	70.3	0.3	0.3	2.5	2.8
	비아파트	(2,834)	32.5	0.3	50.5	0.1	8.0	1.1	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18.9	0.9	75.2		0.8	2.2	2.0
	40대	(707)	24.7	0.0	65.0	0.5	4.1	1.4	4.3
	50대	(810)	27.5	0.3	61.9	0.4	3.3	0.6	6.0
	60대	(630)	34.6	0.5	47.9		9.4	0.8	6.7
	70대 이상	(764)	47.9	0.3	22.3	0.1	14.2	2.3	13.0

재난·재해 예보는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 되는 편](70.3%)

귀하는 귀하가 받아보는 재난·재해 예보가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재해 예보 받는 층(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2.5%(n=3,696)]

재난·재해 예보가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다'(54.2%), '매우 도움이 된다'(16.1%) 등 [도움 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70.3%로 [도움되지 않는 편](4.2%)에 비해 높았다.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움되는 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통]의 비율이 높았다.

표 1406 - (2) 재난·재해 예보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되는 편 (합)	보통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 편 (합)	
합계		(3,696)	16.1	54.2	70.3	25.5	3.6	0.6	4.2
읍/면	읍	(1,625)	11.3	54.0	65.3	30.3	3.6	0.8	4.4
	면	(2,071)	19.9	54.4	74.3	21.6	3.7	0.4	4.1
영농 여부	농어가	(1,271)	20.5	60.6	81.0	15.9	2.9	0.1	3.0
	비농어가	(2,425)	13.8	50.9	64.7	30.4	4.0	0.9	4.8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12)	8.4	51.3	59.7	34.3	4.7	1.3	6.0
	비아파트	(2,584)	19.4	55.5	74.9	21.7	3.2	0.3	3.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29)	11.6	48.8	60.4	33.3	5.3	1.0	6.3
	40대	(671)	11.0	57.9	68.9	25.8	4.5	0.8	5.3
	50대	(758)	17.1	54.8	71.9	25.3	2.2	0.6	2.8
	60대	(578)	19.2	57.1	76.3	21.1	2.6	0.0	2.6
	70대 이상	(660)	24.6	55.7	80.3	16.8	2.7	0.2	2.9

1407>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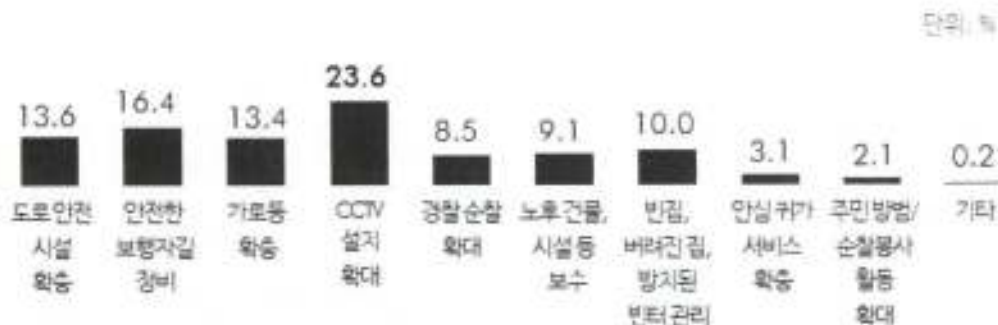
▶ 'CCTV 설치 확대'(23.6%)가 주된 필요 사항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전반적인 안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1%(n=3,958), 중복응답 : 합계 100.0% 환산함]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CCTV 설치 확대'(23.6%)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6.4%), '도로 안전시설 확충'(13.6%), '가로등 확충'(13.4%), '빈 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10.0%),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9.1%), '경찰 순찰 확대'(8.5%),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3.1%), '주민 방범·순찰 봉사활동 확대'(2.1%) 순이었다.

| 그림 1407 - (1) |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구에서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비율이 높았다.

| 표 1407 |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도로 안전 시설 확충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	가로등 확충	CCTV 설치 확대	경찰 순찰 확대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	주민 방범·순찰 봉사 활동 확대	기타
합계 (3,958)		13.6	16.4	13.4	23.6	8.5	9.1	10.0	3.1	2.1	0.2
읍/면	읍 (1,683)	14.2	16.9	13.3	25.9	11.0	7.2	5.3	3.4	2.7	0.2
	면 (2,275)	13.1	16.0	13.5	22.0	6.6	10.6	13.5	2.9	1.6	0.2
영농 여부	농어가 (1,332)	13.6	14.7	12.9	23.8	6.3	10.9	13.7	2.1	1.8	0.2
	비농어가 (2,625)	13.6	17.3	13.7	23.6	9.6	8.2	8.1	3.5	2.2	0.2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 2013년과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CCTV 설치확대' 비중이 3.5%p 증가한 반면, '가로등 확충'(-3.2%p),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2.9%p) 비율이 감소함

그림 1407 - (2) |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 2013년은 도/농 비교 중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 2017년에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안전하고 귀가 서비스 확충', '주민 방범/순찰봉사 활동 확대' 항목이 추가된 반면,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항목은 삭제됨

1408. 마을 안전 체감도

▶ '보행·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구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함]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59.8%),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55.7%)에 대해 [안전한 편]이라는 인식이 50%이상인 반면,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43.2%)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보행·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인식(14.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범죄(8.2%), 재난·재해(4.8%)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비율이 높았다.

표 1408 | 마을 안전 체감도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사례수	안전한 편 (합)	보통 (합)	안전 하지 않은편 (합)
합계		(3,982)	55.7	36.1	8.2	(3,982)	43.2	42.7	14.1	(3,973)	59.8	35.4	4.8
읍/면	읍	(1,700)	48.5	43.4	8.1	(1,700)	35.1	51.2	13.7	(1,697)	54.2	41.9	3.9
	면	(2,282)	61.1	30.7	8.2	(2,282)	49.3	36.3	14.4	(2,277)	64.0	30.6	5.4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6.7	27.1	6.2	(1,338)	55.3	33.6	11.1	(1,338)	68.0	27.7	4.2
	비농어가	(2,643)	50.2	40.7	9.2	(2,643)	37.1	47.3	15.6	(2,636)	55.7	39.3	5.0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4)	42.0	47.4	10.7	(1,154)	25.3	56.3	18.4	(1,150)	52.7	44.6	2.7
	비아파트	(2,828)	61.3	31.5	7.1	(2,828)	50.5	37.1	12.3	(2,824)	62.7	31.7	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45.2	42.4	12.4	(1,080)	35.6	45.8	18.6	(1,078)	53.4	41.5	5.1
	40대	(704)	51.8	39.7	8.5	(704)	36.1	47.7	16.3	(702)	54.6	39.1	6.3
	50대	(806)	58.9	33.0	8.1	(806)	44.8	40.5	14.7	(805)	62.5	34.0	3.5
	60대	(629)	56.3	38.5	5.2	(628)	45.9	44.2	9.8	(627)	60.4	34.2	5.4
	70대 이상	(764)	70.4	25.3	4.4	(764)	56.8	34.6	8.6	(761)	70.5	25.9	3.6

1409. 지역사회 안전 인식

▶ '주변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40.2%)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음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물리적 무질서]부문에서 '오래된 빈 집이나 관리되지 않은 공터가 있다'(28.6%)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길거리, 하천,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버려져있다'(19.6%), '공용시설, 전봇대, 벽에 광고 부착물이나 낙서가 있어 지저분하다'(14.1%), '길거리나 공터에 방치된 녹슨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다'(8.7%)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비아파트 거주층에서 '오래된 빈 집이나 관리되지 않은 공터가 있다', '길거리, 하천,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버려져있다' 비율이 높았다.

[표 1409-1] 지역사회 안전 인식(1) - 물리적 무질서

단위: %/명

구분		오래된 빈 집이나 관리되지 않은 공터가 있다		공용시설, 전봇대, 벽에 광고 부착물이나 낙서가 있어 지저분하다		길거리나 공터에 방치된 녹슨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다		길거리, 하천,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버려져있다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합계		(3,983)	28.6	(3,982)	14.1	(3,963)	8.7	(3,956)	19.6
읍/면	읍	(1,701)	16.7	(1,700)	15.8	(1,697)	7.3	(1,690)	15.7
	면	(2,282)	37.5	(2,282)	12.8	(2,265)	9.8	(2,266)	22.5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40.8	(1,340)	10.3	(1,338)	8.4	(1,336)	21.8
	비농어가	(2,644)	22.4	(2,642)	16.0	(2,625)	8.9	(2,620)	18.5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4)	7.0	(1,154)	16.2	(1,149)	8.3	(1,145)	12.6
	비아파트	(2,829)	37.4	(2,828)	13.2	(2,814)	8.9	(2,811)	22.4
응답자 성	남	(1,593)	31.0	(1,593)	14.8	(1,579)	8.8	(1,588)	18.3
	여	(2,391)	27.0	(2,389)	13.6	(2,384)	8.7	(2,367)	2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14.2	(1,080)	20.5	(1,074)	15.8	(1,062)	21.3
	40대	(704)	27.4	(705)	11.9	(694)	6.6	(705)	20.5
	50대	(807)	33.7	(806)	14.6	(805)	6.5	(803)	21.5
	60대	(628)	35.8	(627)	10.4	(627)	5.3	(625)	19.3
	70대 이상	(764)	38.7	(764)	9.4	(763)	5.9	(762)	14.5

* 동의율: 매우 그렇다~그렇다

[사고 위험·보행의 불편성] 부문에서 '주변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40.2%), '주변 도로에 화물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자주 다닌다'(35.7%)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길에 턱이 있거나 경사가 쳐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20.2%), '길에 불법 주차된 차가 많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17.6%) 순이었다.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보행의 불편성]에 대한 동의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409 - [2] | 지역사회 안전 인식(2) - 사고 위험·보행의 불편성

단위: %명

구분		주변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주변 도로에 화물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자주 다닌다		길에 불법 주차된 차가 많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		길에 턱이 있거나 경사가 쳐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합계		(3,979)	40.2	(3,980)	35.7	(3,963)	17.6	(3,960)	20.2
읍/면	읍	(1,698)	41.2	(1,700)	34.0	(1,694)	24.3	(1,685)	21.3
	면	(2,281)	39.5	(2,279)	36.9	(2,269)	12.6	(2,275)	19.4
영농 여부	농어가	(1,334)	34.3	(1,338)	30.4	(1,328)	8.6	(1,330)	17.9
	비농어가	(2,644)	43.2	(2,642)	38.4	(2,635)	22.1	(2,630)	21.3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2)	47.5	(1,153)	40.1	(1,153)	28.1	(1,143)	20.2
	비아파트	(2,827)	37.2	(2,827)	33.9	(2,810)	13.3	(2,817)	20.2
응답자 성	남	(1,594)	40.0	(1,592)	35.2	(1,590)	14.0	(1,590)	21.4
	여	(2,385)	40.3	(2,387)	36.0	(2,373)	20.0	(2,371)	19.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6)	45.9	(1,077)	39.3	(1,070)	30.0	(1,076)	23.4
	40대	(705)	44.2	(705)	41.4	(701)	20.1	(696)	23.3
	50대	(807)	41.2	(807)	37.2	(800)	15.0	(803)	20.2
	60대	(628)	38.1	(629)	32.9	(629)	8.5	(624)	16.9
	70대 이상	(763)	29.1	(762)	25.9	(763)	8.0	(762)	15.4

* 동의율 : 매우 그렇다+그렇다

[사회적 무질서·불안] 부문에서 '낮에 집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면 걱정된다'(34.5%), '밤에 여성 혼자 동네 길을 걸어나면 위험하다'(29.0%), '동네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가로등 불빛이 환하지 않다'(27.3%)에 대해 20% 이상의 동의율을 보인 반면, '집에 혼자 있으면 두려울 때가 있다'(10.5%)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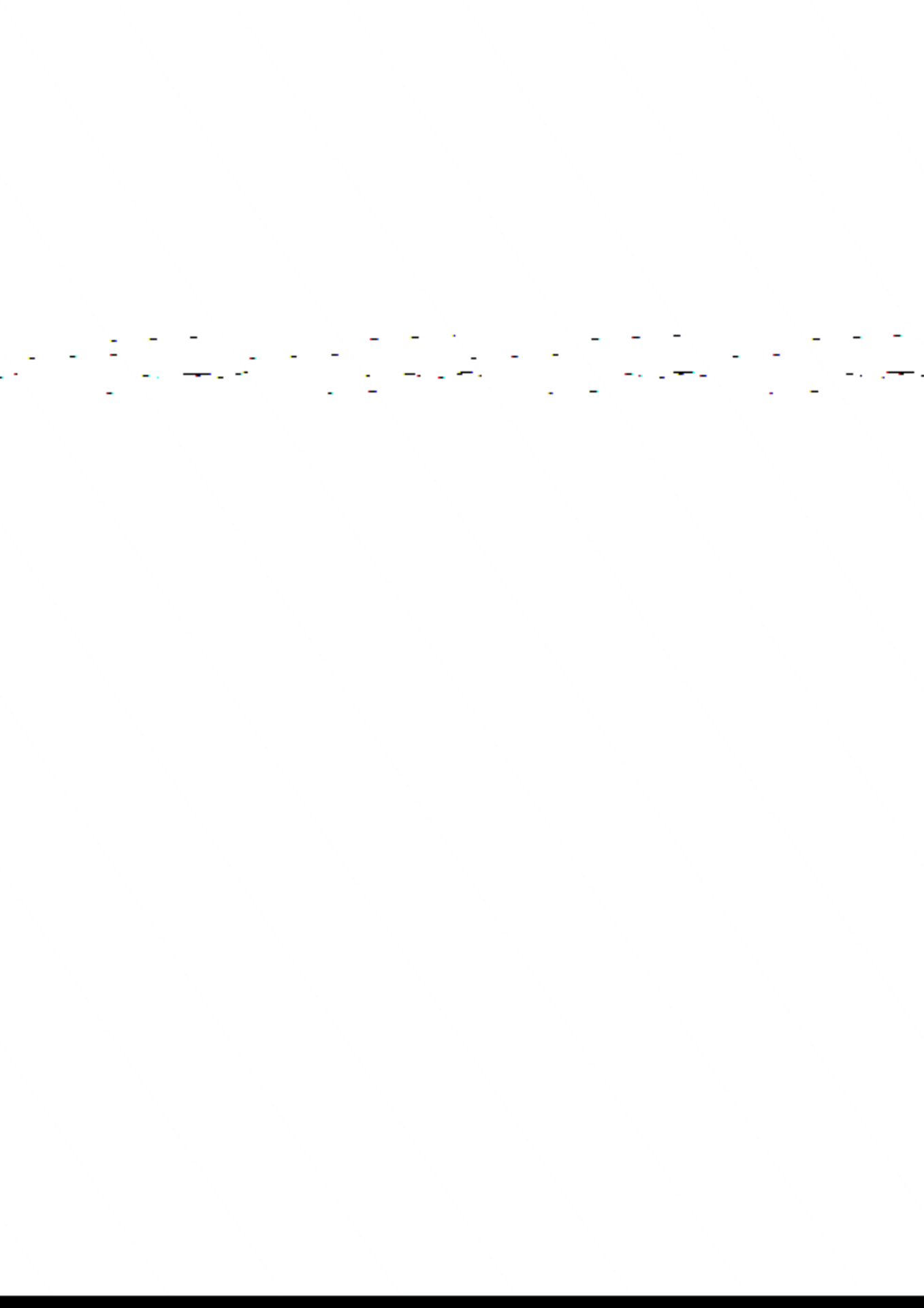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적 무질서·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409 - (3) | 지역사회 안전 인식(3) - 사회적 무질서·불안

단위: %명

구분		낮에 집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면 걱정된다		집에 혼자 있으면 두려울 때가 있다		밤에 여성 혼자 동네 길을 걸어나면 위험하다		동네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가로등 불빛이 환하지 않다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사례수	동의율
합계		(3,978)	34.5	(3,984)	10.5	(3,976)	29.0	(3,978)	27.3
읍/면	읍	(1,700)	45.6	(1,701)	12.1	(1,697)	35.3	(1,701)	28.4
	면	(2,278)	26.1	(2,283)	9.3	(2,280)	24.4	(2,277)	26.5
영농 여부	농어가	(1,339)	17.9	(1,340)	7.2	(1,338)	17.9	(1,336)	19.6
	비농어가	(2,639)	42.9	(2,644)	12.2	(2,638)	34.7	(2,643)	31.1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55)	59.5	(1,155)	11.7	(1,151)	37.8	(1,155)	25.5
	비아파트	(2,823)	24.2	(2,829)	10.0	(2,826)	25.4	(2,824)	28.0
응답자 성	남	(1,593)	28.0	(1,594)	6.8	(1,591)	24.6	(1,590)	24.7
	여	(2,385)	38.8	(2,390)	12.9	(2,385)	32.0	(2,388)	29.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2.6	(1,080)	16.1	(1,080)	47.1	(1,080)	35.4
	40대	(705)	38.3	(705)	11.9	(703)	32.1	(705)	32.6
	50대	(803)	30.0	(807)	6.7	(804)	23.7	(807)	23.8
	60대	(628)	25.5	(629)	10.4	(627)	21.1	(626)	21.2
	70대 이상	(762)	17.2	(764)	5.3	(762)	12.7	(761)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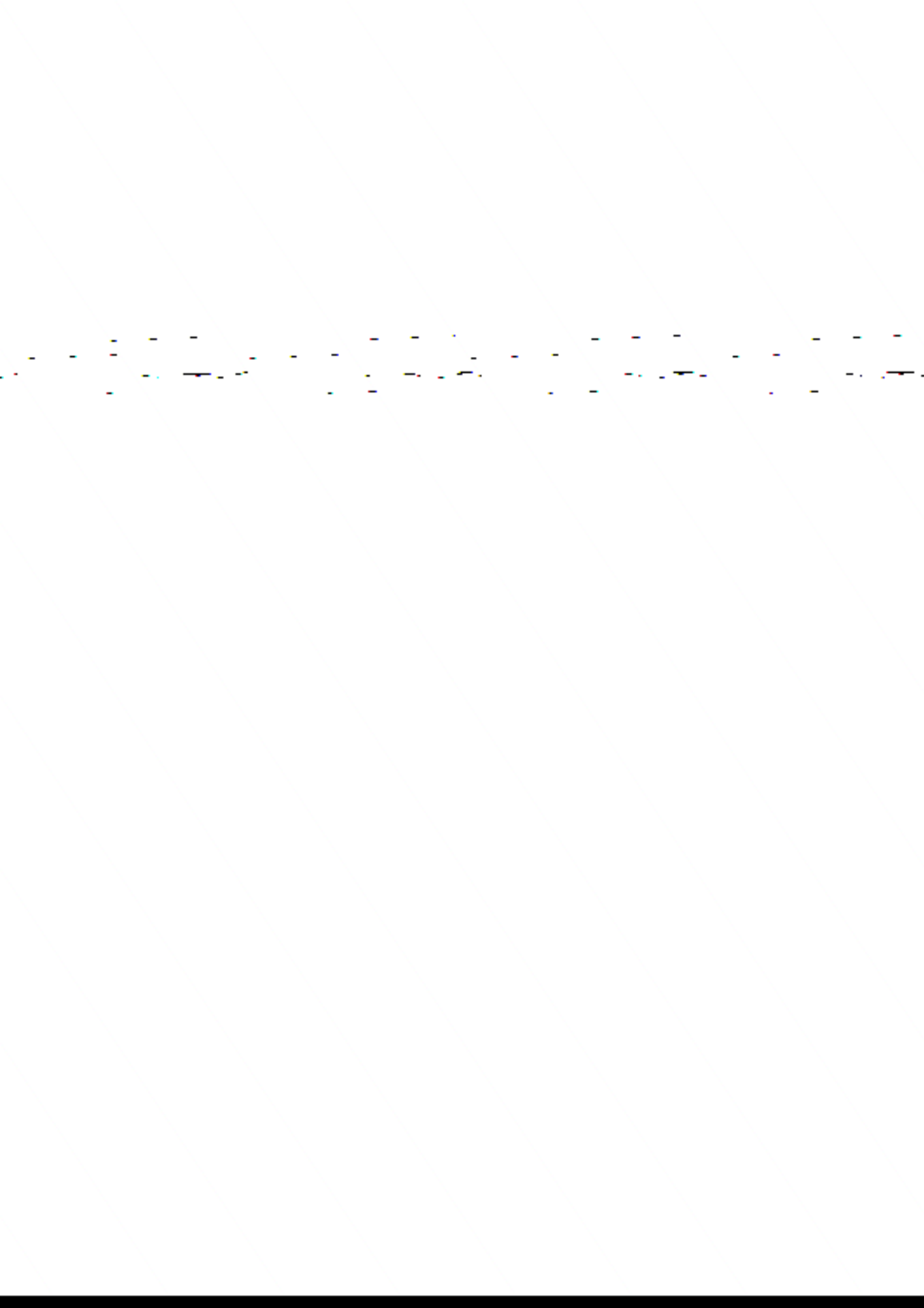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 동의율: 매우 그렇다+그렇다



제2부 기존통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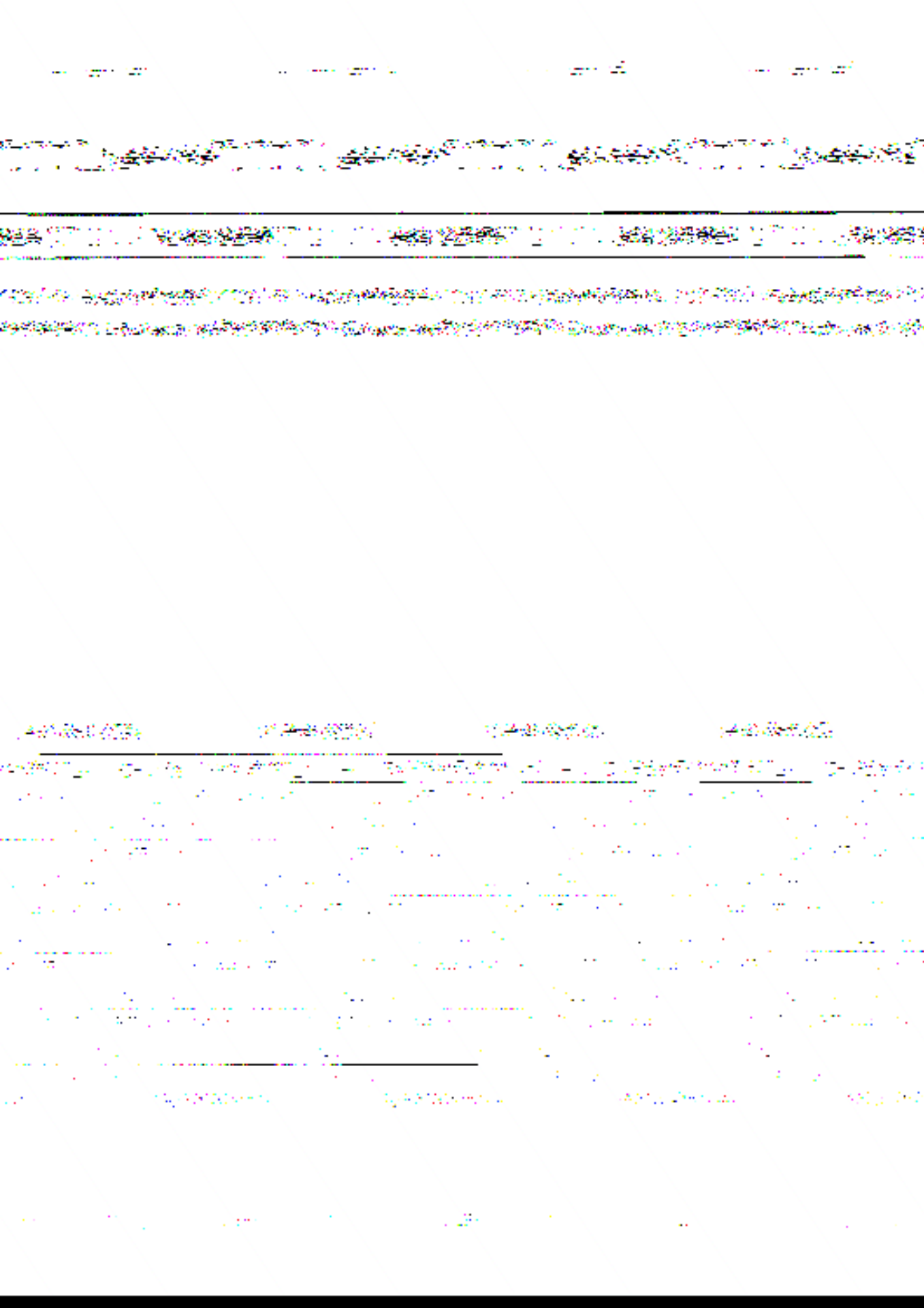
2017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 2100> 보건의료 부문
- 2200> 복지 부문
- 2300> 교육 부문
- 2400> 문화·여가여건 부문
-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 2600> 지역역량 부문
- 2700> 경제활동 부문



2100> 보건의료 부문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2 >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8.3%), '고콜레스테롤혈증'(23.5%), '고중성지방혈증'(18.6%), '당뇨병'(18.0%)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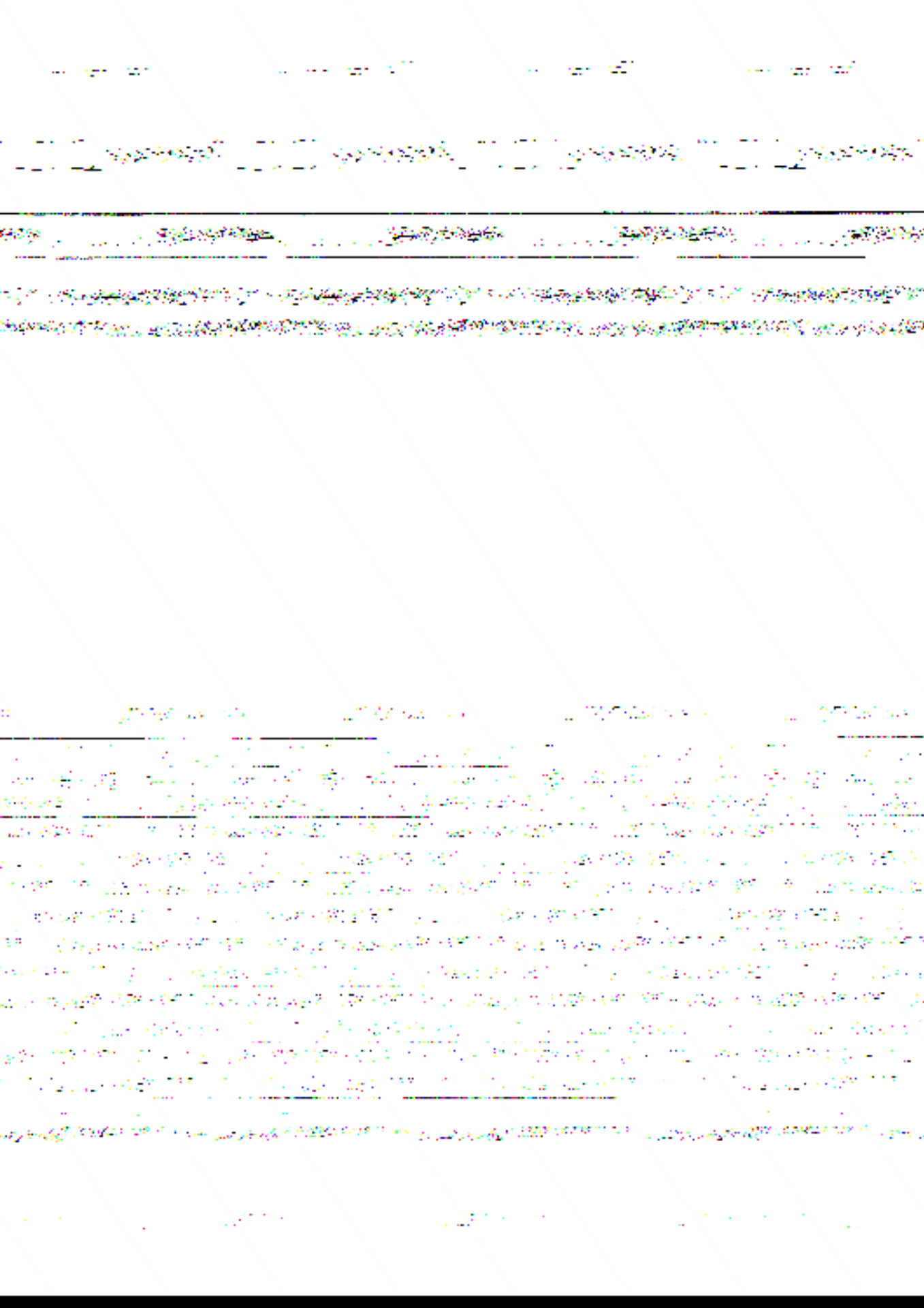
표2102 | 만성질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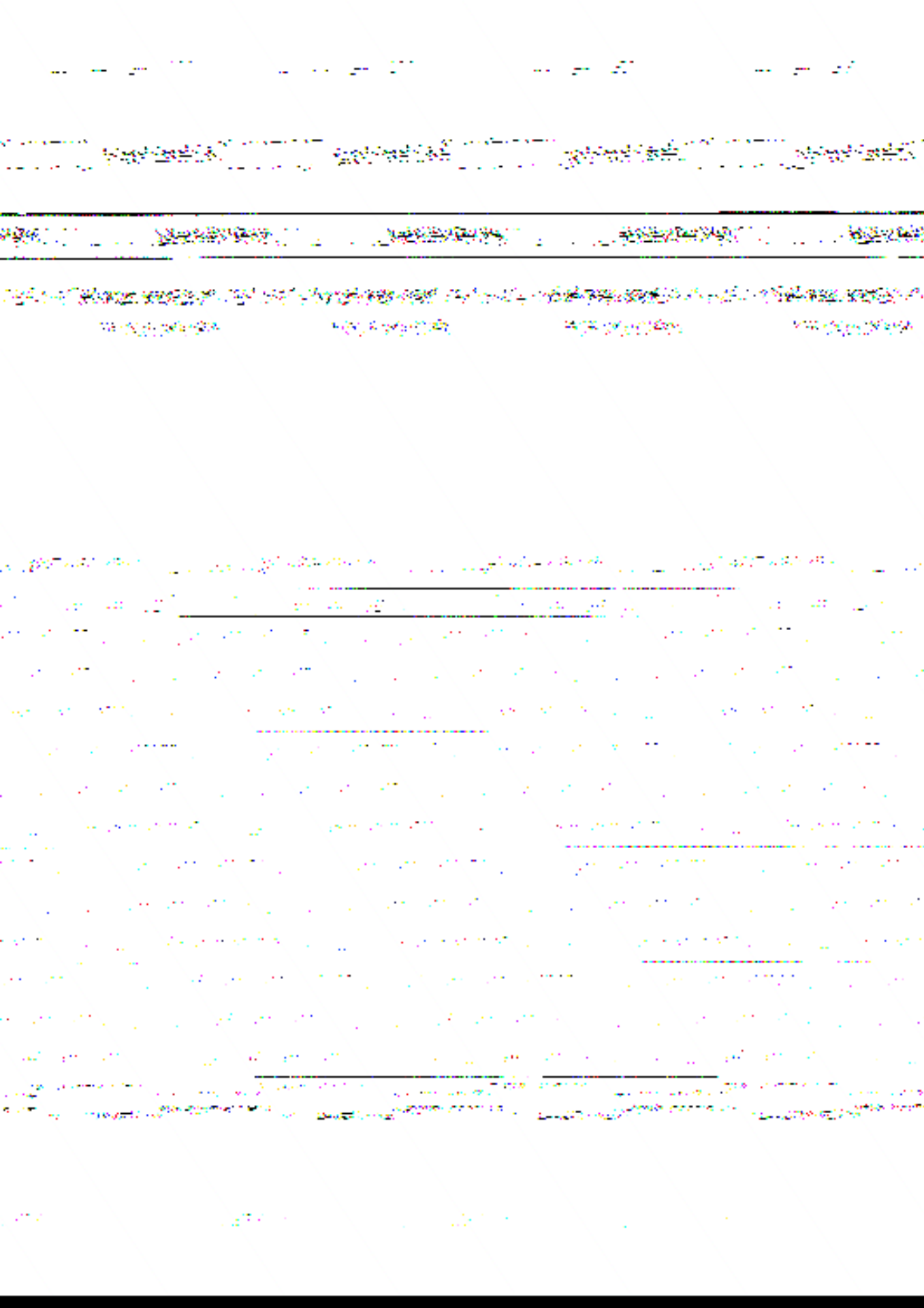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2013	농어촌	33.2	14.7	19.5	11.9
	도시	29.7	16.2	17.1	11.9
2014	농어촌	32.0	16.4	20.4	10.9
	도시	28.2	15.5	17.6	11.1
2015	농어촌	38.4	21.5	20.1	12.4
	도시	30.6	19.1	16.0	10.3
2016	농어촌	38.3	23.5	18.6	18.0
	도시	32.5	21.8	17.3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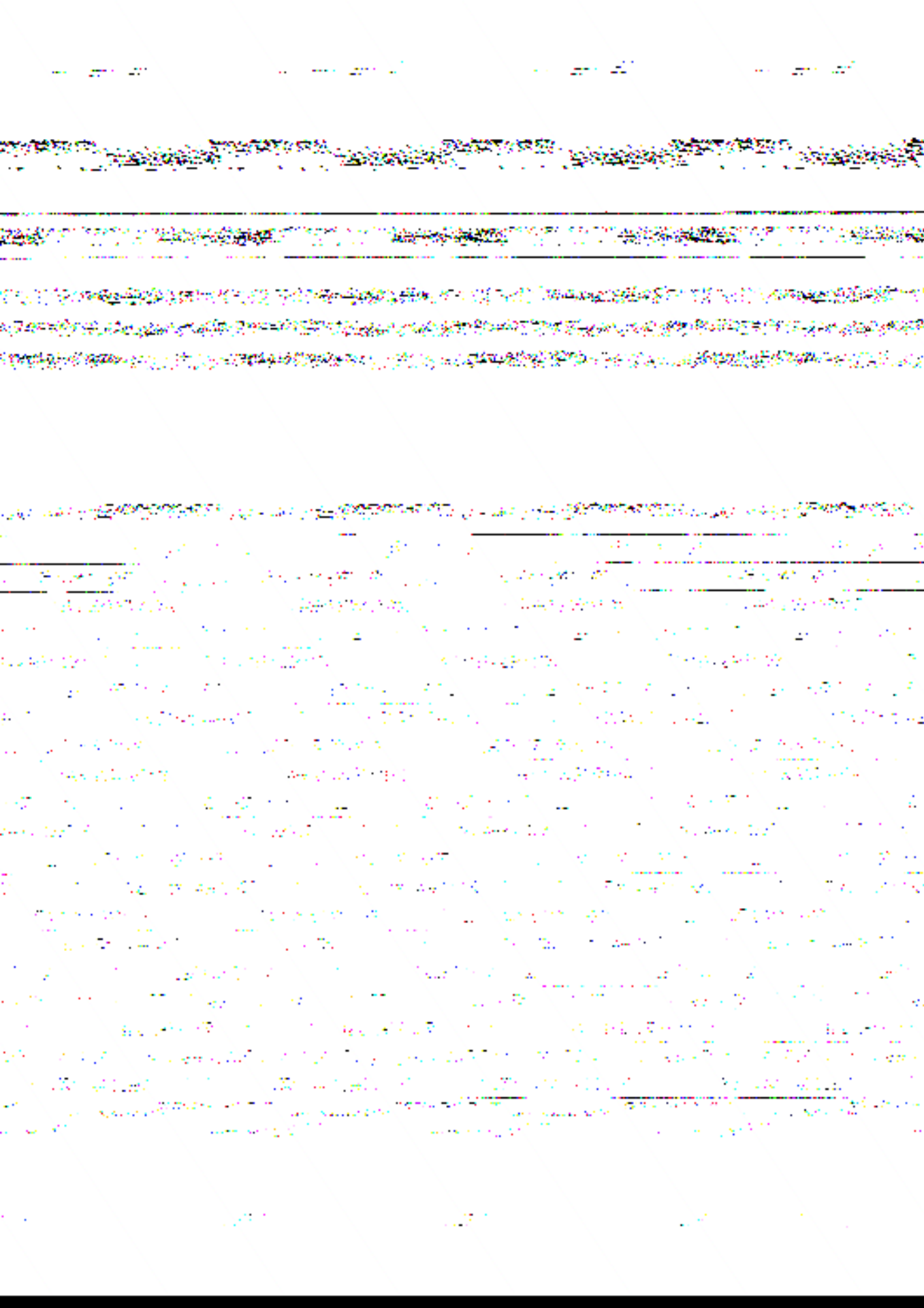
자료: 각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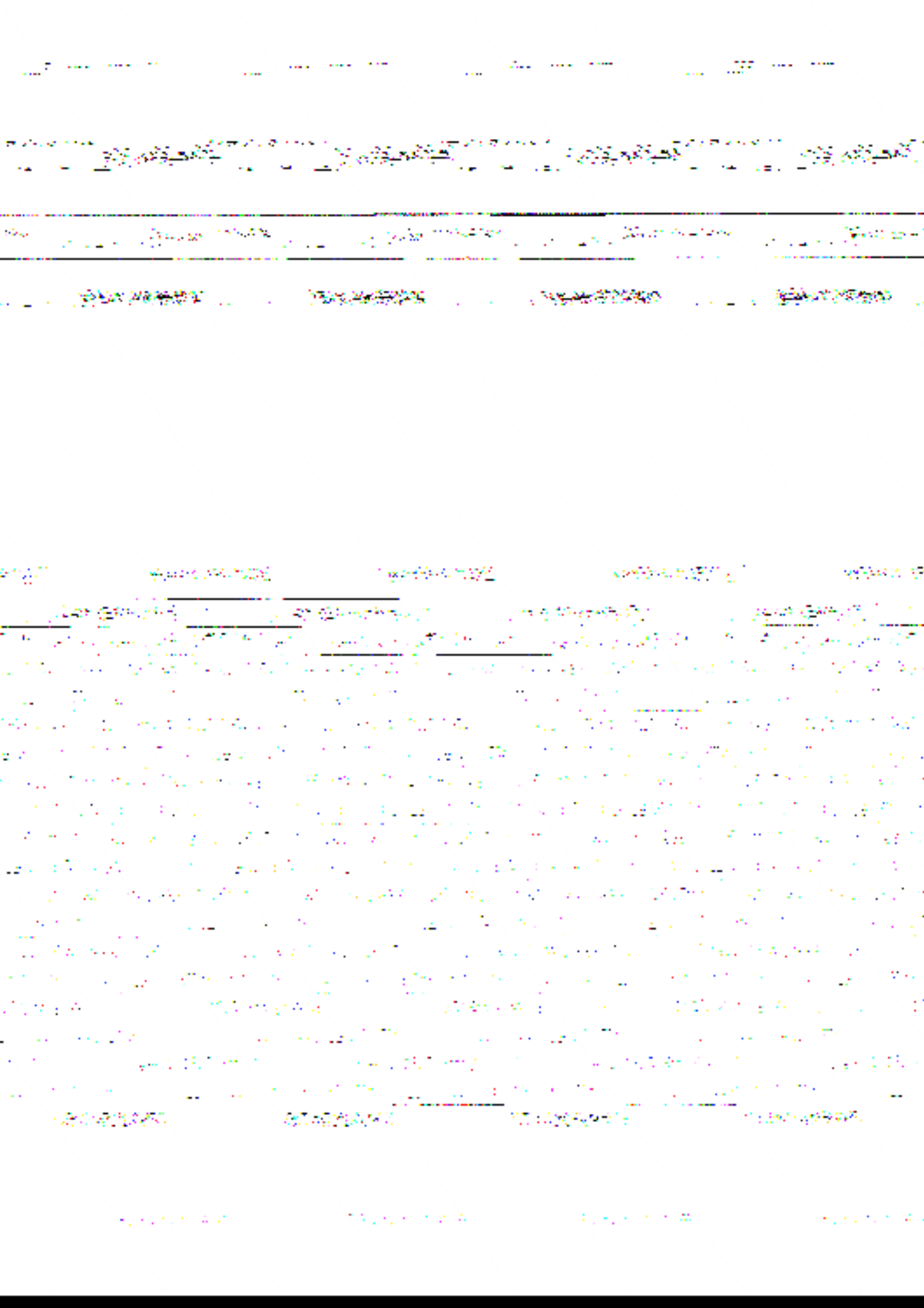
주: 만 30세 이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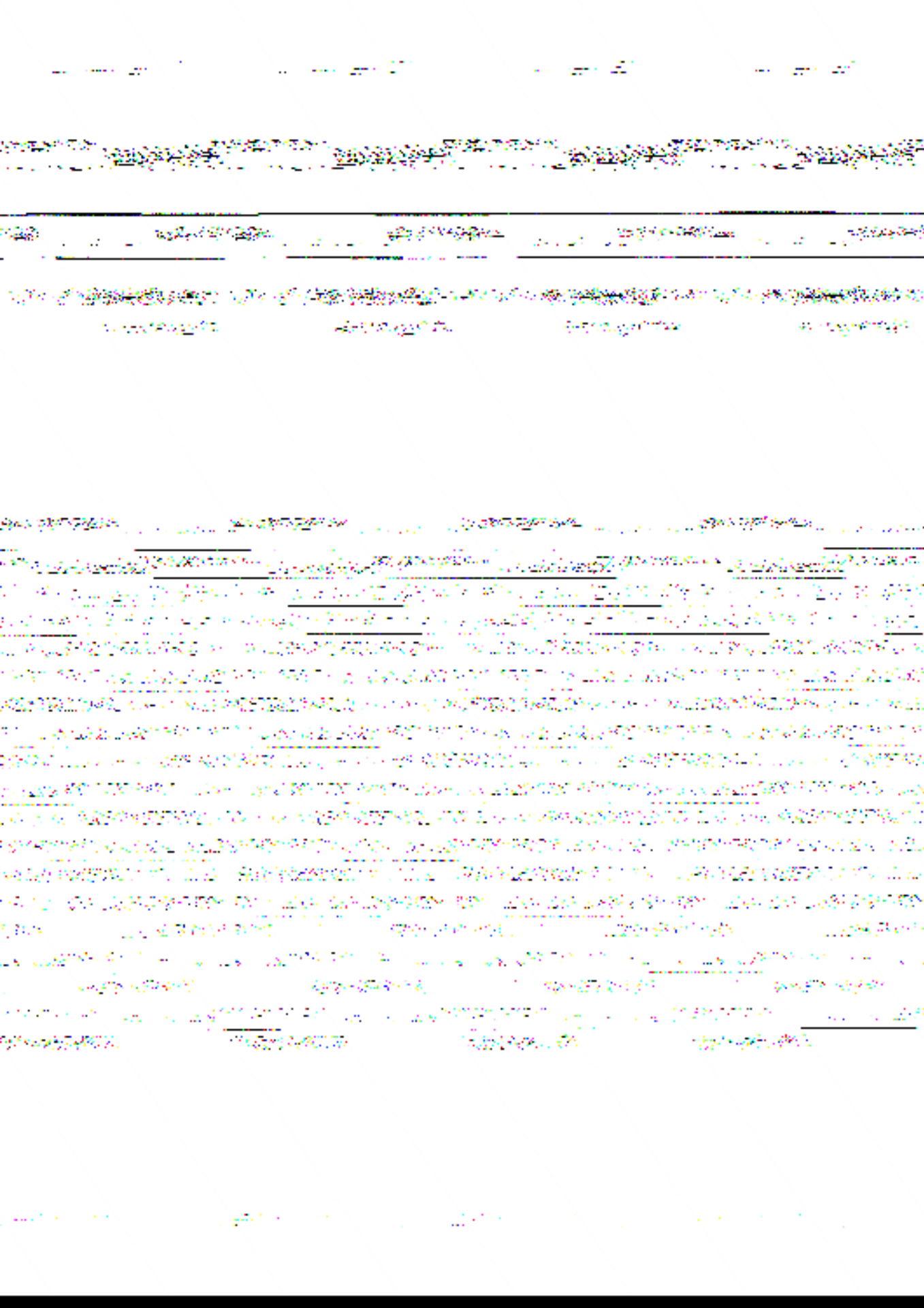












2109.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1.9%, 손상 종류로는 골절(39.4%)이 가장 많음

2015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1.9%이었으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2.4%, 1.9%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27,130	2.4
	사용 안함	21,294	2.1	11,299	1.2
	총 계	64,735	3.0	38,429	1.9
농약	사용함	49,331	3.6	26,777	1.9
	사용 안함	15,465	2.1	11,488	1.7
	총 계	64,796	3.0	38,265	1.9

자료: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곰질'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근육/인대 파열(좌상)'(12.3%), '허리/목 디스크 파열'(8.6%)의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0.9%로 나타났다.

| 표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손상자 수	비율	손상자 수	비율
총계	67,520	100.0	38,497	100.0
굴힘/잘과상	2,527	3.7	753	2.0
활림	848	1.3	1,113	2.9
타박상/영	7,778	11.5	1,548	4.0
빔/접질림(영좌)	6,765	10.0	2,569	6.7
베임(말상/개방상)	4,349	6.4	2,589	6.7
신체 절단	1,194	1.8	875	2.3
곰질	22,027	32.6	15,180	39.4
탈구	796	1.2	682	1.8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2	4,750	12.3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2	3,309	8.6
일시적인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1.9	813	2.1
농약 중독	1,453	2.2	331	0.9
동물에 물림(고상)	2,184	3.2	605	1.6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157	0.4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59	0.2
화상	181	0.3	74	0.2
산소 결핍/질식	134	0.2	0	0.0
감전	0	0.0	0	0.0
복합 손상	3,309	4.9	906	2.4
기타	3,498	5.2	2,184	5.7

자료: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출제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2110 > 병상 수

▶ 농어촌의 병상 수는 129,503개로 도시(562,842개)의 약 23.0%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129,503개로 '요양병원'(57,684개), '병원'(49,839개), '종합병원'(9,032개), '의원'(9,003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병상 수는 562,842개였다.

| 표2110-1 | 병상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선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2013	농어촌	74,776	5,982	26,842	27,464	6,659	0	700
	도시	558,311	135,443	165,817	128,397	72,982	1,128	0
2014	농어촌	77,597	5,797	29,538	25,771	6,220	0	700
	도시	590,873	139,185	184,448	137,803	69,918	932	0
2015	농어촌	127,663	8,459	54,999	50,581	9,742	0	700
	도시	546,878	138,415	174,847	139,299	69,206	932	0
2016	농어촌	129,503	9,032	57,684	49,839	9,003	0	700
	도시	562,842	139,986	188,689	140,286	66,167	858	0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2110-(2) | 병상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선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2013	농어촌	6,644	24	0	279	95	85	2
	도시	39,231	283	92	12,309	1,851	505	273
2014	농어촌	9,069	0	0	338	78	86	0
	도시	40,302	277	76	13,793	2,315	1,635	149
2015	농어촌	2,277	30	0	579	261	35	0
	도시	4,966	256	61	15,922	2,770	135	69
2016	농어촌	2,215	30	0	785	180	35	0
	도시	6,433	237	80	17,194	2,740	133	39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7,470개소로 도시(57,529개소)의 약 13.0%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7,470개소로 '의원'(3,302개소), '치과의원'(1,734개소), '한의원'(1,723개소) 순이었으며, 도시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57,529개소로 나타났다.

표 2111-1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2013	농어촌	4,511	23	190	164	2,108	0	1
	도시	56,388	301	1,038	1,167	26,708	3	0
2014	농어촌	4,766	21	205	170	2,233	0	0
	도시	58,909	300	1,099	1,266	28,456	4	1
2015	농어촌	7,387	27	336	273	3,211	0	1
	도시	56,032	310	999	1,219	26,152	3	0
2016	농어촌	7,470	28	346	271	3,302	0	1
	도시	57,529	313	1,040	1,239	26,855	3	0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2111 - (2)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2013	농어촌	25	3	1,007	5	959	23	3
	도시	135	197	14,572	198	11,857	168	44
2014	농어촌	32	4	1,018	6	1,051	24	2
	도시	138	198	14,915	228	12,084	189	31
2015	농어촌	14	6	1,672	10	1,706	129	2
	도시	23	207	14,912	250	11,899	29	29
2016	농어촌	13	6	1,734	12	1,723	32	2
	도시	29	217	15,262	270	12,137	138	26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종합병원의 63.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있음

2015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38.9%), 보건진료소(31.1%), 보건소(44.6%), 병·의원, 한의원(31.5%) 경우 행정리 안이나 소요시간 10분 미만인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63.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1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단위: %)

2005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2010							
구분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분	30분 이상		
약국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1.0	4.6	89.7	6.6	26.2	67.2	4.7

2015									
구분	행정리 안에 있음	다른 지역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60분 미만	1시간 이상	
약국	7.6	31.4	40.2	13.6	5.0	1.2	0.2	0.8	0.1
보건진료소	3.0	28.2	27.1	8.2	3.1	1.1	0.3	0.3	28.9
보건소	3.3	41.3	37.3	8.9	2.7	0.6	0.1	0.3	5.4
병·의원, 한의원	5.7	25.9	37.8	17.6	8.5	2.4	0.5	1.3	0.3
종합병원	0.4	3.9	12.0	20.0	23.0	14.2	6.8	15.2	4.5

자료: 각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8.5%)'가 가장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8.5%), '한의원'(61.5%), '종합병원'(59.5%), '병의원'(58.2%), '약국'(31.2%) 순으로 나타났다.

표2113-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2016	농어촌	59.5	31.4	9.1	58.2	36.1	5.7	61.5	30.1	8.4	68.5	28.0	3.5	31.2	63.2	5.7
	도시	51.8	35.3	13.0	47.3	44.8	7.8	51.9	39.9	8.1	55.1	35.7	9.2	33.2	62.5	4.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결과가 미흡하다'(20.7%), '의료비(약값)가 높다'(19.5%), '진료 및 입원대기시간이 길다'(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2113-2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 하다	의료비 (약값)가 높다	치료 결과가 미흡 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 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검사 등)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0.1
2016	농어촌	15.6	19.5	20.7	9.2	17.1	7.1	6.4	4.2	0.3
	도시	11.5	24.9	20.0	9.8	19.9	1.8	9.8	1.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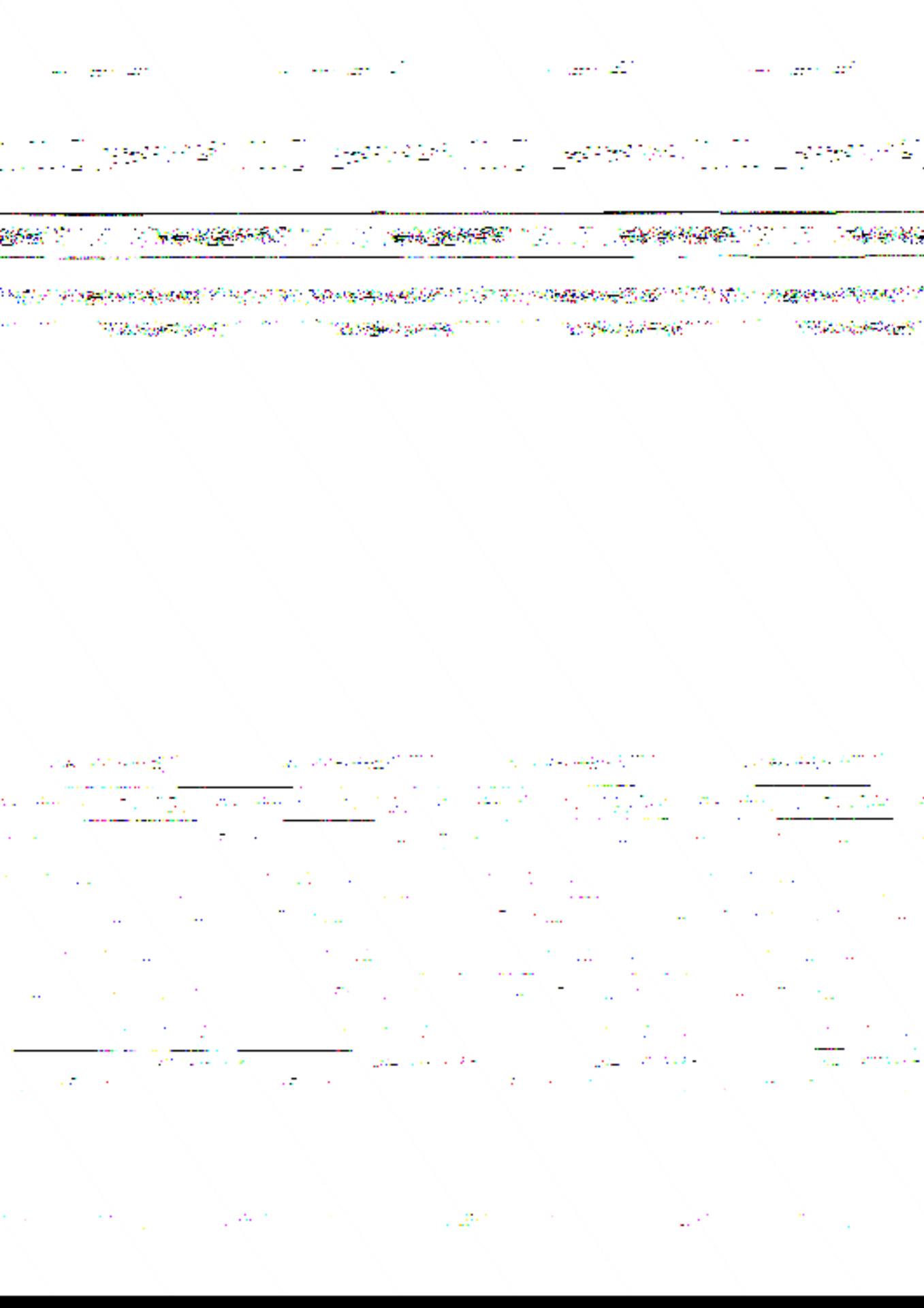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루틴 응답

2200> 복지 부문

- 2201> 독거노인 현황
- 2202> 장수인구 비율
- 2203> 치매노인 비율
-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6> 노인 일자리 참여
-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2208> 영유아 비율
- 2209> 육치원 취원율
- 2210> 보육시설 현황
- 2211> 조손가구 비율
- 2212> 장애인 추가비용
-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3>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 치매 유병률은 9.18%

2012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으로, 9.18%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으며, 2005년 8.25%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표2203 | 치매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거점연구',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주: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노인 수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농어촌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2011년 기준, 농어촌 노인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자녀와의 동거'(17.2%), '시설입소'(4.2%) 순으로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2204 | 노인 희망거주 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일반 주택·아파트	자녀 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그룹홈	일반 주택·아파트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2011	농어촌	77.7	17.2	0.2	0.5	0.1	4.2	0.0
	도시	72.5	18.9	1.1	1.1	0.7	5.5	0.2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68.0%) 및 도시(70.5%) 모두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농어촌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67.0%)이 주된 소득원임

2017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8.0%)', '자녀 또는 친척 지원(20.3%)', '정부 및 사회단체(11.6%)'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6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연금, 퇴직금'(+8.5%p), '재산소득'(+6.6%p)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표2205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2015	농어촌	66.1	69.7	7.0	17.7	5.6	19.9	38.5	61.5	13.9	0.0
	도시	66.7	48.9	13.4	31.1	6.6	24.1	53.7	46.3	9.1	0.1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2017	농어촌	68.0	67.0	5.4	21.8	5.8	20.3	11.6	0.0
	도시	70.5	49.9	12.0	30.3	7.8	20.1	9.3	0.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60세 이상 인구 대상

2206>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7.7%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층은 3.7%,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4.0%,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3.2%로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2206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연도	구분	인지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2014	농어촌		3.7	4.0	3.2	89.1
	도시		4.5	4.5	5.6	86.0

자료: 2014 노인실태조사 p424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7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90.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가사 서비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사에서 2011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보장'(32.3%), '의료서비스'(28.3%), '수발서비스'(21.5%)로 나타났다.

표2207-①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받고 싶은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아 가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07	농어촌	71.5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도시	79.1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2009	농어촌	76.6	26.9	2.2	16.2	3.8	2.2	5.2	35.6	5.4	2.0	0.5
	도시	83.8	22.1	1.3	11.7	3.5	2.6	13.1	35.6	8.3	1.4	0.3
2011	농어촌	93.1	28.3	2.5	17.8	2.6	1.9	7.3	34.5	4.0	0.9	0.2
	도시	95.3	25.2	1.8	13.2	3.3	1.6	11.9	34.3	7.0	1.4	0.3
2013	농어촌	90.7	26.2	2.7	20.8	4.2	2.4	6.9	29.8	5.8	0.8	0.4
	도시	93.2	23.4	1.8	16.3	3.8	2.2	11.9	31.3	7.9	1.2	0.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60세 이상 인구 대상

표2207-② |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 활동 지원	노후 주거 지원	기타
2011	농어촌	32.3	21.5	6.7	28.3	6.8	3.7	0.6
	도시	31.6	17.4	10.1	25.1	10.7	3.9	1.3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8.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7%

2016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도시(5.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08 | 영유아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2015	농어촌	100.0	4.8	3.1	1.7
	도시	100.0	5.4	3.6	1.9
2016	농어촌	100.0	4.7	3.0	1.7
	도시	100.0	5.3	3.4	1.9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209 >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도시(50.9%)와 비슷한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5년 전인 2012년(39.4%)에 비해 증가(+7.8%p)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50.9%)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2209 |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2012	농어촌	246,339	97,058	39.4
	도시	1,162,159	516,691	44.5
2013	농어촌	234,651	106,015	45.2
	도시	1,152,386	552,173	47.9
2014	농어촌	237,705	105,105	44.2
	도시	1,157,489	547,441	47.3
2015	농어촌	244,483	110,373	45.1
	도시	1,192,872	572,180	48.0
2016	농어촌	239,790	113,103	47.2
	도시	1,160,161	591,035	5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2007~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교육통계(2012~)

주: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 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10.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8,048개)은 도시의 24.4%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8,048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도시(대도시+중소도시)의 24.4% 수준이었다.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4,972명)가 가장 많았다.

표2210-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표 2210 - (2)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2014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24	3,178	120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64	7,985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61	12,155	233
2015	농어촌	8,216	606	754	363	3,267	27	3,053	146
	대도시	15,695	1,321	377	270	5,619	66	7,671	371
	중소도시	18,606	702	283	201	5,740	62	11,350	268
2016	농어촌	8,048	625	746	356	3,228	2,885	27	181
	대도시	15,177	1,494	373	256	5,413	7,128	70	443
	중소도시	17,859	740	283	192	5,675	10,585	60	324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표2210-3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2014	농어촌	66,101	5,580	9,475	3,517	31,956	131	14,052	1,390
	대도시	120,925	15,340	5,616	2,757	56,227	421	36,059	4,505
	중소도시	124,791	8,057	3,954	2,475	53,764	304	52,836	3,371
2015	농어촌	68,523	5,804	9,362	3,543	33,418	157	14,421	1,818
	대도시	124,721	16,488	5,656	2,669	57,352	479	37,021	5,056
	중소도시	127,823	8,531	3,915	2,425	54,954	334	53,682	3,982
2016	농어촌	69,040	6,025	9,303	3,511	33,731	14,070	157	2,243
	대도시	125,793	17,958	5,691	2,580	57,000	36,104	494	5,966
	중소도시	126,933	8,954	3,926	2,345	54,878	51,717	328	4,785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표2210-4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2014	농어촌	341,403	30,654	52,647	19,493	183,033	590	48,811	6,178
	대도시	575,605	83,146	30,465	15,119	297,922	1,784	128,403	18,766
	중소도시	597,663	45,444	21,440	14,563	294,459	1,400	188,036	14,321
2015	농어촌	340,463	31,156	50,557	19,054	184,211	688	46,860	7,937
	대도시	558,183	87,444	29,073	14,114	283,995	1,968	121,270	20,319
	중소도시	554,167	47,143	20,085	13,690	279,392	1,471	175,877	16,509
2016	농어촌	341,448	32,460	49,791	18,720	184,972	45,243	696	9,566
	대도시	555,077	93,451	29,076	13,480	278,884	114,974	2,058	23,174
	중소도시	554,670	50,018	20,246	13,174	281,807	168,377	1,486	19,562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211 > 조손가구 비율

▶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0.9%로 도시(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0.9%로 도시(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2211 | 조손가정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2015	농어촌	3,623,129	31,776	0.9
	도시	15,487,901	81,335	0.5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조손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의 합

2212 >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크게 증가함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14년에는 164.2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2.8%p)한 반면, '의료비'(+9.2%p), '부모 사후 대비비'(+10.6%p)가 다소 증가하였다.

표2212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2014	164.2	25.6	66.0	4.1	13.6	4.2	9.9	18.9	16.8

자료: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8.0%,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20.2%

2016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8.0%로 도시(4.8%)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20.2%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8.9%)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2213 - (1)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2014	농어촌	48,818	3,940	8.1	3,500	730	20.9
	도시	248,965	11,587	4.7	1,222	145	11.9
2015	농어촌	48,638	3,534	7.3	3,410	615	18.0
	도시	247,486	10,762	4.3	1,278	134	10.5
2016	농어촌	46,792	3,743	8.0	3,134	632	20.2
	도시	229,747	11,040	4.8	1,198	107	8.9

자료: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015년 기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74.8% 인 반면, 도시에서는 65.3%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13 - (2) |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2009	농어촌	29.7	41.4	22.3	6.6
	도시	43.1	37.2	16.6	3.1
2012	농어촌	28.4	36.2	27.9	7.5
	도시	39.9	37.4	18.9	3.8
2015	농어촌	25.2	35.1	31.7	8.0
	도시	35.7	37.8	22.4	4.1

자료: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로 농어촌의 경우 '6세 미만'(45.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11세'(32.7%), '12-14세'(10.1%), '15-17세'(7.3%), '18세 이상'(4.5%) 순으로 자녀의 평균 연령은 7.33세였다. 도시의 경우, '18세 이상'(9.7%)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아(+5.2%p) 평균 연령은 7.96세였다.

표2213 - (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도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평균(세)
2012	농어촌	54.4	26.9	9.7	4.5	4.4	6.56
	도시	51.3	24.9	7.6	4.6	11.5	7.86
2015	농어촌	45.4	32.7	10.1	7.3	4.5	7.33
	도시	46.0	30.0	8.3	6.1	9.7	7.96

자료: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39.3%), 학부모로서 어려운 가장 점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해서'(32.8%)이었으며, 도농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213- (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연도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와 갈등	한국어 가르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기타
2012	농어촌	53.1	7.0	30.7	10.5	50.7	4.9	7.7	1.9	2.8
	도시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자료: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5) |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어려운 점

(단위: %)

연도	구분	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사람들이 무시해서	내가 바쁘거나 아들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몰라서	기타	어려움 없음
2015	농어촌	10.5	1.4	17.5	39.3	9.1	1.3	20.8
	도시	11.1	1.9	23.1	28.3	10.5	1.9	23.3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6) |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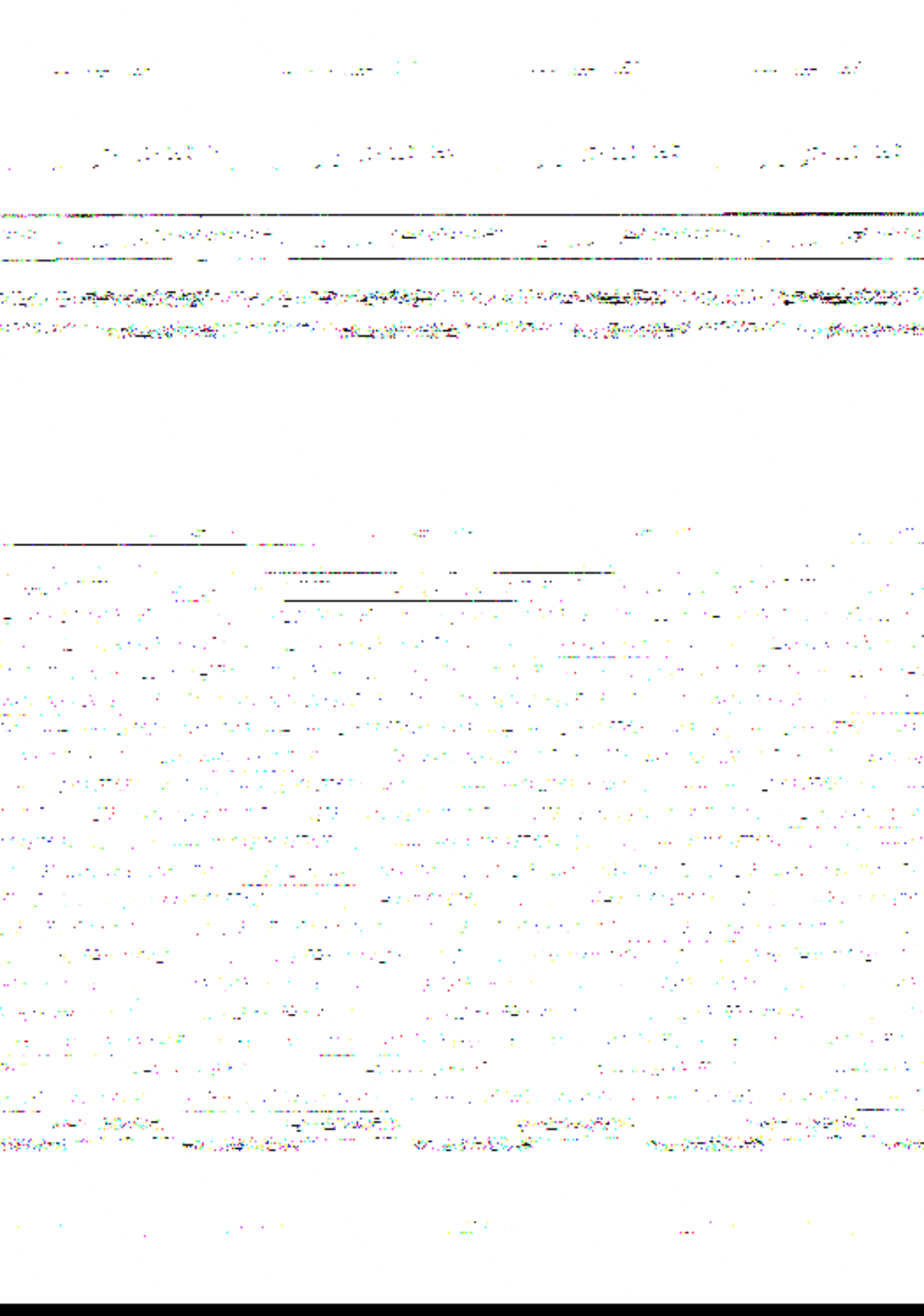
연도	구분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학교생활 잘 알지 못해서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 잘 챙겨주지 못해서	다른 학부모와 대화 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워서	기타	어려움 없음
2015	농어촌	32.8	12.4	12.8	9.5	11.0	1.0	20.4
	도시	28.4	10.2	12.3	10.5	13.6	0.8	24.2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300> 교육 부문

- 2301> 학생 수
- 2302> 학교 수
-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2306> 복식학교 비율
- 2307> 교원 수
- 2308> 연령별 교원 수
- 2309> 사무직원 수
-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2311> 보건교사 배치율
-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6> 통학수단
-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2320> 학업중단 비율
- 2321> 대학(고) 진학률
-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 참여율
-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2325> 도서관 현황
-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title page. It contains the title of the document, the author's name, and the date of the document. The title 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is "John Adams". The date is "1776".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is a preface. It contains the author's introduction to the document. The author states that the document is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it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public of the events that have shaped the nation. The author also states that the document is written in a simple and straightforward manner, and that it is intended to be read by al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is the main body of the text. It contains the author's account of the events that have shap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begins by describing the earl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ime of the first settlers to the time of the American Revolution. The author then describes the events of the American Revolution,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Battle of Bunker's Hill, and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The author concludes by describing the early year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to the time of the author's death.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is a conclusion. It contains the author's final thoughts o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is a great nation, and that it has achieved many great things. The author also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is still a young nation, and that it has many challenges ahead of it. The author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of hope, and that it is a nation that is worth fighting for.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references. It contains a list of the sources that the author used in writing the document. The sources include books, articles, and other documents. The author lists the sources in alphabetical order, and provides the full citation for each source.

6.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footnotes. It contains a list of the footnotes that the author used in writing the document. The footnot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topics discussed in the main body of the text.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별 학교 수는 '10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학생 수별 학교 분포를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 수 '1,001~1,500명'인 학교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304 | 학생 수별 학교 수

단위: %

연도	구분	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3,000명	3,001명 이상
2008	농어촌	47.9	17.9	13.5	7.7	4.6	3.6	4.1	0.6	0.1	0.0
	도시	2.1	1.8	5.2	10.2	14.0	17.4	37.4	10.5	1.3	0.0
2009	농어촌	49.1	16.9	13.5	7.7	4.8	3.5	4.0	0.4	0.0	0.0
	도시	2.3	1.9	5.6	10.8	15.9	18.4	35.5	8.8	0.9	0.0
2010	농어촌	50.5	16.2	13.1	7.8	4.7	3.6	3.9	0.3	0.0	0.0
	도시	2.3	2.2	6.0	12.1	17.5	18.6	33.7	7.0	0.6	0.0
2011	농어촌	51.5	15.6	12.9	7.7	4.8	3.6	3.7	0.2	0.0	0.0
	도시	2.5	2.3	7.2	13.6	18.4	19.9	30.2	5.6	0.4	0.0
2012	농어촌	52.4	14.8	13.2	7.4	4.6	4.1	3.3	0.1	0.0	0.0
	도시	2.4	2.7	8.7	15.4	20.3	19.8	26.9	4.2	0.2	0.0
2013	농어촌	53.5	14.0	13.6	7.6	4.8	3.5	3.0	0.1	0.0	0.0
	도시	2.6	2.8	9.2	17.1	21.4	19.7	24.0	3.1	0.1	0.0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1) 초, 중, 고등학교 대상임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학생 수 100인 이하) 비율은 53.5%이며,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소규모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소규모학교(100인 이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7.9	57.2	46.3	15.1
	도시	2.1	3.8	0.7	0.3
2009	농어촌	49.1	58.7	48.0	14.6
	도시	2.3	4.1	0.9	0.2
2010	농어촌	50.5	60.2	49.2	16.2
	도시	2.3	4.0	0.9	0.3
2011	농어촌	51.5	62.1	49.4	16.0
	도시	2.5	4.4	0.8	0.4
2012	농어촌	52.4	64.1	49.4	15.1
	도시	2.4	4.3	0.8	0.3
2013	농어촌	53.5	65.9	49.8	14.9
	도시	2.6	4.5	1.1	0.3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시/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6 > 복식학교 비율

▶ 농어촌의 복식학교 비율은 13.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초등학교 2,513개 중 복식학교 비율은 13.2%로, 이 중 '2개 학년' 복식학교 비율이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는 복식학교 비율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6 | 복식학교 비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초등학교	복식학급 학교 수						복식학교 비율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2008	농어촌	2,609	364	362	2	-	-	-	14.0
	도시	3,204	47	23	10	10	3	1	1.5
2009	농어촌	2,573	386	381	1	3	1	-	15.0
	도시	3,256	34	24	4	3	2	1	1.0
2010	농어촌	2,566	382	379	3	-	-	-	14.9
	도시	3,288	36	24	6	3	3	-	1.1
2011	농어촌	2,550	368	355	6	1	-	6	14.4
	도시	3,332	27	19	3	3	1	1	0.8
2012	농어촌	2,531	335	320	2	3	-	10	13.2
	도시	3,364	24	16	5	2	-	1	0.7
2013	농어촌	2,513	332	314	2	1	1	14	13.2
	도시	3,400	30	17	6	2	1	4	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7. 교원 수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26명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26명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교원 수는 증가(+181명)한 반면, 중학교 교원 수는 2015년 대비 감소(-20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교원 수는 339,878명으로 2015년 대비 감소(-455명)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 수가 증가(+819명)한 반면, 중학교 교원 수가 감소(-1,521명)했다.

표2307 | 교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교원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2014	농어촌	88,219	42,656	22,949	22,614
	도시	342,290	140,016	90,400	111,874
2015	농어촌	88,571	42,843	22,883	22,845
	도시	340,333	139,815	88,364	112,154
2016	농어촌	88,526	42,818	22,682	23,026
	도시	339,878	140,634	86,843	112,40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8> 연령별 교원 수

▶ 농어촌 학교의 연령별 교원 수는 30대가 29.6%로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 교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6.2%), '50대'(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역시 '30대' 교원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1%), '50대'(23.8%)의 순이었다.

표2308 | 연령별 교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2008	농어촌	83,688	13,617	16.3	20,878	24.9	20,501	34.1	18,433	22.0	2,259	2.7
	도시	320,108	54,187	16.9	100,257	31.3	100,383	31.4	58,095	18.1	7,186	2.2
2009	농어촌	83,748	14,412	17.2	20,737	24.8	28,537	34.1	17,779	21.2	2,283	2.7
	도시	325,469	54,141	16.6	103,410	31.8	101,487	31.2	59,637	18.3	6,794	2.1
2010	농어촌	84,422	14,243	16.9	21,294	25.2	28,270	33.5	18,219	21.6	2,396	2.8
	도시	327,536	51,086	15.6	105,824	32.3	100,166	30.6	63,006	19.2	7,454	2.3
2011	농어촌	86,136	14,453	16.8	22,345	25.9	27,534	32.0	19,240	22.3	2,564	3.0
	도시	336,228	50,321	15.0	111,401	33.1	97,931	29.1	68,821	20.5	7,754	2.3
2012	농어촌	87,000	14,407	16.6	23,624	27.2	26,273	30.2	20,133	23.1	2,563	2.9
	도시	338,392	48,577	14.4	113,373	33.5	95,140	28.1	73,518	21.7	7,784	2.3
2013	농어촌	86,872	14,038	16.2	24,309	28.0	24,460	28.2	21,332	24.6	2,733	3.1
	도시	340,817	47,105	13.8	115,152	33.8	92,949	27.3	76,962	22.6	8,649	2.5
2014	농어촌	88,219	14,075	16.0	25,369	28.8	23,919	27.1	22,088	25.0	2,768	3.1
	도시	342,290	45,305	13.2	115,054	33.6	92,257	27.0	80,729	23.6	8,945	2.6
2015	농어촌	88,571	14,125	15.9	26,239	29.6	23,223	26.2	22,496	25.4	2,488	2.8
	도시	340,333	44,961	13.2	114,710	33.7	92,154	27.1	80,973	23.8	7,535	2.2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9.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 수는 16,408명, 학교 당 3.7명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408명, 학교 당 3.7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7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09 |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 수				학교 당 사무직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2014	농어촌	17,031	10,136	3,806	3,089	3.9	4.0	3.1	4.5
	도시	34,339	15,589	8,099	10,651	4.9	4.6	4.1	6.5
2015	농어촌	16,634	9,884	3,706	3,044	3.8	3.9	3.0	4.4
	도시	34,094	15,588	7,913	10,593	4.8	4.5	4.0	6.4
2016	농어촌	16,408	9,704	3,640	3,064	3.7	3.9	3.0	4.5
	도시	33,649	15,288	7,773	10,588	4.7	4.4	3.9	6.3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도시(8.0%)의 약 1/3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8.0%)의 약 1/3수준이었다.

표2310 | 사서교사 배치율

단위: %

연도	구분		사서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2.7	2.5	2.0	4.9
	도시	7.9	4.5	5.8	17.8
2009	농어촌	2.7	2.6	2.0	4.6
	도시	7.9	4.5	5.8	17.6
2010	농어촌	2.9	2.8	2.1	4.8
	도시	8.1	4.7	5.5	18.5
2011	농어촌	3.0	2.8	2.3	4.8
	도시	8.3	4.7	6.1	18.5
2012	농어촌	2.9	2.7	2.6	4.3
	도시	8.0	4.7	5.7	17.8
2013	농어촌	2.5	2.5	2.1	3.2
	도시	8.0	4.8	6.0	17.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사서교사배치율(%) = 사서교사 배치 학교수/전체학교수×100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1 >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도시(80.7%)의 약 1/2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인 반면,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16.8%)을 나타냈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0.7%로 농어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311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2014	농어촌	38.4	47.7	17.6	41.6
	도시	81.1	86.9	72.6	79.1
2015	농어촌	38.5	46.8	18.9	43.3
	도시	79.1	85.3	70.5	76.4
2016	농어촌	39.4	46.8	20.0	47.1
	도시	79.1	84.4	71.3	77.4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보건교사배치율(%) =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 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

2013년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36.9%)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	
			보유 학교수	보유율
2008	농어촌	677	528	78.0
	도시	1,513	520	34.4
2009	농어촌	677	532	78.6
	도시	1,548	523	33.8
2010	농어촌	684	503	73.5
	도시	1,569	528	33.7
2011	농어촌	687	515	75.0
	도시	1,595	560	35.1
2012	농어촌	690	537	77.8
	도시	1,613	581	36.0
2013	농어촌	689	528	76.6
	도시	1,633	603	36.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4.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2313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시/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6.3%

2016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6.3%로 나타났으며, 대도시(51.3%) 및 중소도시(43.8%)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표2314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2013	농어촌	40.6
	대도시	52.9
	중소도시	44.7
2014	농어촌	41.5
	대도시	53.8
	중소도시	45.1
2015	농어촌	41.0
	대도시	50.9
	중소도시	44.7
2016	농어촌	36.3
	대도시	51.3
	중소도시	43.8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5.9%

2016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5.9%로, 고등학교(60.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50.3%), 중학교(20.0%) 순이었다.

표2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2013	47.6	49.2	29.3	62.7	69.7
2014	48.2	52.2	27.8	61.4	68.5
2015	46.8	50.8	26.7	58.6	65.3
2016	45.9	50.3	20.0	60.7	66.9

자료: 각 시도 시교육위원회

2316> 통학수단

▶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통학수단은 '도보(41.4%)'가 가장 많고, ' 시내·좌석·마을버스'(25.7%), '승용·소형승합차'(11.9%) 순

2015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으로는 '도보'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 시내·좌석·마을버스'(25.7%), '승용·소형승합차'(11.9%), '통근·통학버스'(9.4%) 순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승용·승합차' 이용률이 높은 반면, '도보' 및 '전철·지하철' 이용률은 낮았다.

표2316 | 통학수단

(단위: %)

연도	구분	승용 소형 승합차	시내 좌석· 마을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지하철	기차	택시	자전 거	도보	기타	복합 수단
2006	농어촌	11.1	35.4	8.3	2.6	0.3	0.3	0.1	2.1	37.5	0.7	1.6
	남자	12.0	34.0	8.0	2.4	0.3	0.3	0.1	3.3	37.4	0.7	1.3
	여자	10.1	37.1	8.7	2.7	0.3	0.3	0.1	0.6	37.6	0.6	1.9
	도시	5.5	29.5	5.9	1.0	7.6	0.2	0.1	1.2	45.1	0.1	3.9
	남자	6.1	28.1	5.7	1.0	7.1	0.2	0.1	2.2	45.8	0.2	3.6
	여자	4.8	31.0	6.2	1.0	8.1	0.2	0.1	0.2	44.2	0.0	4.2
2010	농어촌	13.9	29.3	9.1	1.8	0.8	0.3	0.2	2.1	37.1	0.7	4.8
	남자	14.2	28.6	8.8	1.7	0.7	0.3	0.1	3.4	37.0	0.8	4.3
	여자	13.5	30.1	9.6	1.8	0.9	0.3	0.2	0.5	37.2	0.5	5.4
	도시	6.2	26.8	6.7	0.9	6.2	0.1	0.2	1.7	43.2	0.3	7.6
	남자	6.6	25.7	6.4	0.9	5.9	0.1	0.2	3.0	43.9	0.4	6.9
	여자	5.8	28.1	7.1	0.9	6.4	0.1	0.2	0.3	42.6	0.1	8.4
2015	농어촌	11.9	25.7	9.4	1.9	1.3	0.3	0.1	1.7	41.4	0.3	5.9
	남자	11.8	25.2	9.1	1.8	1.3	0.3	0.1	3.1	41.4	0.4	5.4
	여자	12.1	26.3	9.7	1.9	1.4	0.3	0.1	0.2	41.3	0.3	6.4
	도시	4.9	22.8	6.7	1.0	8.1	0.2	0.1	1.9	44.4	0.2	9.7
	남자	4.9	21.7	6.3	1.1	7.9	0.2	0.1	3.4	45.1	0.2	9.1
	여자	4.9	24.0	7.2	1.0	8.4	0.2	0.1	0.2	43.7	0.1	10.3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농어촌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14.6%로 도시(11.9%)에 비해 높음(+2.7%p)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15세 이하 아동 대비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14.6%이었으며, 한부모 가정 아동은 13.3%, 조손 가정 아동은 1.3%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도시'(11.9%)에 비해 높았다(+2.7%p).

표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결손가정(한부모, 조손) 아동 비율			
			한부모	조손	
2005	농어촌	6.7	4.8	1.9	
	도시	6.7	6.2	0.5	
2010	농어촌	7.7	5.7	2.0	
	도시	7.5	6.7	0.8	
2015	농어촌	14.6	13.3	1.3	
	도시	11.9	11.3	0.6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2005~2010년은 12세 이하 인구 대상, 2015년은 15세 미만 인구 대상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6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29.8%, 25.2%, 33.3%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2318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09	농어촌	32.9	45.3	19.2	2.6	19.1	65.2	14.1	1.6	60.2	19.4	18.3	2.1
	대도시	36.3	44.8	16.9	2.0	29.4	59.5	10.0	1.1	72.9	13.4	12.1	1.6
	중소도시	35.2	44.7	17.7	2.4	24.9	62.3	11.5	1.3	69.2	14.9	13.9	2.0
2010	농어촌	40.7	37.0	21.0	1.3	22.8	51.6	24.3	1.2	58.9	20.8	18.2	2.1
	대도시	42.3	36.4	20.0	1.3	28.6	48.8	21.4	1.2	68.5	15.9	13.5	2.1
	중소도시	43.6	35.7	19.5	1.2	25.9	50.1	22.8	1.2	66.4	16.8	14.7	2.1
2011	농어촌	37.6	44.3	17.5	0.6	18.5	59.9	20.7	0.9	65.1	21.3	13.0	0.6
	대도시	42.7	40.8	15.8	0.7	23.7	57.5	17.7	1.1	74.1	15.4	9.7	0.7
	중소도시	40.1	42.6	16.6	0.6	20.3	59.2	19.5	1.0	70.6	17.4	11.3	0.8
2012	농어촌	49.1	33.9	16.5	0.5	34.0	43.3	21.9	0.9	66.8	21.6	10.9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1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2.9	16.5	9.7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평가에서 제외됨

표2318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09	농어촌	13.4	50.3	31.1	5.2	14.1	33.1	39.8	13.0	16.0	47.6	60.1	6.2
	대도시	17.7	51.9	25.8	4.6	23.1	35.2	31.3	10.4	28.9	44.2	22.2	4.7
	중소도시	17.8	52.0	25.7	4.5	22.0	35.0	32.4	10.6	26.4	45.3	23.4	4.9
2010	농어촌	19.2	50.8	26.7	3.2	14.5	37.9	41.0	6.6	15.8	44.6	34.7	4.9
	대도시	24.3	49.8	22.8	3.1	23.6	37.9	32.8	5.8	28.7	41.7	25.9	3.7
	중소도시	23.2	49.8	23.7	3.3	21.8	37.5	34.5	6.2	24.9	42.6	28.6	3.9
2011	농어촌	26.3	52.5	19.7	1.5	12.8	44.0	38.6	4.6	21.3	42.5	34.7	1.5
	대도시	32.2	49.9	16.5	1.4	23.1	43.8	29.3	3.8	35.9	37.3	25.5	1.2
	중소도시	31.4	50.0	17.2	1.4	20.6	44.1	31.3	4.0	31.9	38.4	28.4	1.4
2012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2013	농어촌	24.9	59.7	14.5	1.1	6.8	52.4	35.5	5.3	17.1	53.2	26.4	3.3
	대도시	32.5	54.7	11.6	1.2	15.7	53.8	25.9	4.6	32.5	45.0	19.5	3.1
	중소도시	29.3	56.5	13.0	1.3	12.4	53.4	28.8	5.5	27.4	46.7	22.3	3.6
2014	농어촌	20.4	65.2	12.6	1.9	6.8	51.2	35.5	6.5	18.0	51.0	27.5	3.4
	대도시	29.0	58.8	10.0	2.1	15.5	54.6	24.7	5.2	35.2	42.5	19.1	3.2
	중소도시	26.0	61.3	10.8	2.0	12.2	54.2	27.7	6.0	29.5	45.4	21.7	3.5
2015	농어촌	23.9	55.3	18.1	2.8	10.2	46.5	37.8	5.5	14.8	46.8	34.7	3.8
	대도시	33.0	50.8	13.6	2.7	23.3	46.9	25.6	4.2	31.2	42.9	22.8	3.2
	중소도시	29.6	52.9	15.0	2.5	17.2	48.2	29.9	4.7	25.2	44.5	26.8	3.5
2016	농어촌	30.7	57.2	9.8	2.3	10.9	47.1	35.7	6.3	15.5	51.5	28.3	4.7
	대도시	40.9	50.0	7.1	2.0	24.6	48.0	23.2	4.2	33.8	44.4	18.2	3.6
	중소도시	36.6	53.4	8.1	2.0	18.4	49.1	27.4	5.1	26.8	47.2	21.8	4.2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표2318-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0	농어촌	23.8	43.5	28.3	4.4	16.5	45.6	31.2	6.7	17.8	32.5	44.6	5.1
	대도시	34.0	42.5	19.4	4.1	27.5	47.7	20.7	4.0	30.0	36.8	29.6	3.6
	중소도시	32.5	43.9	20.0	3.7	24.6	49.7	21.7	4.0	27.2	37.6	31.8	3.4
2011	농어촌	25.2	55.0	17.7	2.1	15.8	59.3	19.5	5.4	21.6	55.2	18.4	4.7
	대도시	34.6	51.3	12.1	2.0	25.8	56.3	13.8	4.2	35.8	49.0	11.9	3.3
	중소도시	33.1	52.4	12.6	1.9	21.6	59.3	14.8	4.3	31.8	51.4	13.1	3.7
2012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2013	농어촌	27.1	54.5	15.9	2.5	17.5	66.4	11.5	4.6	25.5	56.8	14.7	3.0
	대도시	33.2	51.3	12.7	2.8	25.1	61.4	9.3	4.2	36.7	49.9	10.9	2.5
	중소도시	29.9	53.6	13.7	2.7	20.0	64.4	10.8	4.8	31.5	52.9	12.8	2.8
2014	농어촌	29.8	55.6	13.5	1.1	17.5	65.8	10.8	5.9	24.9	57.6	11.5	6.1
	대도시	35.9	51.2	11.4	1.5	25.7	60.0	9.3	4.9	36.9	49.2	8.3	5.6
	중소도시	32.5	53.7	12.6	1.2	19.2	64.3	10.8	5.7	30.6	53.2	10.0	6.2
2015	농어촌	25.3	53.6	18.6	2.5	23.6	54.8	15.9	5.7	28.9	52.2	14.2	4.7
	대도시	30.5	51.7	14.9	2.9	32.4	49.7	12.7	5.3	40.9	44.8	10.2	4.2
	중소도시	27.1	53.8	16.8	2.3	26.0	53.0	15.3	5.7	34.4	48.6	12.4	4.6
2016	농어촌	29.8	51.8	15.2	3.2	25.2	51.2	17.9	5.8	33.4	49.8	11.2	5.7
	대도시	35.3	49.8	11.4	3.5	34.7	45.8	14.8	4.7	46.5	41.2	7.6	4.7
	중소도시	31.8	52.0	13.3	2.9	28.1	48.4	17.9	5.6	39.2	46.0	9.5	5.4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거의 100%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6%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319 |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단위: %)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2014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7
2015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8
2016	농어촌	100.0	99.6
	도시	100.0	99.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0>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5%, 고등학교 1.6%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각 0.3%, 0.5%로 도시 0.6%, 0.7%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1.6%로 도시 1.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2320 | 학업중단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2014	농어촌	460,649	1,446	0.3	255,014	1,531	0.6	265,550	5,664	2.1
	도시	2,267,860	14,462	0.6	1,462,897	12,747	0.9	1,573,822	24,718	1.6
2015	농어촌	464,147	1,493	0.3	238,321	1,292	0.5	262,313	4,691	1.8
	도시	2,250,463	13,393	0.6	1,347,630	10,410	0.8	1,525,953	20,627	1.4
2016	농어촌	459,010	1,446	0.3	219,494	1,159	0.5	260,073	4,193	1.6
	도시	2,213,833	13,109	0.6	1,237,996	8,802	0.7	1,492,384	18,361	1.2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1 >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2.9%로 도시(69.7%)에 비해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4,850명이며, 이 중 72.9%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진학률이 감소하였으며, 도시(69.7%)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높았다.

표2321 | 대학(교)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대학	국내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850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347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시/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농어촌의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은 각 43.3%, 8.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특수교육자(장애인)의 진학률은 43.3%로 도시(4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특수교육자의 취업률은 8.2%로 도시(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단위: %)

연도	구분		진학률			취업률	
			남	여		남	여
2008	농어촌	55.9	58.3	51.9	12.1	12.6	11.3
	도시	46.5	46.9	45.7	20.5	20.0	21.6
2009	농어촌	57.0	54.3	62.2	13.3	12.8	14.3
	도시	49.6	48.3	52.0	20.2	20.9	18.7
2010	농어촌	58.3	57.3	60.4	9.9	11.3	7.2
	도시	45.4	45.0	46.3	17.8	18.8	15.7
2011	농어촌	33.3	33.6	32.8	8.7	9.9	6.1
	도시	29.2	27.5	32.3	15.9	16.0	15.9
2012	농어촌	28.8	29.1	28.5	10.2	9.1	12.0
	도시	29.6	28.6	31.7	17.0	16.5	18.0
2013	농어촌	43.3	45.0	40.0	8.2	8.1	8.3
	도시	43.6	44.6	41.6	14.6	15.1	13.5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대학(교)진학률을 의미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6만원

2016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6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57.9%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69.9%), 중소도시(68.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323- (1)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표2323 - (2)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고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2013	농어촌	14.7	16.5	16.5	10.3	12.3	57.5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71.4
	중소도시	23.8	24.1	27.1	20.3	23.5	70.2
2014	농어촌	15.6	16.7	17.8	11.7	14.0	59.2
	대도시	27.3	25.3	29.6	28.2	33.1	70.5
	중소도시	24.1	23.6	27.7	21.5	24.9	70.1
2015	농어촌	16.0	16.8	19.8	12.1	14.8	57.7
	대도시	27.5	25.1	29.9	28.9	34.0	71.0
	중소도시	24.0	23.0	27.5	22.3	25.6	70.0
2016	농어촌	16.6	17.8	17.0	14.4	17.2	57.9
	대도시	29.0	26.3	30.7	31.4	36.6	69.9
	중소도시	25.0	24.0	27.7	24.5	28.1	68.6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61.1%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61.1%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30.6%, '부담스럽지 않다'는 8.3%이었다. 농어촌에서 도시(65.9%)에 비해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부담스럽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2324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2014	농어촌	62.0	24.3	37.7	26.8	11.2	9.6	1.6
	도시	70.4	27.4	43.0	22.5	7.0	5.6	1.4
2016	농어촌	61.1	25.6	35.5	30.6	8.3	7.0	1.3
	도시	65.9	28.1	37.8	27.6	6.4	5.3	1.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2325. 도서관 현황

▶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로 도시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농어촌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도시 8.0명에 비해 적었다.

표2325 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구분	도서관 수	종사자	도서관 당 종사자 수
2007	농어촌	142	920	6.5
	도시	583	8217	14.1
2013	농어촌	177	1,006	5.7
	도시	1,287	10,275	8.0

자료: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주: 1) 도서관에 기록보존소 포함

2)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5%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5%로, 대도시(32.7%) 및 중소도시(38.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326- [1]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표2326 - (2)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2014	농어촌	37.3	1.9	36.2	28.0
	대도시	34.9	3.2	33.4	23.0
	중소도시	38.9	3.5	37.2	27.4
2015	농어촌	35.2	2.8	33.7	25.7
	대도시	41.9	4.4	40.0	27.3
	중소도시	41.1	2.8	40.2	29.1
2016	농어촌	37.5	2.9	36.1	21.6
	대도시	32.7	2.6	31.4	13.5
	중소도시	38.6	2.9	36.7	20.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령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의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2400> 문화여가 부문

- 2401> 주요 여가활동
-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1 >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시청'(주중 54.7%/ 주말 42.2%)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 활동'(16.3%),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9.2%), '취미·자기개발 활동'(7.5%)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TV 시청'(42.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 활동'(18.2%), '사회 및 기타 활동'(7.8%), '관광활동'(7.2%) 순으로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도/농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2401-(1)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회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401-(2)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45.2	3.8	0.7	1.0	5.4	4.2	5.2	5.7	19.2	8.3	1.3
	도시	42.0	5.4	0.9	1.2	7.7	4.9	6.8	6.7	16.2	6.8	1.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401 - (3) |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54.7	1.5	0.7	0.7	5.2	0.9	9.2	7.5	16.3	2.9	0.4
	도시	50.3	2.2	0.7	0.9	6.9	0.6	12.8	7.7	15.5	2.2	0.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401 - (4) | 주말(휴일 포함)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42.2	4.8	0.5	0.8	6.1	7.2	6.6	5.3	18.2	7.8	0.5
	도시	36.1	6.4	0.7	1.3	7.4	6.8	9.7	5.7	18.9	6.7	0.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횟수는 평균 7.2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평균 관람 횟수는 7.2회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표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회)

연도	구분	관람할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농어촌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도시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무지극',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8개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8개소로, '복지회관'(214개소) 등 지역 문화복지 시설(319개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03 - (1)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 표2403- (2)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1	농어촌	609	105	80	7	18	56	50	6
	도시	2,353	1,097	411	337	349	363	117	246
2012	농어촌	548	99	79	6	14	59	52	7
	도시	2,334	1,120	412	366	342	366	126	240
2013	농어촌	516	94	79	6	9	55	43	12
	도시	2,412	1,142	401	412	329	369	145	224
2014	농어촌	516	104	84	7	13	71	48	23
2015	농어촌	698	145	100	10	35	94	68	26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2011	농어촌	299	55	182	62	149	79	11	59
	도시	658	104	368	186	235	147	15	73
2012	농어촌	238	48	143	47	152	79	10	63
	도시	614	89	337	188	234	144	17	73
2013	농어촌	236	38	140	58	131	77	4	50
	도시	667	73	383	211	234	143	15	76
2014	농어촌	196	38	112	46	145	77	9	59
2015	농어촌	319	38	214	67	140	74	9	57

자료: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2014년 기준, 일부 도시 지역의 조사문화 개편으로 인해 동등 비교 불가, 2014년부터 농어촌 결과만 게시

3) 미술관: 강원 지역의 경우 박물관 포함 수치임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농어촌의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1.1%

2014년 기준, 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률도 각 0.6%, 0.5%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404 |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2	농어촌	1.2	98.8
	대도시	1.6	98.4
	중소도시	1.7	98.3
2014	농어촌	1.1	98.9
	대도시	0.6	99.4
	중소도시	0.5	99.5

자료: 각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층은 10.8%,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층은 4.7%

2016년 기준, 농어촌에서 '미술교육'(2.9%), '문학교육'(2.6%), '전통예술교육'(2.4%)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0.8%로 대도시(9.8%)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소도시(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미술'(1.4%), '전통예술'(1.1%)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4.7%로 대도시(4.1%)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소도시(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2405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화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2016	농어촌	10.8	2.6	2.9	2.0	2.4	0.6	0.5	0.7	1.7	1.8	-
	대도시	9.8	2.2	2.4	1.2	1.1	0.8	0.6	0.4	1.6	1.1	-
	중소도시	13.9	3.4	4.0	1.9	1.8	0.6	0.4	0.9	2.3	2.2	-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표2405-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2016	농어촌	4.7	0.9	1.4	0.9	1.1	0.3	0.2	0.2	0.6	0.4	0.3
	대도시	4.1	1.0	1.2	0.4	0.3	0.1	0.4	0.1	0.2	0.3	0.7
	중소도시	7.5	1.6	2.1	1.1	0.7	0.6	0.4	0.1	1.0	0.6	0.6

자료: 각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500>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부문

-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2504> 주택(규모, 시설)만족도
- 2505> 상수도 보급률
- 2506> 하수도 보급률
- 2507> 도로 포장률
-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2512> 환경오염 체감 정도

250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은 '15~30년 미만' 비율이 34.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을 보면 '15~30년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년 이상'(29.3%), '5~15년 미만'(23.6%), '5년 미만'(12.5%) 순이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이 도시(12.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5~30년 미만' 주택 비율은 도시(45.5%)가 농어촌 보다 높았다.

표2501 - (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2501 - (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19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2501 - (3) |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단위: %)

연도	구분	계	5년 미만	5~15년 미만	15~30년 미만	30년 이상
2015	농어촌	100.0	12.5	23.6	34.6	29.3
	도시	100.0	12.7	29.1	45.5	12.6

자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502 >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자가'(71.9%)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57.5%), '아파트'(33.3%) 순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57.5%)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3.3%), '다세대주택'(4.8%), '연립주택'(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67.4%), '단독주택'(14.9%), '다세대주택'(13.5%)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1.9%)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3.2%), '보증금 있는 월세'(22.4%), '전세'(17.5%) 순이었다.

표2502 - (1) 주거형태						(단위: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2015	농어촌	57.5	33.3	2.7	4.8	1.6
	도시	14.9	67.4	3.0	13.5	1.2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2502 - (2) 점유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2015	농어촌	71.9	7.0	11.2	2.3	1.3	6.3
	도시	53.2	17.5	22.4	2.6	0.7	3.5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율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7.4%, '기름보일러'(38.7%), '도시가스보일러'(32.2%) 비율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름보일러'(38.7%), '도시가스보일러'(32.2%)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보일러'(71.9%)가 가장 많았다.

표2503 - (1) 주거시설

(단위 :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2503 - (2) 난방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	0.0	0.0	0.2
2015	농어촌	0.4	2.2	97.4	32.2	38.7	6.7	12.0	2.9	3.5	0.3	0.5	0.6
	도시	3.3	15.1	81.6	71.9	5.9	1.7	1.5	0.3	0.1	0.0	0.0	0.1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 농어촌의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는 52.2%

2011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농어촌에서 52.2%로 '불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52.3%)을 나타냈다.

표2504 |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2006	농어촌	50.9	12.9	38.0	37.9	11.3	9.4	1.9
	도시	31.5	5.7	25.8	51.5	17.0	13.2	3.8
2011	농어촌	52.2	9.1	43.0	34.2	12.5	10.8	1.7
	도시	52.3	11.3	41.0	36.8	9.7	9.2	0.6

자료: 각 연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2505>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2.6%로 도시(99.6%)에 비해 낮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2.6%로 도시(99.6%)에 비해 낮았으나 2006년에 비해 보급률이 다소 증가(+23.1%p)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505 상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2.1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2013	농어촌	9,767,113	7,729,999	79.1
	도시	42,464,861	42,263,478	99.5
2014	농어촌	9,896,788	8,013,740	81.0
	도시	42,622,977	42,440,516	99.6
2015	농어촌	9,984,684	8,245,273	82.6
	도시	42,805,495	42,650,111	99.6

자료: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6>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3.4%로 특광역시(98.8%), 중소도시(90.4%)에 비해 낮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3.4%로 특광역시(98.8%), 중소도시(90.4%)에 비해 낮았다.

표2506 | 하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2013	농어촌	3,977,331	2,343,502	58.9
	특광역시	24,350,968	23,971,351	98.4
	중소도시	23,799,087	21,357,422	89.7
2014	농어촌	3,829,802	2,372,562	61.9
	특광역시	24,416,789	24,057,521	98.5
	중소도시	24,172,856	21,721,114	89.9
2015	농어촌	3,841,152	2,433,601	63.4
	특광역시	23,788,287	23,498,216	98.8
	중소도시	25,042,986	22,638,685	90.4

자료: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일

2) 보급률 = (급수인구 + 총인구) × 100

2507 >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85.3%

2016년 기준,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85.3%이었으며, '고속도로'(100.0%), '특·광역시'(100.0%), '구도'(99.6%), '일반국도'(98.4%)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도'(85.1%), '시도'(79.3%), '군도'(69.3%) 순이었다.

표2507 - (1) | 도로 포장률

(단위: m, %)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2012	총계	105,703	88,183	83.4	8,765	8,755
	고속도로	4,044	4,044	100.0	-	-
	일반국도	13,766	13,432	97.6	57	277
	특·광역시	19,464	19,298	99.1	117	49
	지방도	18,162	15,230	83.9	1,591	1,341
	시도	27,670	21,094	76.2	1,406	5,170
	군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2013	총계	106,414	87,799	82.5	8,620	9,995
	고속도로	4,112	4,112	100.0	-	-
	일반국도	13,843	13,527	97.7	57	259
	특·광역시	4,879	4,821	98.8	20	38
	지방도	18,083	15,243	84.3	1,529	1,311
	시도	28,047	20,352	72.6	1,184	6,511
	군도	22,374	14,741	65.9	5,757	1,876
	구도	15,076	15,003	99.5	73	-

자료: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표2507 - (2) | 도로 포장률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14	총계	105,673	89,701	84.9	8,218	7,754
	고속도로	4,139	4,139	100.0	-	-
	일반국도	13,950	13,651	97.9	57	242
	특·광·시도	4,758	4,758	100.0	-	-
	지방도	18,058	15,251	84.5	1,504	1,303
	시도	27,170	21,650	79.7	1,066	4,454
	군도	22,202	14,921	67.2	5,526	1,755
	구도	15,396	15,331	99.6	65	-
2015	총계	107,527	91,195	84.8	7,830	8,502
	고속도로	4,193	4,193	100.0	-	-
	일반국도	13,948	13,670	98.0	57	221
	특·광·시도	4,727	4,727	100.0	-	-
	지방도	18,087	15,305	84.6	1,473	1,309
	시도	28,348	22,337	78.8	913	5,098
	군도	22,637	15,438	68.2	5,326	1,873
	구도	15,587	15,525	99.6	61	1
2016	총계	108,779,551	92,826,049	85.3	7,601,959	8,351,543
	고속도로	4,437,570	4,437,570	100.0	-	-
	일반국도	13,976,605	13,757,953	98.4	55,543	163,109
	특·광·시도	4,761,176	4,761,176	100.0	-	-
	지방도	18,121,363	15,412,886	85.1	1,432,048	1,276,429
	시도	28,867,451	22,888,097	79.3	874,900	5,104,454
	군도	22,795,717	15,807,383	69.3	5,182,144	1,806,190
	구도	15,819,669	15,760,984	99.6	57,324	1,361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2.8%

2016년 기준,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42.8%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45.4%)와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표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2014	농어촌	39.0	7.4	31.6	45.7	15.3	12.7	2.6
	도시	39.1	6.7	32.4	48.4	12.6	10.6	2.0
2016	농어촌	42.8	9.1	33.7	35.6	21.5	16.8	4.7
	도시	45.4	9.3	36.1	37.4	17.2	14.2	3.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6.1%로 도시(77.6%)에 비해 낮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6.1%이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8.3%이었다. 도시(보유율 77.6%, 접속가능률 99.4%)에 비해 보유율 및 접속 가능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가능	인터넷 접속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2014	농어촌	68.1	100.0	97.0	3.0	31.9
	도시	80.8	100.0	98.9	1.1	19.2
2015	농어촌	68.0	100.0	97.2	2.8	32.0
	도시	79.4	100.0	99.2	0.8	20.6
2016	농어촌	66.1	100.0	98.3	1.7	33.9
	도시	77.6	100.0	99.4	0.6	22.4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커뮤니케이션'(87.4%) 비율이 가장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커뮤니케이션'이 8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각 84.2%)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10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2014	농어촌	88.0	78.7	84.8	50.7	-	16.9	31.8	-	16.9	9.1	9.1	-
	도시	91.7	79.9	90.8	60.2	-	13.4	30.9	-	13.4	10.3	8.5	-

연도	구분	커뮤니 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홈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직업· 직장	기타
2015	농어촌	86.8	85.9	82.8	41.1	32.8	13.1	46.6
	도시	92.4	90.1	86.8	44.6	34.4	14.6	56.5
2016	농어촌	87.4	84.2	84.2	46.7	37.8	12.5	56.5
	도시	92.4	90.1	90.1	47.3	44.8	18.6	60.5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2014년 '거래활동' 인터넷구매 및 판매,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분

251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27.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66.1%), '신종 전염병'(61.5%), '교통사고'(50.9%)에서 크게 나타남

2016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27.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66.1%), '신종 전염병'(61.5%), '교통사고'(50.9%)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더 높았다.

| 표2511 - (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2014	농어촌	13.7	36.4	49.9	7.5	36.3	56.1
	도시	11.7	36.8	51.6	7.3	36.6	56.2
2016	농어촌	19.8	46.0	34.1	9.9	39.2	50.9
	도시	20.9	45.4	33.7	10.4	39.4	50.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1 - (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2014	농어촌	15.8	33.3	51.0	9.6	27.7	62.6
	도시	14.8	33.4	51.8	8.7	26.3	65.0
2016	농어촌	19.0	34.3	46.8	8.9	25.0	66.1
	도시	20.0	34.9	45.1	9.3	23.4	67.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1 - (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2014	농어촌	27.8	46.6	25.6	9.0	35.5	55.4
	도시	24.5	47.1	28.4	9.4	35.5	55.0
2016	농어촌	27.7	47.3	25.0	9.2	29.3	61.5
	도시	29.6	46.1	24.2	9.4	28.5	62.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2014	농어촌	8.4	34.3	57.2	15.4	38.7	45.9
	도시	7.2	28.8	64.0	15.0	41.1	43.9
2016	농어촌	11.6	38.4	49.9	18.5	41.4	40.2
	도시	12.0	35.6	52.4	21.3	43.8	35.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2014	농어촌	15.5	50.0	34.4	10.6	41.8	47.6
	도시	13.9	51.6	34.5	9.3	39.1	51.6
2016	농어촌	17.6	50.1	32.3	12.5	41.9	45.6
	도시	19.4	52.1	28.4	13.3	41.1	45.5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1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농어촌의 환경오염 체감정도는 좋아졌다고 느끼는 인식이 높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오염'(54.0%)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도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표2512 - (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2014	농어촌	11.2	1.5	9.7	74.7	14.2	12.1	2.1
	도시	13.0	3.6	9.4	76.9	10.1	9.3	0.8
2016	농어촌	54.0	21.8	32.2	29.9	16.2	12.9	3.3
	도시	27.0	5.9	21.1	42.6	30.5	23.2	7.3

자료 : 각 시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2014	농어촌	12.9	3.4	9.5	76.8	10.3	9.6	0.7
	도시	10.9	1.5	9.4	80.9	8.2	7.1	1.1
2016	농어촌	51.5	18.5	33.0	36.9	11.6	9.8	1.8
	도시	29.3	5.7	23.6	54.3	16.4	13.9	2.5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2014	농어촌	11.4	3.2	8.2	75.7	13.0	12.0	1.0
	도시	10.3	1.4	8.9	78.3	11.3	9.8	1.5
2016	농어촌	45.4	15.3	30.1	39.9	14.7	12.5	2.2
	도시	26.1	5.0	21.1	52.8	21.2	17.7	3.5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2014	농어촌	10.1	2.8	7.3	72.6	17.3	14.6	2.7
	도시	8.4	1.2	7.2	71.2	20.4	16.8	3.6
2016	농어촌	45.3	17.5	27.8	34.3	20.4	15.8	4.6
	도시	23.8	4.9	18.9	40.8	35.4	27.2	8.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표2512-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2014	농어촌	55.2	22.7	32.5	34.7	10.1	7.9	2.2
	도시	38.3	9.8	28.5	43.2	18.5	14.4	4.1
2016	농어촌	48.6	18.9	29.7	36.8	14.6	11.2	3.4
	도시	39.8	10.4	29.4	42.0	18.2	14.3	3.9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0 1 7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2600> 지역역량 부문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이었으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단체'(18.1%),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11.9%), '지역사회모임'(7.1%) 순이었다.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2015	농어촌	47.9	55.7	18.1	11.9	5.0	1.3	0.7	0.2	7.1	0.1	52.1
	도시	49.1	55.7	18.4	16.1	4.7	2.1	1.0	0.2	1.7	0.0	50.9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6.0%

2015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6.0%로 2005년,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2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단위: 마을, 행정리, %)

구분		총 마을 수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	비율
2005	농어촌	36,041	1,953	5.4
2010	농어촌	36,498	2,613	7.2
2015	농어촌	36,792	2,209	6.0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2700> 경제활동 부문

-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 2702> 부채 규모
- 2703> 소득 만족도
-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2705> 노후준비
- 2706> 농업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
-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197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1,049천원

2016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197천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47,077천원으로 2015년 대비 어가 소득이 증가한 반면, 농가 소득은 감소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58,613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다소 많았다.

농가의 호당 연평균 가계지출은 31,049천원이었으며, 어가는 30,086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약간 적은 반면, 도시근로자는 44,267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았다.

| 표2701 - (1)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표2701 - (2)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2014	농가	34,950	30,555
	어가	41,015	28,237
	도시근로자	56,815	43,822
2015	농가	37,215	30,613
	어가	43,895	29,573
	도시근로자	57,800	43,951
2016	농가	37,197	31,049
	어가	47,077	30,086
	도시근로자	58,613	44,267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702.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6,730천원, 어가는 42,870천원

2016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6,730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1,924천원, 가계용 부채는 7,756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42,870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이 중 어업용 부채는 21,485천원, 가계용 부채는 10,66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2702 | 부채 규모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2014	농가	-	27,878	-	11,778	-	7,539
	어가	-	41,404	-	21,413	-	10,092
2015	농가	-	27,215	-	11,917	-	7,754
	어가	-	41,645	-	21,143	-	10,386
2016	농가	-	26,730	-	11,924	-	7,756
	어가	-	42,870	-	21,485	-	10,664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2703.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0.6%

2015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4.5%로 '만족'(10.6%)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1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2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2015	농어촌	81.1	10.6	1.3	9.3	45.4	44.5	33.8	10.7	18.9
	도시	77.9	11.5	1.6	9.9	41.6	46.8	33.8	13.0	22.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2.5%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6.4%)이 '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만족' 비율(14.1%)이 낮게 나타났다.

표2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2015	농어촌	12.5	1.6	10.9	51.1	36.4	28.6	7.8
	도시	14.1	2.0	12.1	47.4	38.4	28.6	9.8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5>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이었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1.0%)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5.1%로 '준비능력이 없음'(51.3%), '앞으로 준비할 계획'(23.8%)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2705 - (1) | 노후준비하고(되) 있음

(단위: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2015	농어촌	64.9	49.6	8.3	9.3	4.4	21.0	6.6	0.7
	도시	74.3	56.1	8.6	8.9	3.8	17.1	4.9	0.6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표2705 - (2) |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단위: %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자녀에게 의탁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2015	농어촌	35.1	7.1	23.8	51.3	17.9
	도시	25.7	10.9	26.2	49.5	13.4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에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8.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7.0%), '5~10년'(6.2%), '15~20년'(4.5%), '5년 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8.1%), '15~20년'(6.8%), '5~10년'(5.6%), '5년 미만'(3.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2015	농가	4.9	8.0	9.0	5.2	72.9
	농어촌	3.9	6.2	7.0	4.5	78.5
	도시	8.7	14.6	16.5	7.7	52.5
	어가	3.7	5.8	8.4	6.9	75.2
	농어촌	3.4	5.6	8.1	6.8	76.1
	도시	5.0	6.8	9.4	7.5	71.3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도시(64.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자동차 보유율			자동차 미보유율
			1대	2대	3대 이상	
2005	농어촌	55.9	75.7	20.7	3.6	44.1
	도시	62.9	81.4	16.8	1.8	37.2
2010	농어촌	61.2	69.9	25.8	4.3	38.8
	도시	64.1	77.0	20.9	2.2	35.9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록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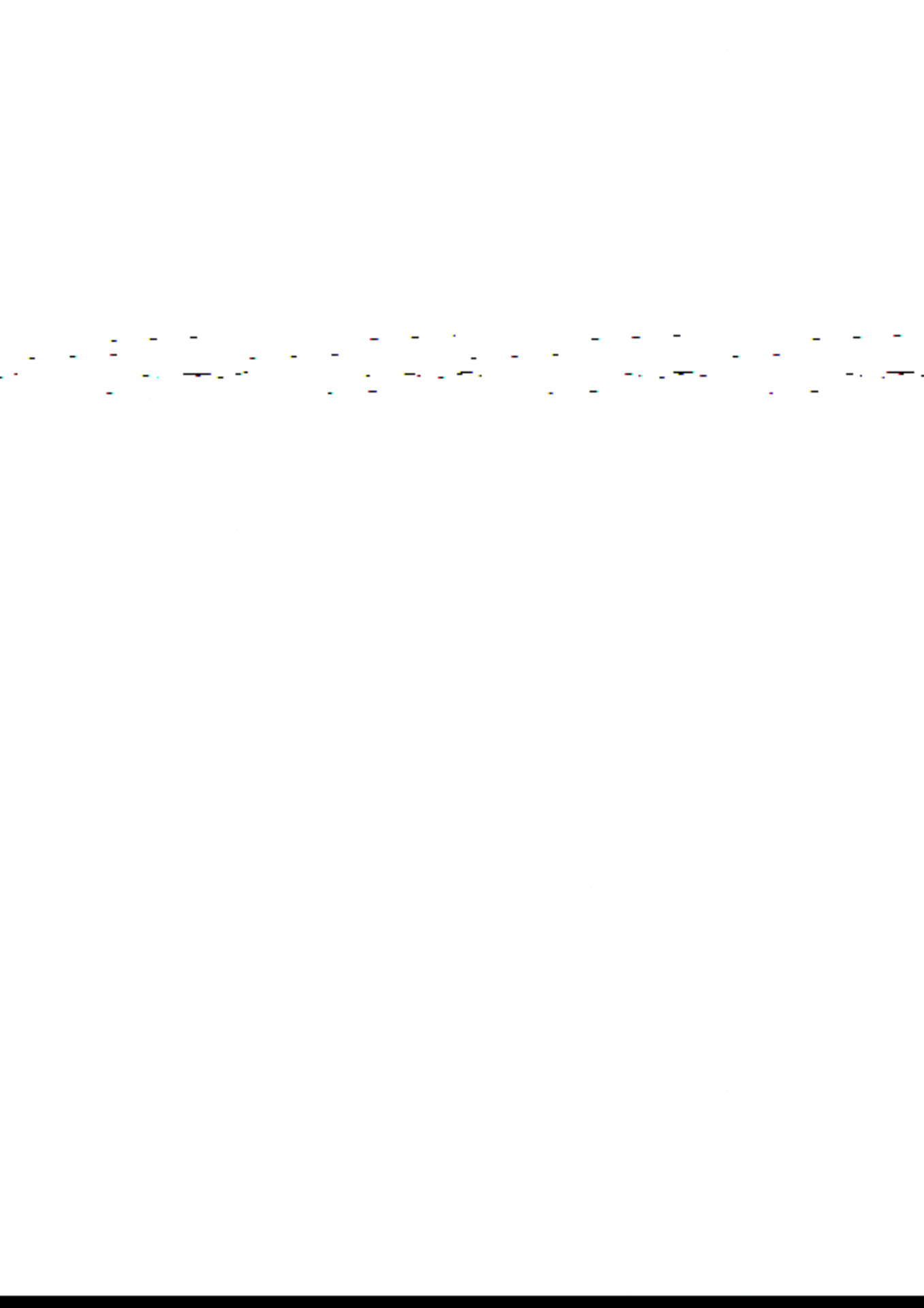
전국표본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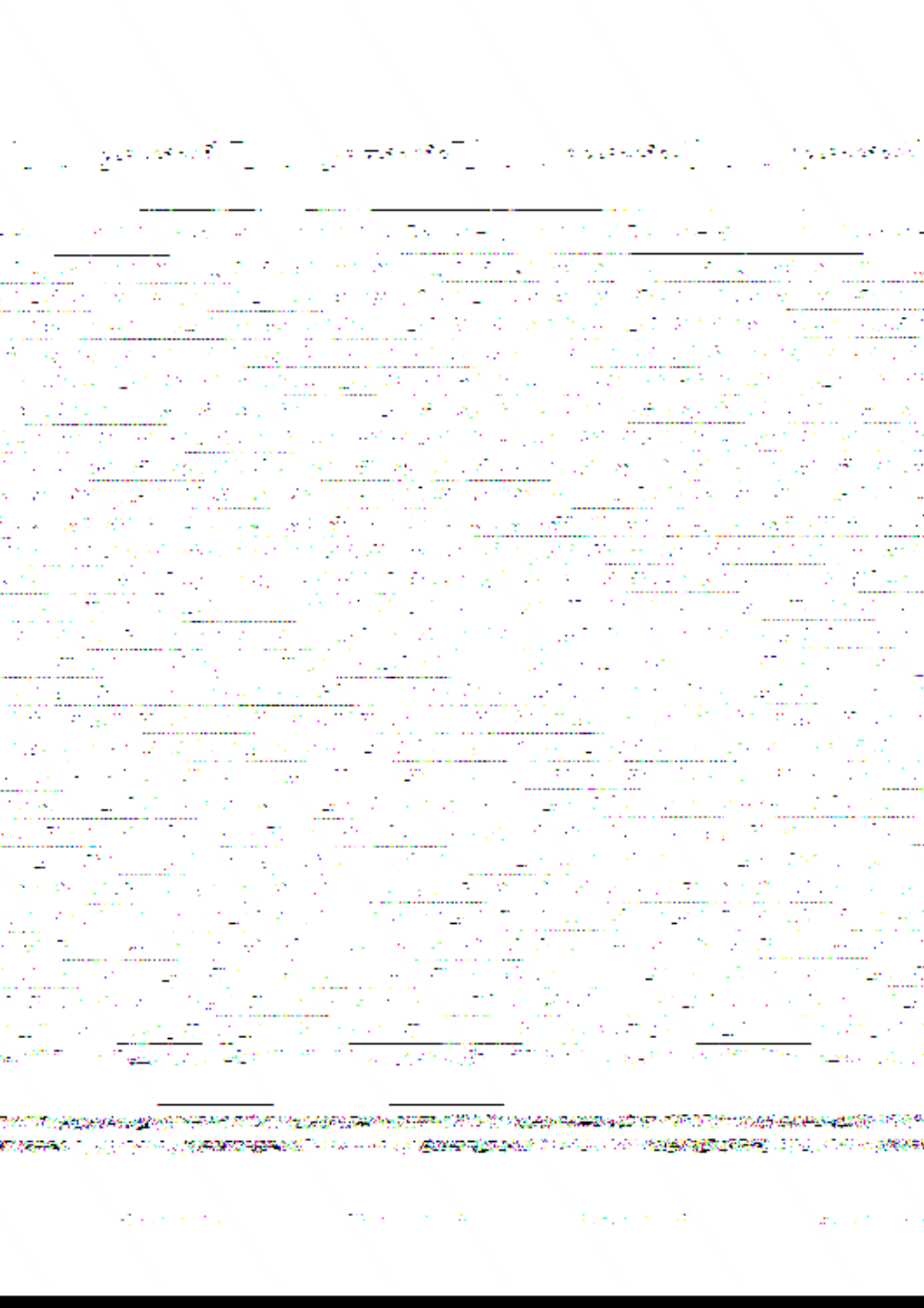
항목별 타자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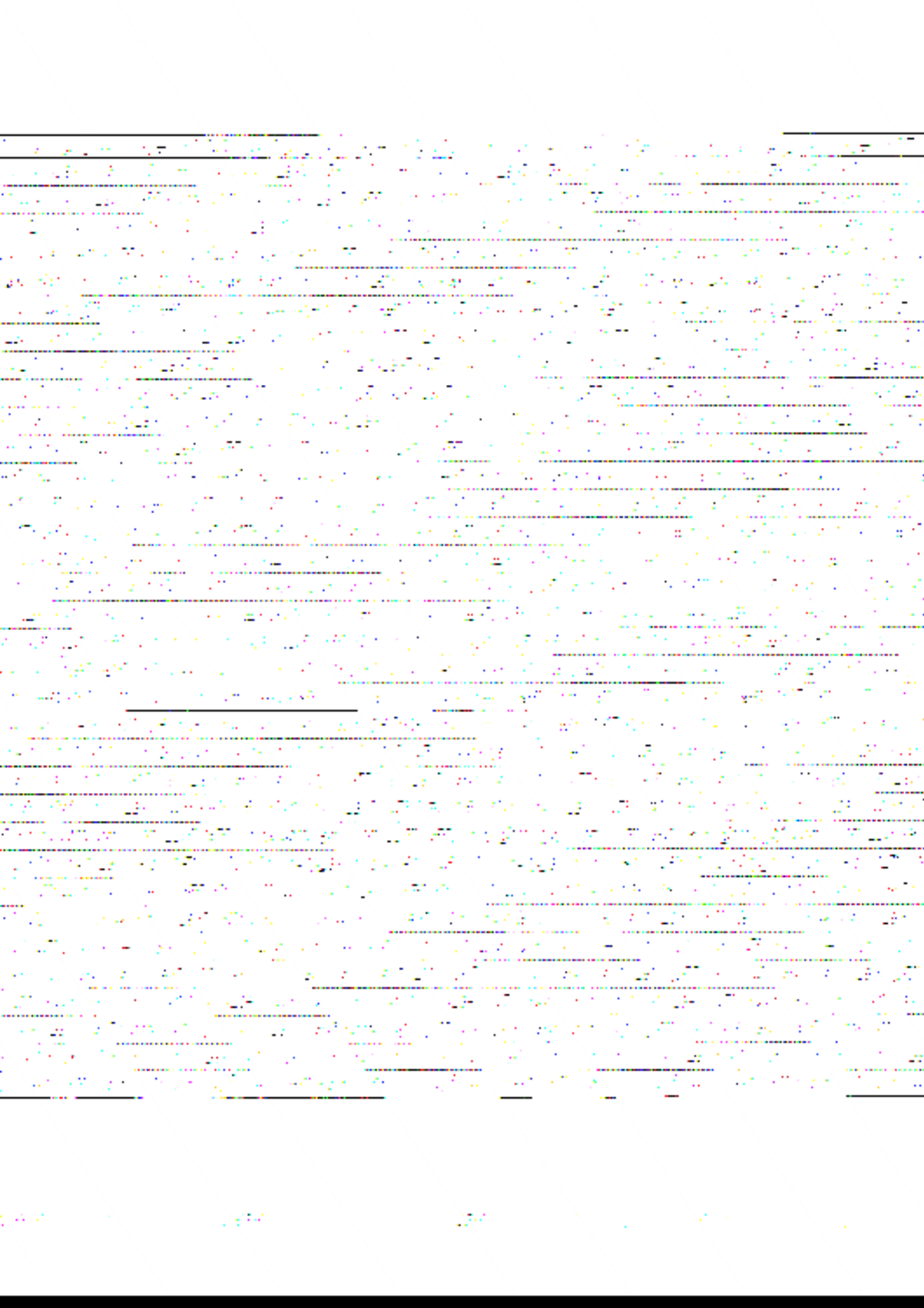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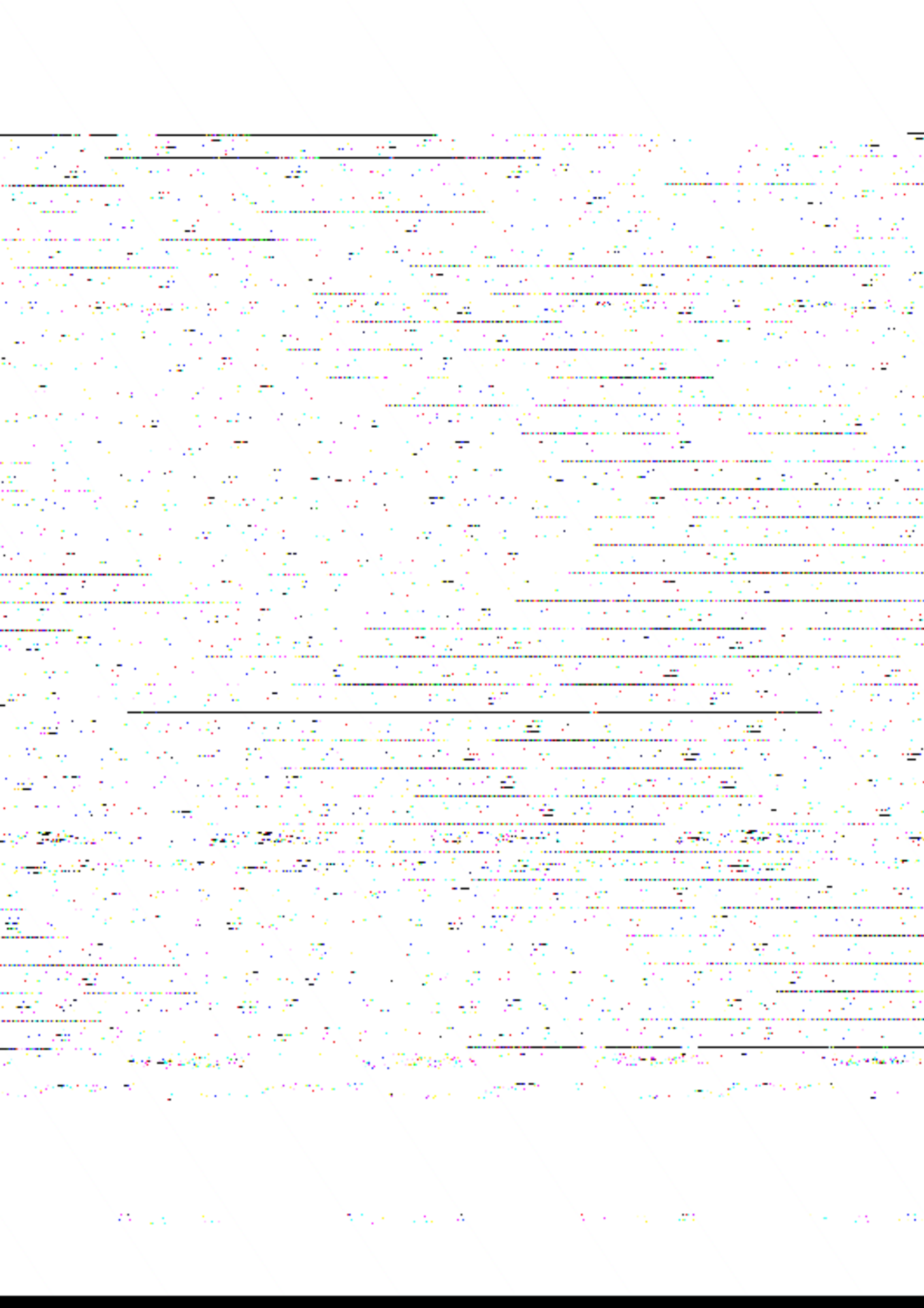
주요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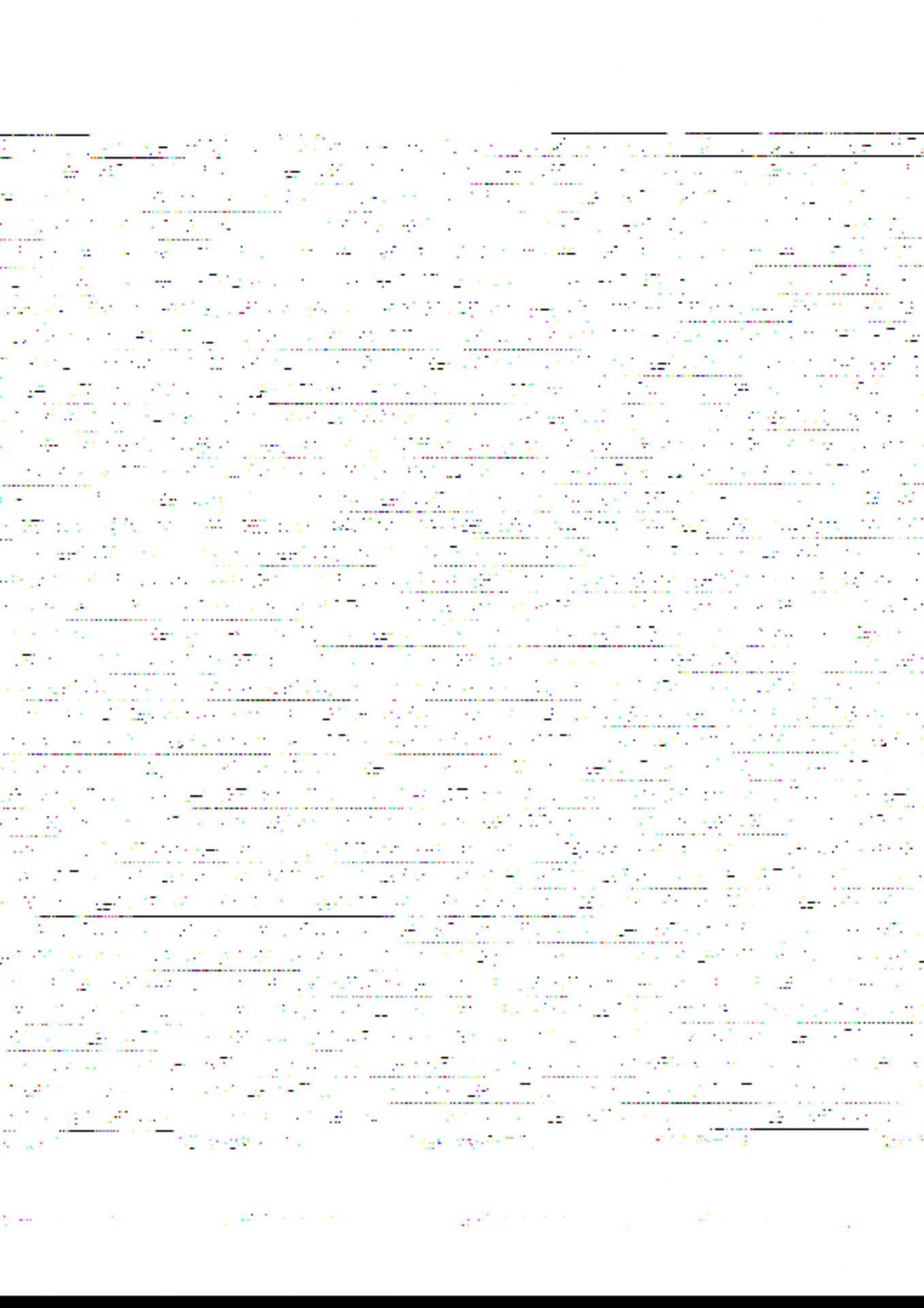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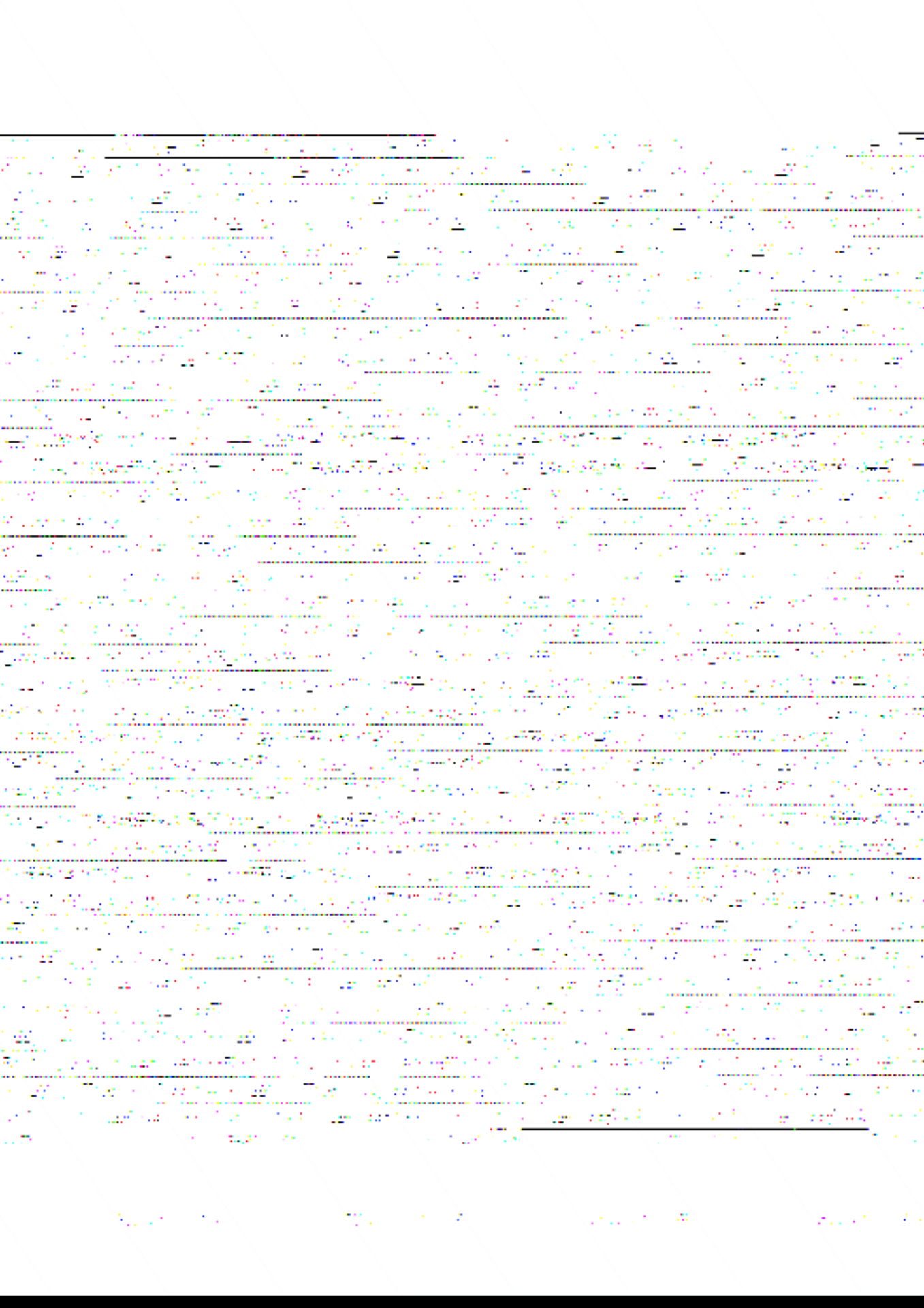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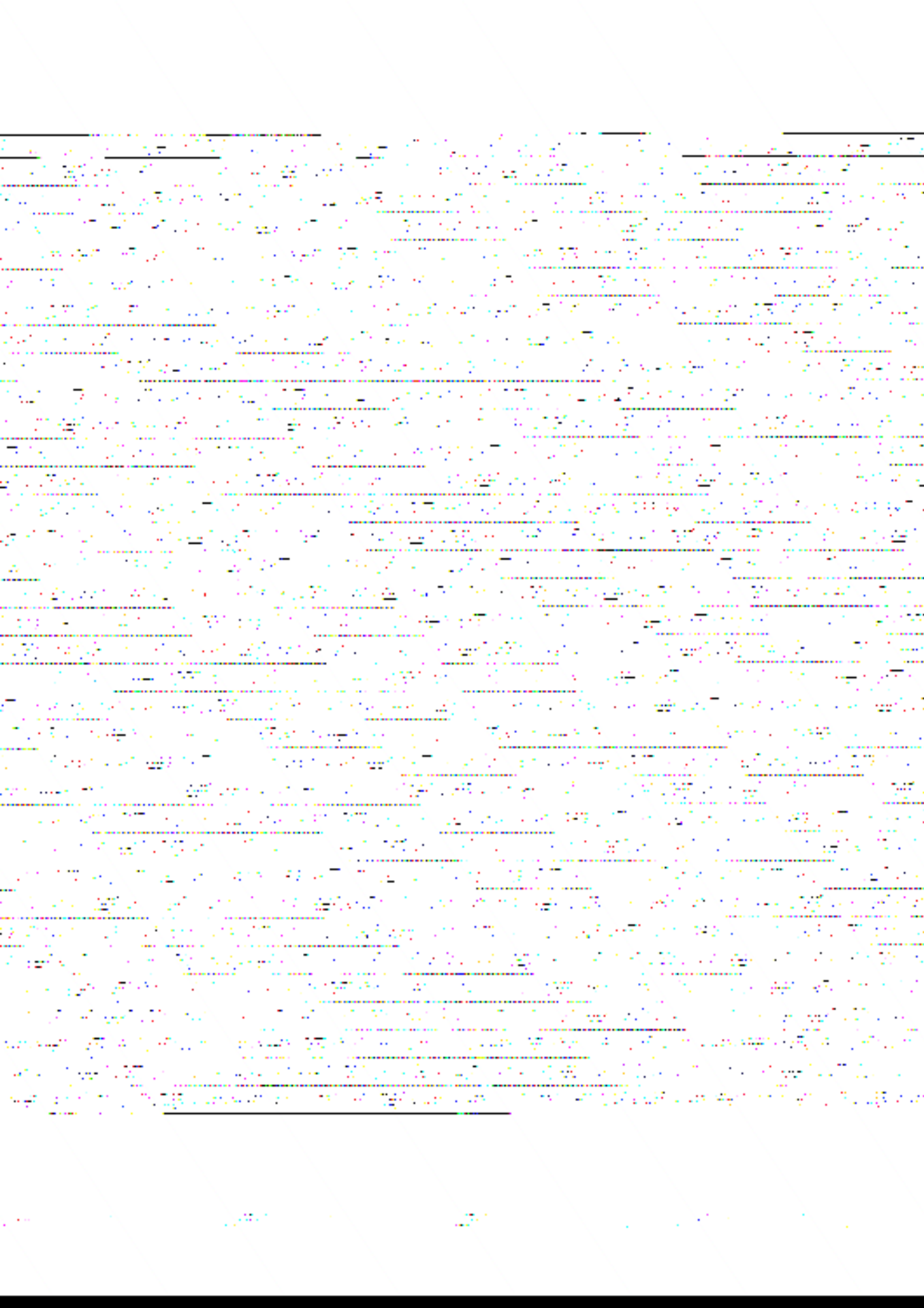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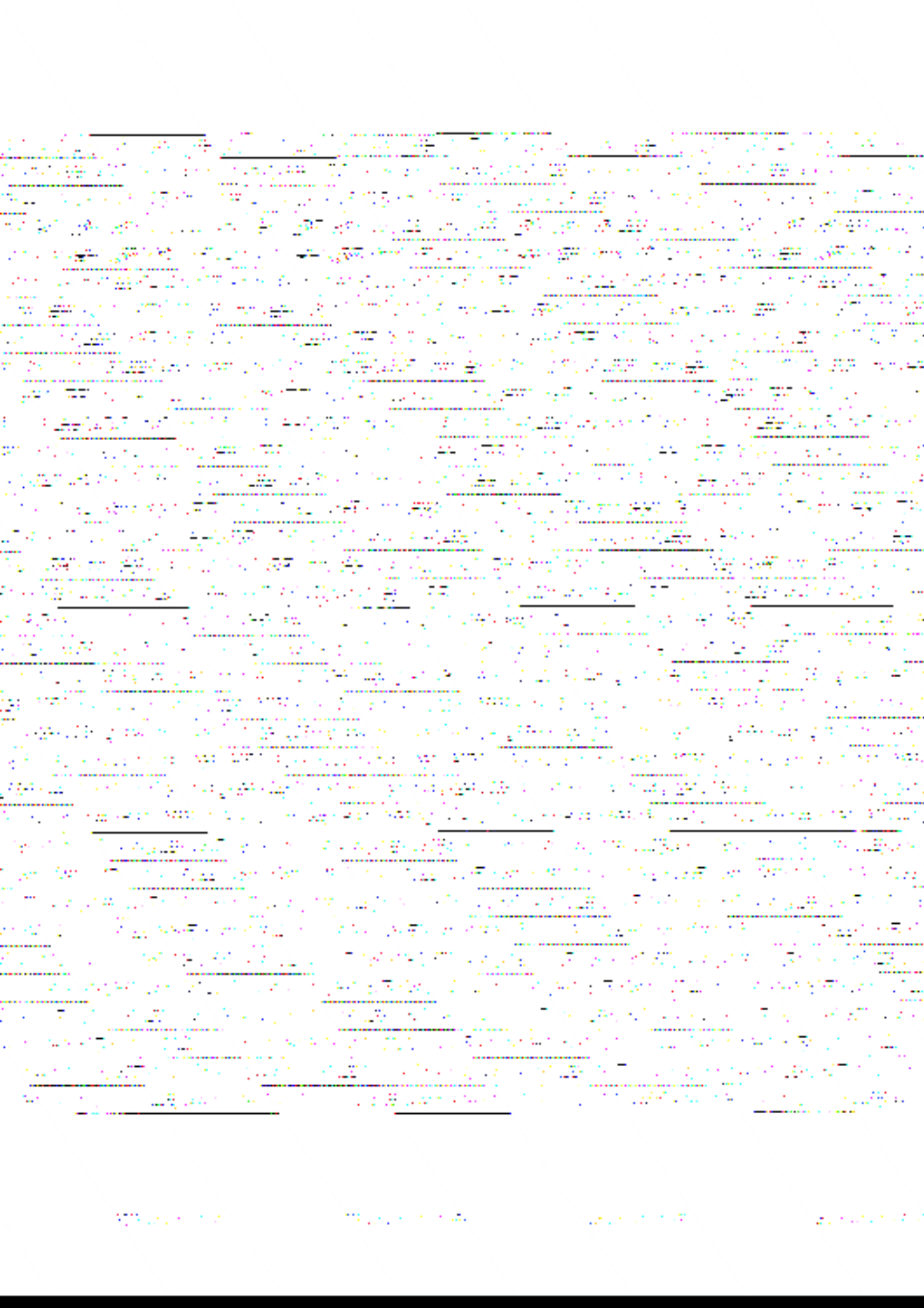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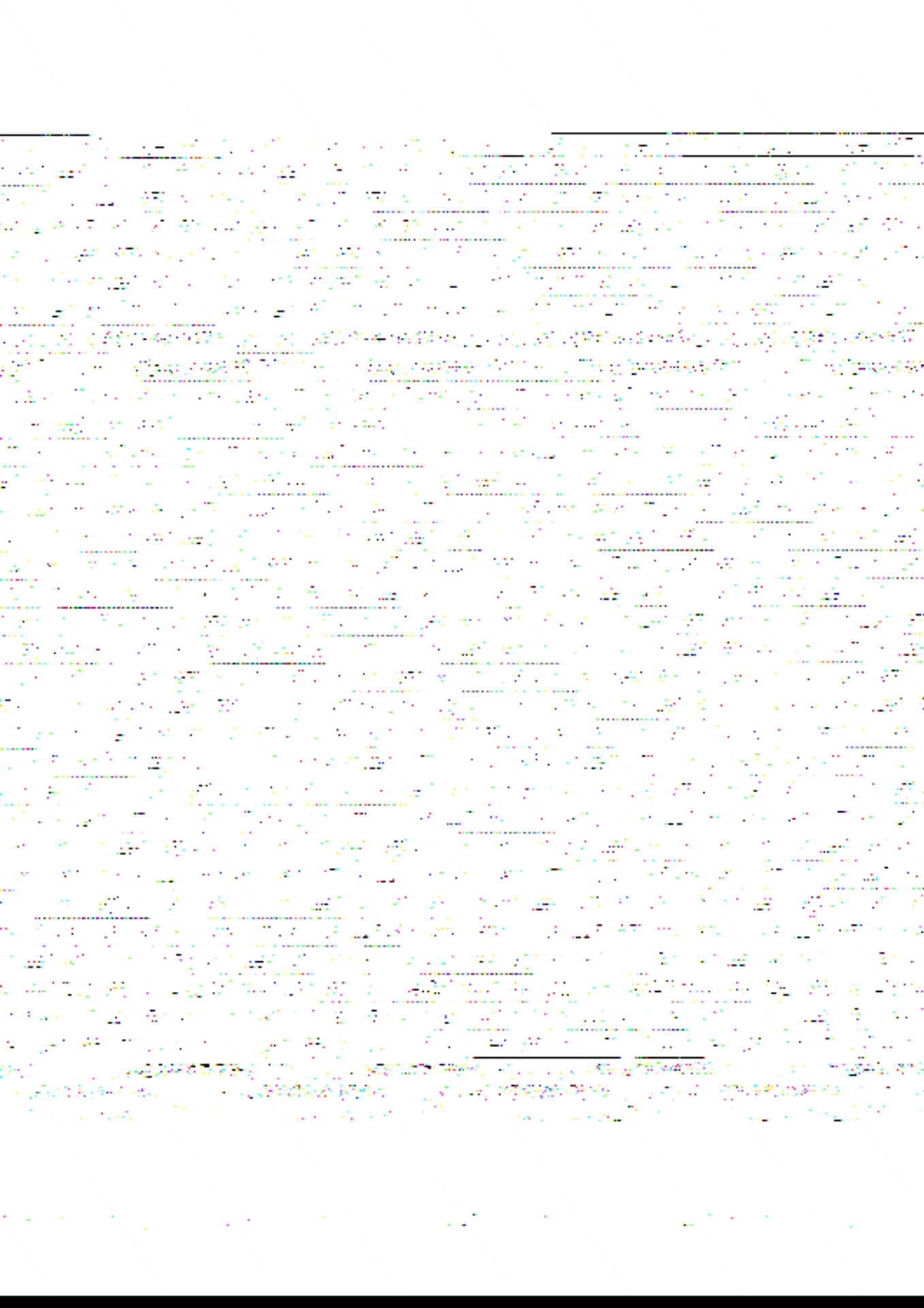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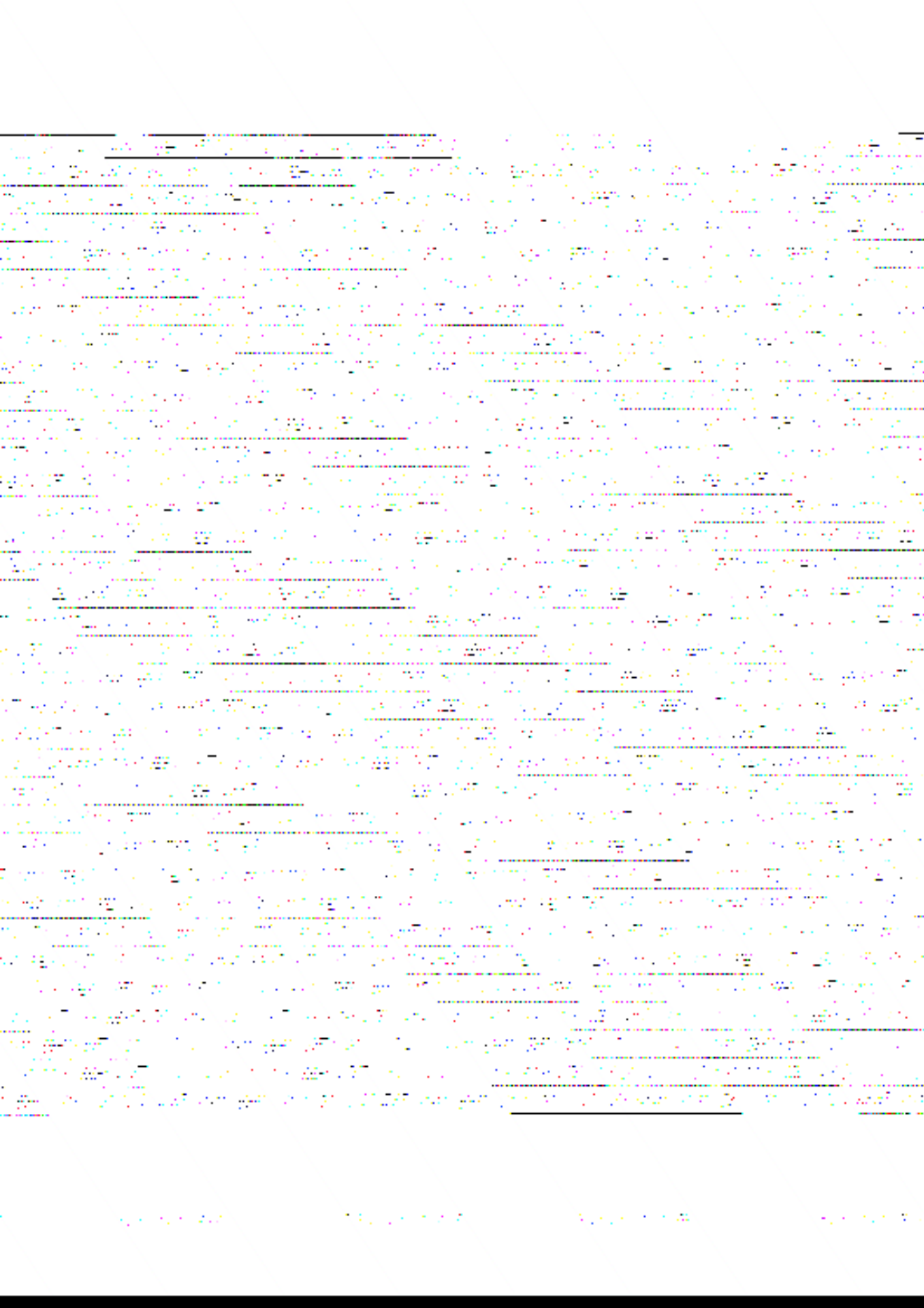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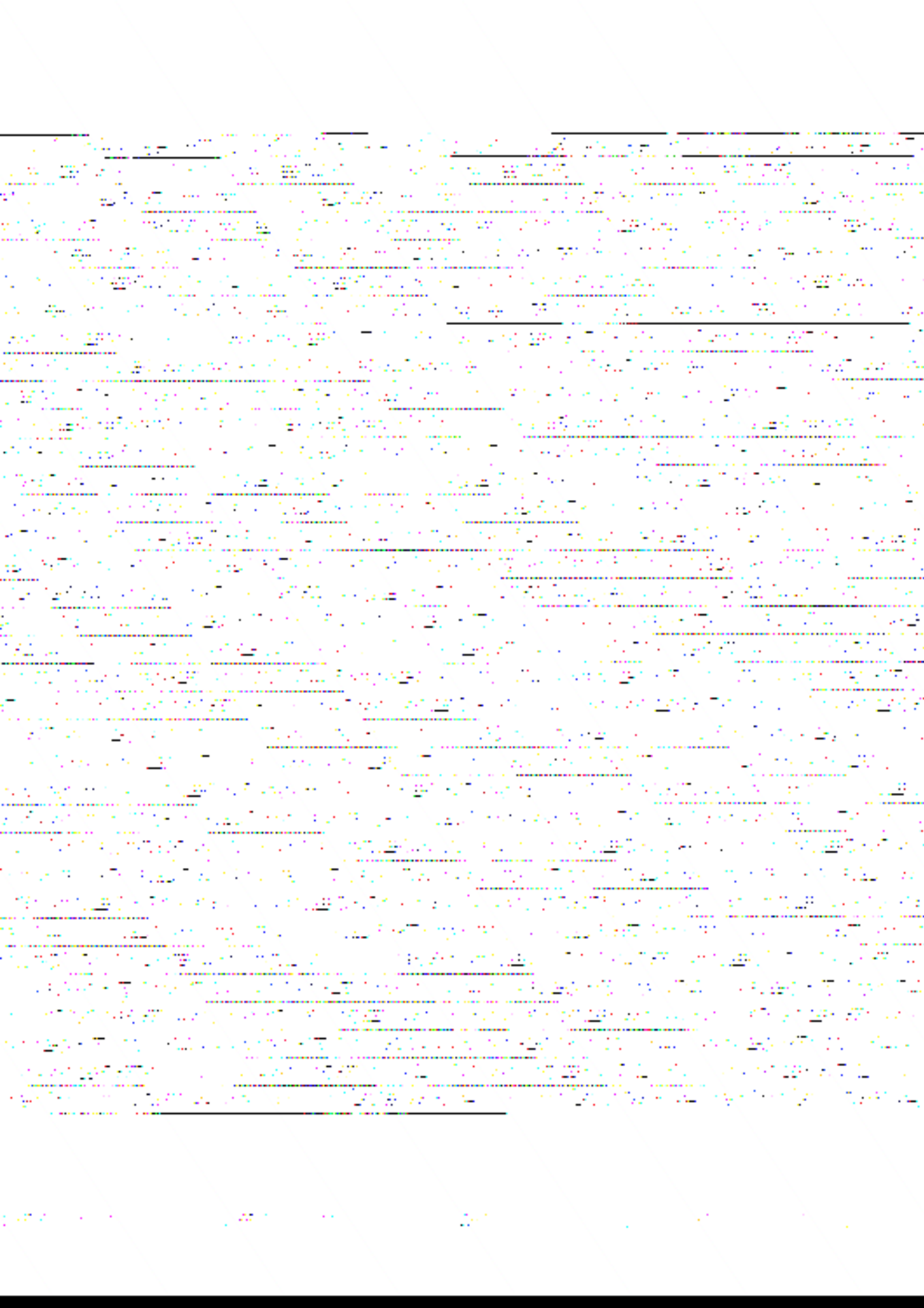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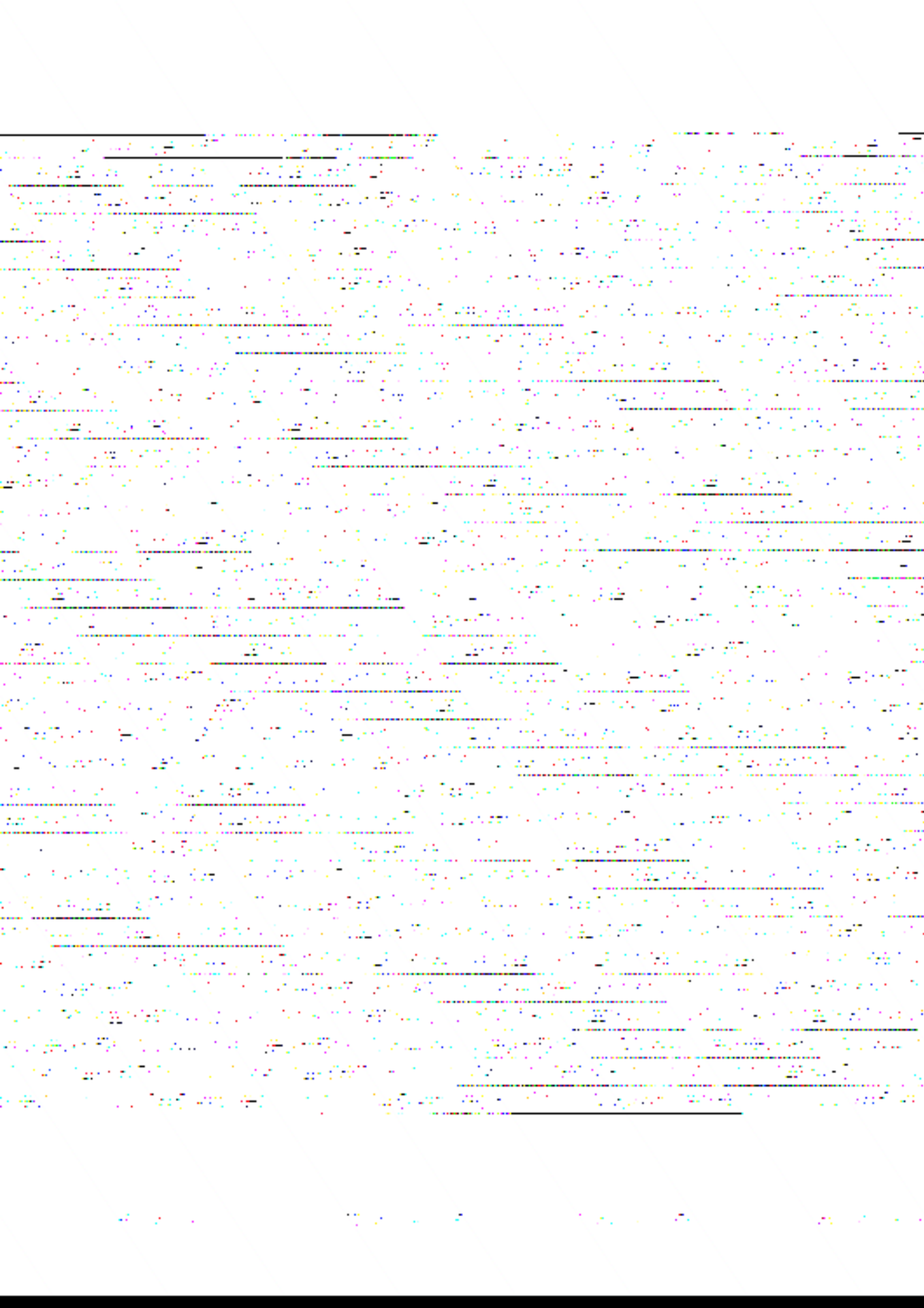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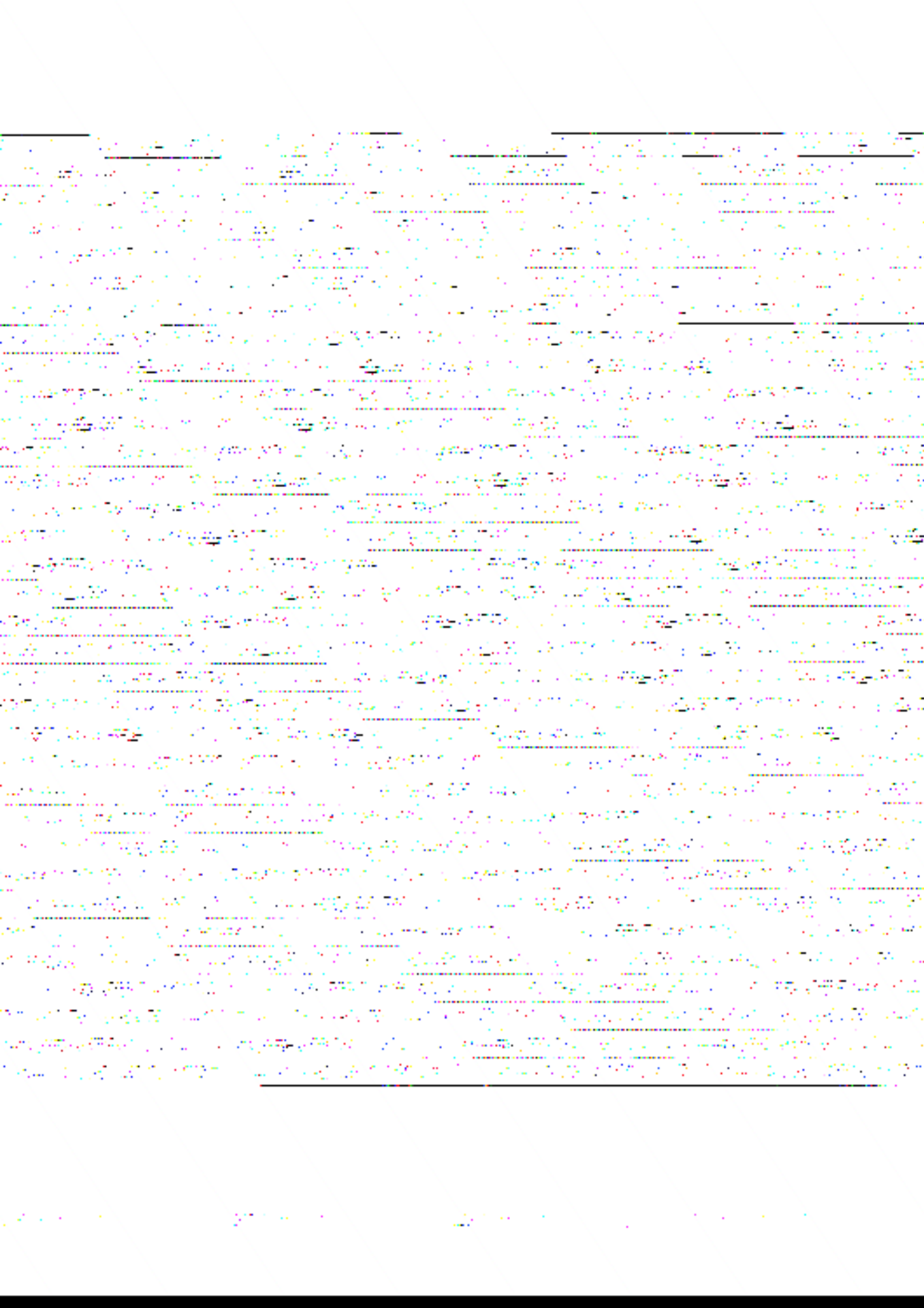












0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가구원 및 생활 전반 부문]

문항	2016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자축 여부(%)				
· 자축층	47.1	48.5	+1.4	
> 이주실태(%)				
· 선주민	47.3	41.3	-6.0	
· 이주민	52.7	58.7	+6.0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농어촌 → 농어촌	69.4	74.2	+4.8	
· 도시 → 농어촌	30.6	25.8	-4.8	
> 이주 의사(%)				
· 이주 의향층	9.5	7.8	-1.7	
> 이주 희망 지역(%)				
· 농어촌 → 농어촌	65.5	77.1	+11.6	
· 농어촌 → 도시	33.2	22.0	-11.2	
·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1.4	0.9	-0.5	
> 이주 희망 이유(%)				
· 직업관련사유	16.2	29.9	+13.7	
· 주택관련사유	38.4	29.3	-9.1	
· 가족관련 사유	1.9	2.6	+0.7	
·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2.9	3.1	+0.2	
· 건강상의 이유	1.9	2.4	+0.5	
· 자녀교육	27.5	14.1	-13.4	
·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10.1	18.4	+8.3	
· 기타	1.0	0.2	-0.8	

문항		2016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농어촌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점)					
기초생활 기반	· 중요도	-	78.6	-	※'16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정주생활기반(6.01점) · 경제활동·일자리(4.83점) · 교육(5.37점) · 보건복지(5.94점) · 문화·여가(4.63점) · 환경·경관(5.82점) · 안전(6.57점)
	· 만족도	47.5	51.3	+3.8	
경제활동 여건	· 중요도	-	80.2	-	
	· 만족도	46.5	46.8	+0.3	
교육 여건	· 중요도	-	73.6	-	
	· 만족도	44.4	43.6	-0.8	
보건의료	· 중요도	-	82.6	-	
	· 만족도	46.9	45.8	-0.9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 중요도	-	77.8	-	
	· 만족도	47.9	49.9	+2.0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 중요도	-	69.5	-	
	· 만족도	41.7	42.2	+0.5	
환경·경관	· 중요도	-	75.7	-	
	· 만족도	62.7	63.6	+0.9	
안전	· 중요도	-	81.5	-	
	· 만족도	66.5	65.5	-1.0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인지도(%)	31.7	25.9	-5.2	
	· 경험률*(%)	35.9	27.1	-8.8	
	· 만족도(점)	67.5	62.2	-5.3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인지도(%)	28.1	26.7	-1.4	
	· 경험률*(%)	31.7	24.3	-7.6	
	· 만족도(점)	67.9	64.6	-3.3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채해 보장제도	· 인지도(%)	26.5	24.5	-2.0	
	· 경험률*(%)	20.6	19.5	-0.9	
	· 만족도(점)	63.5	55.7	-7.8	
기초연금	· 인지도(%)	70.2	89.4	+18.8	
	· 경험률*(%)	29.8	38.0	+8.2	
	· 만족도(점)	72.8	61.4	-11.4	

* 인지도 중 경험률 비율임

문항	2016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점)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63.4	61.6	-1.8	#'16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 나는 지금 행복하다(63.8점)
> 행복의 영향 요인(%)				
· 가족	41.5	34.3	-7.2	
· 건강	33.2	38.0	+4.8	
· 경제적 안정	15.7	21.8	+6.1	
· 일/직업	3.5	3.3	-0.2	
· 문화 및 여가활동	1.2	0.9	-0.3	
· 지역생활 환경	1.2	0.5	-0.7	
· 대인관계	3.3	0.6	-2.7	
· 기타	0.4	0.5	+0.1	

[기초생활 여건 부문]

문항		2016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주택의 건축신축 년도(년)					
· 주택 노후 정도		24.8	26.0	+1.2	
> 주택 종류(%)					
단독주택		54.8	59.0	+5.2	※'16주거실태조사(전국) · 단독주택(35.3%) · 아파트(48.1%) · 연립/다세대주택(11.1%) · 기타(5.4%)
아파트		32.5	29.1	-3.4	
연립/다세대 주택		8.1	8.5	+0.4	
기타		4.6	3.5	-1.1	
> 주택 점유형태(%)					
자가		78.2	80.3	+2.1	※'16주거실태조사(전국) · 자가(56.8%) · 전세(15.5%) · 월세(23.7%) · 무상(4.0%)
전세		10.9	8.9	+2.0	
월세		6.8	7.6	+0.8	
무상		4.1	3.1	+1.0	
문항		2013 ¹²⁾ (농어촌)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주택의 면적 및 방 개수					
· 면적(㎡)		84.9	82.5	-2.4	
· 방 개수(개)		2.7	2.7	0.0	
> 주택 설비현황 - 부엌(%)					
사용형태	· 단독사용	99.9	99.8	-0.1	※'16주거실태조사(전국) · 단독사용(99.3%) · 입식(99.4%)
종류	· 입식	98.5	99.7	+1.2	
> 주택 설비현황 - 화장실(%)					
사용형태	· 단독사용	99.6	99.8	+0.2	※'16주거실태조사(전국) · 단독사용(99.0%) · 수세식(98.9%)
종류	· 수세식	93.9	98.3	+4.4	

12)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64) 기준 수치임

문항		2013 (농어촌)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주택 설비현황 - 목욕시설(%)					
사용형태	· 단독사용	98.7	99.4	+0.7	*'16주거실태조사(전국) · 단독사용(98.3%)
종류	· 온수	98.7	99.3	+0.6	· 온수(98.6%)
> 주택 설비현황 - 난방시설					
난방시설 유무	· 있음(%)	99.8	99.7	-0.1	*'16주거실태조사(전국) · 있음(99.9%)
>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난방비 지출 기간(개월)		4.5	4.8	+0.3	
· 월 평균 난방비(만원)		19.7	16.0	-3.7	
> 정보화 기기 보유 여부(%) - 중복응답, 정보화 기기별 각 100.0%					
· PC		-	49.8	-	*'16인터넷이용실태조사(전국)
· 스마트폰		-	72.9	-	· PC(64.5%)
· 스마트패드		-	7.3	-	· 노트북(26.9%)
· 기타		-	0.0	-	· 스마트폰(88.5%)
· 없다		-	24.1	-	· 디지털 TV(82.2%) · 웨어러블기기(4.0%)
> 인터넷 이용 여부(%) - 정보화 기기 보유층에 한해					
· 사용함		-	91.5	-	*'16인터넷이용실태조사(전국) · 이용층(88.3%)
>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점)					
· 대중교통 여건		49.4	51.5	+2.1	
· 정보통신 여건		63.1	59.2	-3.9	

[환경·경관 부문]

문항		2013 (농어촌)	2017	차이	타자료 비교
> 상수도 종류(%)					
· 광역 및 지방 상수도		71.8	79.1	+7.3	※'15농림어업총조사
·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17.1	14.1	-3.0	· 상수도(63.4%) ·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33.1%)
· 자가 상수도(지하수, 우물)		10.8	6.8	-4.0	· 전용상수도(2.4%)
· 없음		0.2	0.0	-0.2	· 없음(1.1%)
> 하수도 종류(%)					
· 공공하수처리시설		78.2	86.0	+7.8	※'15농림어업총조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15.5	13.1	-2.4	· 공공하수처리시설(38.0%) · 마을하수처리시설(10.8%)
· 없다		6.3	0.9	-5.4	· 없음(51.2%)
> 쓰레기 처리 방법(%)					
생활 쓰레기	· 분리배출	78.0	87.4	+9.4	※'15농림어업총조사
	· 소각	19.2	13.8	-5.4	· 분리수거(83.1%) · 소각(13.0%)
음식물 쓰레기	· 분리배출	61.4	65.6	+4.2	※'15농림어업총조사
	· 매립	20.1	5.9	-14.2	· 분리수거(51.8%) · 매립(15.9%)
	· 기타(퇴비활용, 동물먹이 등)	12.2	28.3	+16.1	· 기타(30.6%)
재활용품	· 분리배출	86.6	99.3	+12.7	
	· 소각	9.5	0.5	-9.0	
폐농농자재 (농어가)	· 분리배출	63.5	96.3	+32.8	※'15농림어업총조사
	· 소각	28.5	1.3	-27.2	· 분리수거(77.6%) · 소각(6.9%)
	· 기타	4.3	2.1	-2.2	· 기타(14.2%)
>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 인식(%)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34.6	36.7	+2.1	※'16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촌)
· 전원생활공간 제공		18.6	14.0	-4.6	· 자연환경 보전(25.2%) · 전원생활 공간제공(7.5%)
· 관광·휴양공간 제공		10.9	5.4	-5.5	·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5.1%) · 전통문화의 계승(3.6%)
· 농어업 유산의 보존 계승		14.4	13.5	-0.9	· 국토의 균형발전(13.7%) · 안전한식품의 안정적 공급(42.2%)
·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11.9	17.6	+5.7	· 기타(0.7%)
· 식량의 안정적 공급		9.0	12.8	+3.8	· 무응답(2.0%)
· 기타		0.5	0.0	-0.5	

[안전 부문]

문항	2013 농어촌	2017	차이	타자로 비교	
> CCTV 문명여부(%)					
· CCTV 있음	-	72.8	-	※'15농림어업총조사 · 방법용 CCTV 설치(48.7%)	
>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로안전시설 확충	11.7	13.6	+1.9		
·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	18.6	16.4	-2.2		
· 가로등 확충	16.6	13.4	-3.2		
· CCTV 설치 확대	20.1	23.6	+3.5		
· 경찰 순찰 확대	7.0	8.5	+1.5		
·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12.0	9.1	-2.9		
·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	10.0	-		
·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	-	3.1	-		
· 주민 방범·순찰봉사 활동 확대	-	2.1	-		
· 기타	2.0	0.2	-1.8		
·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12.1	-	-		
> 마을 안전 체감도(%)					
범죄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55.7	-	※'16사회조사(전국, 13세 이상) · 범죄위험(안전한 편 9.2%) · 교통사고(안전한 편 10.3%) · 자연재해(안전한 편 20.7%)
보행·교통사고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43.2	-	
재난·재해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59.8	-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¹³⁾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 ~ 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13)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첨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 만족도	합계		3,995	54.8	0.59	1.1
	읍/면 여부	읍	1,711	54.6	1.12	2.1
		면	2,284	55.0	0.62	1.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4	0.74	1.3
		비농어가	2,655	54.5	0.77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4.9	1.23	2.2
		40대	707	53.8	1.19	2.2
		50대	810	54.1	0.90	1.7
		60대	630	55.2	0.74	1.3
		70대 이상	764	56.0	0.57	1.0
	이주의사	의향충	312	48.3	1.88	3.9
		비의향충	3,673	55.4	0.63	1.1
체감 만족도	합계		3,995	58.3	0.73	1.3
	읍/면 여부	읍	1,711	56.9	1.42	2.5
		면	2,284	59.4	0.72	1.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0.0	1.02	1.7
		비농어가	2,655	57.5	0.95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8.1	1.61	2.8
		40대	707	58.0	1.58	2.7
		50대	810	57.4	1.21	2.1
		60대	630	59.0	0.94	1.6
		70대 이상	764	59.5	0.75	1.3
	이주의사	의향충	312	50.7	2.23	4.4
		비의향충	3,673	59.0	0.79	1.3
차원 만족도	합계		3,995	51.3	0.57	1.1
	읍/면 여부	읍	1,711	52.3	0.92	1.8
		면	2,284	50.5	0.73	1.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0.9	0.69	1.3
		비농어가	2,655	51.5	0.71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1.8	1.09	2.1
		40대	707	49.6	1.15	2.3
		50대	810	50.8	0.84	1.7
		60대	630	51.4	0.73	1.4
		70대 이상	764	52.5	0.57	1.1
	이주의사	의향충	312	46.0	2.20	4.8
		비의향충	3,673	51.7	0.58	1.1

농어촌생활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기초생활기반	합계		3,995	51.3	0.90	1.8
	읍/면 여부	읍	1,711	53.7	1.48	2.7
		면	2,284	49.5	1.19	2.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1.0	1.10	2.1
		비농어가	2,655	51.5	1.12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0.9	1.80	3.5
		40대	707	49.0	2.37	4.8
		50대	810	51.5	1.33	2.6
		60대	630	52.9	1.25	2.4
		70대 이상	764	52.6	1.01	1.9
	이주의사	의향층	312	41.3	3.01	7.3
		비의향층	3,673	52.2	0.89	1.7
경제활동여건	합계		3,995	46.8	0.74	1.6
	읍/면 여부	읍	1,711	49.0	1.22	2.5
		면	2,284	45.1	0.95	2.1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5.2	0.96	2.1
		비농어가	2,655	47.5	0.94	2.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0.9	1.50	3.0
		40대	707	46.7	1.48	3.2
		50대	810	44.2	1.24	2.8
		60대	630	45.5	1.03	2.3
		70대 이상	764	44.7	0.87	2.0
	이주의사	의향층	312	44.8	2.72	6.1
		비의향층	3,673	46.9	0.74	1.6
교육 여건	합계		3,995	43.6	0.78	1.8
	읍/면 여부	읍	1,711	46.3	1.31	2.8
		면	2,284	41.6	0.96	2.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0.6	1.08	2.7
		비농어가	2,655	45.1	0.93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46.0	1.62	3.5
		40대	707	42.6	1.76	4.1
		50대	810	42.3	1.13	2.7
		60대	630	43.0	0.89	2.1
		70대 이상	764	43.0	0.93	2.2
	이주의사	의향층	312	40.3	2.69	6.7
		비의향층	3,673	43.9	0.76	1.7

농어촌생활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보건 의료	합계		3,995	45.8	0.84	1.8
	읍/면 여부	읍	1,711	47.6	1.25	2.6
		면	2,284	44.4	1.13	2.5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5.0	1.20	2.7
		비농어가	2,655	46.1	0.95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44.7	1.67	3.7
		40대	707	43.7	2.04	4.7
		50대	810	46.0	1.19	2.6
		60대	630	46.6	1.14	2.5
		70대 이상	764	48.2	1.0	2.1
	이주의사	의향층	312	38.3	2.51	6.5
		비의향층	3,673	46.4	0.85	1.8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합계		3,995	49.9	0.74	1.5
	읍/면 여부	읍	1,711	49.9	1.26	2.5
		면	2,284	49.8	0.86	1.7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9.4	1.13	2.3
		비농어가	2,655	50.1	0.84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49.5	1.69	3.4
		40대	707	49.8	1.41	2.8
		50대	810	48.6	1.18	2.4
		60대	630	50.9	1.01	2.0
		70대 이상	764	50.9	0.93	1.8
	이주의사	의향층	312	47.4	2.20	4.6
		비의향층	3,673	50.1	0.75	1.5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합계		3,995	42.2	0.83	2.0
	읍/면 여부	읍	1,711	42.6	1.40	3.3
		면	2,284	41.8	1.01	2.4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2.2	1.39	3.3
		비농어가	2,655	42.2	0.96	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42.4	1.75	4.1
		40대	707	39.0	1.63	4.2
		50대	810	42.6	1.20	2.8
		60대	630	41.9	1.03	2.5
		70대 이상	764	44.5	0.98	2.2
	이주의사	의향층	312	35.1	3.17	9.0
		비의향층	3,673	42.8	0.87	2.0

농어촌생활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환경 - 경관	합계		3,995	63.6	1.11	1.7
	음/면 여부	음	1,711	62.2	1.68	2.7
		면	2,284	64.6	1.47	2.3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4.8	1.49	2.3
		비농어가	2,655	63.0	1.30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63.8	1.87	2.9
		40대	707	61.1	1.73	2.8
		50대	810	63.2	1.63	2.6
		60대	630	63.4	1.33	2.1
		70대 이상	764	66.2	0.98	1.5
	이주의사	의향충	312	60.8	3.26	5.4
		비의향충	3,673	63.8	1.18	1.9
안전	합계		3,995	65.5	0.83	1.3
	음/면 여부	음	1,711	64.4	1.18	1.8
		면	2,284	66.4	1.17	1.8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7.1	1.20	1.8
		비농어가	2,655	64.7	0.93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63.2	1.51	2.4
		40대	707	63.9	1.63	2.6
		50대	810	66.8	1.10	1.6
		60대	630	65.5	1.03	1.6
		70대 이상	764	69.1	0.91	1.3
	이주의사	의향충	312	59.9	2.81	4.7
		비의향충	3,673	66.0	0.85	1.3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합계		1,558	61.0	0.32	0.5
	음/면 여부	음	397	60.6	0.47	0.8
		면	1,161	61.1	0.41	0.7
	영농 여부	농어가	887	61.0	0.43	0.7
		비농어가	671	60.9	0.31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59.5	1.13	1.9
		40대	177	61.3	0.73	1.2
		50대	266	60.3	0.63	1.0
		60대	358	60.6	0.46	0.8
		70대 이상	662	61.6	0.40	0.6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농어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합계		1,558	62.2	0.23	0.4
	음/면 여부	음	397	62.1	0.26	0.4
		면	1,161	62.2	0.30	0.5
	영농 여부	농어가	887	62.1	0.39	0.6
		비농어가	671	62.2	0.15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63.3	0.89	1.4
		40대	177	62.8	1.01	1.6
		50대	266	62.2	0.76	1.2
		60대	358	61.5	0.38	0.6
		70대 이상	662	62.2	0.14	0.2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합계		1,558	64.6	0.25	0.4
	음/면 여부	음	397	64.5	0.23	0.4
		면	1,161	64.7	0.32	0.5
	영농 여부	농어가	887	64.5	0.44	0.7
		비농어가	671	64.8	0.11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64.6	0.00	0.0
		40대	177	64.1	0.84	1.3
		50대	266	64.7	0.70	1.1
		60대	358	64.3	0.44	0.7
		70대 이상	662	64.9	0.20	0.3
농어업인 안전자해 보장제도	합계		1,558	55.7	0.23	0.4
	음/면 여부	음	397	55.6	0.41	0.7
		면	1,161	55.7	0.28	0.5
	영농 여부	농어가	887	55.6	0.39	0.7
		비농어가	671	55.8	0.13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55.7	0.00	0.0
		40대	177	55.7	0.71	1.3
		50대	266	54.8	0.89	1.6
		60대	358	55.7	0.41	0.7
		70대 이상	662	56.0	0.14	0.2
기초연금	합계		1,558	61.4	1.05	1.7
	음/면 여부	음	397	60.1	1.75	2.9
		면	1,161	61.9	1.28	2.1
	영농 여부	농어가	887	61.9	1.25	2.0
		비농어가	671	60.8	1.20	2.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5	54.2	4.40	8.1
		40대	177	62.5	2.22	3.5
		50대	266	59.6	1.52	2.6
		60대	358	60.7	1.39	2.3
		70대 이상	662	63.3	1.40	2.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5	61.6	0.65	1.1
읍/면 여부	읍	1,704	63.2	1.14	1.8
	면	2,282	60.4	0.78	1.3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61.6	0.85	1.4
	비농어가	2,647	61.7	0.91	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1	67.9	1.30	1.9
	40대	704	61.3	1.30	2.1
	50대	808	59.3	1.07	1.8
	60대	628	59.3	0.89	1.5
	70대 이상	764	57.4	0.62	1.1
현 거주지 고함 여부	이주민	2,338	62.9	0.88	1.4
	선주민	1,648	59.8	0.77	1.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11	65.5	1.91	2.9
	비이주의향층	3,667	61.3	0.64	1.0

난방비 지출기간

구분		n	평균(개월)	SE	RSE(%)
합계		3,975	4.8	0.05	1.1
읍/면 여부	읍	1,697	4.6	0.09	1.9
	면	2,278	4.9	0.07	1.5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0	0.08	1.5
	비농어가	2,635	4.7	0.06	1.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5	4.7	0.10	2.1
	40대	702	4.8	0.10	2.1
	50대	808	4.7	0.07	1.6
	60대	627	4.8	0.07	1.5
	70대 이상	763	5.0	0.06	1.2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55	4.8	0.10	2.1
	지역난방	245	4.1	0.04	1.1
	도시가스 보일러	1,207	4.6	0.12	2.5
	기름보일러	1,494	4.8	0.07	1.4
	화목보일러	210	5.2	0.20	3.8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37	4.8	0.22	4.5
	전기보일러	489	5.1	0.09	1.8
	연탄 보일러	90	5.3	0.10	1.9
	기타	22	5.1	0.16	3.2

난방비

구분		n	평균(만원)	SE	RSE(%)
합계		3,961	16.0	0.37	2.3
읍/면 여부	읍	1,688	14.4	0.46	3.2
	면	2,271	17.2	0.48	2.8
영농 여부	농어가	1,329	18.1	0.45	2.5
	비농어가	2,630	14.9	0.45	3.1
아파트	아파트	1,149	12.1	0.31	2.6
	비아파트	2,810	17.5	0.43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77	13.6	0.60	4.4
	40대	700	16.2	0.72	4.4
	50대	803	17.6	0.60	3.4
	60대	623	17.8	0.55	3.1
	70대 이상	756	15.9	0.40	2.5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55	19.2	4.94	25.7
	지역난방	245	13.1	0.68	5.2
	도시가스 보일러	1,215	12.6	0.61	4.8
	기름보일러	1,492	18.7	0.52	2.8
	화목보일러	202	15.1	1.48	9.8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30	17.4	0.67	3.8
	전기보일러	487	18.3	0.61	3.3
	연탄 보일러	88	11.4	0.71	6.2
	기타	21	12.6	1.37	10.9

주택에 대한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주택에 대한 만족도	합계	3,995	55.2	0.75	1.4	
	읍/면 여부	읍	1,711	56.5	1.34	2.4
		면	2,284	54.2	0.85	1.6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0	1.00	1.8
		비농어가	2,655	55.3	0.95	1.7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59.8	1.39	2.3
		비아파트	2,834	53.3	0.83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6.9	1.68	3.0
		40대	707	55.1	1.33	2.4
		50대	810	54.8	0.95	1.7
		60대	630	56.0	0.89	1.6
		70대 이상	764	52.6	0.82	1.5
	현 거주지 고령여부	이주민	2,345	57.0	0.99	1.7
		선주민	1,650	52.7	0.97	1.8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41.8	1.42	3.4
		1970년대	252	47.1	1.45	3.1
1980년대		524	49.9	1.55	3.1	
1990년대 이후		2,774	59.0	0.86	1.5	

주택에 대한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주택면적	합계		3,995	58.6	0.85	1.5
	읍/면 여부	읍	1,711	57.9	1.44	2.5
		면	2,284	59.1	1.01	1.7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0.2	1.07	1.8
		비농어가	2,655	57.8	1.08	1.9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59.8	1.57	2.6
		비아파트	2,834	58.1	0.99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8.0	1.85	3.2
		40대	707	57.4	1.65	2.9
		50대	810	59.2	1.10	1.9
		60대	630	60.4	1.00	1.6
		70대 이상	764	58.4	0.97	1.7
	현 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45	58.8	1.14	1.9
		선주민	1,650	58.3	1.09	1.9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45.8	1.89	4.1
		1970년대	252	54.0	1.64	3.0
		1980년대	524	54.4	1.75	3.2
		1990년대 이후	2,774	61.8	1.03	1.7
주택설비	합계		3,995	55.7	0.79	1.4
	읍/면 여부	읍	1,711	57.6	1.34	2.3
		면	2,284	54.2	0.94	1.7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55.8	1.05	1.9
		비농어가	2,655	55.6	1.03	1.8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60.5	1.31	2.2
		비아파트	2,834	53.7	0.94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8.0	1.68	2.9
		40대	707	54.8	1.39	2.5
		50대	810	55.1	1.12	2.0
		60대	630	56.5	1.01	1.8
		70대 이상	764	53.0	1.05	2.0
	현 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45	57.8	1.01	1.7
		선주민	1,650	52.7	1.07	2.0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41.4	1.61	3.9
		1970년대	252	46.8	1.62	3.5
		1980년대	524	50.3	1.83	3.6
		1990년대 이후	2,774	59.6	0.86	1.4

주택에 대한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주택구조	합계		3,995	57.0	0.77	1.4
	읍/면 여부	읍	1,711	58.1	1.41	2.4
		면	2,284	56.2	0.87	1.5
	명농 여부	농어가	1,340	56.5	1.05	1.9
		비농어가	2,655	57.2	0.94	1.6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61.6	1.43	2.3
		비아파트	2,834	55.1	0.86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7.4	1.87	3.3
		40대	707	58.1	1.18	2.0
		50대	810	56.5	1.00	1.8
		60대	630	58.3	0.92	1.6
		70대 이상	764	54.7	0.96	1.8
	현 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45	59.0	0.98	1.7
		선주민	1,650	54.1	1.03	1.9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44.7	1.40	3.1
		1970년대	252	48.5	1.62	3.3
		1980년대	524	52.6	1.49	2.8
		1990년대 이후	2,774	60.5	0.94	1.6
주택성능	합계		3,995	49.6	0.93	1.9
	읍/면 여부	읍	1,711	52.4	1.59	3.0
		면	2,284	47.5	1.11	2.3
	명농 여부	농어가	1,340	47.5	1.30	2.7
		비농어가	2,655	50.7	1.14	2.3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61	57.2	1.64	2.9
		비아파트	2,834	46.5	1.00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3	54.0	1.88	3.5
		40대	707	50.3	2.03	4.0
		50대	810	48.5	1.26	2.6
		60대	630	48.9	1.24	2.5
		70대 이상	764	44.5	1.02	2.3
	현 거주지 고향여부	이주민	2,345	52.5	1.18	2.3
		선주민	1,650	45.5	1.18	2.6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423	35.3	1.71	4.8
		1970년대	252	39.3	1.61	4.1
		1980년대	524	42.1	1.88	4.5
		1990년대 이후	2,774	54.2	1.04	1.9

경로당 이용 현황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611	100.0		
이용(합)	887	55.0	2.22	4.0
주1~2회	229	14.2	1.51	10.6
주3~4회	251	15.6	1.17	7.5
주 5회이상	407	25.3	2.02	8.0
비이용(합)	724	45.0	2.22	4.9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수요 대응형 택시)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82	100.0		
필요한 편(합)	2,369	59.5	2.21	3.7
매우 필요하다	1,028	25.8	1.94	7.5
필요한 편이다	1,341	33.7	1.73	5.1
보통(합)	897	22.5	1.58	7.0
필요하지 않은 편(합)	716	18.0	1.90	10.6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09	12.8	1.40	11.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7	5.2	1.09	20.9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수요 대응형 버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82	100.0		
필요한 편(합)	2,143	53.8	2.16	4.0
매우 필요하다	887	22.2	1.72	7.7
필요한 편이다	1,256	31.6	1.70	5.4
보통(합)	1,057	26.5	1.72	6.5
필요하지 않은 편(합)	782	19.6	1.87	9.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49	13.8	1.38	1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3	5.9	1.10	18.9

인터넷 이용 여부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2,774	91.5	0.96	1.1
읍/면 여부	읍	1,376	93.0	1.44	1.6
	면	1,398	90.1	1.35	1.5
영농 여부	농어가	763	87.8	1.89	2.2
	비농어가	2,011	93.0	1.03	1.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54	98.2	1.03	1.1
	40대	661	95.1	1.85	1.9
	50대	637	89.8	1.70	1.9
	60대	305	79.7	3.24	4.1
	70대 이상	116	68.6	3.05	4.5
보유한 정보화 기기	PC	1,951	98.0	0.47	0.5
	스마트폰	2,667	91.6	1.00	1.1
	스마트패드	292	99.4	0.34	0.3

대중교통 여건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8	51.5	1.12	2.2
읍/면 여부	읍	1,704	56.5	1.46	2.6
	면	2,284	47.8	1.54	3.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49.6	1.42	2.9
	비농어가	2,648	52.5	1.28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0	52.7	2.13	4.0
	40대	707	51.2	2.10	4.1
	50대	807	52.4	1.51	2.9
	60대	630	51.4	1.36	2.6
	70대 이상	761	49.3	1.35	2.7

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66	59.2	0.91	1.5
읍/면 여부	읍	1,690	61.8	1.32	2.1
	면	2,276	57.3	1.23	2.2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57.3	1.17	2.0
	비농어가	2,629	60.2	1.11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64	61.5	1.95	3.2
	40대	706	60.2	1.31	2.2
	50대	806	59.6	1.24	2.1
	60대	628	58.3	0.97	1.7
	70대 이상	763	55.6	0.96	1.7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866	100.0		
지방자치 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	881	22.8	0.96	4.2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마을 공동 수거함, 공동터 마련	793	20.5	0.98	4.8
음식물 쓰레기 등의 공동 퇴비장 마련	411	10.6	0.73	6.9
자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기적 유상 폐입, 수거	385	10.0	0.69	7.0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 제도	553	14.3	1.02	7.2
쓰레기 처리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	212	5.5	0.66	12.0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627	16.2	0.98	6.0
기타	4	0.1	0.05	47.1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45	100.0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작물사업 활성화	1,352	34.3	1.99	5.8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	858	21.8	1.29	5.9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696	17.6	1.20	6.8
주민들의 경관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995	25.2	1.43	5.7
기타	43	1.1	0.60	54.1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70	100.0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1,456	36.7	1.59	4.3
전원생활 공간 제공	557	14.0	0.92	6.6
관광/휴양 공간 제공	214	5.4	0.75	13.9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536	13.5	1.17	8.7
국토의 균형 발전	698	17.6	1.46	8.3
식량의 안정적 공급	508	12.8	1.11	8.7

CCTV 설치 여부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2,908	72.8	2.60	3.6
읍/면 여부	읍	1,350	78.9	3.87	4.9
	면	1,558	68.2	3.70	5.4
영농 여부	농어가	879	65.6	2.92	4.5
	비농어가	2,028	76.4	3.23	4.2
아파트 여부	아파트	1,132	97.5	1.22	1.3
	비아파트	1,775	62.7	3.21	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28	85.7	3.53	4.1
	40대	528	74.6	4.33	5.8
	50대	537	66.3	3.64	5.5
	60대	419	66.5	2.80	4.2
	70대 이상	495	64.8	2.73	4.2

마을 순찰 횟수

구분		n	평균(회)	SE	RSE(%)
합계		2,903	2.2	0.24	11.2
읍/면 여부	읍	1,180	1.8	0.12	6.5
	면	1,723	2.5	0.40	16.3
영농 여부	농어가	1,019	1.8	0.10	5.6
	비농어가	1,884	2.4	0.36	15.0

마을 도로 보수 개선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95	100.0		
굴곡(급커브)	259	6.5	0.77	11.8
급경사	197	4.9	0.78	16.0
좁은 도로폭	1,019	25.5	1.68	6.6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울타리 설치	215	5.4	0.73	13.6
도로 포장	295	7.4	1.04	14.1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	421	10.5	0.91	8.7
가로등 확대 설치	416	10.4	1.08	10.4
기타	70	1.8	0.35	20.0
특별히 없다	1,104	27.6	2.10	7.6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58	100.0		
도로 안전 시설 확충	539	13.6	0.88	6.5
안전한 보행자 길 정비	649	16.4	0.81	4.9
가로등 확충	530	13.4	0.77	5.8
CCTV 설치 확대	936	23.6	1.09	4.6
경찰 순찰 확대	334	8.5	0.74	8.8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361	9.1	0.70	7.7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396	10.0	0.80	8.0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	122	3.1	0.39	12.7
주민 방범 순찰 봉사 활동 확대	83	2.1	0.26	12.6
기타	8	0.2	0.06	29.4

마을 안전 체감도(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82	100.0		
매우 그렇다	275	6.9	1.03	15.0
그런 편이다	1,944	48.8	1.81	3.7
안전한 편(합)	2,219	55.7	2.06	3.7
보통(합)	1,438	36.1	1.98	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2	7.8	0.88	11.3
전혀 그렇지 않다	14	0.3	0.13	37.2
안전 하지 않은 편(합)	325	8.2	0.89	10.9

마을 안전 체감도(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82	100.0		
매우 그렇다	213	5.3	0.85	15.8
그런 편이다	1,508	37.9	1.79	4.7
안전한 편(합)	1,721	43.2	2.02	4.7
보통(합)	1,699	42.7	2.04	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7	12.2	1.04	8.5
전혀 그렇지 않다	74	1.9	0.52	27.9
안전 하지 않은 편(합)	562	14.1	1.24	8.8

마을 안전 체감도(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73	100.0		
매우 그렇다	408	10.3	1.23	11.9
그런 편이다	1,968	49.5	1.88	3.8
안전한 편(합)	2,377	59.8	2.08	3.5
보통(합)	1,407	35.4	2.14	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5	3.9	0.57	14.5
전혀 그렇지 않다	34	0.9	0.33	38.6
안전 하지 않은 편(합)	189	4.8	0.75	15.7

1999年12月31日 2000年12月31日 2001年12月31日 2002年12月31日

2003年12月31日 2004年12月31日 2005年12月31日 2006年12月31日

2007年12月31日 2008年12月31日 2009年12月31日 2010年12月31日

2011年12月31日 2012年12月31日 2013年12月31日 2014年12月31日

2015年12月31日 2016年12月31日 2017年12月31日 2018年12月31日

2019年12月31日 2020年12月31日 2021年12月31日 2022年12月31日

2023年12月31日 2024年12月31日 2025年12月31日 2026年12月31日

2027年12月31日 2028年12月31日 2029年12月31日 2030年12月31日

2031年12月31日 2032年12月31日 2033年12月31日 2034年12月31日

2035年12月31日 2036年12月31日 2037年12月31日 2038年12月31日

2039年12月31日 2040年12月31日 2041年12月31日 2042年12月31日

2043年12月31日 2044年12月31日 2045年12月31日 2046年12月31日

2047年12月31日 2048年12月31日 2049年12月31日 2050年12月31日

2051年12月31日 2052年12月31日 2053年12月31日 2054年12月31日

2055年12月31日 2056年12月31日 2057年12月31日 2058年12月3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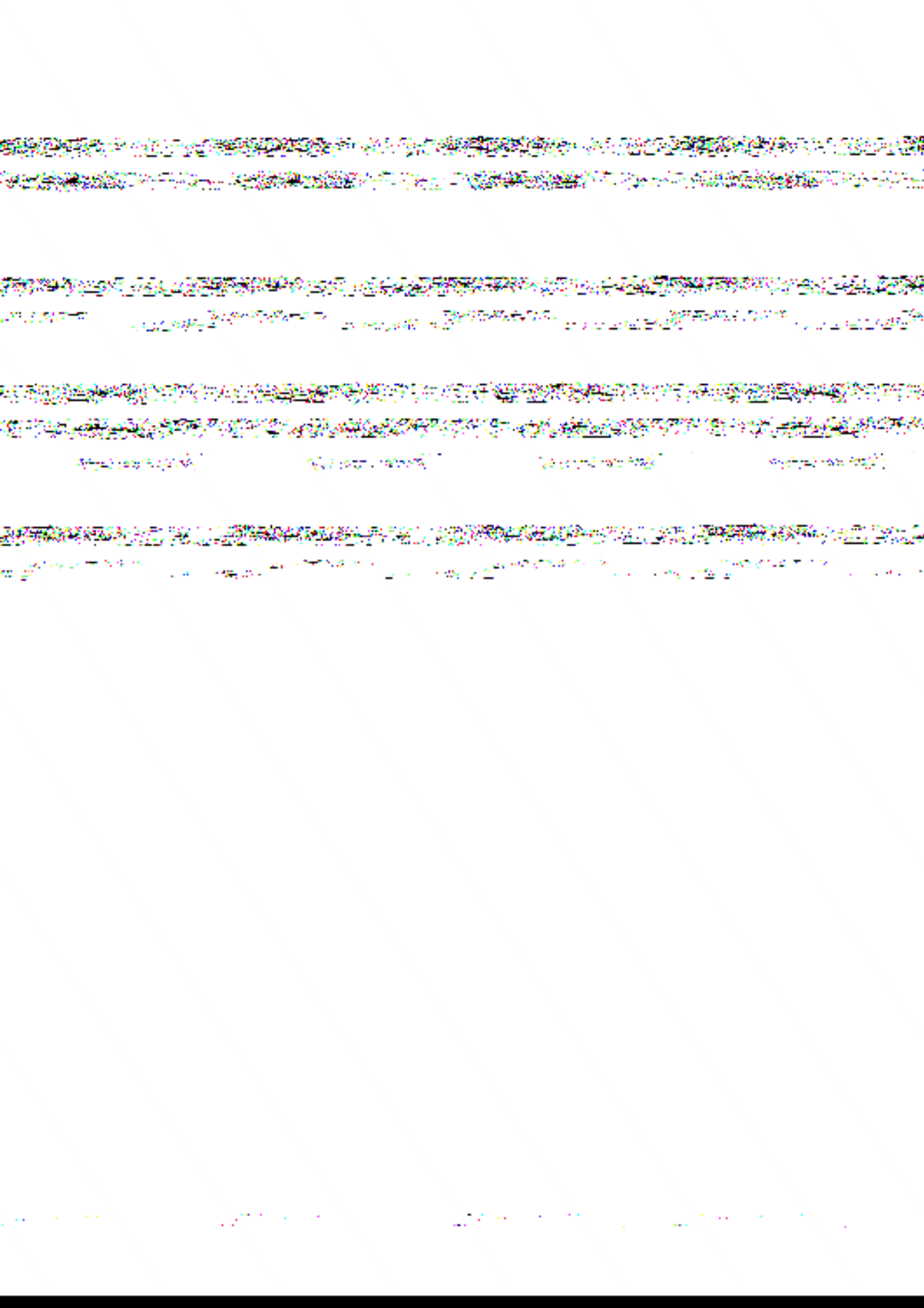
4. 1990年12月15日，在《人民日报》发表署名文章《中国要警惕“新左派”的泛滥》。











05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ID	층 번호	0파트 여부	키	값	업	자	리	거처 번 호
----	---------	-----------	---	---	---	---	---	-----------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전국 농어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조사 부문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에 관한 문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심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면접원 이름

조사	방문일자	방문시간	대체	방문일자	방문시간
1회 방문	월 일	:	1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비고	(화수 예정 시간 및 대체사유 등)		비고	(대체 전 원표본 주소)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도로명 주소	()광역시/도 ()시/군/구 ()		
상세주소		연락처	()-()-()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2017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어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에 관한 문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무응답과 오류 문항 점검을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 이용하게 됩니다.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주시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일



농촌진흥청

참여자 : (서명)

조사자 : (서명)

2017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2017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9월 일

수령인 : (서명)

가구원 및 생활 전반 (1~11번)

1.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귀댁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되 결혼해 분가한 가족은 제외하고, 맨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 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숫자를 각 칸에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 년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종사 자 지위	동거 여부	별거 사유	결혼이민 여부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중복 여부	주요 장애 종류	등급
01	가구주		년												급
02	가구주 배우자		년												급
03			년												급
04			년												급
05			년												급
06			년												급
07			년												급
08			년												급
총 _____명			동거 가구원			명	농어가		① 농어가(가족 중 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별거 가구원			명	여부								

※ [주요 장애종류, 등급] 중복장애인 경우, 주요 장애 하나만 표시하되,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함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동거 여부	별거 사유	결혼이민 여부	출신국가	장애 여부	장애종류
				직업*	종사지위						
③ 가구주의 자녀	① 남 ② 여	① 미혼 ② 기혼	① 무학 ② 가맹양육 ③ 어린이집 ④ 유치원 ⑤ 초등학교 ⑥ 중학교 ⑦ 고등학교 ⑧ 대학교 ⑨ 대학원 이상	*구체적 으로 작성 (조사 후 요론직업 분류에 따라 분류)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별거	① 타지역 직장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알려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① 이민 ② 비이민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캄보디아 ⑥ 태국 ⑦ 네팔 ⑧ 우즈베크 ⑨ 기타	장애 여부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정신 ⑥ 신경 ⑦ 호흡기 ⑧ 기타 ⑨ 중복 ⑩ 단일
④ 자녀의 배우자	③ 사별 ④ 이혼										
⑤ 손자녀/ 그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구원 중 일부 수급가구 포함)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3. [연간 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와 저축액] [2016년('16.1.1.~12.31.) 소득을 기준으로] 귀댁의 1년 동안의 총 가구소득과 월평균 생활비와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3-1. 연간 총 가구소득	3-2. 월평균 생활비	3-3. 월평균 저축액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 [가구소득]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의 합계임

※ [생활비] 저축, 저축성보험료(재산증식 지출), 부채/이자 상환(부채관련 지출), 사업용도 비용 등은 제외함

4. [이주 시기] 귀댁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 거주지 기준이며, 여성 응답자가 혼인 시 이주하여 계속 사는 경우는 가구주입점을 기준으로 작성함

① ()년도부터 살고 있다

②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년도부터 살고 있다 ③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문 5번** 으로 가십시오.

- 4-1. 지금 살고 있는 곳 직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동)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5. [이주 의사] 귀댁은 향후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문 6번** 으로 가십시오.



- 5-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 지역 읍

③ 다른 시/군의 농어촌 지역 면

④ 중소도시(동)

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⑥ 기타 (→ 해외파견, 이민,)

- 5-2.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③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⑧ 기타 (→)

6~7[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삶에서 다음의 각 부문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6. 중요도					7.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은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01)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2)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3)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4)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5)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6) 부모·자녀·부부 관계 등 가족 생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7)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8)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양성평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9)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농촌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이용 경험·만족도] 귀하는 농촌주민(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은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다➡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물어본 적 있다➡						
	③ 모른다↓	② 없다↓					
(2)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다➡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물어본 적 있다➡						
	③ 모른다↓	② 없다↓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상제도	① 잘 알고 있다➡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물어본 적 있다➡						
	③ 모른다↓	② 없다↓					
(4) 기초연금	① 잘 알고 있다➡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물어본 적 있다➡						
	③ 모른다↓	② 없다↓					

9.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한 편이다 ⑤ 매우 행복하다

11. [행복의 영향 요인]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 ② 건강 ③ 경제적 안정
④ 일/직업 ⑤ 문화 및 여가(취미)활동 ⑥ 지역 생활 환경
⑦ 대인관계(친구, 이웃, 지인 등) ⑧ 기타(→)

기초생활여건 (12~26번)

12. [주택 건축·신축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언제 건축(신축)하셨습니까?

()년도

13. [주택 점유형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통부 월세, 사글세) ④ 무상

14. [주택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 **문 15번**으로 가십시오.

14-1. 지붕의 주된 재료는 무엇입니까?

- ① 슬레이트 ② 기와 ③ 슬래브 ④ 함석 ⑤ 기타(→)

15. [주택 수리 여부] [2016년(‘16.1.1.~12.31.)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개축 ② 증축 ③ 기타(→) ④ 없다
↓ ↳ **문 16번**으로 가십시오.

15-1. 어떤 종류의 수리를 하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 ②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 ③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 ④ 전기(누전), 누수공사
☐ ⑤ 상하수도 공사 ☐ ⑥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 ⑦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 ⑧ 대수선방 확장, 거실 확장, 주방 확장 등
☐ ⑨ 기타 (→)

16. [주택의 방 개수·건평]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방 개수와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16-1. 방 개수	16-2. 건평
_____ 개	_____ m ²

※ [방 개수] 사용하는 방 기준으로, 방 개수에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거실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포함함

※ [건 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면적 기준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운 경우, 그 면적은 제외함

17. [주택의 설비 현황]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각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용 형태와 종류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사용 형태	종류
(1) 부엌	① 단독사용(→)	① 입식 ② 재래식
	② 공동사용(→)	
	③ 없다(↓)	
(2) 화장실	① 단독사용: _____ 개(→)	① 수세식 (개) ② 재래식 (개)
	② 공동사용(→)	
	③ 없다(↓)	
(3) 목욕 시설	① 단독사용(→)	① 온수 ② 비온수
	② 공동사용(→)	
	③ 없다(↓)	
(4) 난방 시설	① 설치되어 있다(→)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화목 보일러 ⑥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⑦ 전기 보일러 ⑧ 연탄 보일러 ⑨ 기타 (→)
	② 설치되어 있지 않다	

18. [난방 사용 기간 및 난방비] 귀대에서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1) 난방비 지출 기간	(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월 ~ ()월	()만원

※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주거용 난방비를 기준으로 하며, 장마철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는 제외함

19. [난방환경 개선 방안] 귀하는 농어촌의 난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후화된 난방시설 개·보수 ② 주택 벽체 단열 시공
③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 ④ 겨울철 공동시설 이용 ⑤ 기타 (→)

20. [주택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주택 면적	①	②	③	④	⑤
(2) 주택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구조(공간/시설 배치, 동선)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성능(내열, 내화, 방열, 방습)	①	②	③	④	⑤



‘본인을 포함,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21. [경로당 이용 현황] 귀댁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주일에 경로당을 몇 회 이용하십니까?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회 이상 ④ 이용하지 않는다



↳ 문 22번 으로 가십시오

21-1. [경로당 이용 시간] 하루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하루 1시간 이내 ② 하루 1시간~3시간 이내
③ 하루 3시간~5시간 이내 ④ 하루 5시간 이상

21-2. [경로당 이용 목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마을 주민과의 유대, 친교 ② 공동 식사, 난방 등 생활비용 절감
③ 농업, 복지 정보 등 공유 ④ 건강·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

22. [대중교통 이용 가능 횟수]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버스를 하루에 몇 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하루 1회 ③ 하루 2회 ④ 하루 3회
⑤ 하루 4회 ⑥ 하루 5회 ⑦ 하루 6~10회 ⑧ 하루 11회 이상

23. [주요 이용 교통수단] 귀하는 시장, 병원, 복지관 등을 갈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걸어서 ② 자전거 ③ 오토바이 ④ 버스
⑤ 승용차 ⑥ 택시 ⑦ 복지관 차량 ⑧ 기타 (→)

24. [수요 대응형 교통 필요 정도·인지여부·연간 이용 횟수·이용 목적] 귀하는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본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운행하는 교통편**이 농어촌지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구분	필요 정도(모두 응답)	인지 여부	연간 이용 횟수	이용 목적
(1) 택시 (화랑/마중/행복/ 100원따복 택시 등)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① ____ 회(→) ② 없다(↓)	① 장보기 ② 병원 ③ 친척·가족·친구 만남 ④ 복지관 ⑤ 기타 (→)
(2) 버스 (콜/마중 버스 등)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① ____ 회(→) ② 없다(↓)	① 장보기 ② 병원 ③ 친척·가족·친구 만남 ④ 복지관 ⑤ 기타 (→)

25. [정보화기기 보유] 귀댁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PC(데스크탑, 노트북) ☐ ②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
☐ ③ 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 ④ 기타 (→)



- ☐ ⑤ 없다 → **문 26번** 으로 가십시오.

- 25-1. [인터넷 이용 경험] 귀댁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① 사용한다 [☐ 유선 ☐ 무선]



- 25-2. [인터넷 이용 이유]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인터넷 쇼핑
☐ 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이나 학습
☐ ③ 뉴스 등 시사정보 탐색
☐ ④ 게임, 음악듣기, TV시청, 영화감상
☐ 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 ⑥ 기타 (→)

- 25-3. [인터넷 이용 불편한 점]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느린 속도 ② 이용 방법이 어려움
 ③ 이용 비용 부담 ④ 기타 (→)
 ⑤ 특별히 없다

☐ ② 사용하지 않는다



- 25-4. [인터넷 미이용 이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 ② 이용할 자원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 ③ 이용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④ 유해사이트 등 콘텐츠 내용이 해로울 것 같아서
☐ 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서
☐ ⑥ 기타 (→)

26.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대중교통여건	①	②	③	④	⑤
(2) 정보통신여건	①	②	③	④	⑤

※ [정보통신여건]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무선 등의 활동 여건을 의미함

환경·경관 (27~36번)

27. [상수도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광역 및 지방 상수도 ②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차가 상수도(지하수, 우물) ④ 없다

28. [하수도 종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③ 없다

29. [환경 체감도 및 주된 오염 원인]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각 부문별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염의 주된 원인] 지역의 환경에 '매우 나쁘다'나 '나쁜 편이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함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오염의 주된 원인
(1) 대기	①	②	③	④	⑤	① 지역공장 매연, 배출먼지 ② 자동차 배기가스 ③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④ 쓰레기 등 소각 ⑤ 기타 (→)
(2) 수질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①	②	③	④	⑤	① 생활하수 ② 산업폐수 ③ 농·축산 폐수 ④ 가축의 분뇨 ⑤ 기타 (→)
(3) 토양	①	②	③	④	⑤	① 산업 폐기물 ② 쓰레기 투기·매립 ③ 농약·비료 ④ 기타 (→)
(4) 소음, 진동	①	②	③	④	⑤	① 공장 ② 건설작업, 공사장 ③ 자동차 ④ 철도 ⑤ 기타 (→)
(5) 악취	①	②	③	④	⑤	① 공장 ② 하수 처리장 ③ 축사 ④ 쓰레기 투기·매립 ⑤ 기타 (→)

30. [쓰레기 처리 방법] 귀댁은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구분	분리 배출	투기	매립	소각	기타
(1) 생활쓰레기	①	②	③	④	⑤ (→)
(2) 음식물쓰레기	①	②	③		④ (→ 퇴비화용, 동물먹이)
(3) 재활용물(유리병, 플라스틱, 철, 종이 등)	①	②	③	④	⑤ (→)
(4) 폐영농자재(페비닐, 폐농약병 등)	①	②	③	④	⑤ (→)

※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타'에 표기하고,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함

31.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귀하는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
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	②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마을 공동수거함, 공동터 마련
③ 음식물 쓰레기 등의 공동퇴비장 마련	④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기적 유상 매입, 수거
⑤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제도	⑥ 쓰레기 처리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⑦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⑧ 기타 (→)

32.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 오염 ② 수질 오염 ③ 토양 오염 ④ 소음, 진동
 ⑤ 악취 ⑥ 쓰레기 ⑦ 기타 (→) ⑧ 특별히 없다

33. [경관 인식]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경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문에 대하여 해당 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 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마을 안길에서 바라본 주택, 화단, 울타리, 정원, 나무, 대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주택, 마을 도로, 경작지, 정자, 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3) 마을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서 바라본 주택 배치, 주택 지붕, 마을숲, 스카이라인 등	①	②	③	④	⑤

34. [경관 저해요인] 귀하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
① 빈집·빈터	② 버려진 생활쓰레기
④ 아파트, 고층 구조물	⑤ 인공구조물(교량, 웅벽, 고가도로)
⑦ 태양광 발전 시설	⑧ 불법 현수막, 스티커
⑩ 공장	⑪ 무덤
	③ 버려진 폐영농자재
	⑥ 송전탑, 전신주, 전선
	⑨ 옥외 광고물(간판)
	⑫ 기타 (→)

35.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 방안] 귀하는 농어촌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작물사업 활성화
 ②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
 ③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④ 주민들의 경관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⑤ 기타 (→)

36.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귀하는 농어업·농어촌이 지니는 주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② 전원생활공간 제공 ③ 관광휴양공간 제공
 ④ 농어업 유산의 보존 계승 ⑤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⑥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⑦ 기타 (→)

V. 안전 (37~45번)

37. [CCTV 운영 여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까?

① 있다



37-1. [CCTV 설치 장소] CCTV가 설치된 곳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마을 출입구 ☐ ② 주요 도로 주변
☐ ③ 골목길 ☐ ④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
☐ ⑤ 버스 정류장 주변 ☐ ⑥ 경작지 주변
☐ ⑦ 학교 주변 ☐ ⑧ 기타 (→)

37-2. [CCTV 도움 이유] 설치된 CCTV가 어떤 면에서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범죄 예방 ② 농산물 절도 예방
 ③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④ 불법 주정차 단속
 ⑤ 재난 대비 ⑥ 기타 (→)

② 없다



37-3. [CCTV 필요 설치 장소] 마을 및 마을주변에 CCTV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마을 출입구
 ② 주요 도로 주변
 ③ 골목길
 ④ 마을회관, 노인정 주변
 ⑤ 버스 정류장 주변
 ⑥ 경작지 주변
 ⑦ 학교 주변
 ⑧ 기타 (→)

44. [마을 안전 체감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은 보행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5. [지역사회 안전 인식]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01) 오래된 빈 집이나 관리되지 않은 공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공용시설, 전봇대, 벽에 광고 부착물이나 낙서가 있어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03) 길거리나 공터에 방치된 녹슨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4) 길거리, 하천,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버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05) 주변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밀려들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6) 주변 도로에 화물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자주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07) 길에 불법 주차된 차가 많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08) 길에 턱이 있거나 경사가 저서 걸거나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09) 낮에 집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집에 혼자 있으면 두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밤에 여성 혼자 동네 길을 걸어다니면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네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가로등 불빛이 환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

2017
농어업인복지실태
조 사 보 고 서

Survey on the Rural Well-being

기초생활예건 | 환경·관광 | 안전